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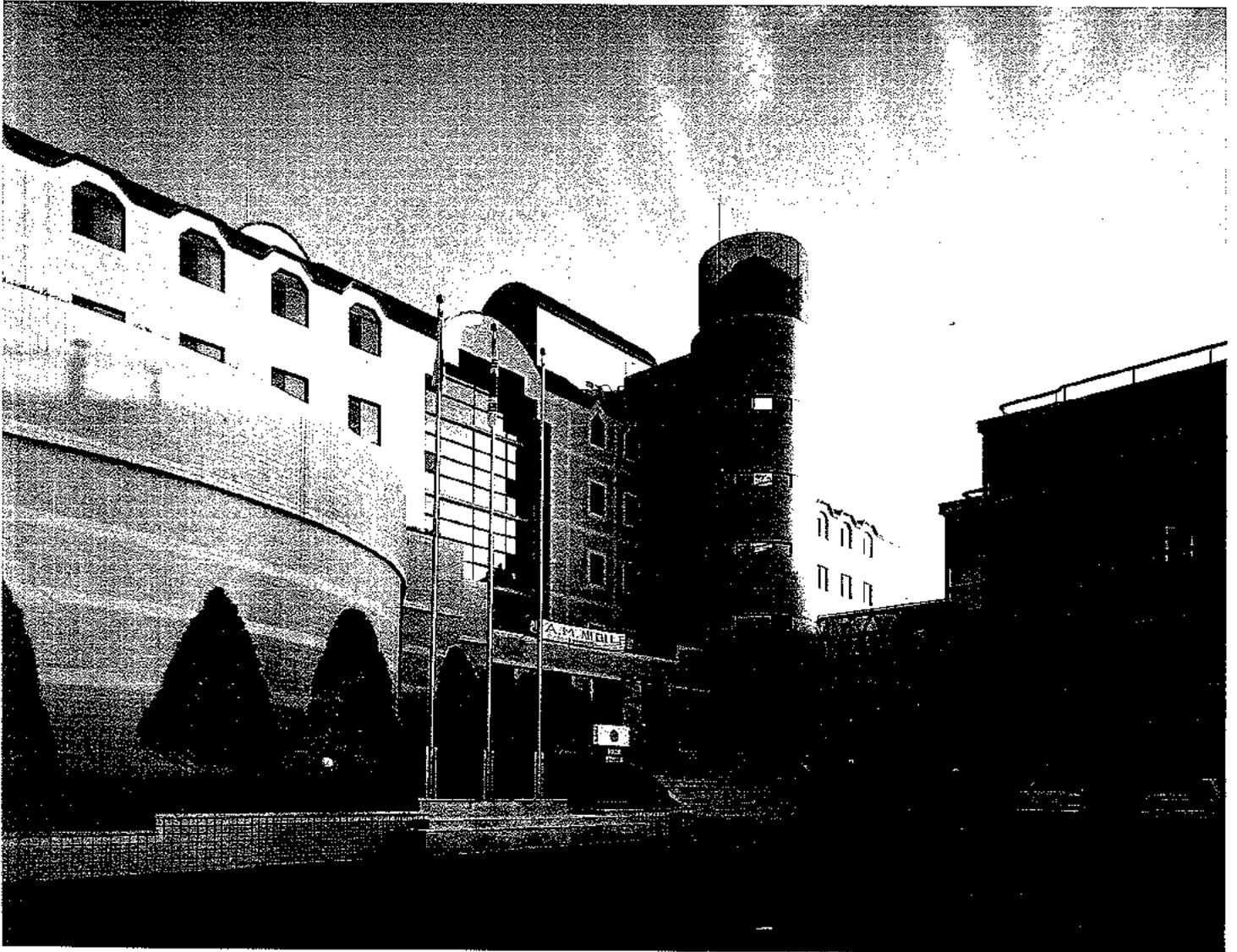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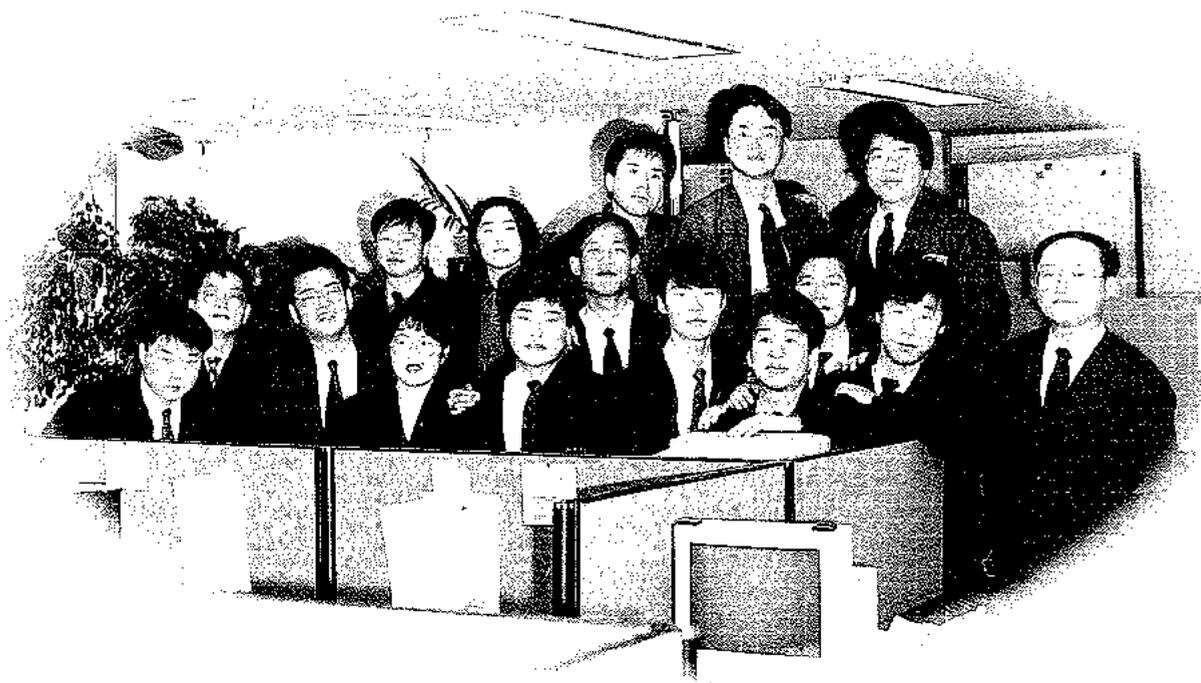
December 1992

月刊 建築士 1992년 12월호
종간 284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6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사)라-26
1985년 12월 31일 제13공우판물
(나)급인가



12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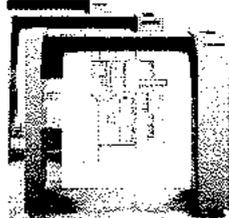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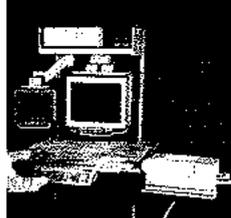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안정적인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계비지선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진한글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 건축CAD 3D 렌더링, 모형링 운영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비평으로 인한 교육
- 체계적인 단기간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알선

애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차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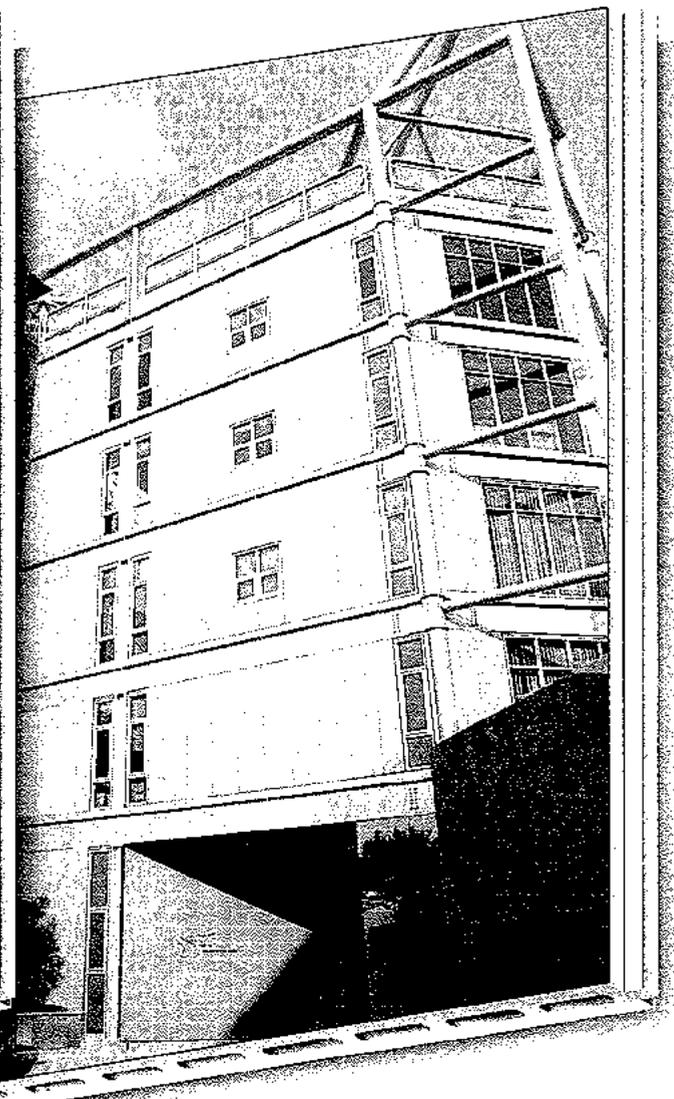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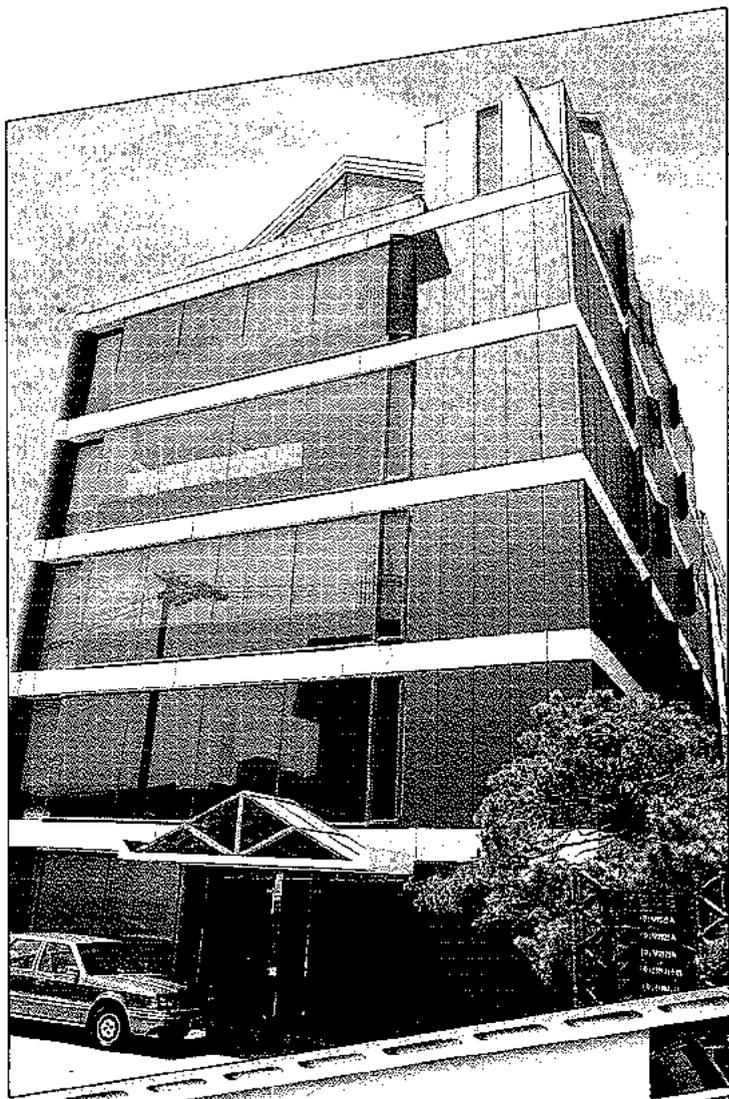
건축 CAD 전문회사

주식회사 건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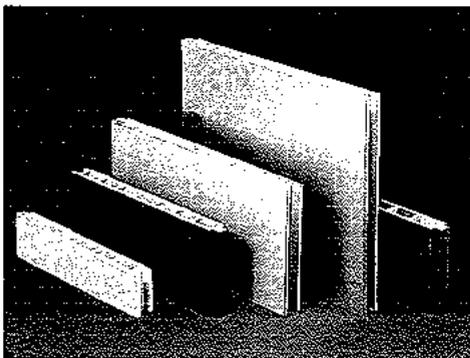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4층

대표전화 584-6480 FAX 587-1803

CAD 연구소 : 서울 강남구 포이동 TEL : 578-5697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간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주식 벽산
회사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무이자

36개월

CAD Turn-Key System 및 주변기기 특별금융상품



1000만원 상당의 CAD TURN KEY SYSTEM 구입시
최소 200만원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분할하여 구입할수 있습니다.

1. 36개월 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2~3천만원 이상 CAD SYSTEM 을 구입하고 싶어도 자금부담으로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
2. 1000만원대 이하의 ARRIS Turn-Key System AutoCAD Turn-Key System
3. 유일 Detail Libray지원 (AutoCAD,ARRIS용)

●대상품목
- ARRIS Turn-Key System
- AutoCAD Turn-Key System
- 기타 주변기기 일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서를 COPY한후 FAX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서

빌리언시스템 CAD담당자앞

회사명 _____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활용업무 (구체적으로) _____

ARRIS

ARRIS가 실현 합니다.



■작업 시간 단축

중산지구 아파트(1960세대,780세대,980세대)
설계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리던
설계작업을 불과 20일 만에 끝냄.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450개

한글 단/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배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구조일람표

철근(보, 슬라브,기둥)과 철골접합상세등

◎해인슈퍼하우징◎

인공 지능3S를 채택! (Simple, Speed, Smart)

- 해인슈퍼하우징의 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현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ARRIS의 특징◎

최종사용자에게 친화적 건물정보 CAD & VV
 독자 MATHS INTERACT 및 CAD의 인공 지능 프로그래밍
 원근 SCHEMATIC DESIGN, 관계데이터 관리, 체계화한 3D SIGNATURE 등
 WINTEL O/S 사용으로 MULTIMEDIA 기능을
 비전 MATHS, 방위측량, 측량용 프로그램
 ISO MATHS, 비전, 측량용, 해안측량, 측량용, 측량용 등
 해안측량, 비전, 측량용, 측량용, 측량용, 측량용 등
 각종 계급의 DATA BASE를 통한 데이터 관리 기능
 2D, 3D, 4D, 5D, 6D, 7D, 8D, 9D, 10D, 11D, 12D, 13D, 14D, 15D, 16D, 17D, 18D, 19D, 20D, 21D, 22D, 23D, 24D, 25D, 26D, 27D, 28D, 29D, 30D, 31D, 32D, 33D, 34D, 35D, 36D, 37D, 38D, 39D, 40D, 41D, 42D, 43D, 44D, 45D, 46D, 47D, 48D, 49D, 50D, 51D, 52D, 53D, 54D, 55D, 56D, 57D, 58D, 59D, 60D, 61D, 62D, 63D, 64D, 65D, 66D, 67D, 68D, 69D, 70D, 71D, 72D, 73D, 74D, 75D, 76D, 77D, 78D, 79D, 80D, 81D, 82D, 83D, 84D, 85D, 86D, 87D, 88D, 89D, 90D, 91D, 92D, 93D, 94D, 95D, 96D, 97D, 98D, 99D, 100D, 101D, 102D, 103D, 104D, 105D, 106D, 107D, 108D, 109D, 110D, 111D, 112D, 113D, 114D, 115D, 116D, 117D, 118D, 119D, 120D, 121D, 122D, 123D, 124D, 125D, 126D, 127D, 128D, 129D, 130D, 131D, 132D, 133D, 134D, 135D, 136D, 137D, 138D, 139D, 140D, 141D, 142D, 143D, 144D, 145D, 146D, 147D, 148D, 149D, 150D, 151D, 152D, 153D, 154D, 155D, 156D, 157D, 158D, 159D, 160D, 161D, 162D, 163D, 164D, 165D, 166D, 167D, 168D, 169D, 170D, 171D, 172D, 173D, 174D, 175D, 176D, 177D, 178D, 179D, 180D, 181D, 182D, 183D, 184D, 185D, 186D, 187D, 188D, 189D, 190D, 191D, 192D, 193D, 194D, 195D, 196D, 197D, 198D, 199D, 200D, 201D, 202D, 203D, 204D, 205D, 206D, 207D, 208D, 209D, 210D, 211D, 212D, 213D, 214D, 215D, 216D, 217D, 218D, 219D, 220D, 221D, 222D, 223D, 224D, 225D, 226D, 227D, 228D, 229D, 230D, 231D, 232D, 233D, 234D, 235D, 236D, 237D, 238D, 239D, 240D, 241D, 242D, 243D, 244D, 245D, 246D, 247D, 248D, 249D, 250D, 251D, 252D, 253D, 254D, 255D, 256D, 257D, 258D, 259D, 260D, 261D, 262D, 263D, 264D, 265D, 266D, 267D, 268D, 269D, 270D, 271D, 272D, 273D, 274D, 275D, 276D, 277D, 278D, 279D, 280D, 281D, 282D, 283D, 284D, 285D, 286D, 287D, 288D, 289D, 290D, 291D, 292D, 293D, 294D, 295D, 296D, 297D, 298D, 299D, 300D, 301D, 302D, 303D, 304D, 305D, 306D, 307D, 308D, 309D, 310D, 311D, 312D, 313D, 314D, 315D, 316D, 317D, 318D, 319D, 320D, 321D, 322D, 323D, 324D, 325D, 326D, 327D, 328D, 329D, 330D, 331D, 332D, 333D, 334D, 335D, 336D, 337D, 338D, 339D, 340D, 341D, 342D, 343D, 344D, 345D, 346D, 347D, 348D, 349D, 350D, 351D, 352D, 353D, 354D, 355D, 356D, 357D, 358D, 359D, 360D, 361D, 362D, 363D, 364D, 365D, 366D, 367D, 368D, 369D, 370D, 371D, 372D, 373D, 374D, 375D, 376D, 377D, 378D, 379D, 380D, 381D, 382D, 383D, 384D, 385D, 386D, 387D, 388D, 389D, 390D, 391D, 392D, 393D, 394D, 395D, 396D, 397D, 398D, 399D, 400D, 401D, 402D, 403D, 404D, 405D, 406D, 407D, 408D, 409D, 410D, 411D, 412D, 413D, 414D, 415D, 416D, 417D, 418D, 419D, 420D, 421D, 422D, 423D, 424D, 425D, 426D, 427D, 428D, 429D, 430D, 431D, 432D, 433D, 434D, 435D, 436D, 437D, 438D, 439D, 440D, 441D, 442D, 443D, 444D, 445D, 446D, 447D, 448D, 449D, 450D, 451D, 452D, 453D, 454D, 455D, 456D, 457D, 458D, 459D, 460D, 461D, 462D, 463D, 464D, 465D, 466D, 467D, 468D, 469D, 470D, 471D, 472D, 473D, 474D, 475D, 476D, 477D, 478D, 479D, 480D, 481D, 482D, 483D, 484D, 485D, 486D, 487D, 488D, 489D, 490D, 491D, 492D, 493D, 494D, 495D, 496D, 497D, 498D, 499D, 500D, 501D, 502D, 503D, 504D, 505D, 506D, 507D, 508D, 509D, 510D, 511D, 512D, 513D, 514D, 515D, 516D, 517D, 518D, 519D, 520D, 521D, 522D, 523D, 524D, 525D, 526D, 527D, 528D, 529D, 530D, 531D, 532D, 533D, 534D, 535D, 536D, 537D, 538D, 539D, 540D, 541D, 542D, 543D, 544D, 545D, 546D, 547D, 548D, 549D, 550D, 551D, 552D, 553D, 554D, 555D, 556D, 557D, 558D, 559D, 560D, 561D, 562D, 563D, 564D, 565D, 566D, 567D, 568D, 569D, 570D, 571D, 572D, 573D, 574D, 575D, 576D, 577D, 578D, 579D, 580D, 581D, 582D, 583D, 584D, 585D, 586D, 587D, 588D, 589D, 590D, 591D, 592D, 593D, 594D, 595D, 596D, 597D, 598D, 599D, 600D, 601D, 602D, 603D, 604D, 605D, 606D, 607D, 608D, 609D, 610D, 611D, 612D, 613D, 614D, 615D, 616D, 617D, 618D, 619D, 620D, 621D, 622D, 623D, 624D, 625D, 626D, 627D, 628D, 629D, 630D, 631D, 632D, 633D, 634D, 635D, 636D, 637D, 638D, 639D, 640D, 641D, 642D, 643D, 644D, 645D, 646D, 647D, 648D, 649D, 650D, 651D, 652D, 653D, 654D, 655D, 656D, 657D, 658D, 659D, 660D, 661D, 662D, 663D, 664D, 665D, 666D, 667D, 668D, 669D, 670D, 671D, 672D, 673D, 674D, 675D, 676D, 677D, 678D, 679D, 680D, 681D, 682D, 683D, 684D, 685D, 686D, 687D, 688D, 689D, 690D, 691D, 692D, 693D, 694D, 695D, 696D, 697D, 698D, 699D, 700D, 701D, 702D, 703D, 704D, 705D, 706D, 707D, 708D, 709D, 710D, 711D, 712D, 713D, 714D, 715D, 716D, 717D, 718D, 719D, 720D, 721D, 722D, 723D, 724D, 725D, 726D, 727D, 728D, 729D, 730D, 731D, 732D, 733D, 734D, 735D, 736D, 737D, 738D, 739D, 740D, 741D, 742D, 743D, 744D, 745D, 746D, 747D, 748D, 749D, 750D, 751D, 752D, 753D, 754D, 755D, 756D, 757D, 758D, 759D, 760D, 761D, 762D, 763D, 764D, 765D, 766D, 767D, 768D, 769D, 770D, 771D, 772D, 773D, 774D, 775D, 776D, 777D, 778D, 779D, 780D, 781D, 782D, 783D, 784D, 785D, 786D, 787D, 788D, 789D, 790D, 791D, 792D, 793D, 794D, 795D, 796D, 797D, 798D, 799D, 800D, 801D, 802D, 803D, 804D, 805D, 806D, 807D, 808D, 809D, 810D, 811D, 812D, 813D, 814D, 815D, 816D, 817D, 818D, 819D, 820D, 821D, 822D, 823D, 824D, 825D, 826D, 827D, 828D, 829D, 830D, 831D, 832D, 833D, 834D, 835D, 836D, 837D, 838D, 839D, 840D, 841D, 842D, 843D, 844D, 845D, 846D, 847D, 848D, 849D, 850D, 851D, 852D, 853D, 854D, 855D, 856D, 857D, 858D, 859D, 860D, 861D, 862D, 863D, 864D, 865D, 866D, 867D, 868D, 869D, 870D, 871D, 872D, 873D, 874D, 875D, 876D, 877D, 878D, 879D, 880D, 881D, 882D, 883D, 884D, 885D, 886D, 887D, 888D, 889D, 890D, 891D, 892D, 893D, 894D, 895D, 896D, 897D, 898D, 899D, 900D, 901D, 902D, 903D, 904D, 905D, 906D, 907D, 908D, 909D, 910D, 911D, 912D, 913D, 914D, 915D, 916D, 917D, 918D, 919D, 920D, 921D, 922D, 923D, 924D, 925D, 926D, 927D, 928D, 929D, 930D, 931D, 932D, 933D, 934D, 935D, 936D, 937D, 938D, 939D, 940D, 941D, 942D, 943D, 944D, 945D, 946D, 947D, 948D, 949D, 950D, 951D, 952D, 953D, 954D, 955D, 956D, 957D, 958D, 959D, 960D, 961D, 962D, 963D, 964D, 965D, 966D, 967D, 968D, 969D, 970D, 971D, 972D, 973D, 974D, 975D, 976D, 977D, 978D, 979D, 980D, 981D, 982D, 983D, 984D, 985D, 986D, 987D, 988D, 989D, 990D, 991D, 992D, 993D, 994D, 995D, 996D, 997D, 998D, 999D, 1000D

 서통 시사업부 514-0386

• 대구전시장 : 421-2856 • (주)빌리언시스템 : 325-1623 •

서통 시사업부 514-0386

앞시기는 기술, 앞시기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위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튼위커킬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흥원교회 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 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재흥센터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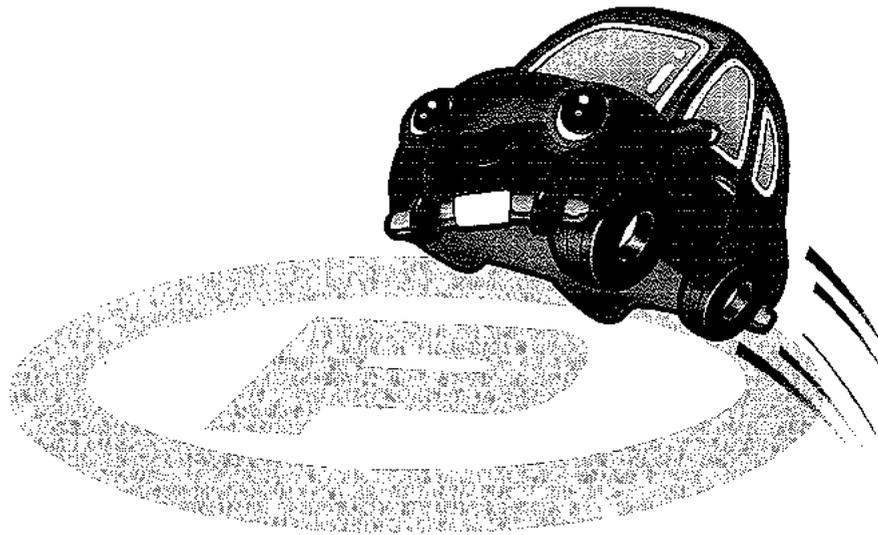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車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 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 장치와 핸드제인의 장력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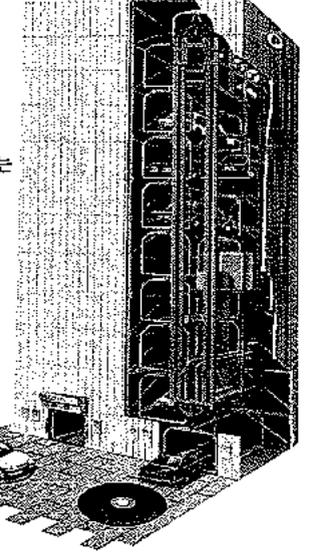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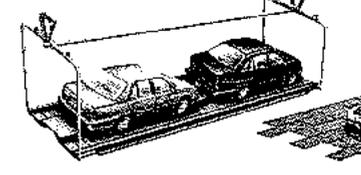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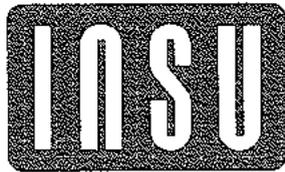
대형제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배열하여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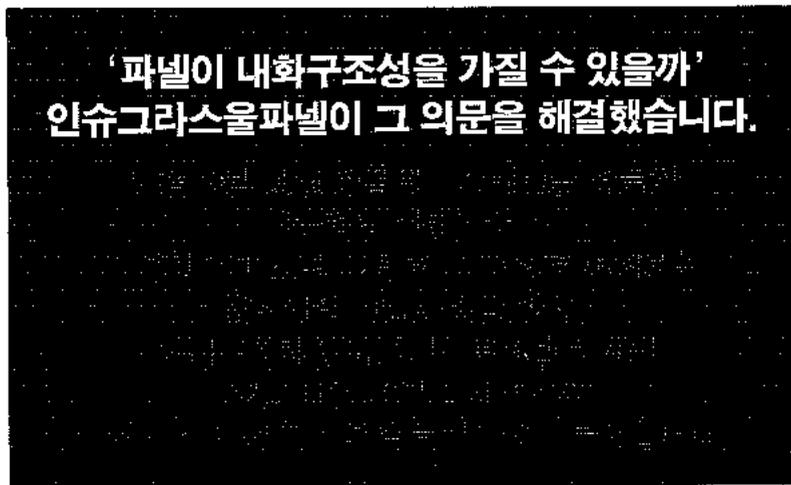


국내 파넬업계 최초 내화구조 지정 고시획득!



GLASSWOOL PANEL

‘파넬이 내화구조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인슈그라스울파넬이 그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 내화구조체, 인슈그라스울파넬의 우수성

하나. 비교할 수 없는 불연성

내부 단열재로 KSF2271, BS476PART4의
관련규격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인슈그라스울 파넬 —
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불연성은 이미
내화구조로 지정 고시되어 불에 강한 단열파넬의
기준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완벽한 내화구조성능 인슈그라스울파넬.

둘. 완벽한 방수성과 단열성

누수를 유발하는 상부하중과 그로 인한 내부
단열재의 수축을 뛰어난 인장 및 압축강도로
방지, 완벽한 방수성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시공시 볼트부위를 CAP으로 마무리,
누수발생을 차단하여 누수현상에 의한 단열효과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0.029%의 낮은 열전도율의 인슈그라스울파넬 —
그 가늘고 균일한 조직의 내부 단열재는 효율적
에너지 활용 효과를 거두게 합니다.

셋.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 파넬은 내부 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성형, 기존제품보다 압축강도가
열배나 뛰어나며, 특히, 균일한 두께 유지로
박리현상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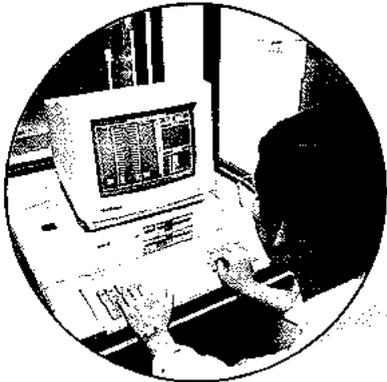
주식회사 연합인슈

부설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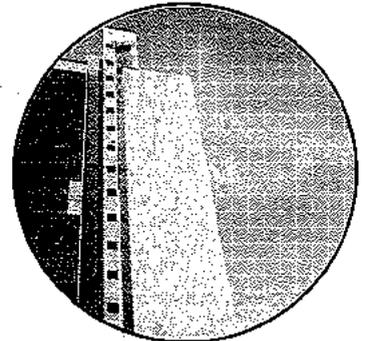


본사및공장 : 경기도 아산시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102-745-0687, (0336)31-8200 FAX : (0336)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102-655-6194 FAX : 553-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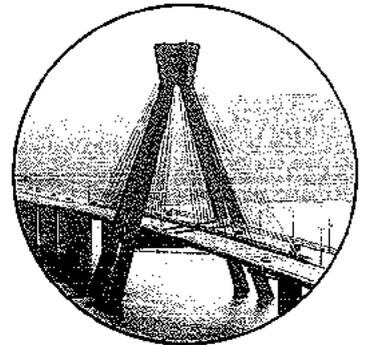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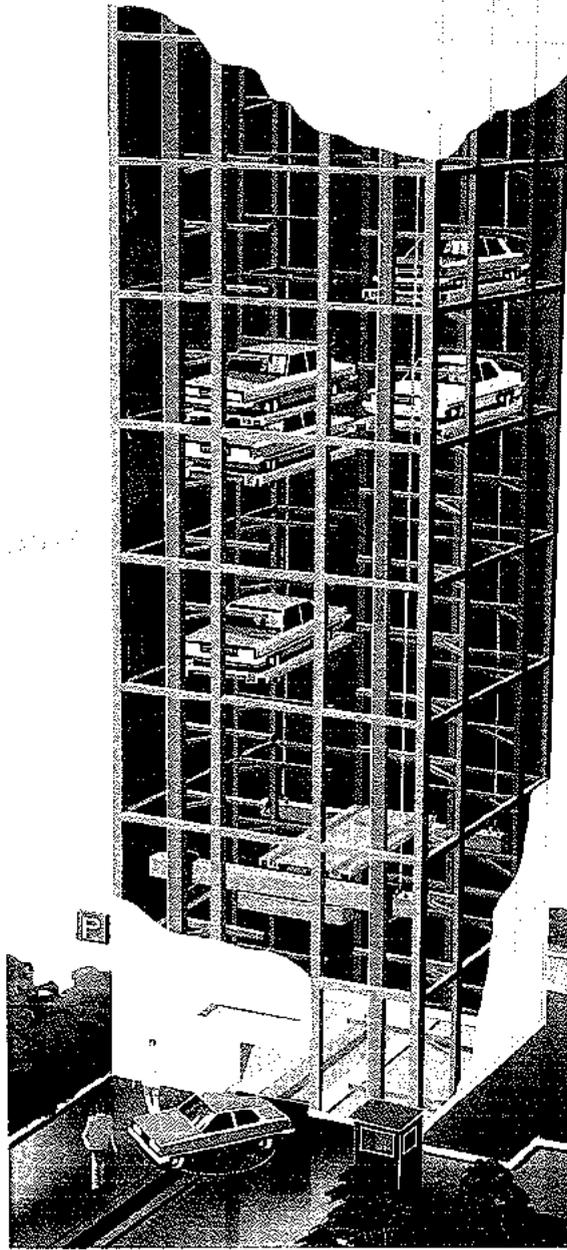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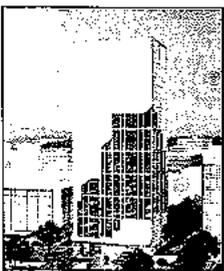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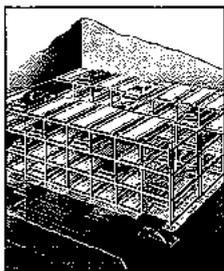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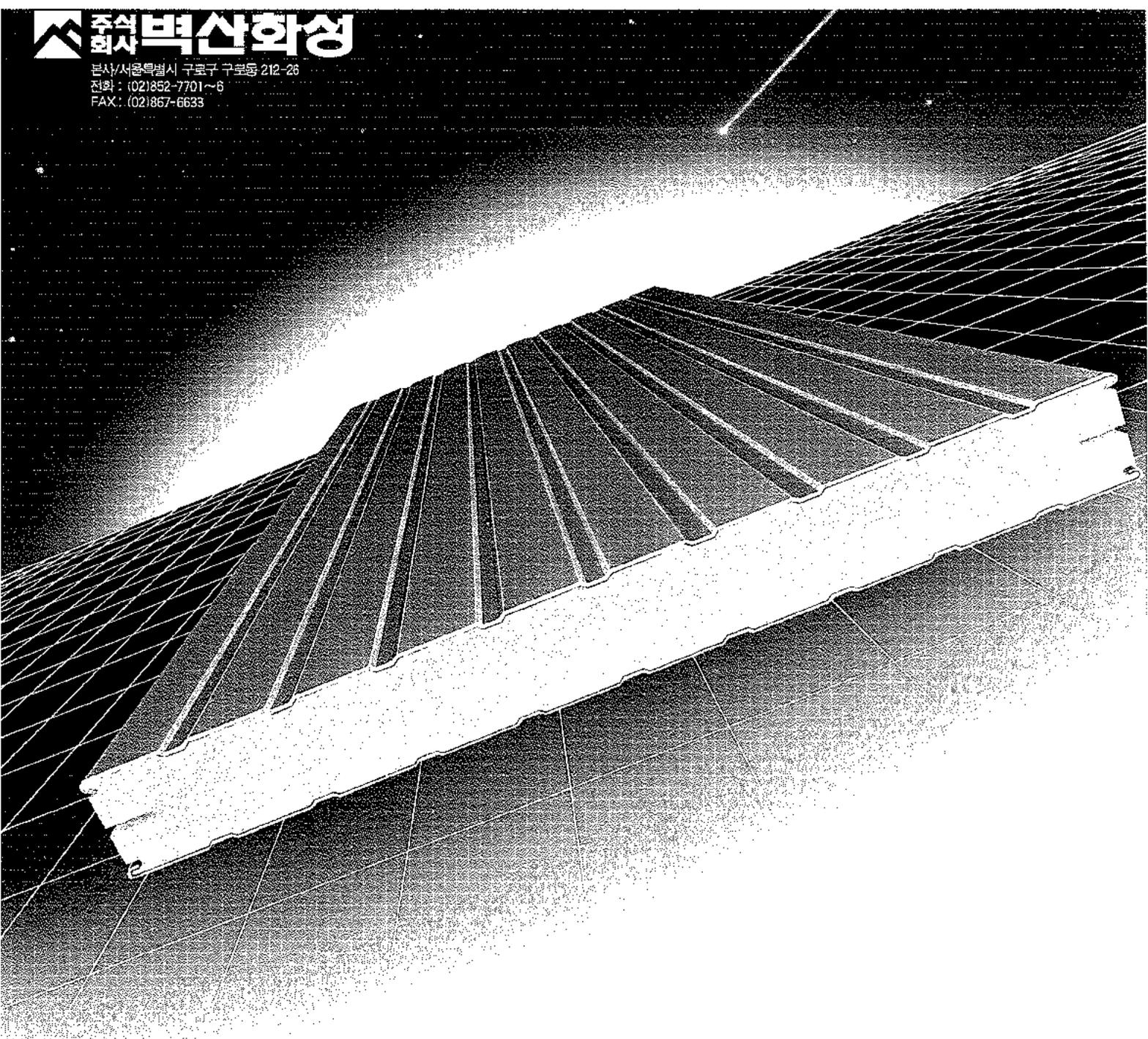
YOP-A연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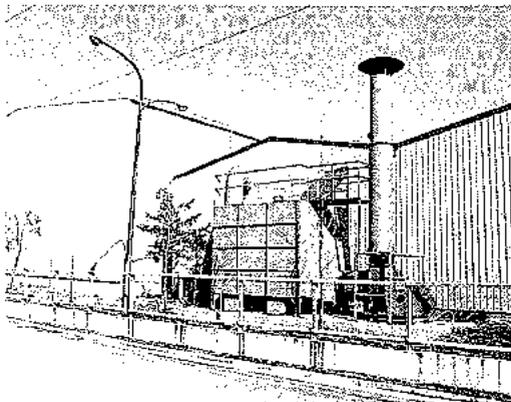
YOP-M형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플랜트부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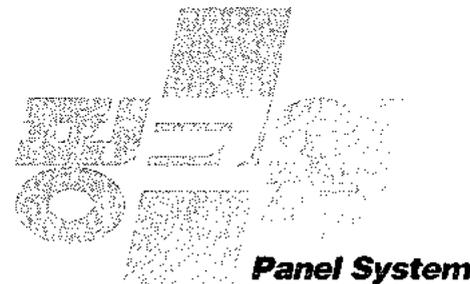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 - 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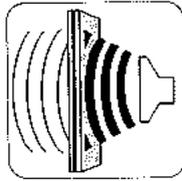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 패널 메이커인 네델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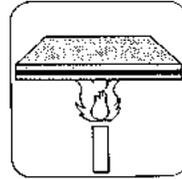


신소재의 건물 내·외장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아키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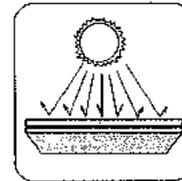
진동 소음에 대한 방음, 방진

ARCHITECKS는 복합재료이므로 진동과 소음의 절연효과가 큼니다. (차음효과: R = 24db, KSF 2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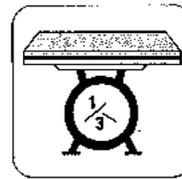
내화성

ARCHITECKS는 200°C ~ 250°C 에서 가열 경화접착 시키므로 판재의 변형은 물론 인화성이 전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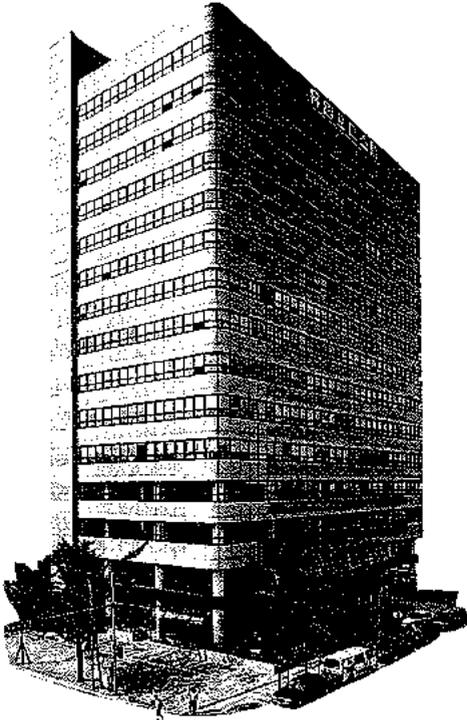
내구성 및 평활성

화학적 장애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지닌 ARCHITECKS는 PVDF (불소)로 표면처리되어 품질을 보장하고 코아(CORE)부의 물성이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 복합판넬의 장점인 FLAT함을 영구 유지할 수 있다.



경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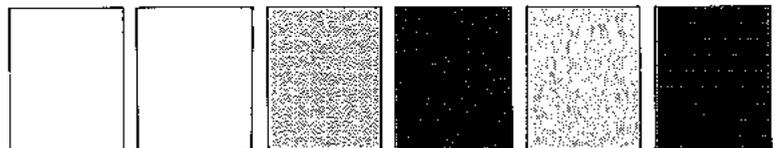
동일두께의 알루미늄 휠이나 범랑, 철, 동, 스테인리스 등 기타 금속판의 1/2 - 1/3 의 중량이므로 건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다.



우아하고 개성있는 외관은
건물을 돋보이게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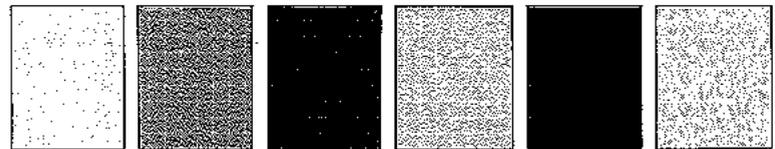
새련된 색상의 ARCHITECKS는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색상과 설계의 조화에 따라서 어떤 목적의 건물 외관에도 잘 어울리는 신소재입니다.

STANDARD COLOR



Colonial White Ivory Charcoal Gray Fashion Gray Silver Interstate Blue

ORDER COLOR



Seawolf Coral XL Red Aged Copper Martford Green Gold Watch

본칼라는 제품칼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CHITECKS

웅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1층
TEL. (02) 562-1264, 553-0897, 568-3474~6 FAX. (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303-2
TEL. (0336) 636-5119, 636-1903~4 FAX. (0336) 636-9316

Bio-Happy Stone

91樓系 489室 1樓大廳

국내최초 21세기형 신건축 자재
燒結石

BIO-HAPPY STONE

삼화화학은 풍요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포항세철계열 국내최고의 요업전문회사입니다.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아직도 건축의 내외장 및 바닥재로 고민하십니까
건축사가 감탄하고 —————
고객이 만족하는 —————
국내최초 세라믹 공법으로 생산된
소결석 "BIO-HAPPY STONE"으로 시공하십시오.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 2. 뛰어난 가공성**
1,200°C 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본사·공장 : 경상북도 포항시 창림동 1-143 건재사업부 TEL (0562)91-2051 ~ 3, 90-0114 FAX 91-0033 / 서울직판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9-22 (국제조명빌딩2층)
TEL (02)516-7772 ~ 4 FAX 516-7775 / 전국라이프점 / 서울지역, 옥산실업 : TEL 4021540-1637 ~ 9 FAX 540-1640 대구지역, 산호특수 : TEL (053)755-9994, 742-1576 FAX 751-5684
부산상사 (053)582-5750-1, 581-3339 FAX 582-5751, 광주지역, (주)청담건설 (062)222-1224 265-9008 FAX 265-1951 /
마산지역, 중앙건설, (055)192-3335-6 55-5700 FAX 55-5700 / 포항지역, 동양상사 : TEL (0562)81-2220, 81-7482

취사개선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품질보증
본정품은 품질시험검사받은
기밀 단열창시스템에 사용됨
한국화학시험검사소
TEL. 834-0034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후램이란 강화유리 도아 상·하부에 후램이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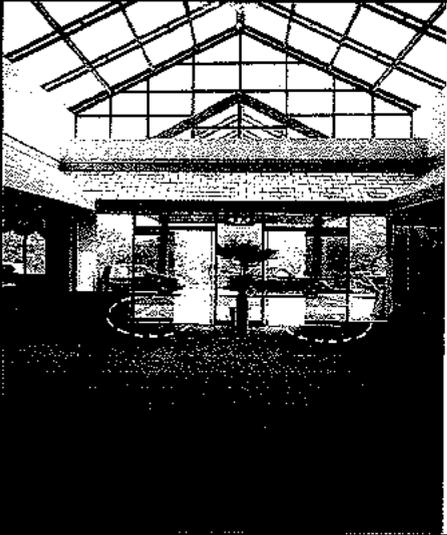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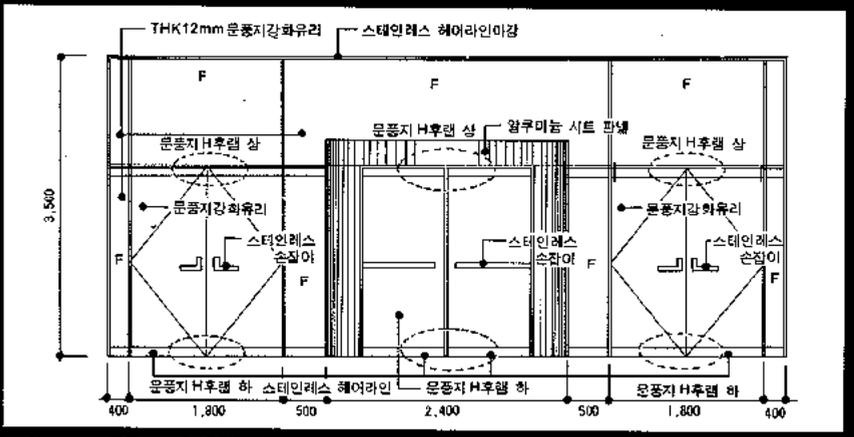


방풍설치

- 냉·온방 열차단
- 방진음
- 방수
- 수명반영구적

(예)

스테인레스 스틸 어발이문 Fix



**“문풍지H후램
은 열손실
100% 보장”**

← B제품은 여기에서
열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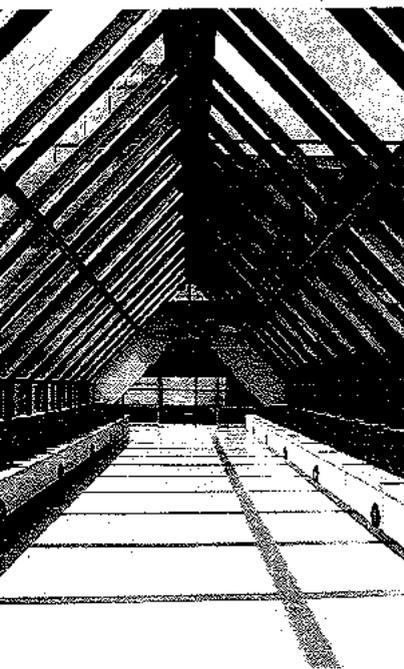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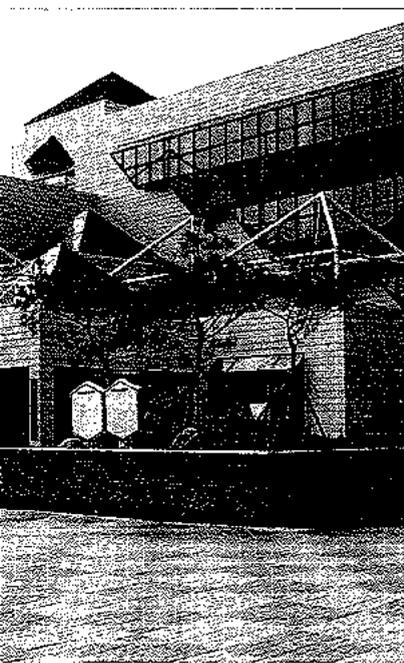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싱 팡 산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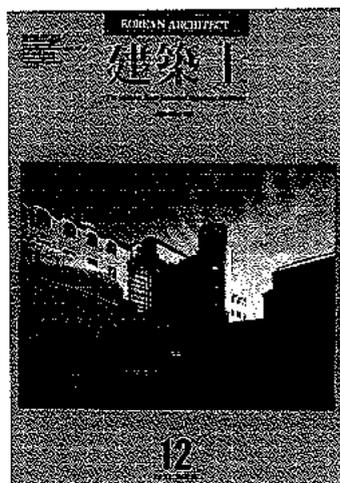
본사 :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6
TEL : (051) 302-1100 ~ 2
FAX : (051) 301-4 5 7 5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5-3
TEL : (02) 576-0 0 8 3
(02) 577-0 0 4 1
FAX : (02) 574-9 3 5 5



차례/1992년 12월호 통권 제284호

취임사	새出發! /李永熙	16
회원리플	안양시립도서관 /趙東榮	18
	동부그룹종합연수원 /尹柱憲	22
	에바스 화장품 평택공장 /郭在煥+劉成烈	28
	금성사(평택) 생산기술연구소 /李忠彥+金光燮	32
스케치	T-박물관 현상을 위한 구상도 /洪大源	34
일하며 생각하며	壬申年을 보내며 /金永雄	36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건설부 건축계획과	38
설계경기	영종도 신국제공항·국제연구교류센터	44
현황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Ⅲ) /張順鏞	60
기고	ARCASIA의 각종 행사들 /趙仁淑	66
	ARCASIA협회의 그 역사적 전망 /金知德	67
	ARCASIA 제13차 이사회의 참가기 /李廷根	71
	제5회ARCASIA 컨퍼런스 참가기 /李相海	73
	제6차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趙仁淑	77
	제4회 아시아 학생 건축잼버리를 다녀와서 /정은성+김태훈	80
건축기행	滿洲벌과 桂林에 가다 /金有奉	84
자료	1992년 건축사지 총목차	88
	1992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0
협회소식/제27회 定期總會消息		92
이임사	任期를 마치며 /吳雲東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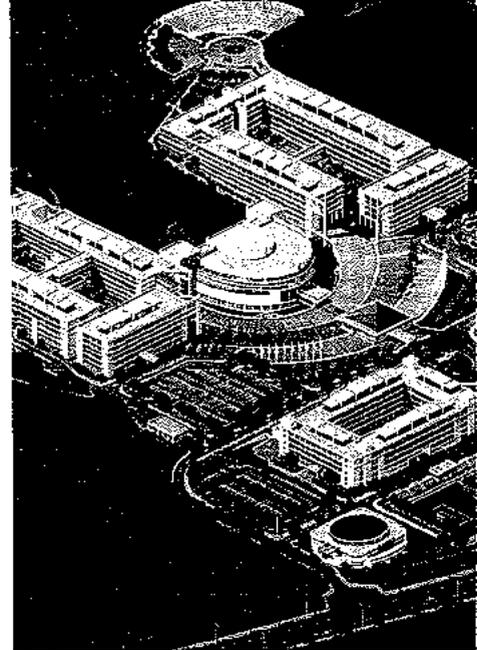


표지사진 : 동부그룹종합연수원
(설계/윤주현)

發行人 : 李永熙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義求
 委員 : 徐千植, 李瓊榮, 金文圭, 崔英集, 宋洙九
 編輯 : 出版事業部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 Lee, Young-He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i-Koo
 Member :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REGURAL ADDRESS	<i>New Start! / Lee, Young - Hee</i>	16
ARKS	<i>Anyang City Library / Cho, Dong - Young</i>	18
	<i>Dong Bu Group Training Institute / Yoon, Ju - Hun</i>	22
	<i>Evas Cosmetic Factory / Kwak, Jae - Hwan & Yu, Seong - Yul</i>	28
	<i>Gold Star Manufacturing Research Technology Center / Lee, Chung - Eon & Kim, Kwang - Sub</i>	32
ETONES	<i>Historical Replica Project / Hong, Dae - Won</i>	34
AY	<i>See the Old Year Out / Kim, Young - Ung</i>	36
VS & DINANCES	<i>An Authoritative Intepretation of the Building Law</i>	38
OMPETITION	<i>The New Seoul Metropolitan Airport Passenger Terminal, International Research and Community Center</i>	44
PORT	<i>A Methodological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 Jang, Soon - Yong</i>	60
ATURE	<i>ARCASIA Report</i>	66
CHITECTURE	<i>Chinese Travels / Kim, Yu - Bong</i>	84
VEL		90
ATISIOS		92
SA NEWS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희동 169-25, 333-6411 ·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 / 강동구성내동 317-4, 484-6840 ·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3 · 성동분회 / 성동구구의동 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구산동 101-7, 923-6313 · 종로분회 / 종로구수성동 46-18, 735-0905 · 마포분회 / 마포구성산동 275-1, 336-5057 ·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 / 중구로27가9-11, 279-1415 · 용산분회 / 용산구원효로17가129-22, 712-7647 ·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 1623-1, 586-7707 · 은평분회 / 은평구북대동 79-32, 352-6720 ·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 206-6, 815-3026 ·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 242-30, 511-8515 ·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 1049-79, 902-8076 · 양천분회 / 양천구신경동 1027-9, 646-7172 · 중랑분회 / 중랑구민곡동 166-46, 923-6123 · 성북분회 / 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회 / 구로구보동 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47-18, 28(06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753-8960~8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 558-1, (032) 437-3381~4(FAX) 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 694-10, (062)521-0025~6(FAX) 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87-1, (042)255-939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0 · 작살분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 523-5, (0343)49-2698 · 부천분회 / 부천시중구원미동 88-1, (032)664-1551 ·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데광동 3407, (0342)755-3445 · 의정부분회 / 의정부시외정부동 182, (0351)2-1083 · 송탄분회 / 송탄시서경동 343-22, (0333)4-6153 · 고양분회 / 고양군원당읍주교38블럭 16공트, (0344)63-8902 · 구라분회 / 구리시수택동 409-2, (0346)63-2337 · 이천분회 / 이천군야전읍중리 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 광명시일산동 464-7, 682-2875 · 안산분회 / 안산시고잔동 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육천동 39-5, (0361)54-2442 ·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 60-54, (0371)42-4287 · 강릉분회 / 강릉시상대동 6-14, (0391)2-2262 · 속초분회 / 속초시동명동 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 / 삼척시안양동 55-43, (0397)2-3106 ·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동 1리 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32187-3, (0431)56-2752, 55-7342 · 충주분회 / 충주시역전동 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 / 제천시외림동 8-8, (0443)43-6253 ·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삼양리 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52-2, (042)256-4088 · 천안분회 / 천안시문화동 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0451)32-2755 · 부여분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 703-1, (0463)2-2217 · 대천분회 / 대천시대천동 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대륙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 / 이리시남중동 1가 77-22, (0653)52-3304 · 군산분회 / 군산시신상동 35-4, (0654)445-4060 · 남원분회 / 남원시하정동 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평주시서구외경동 783-234(우선화관)(062)354-7567, 33-9944 · 목포분회 / 목포시대안동 1, (0631)43-3348 · 순천분회 / 순천시장천동 51-11(0661)3-2457 · 여수분회 / 여수시권문동 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가 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 / 포항시죽도동 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 / 경주시동서동 771-4, (0561)3-3638 · 구미분회 / 구미시현명동 964-264, (0546)52-6351 52-7547 · 안동분회 / 안동시서부동 157-4, (0571)54-5703 · 김천분회 / 김천시평화동 280-1, (0547)2-2541 · 영주분회 / 영주시유천2동 642-52, (0572)33-7504 · 김천분회 / 김천시중앙동 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 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일동 373-47, (0551)46-4530~1 ·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0522)74-8836 · 진주분회 / 진주시본성동 7-20, (0591)41-6403 · 충무분회 / 충무시서호동 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 / 김해시부민동 611-1, (0525)35-5692 · 밀양분회 / 밀양시내일동 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 274-3, (0598)43-6090 ·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부동 487-19, (0523)84-3050 · 거제분회 / 거제군신현읍고현리 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 / 삼천포시동금동 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도1동 1289 6, (064)22-3248, 52 3248 ·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시귀동 299-6, (064)62-2233

새 出發!



新任 李永熙 회장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 協會發展을 主導해 주신 歷代 會長님과 退任하는 吳雲東 前任 會長님, 그리고 新舊 任員 및 事務處 職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大韓建築士協會 歷史의 새로운 章앞에 서 있습니다.

새 時代 새協會를 要請하는 歷史의 潮流 속에 19代 會長에 就任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協會를 일구어 오신 先輩 會員께 깊이 머리 숙입니다. 특히, 激變期에 協會를 잘 이끌어 오신 吳雲東 회장님의 勞苦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會員 여러분!

昨今の 時代變化는 가히 놀라운 정도로 急速히 展開되고 있습니다.

政治, 經濟, 社會, 우리의 生活과 意識까지도 날로 새로운 것으로 變化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새것이 오늘의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變革의 時代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變革의 時代가 進展되고 있지만 우리 建築文化는 아직도 漫然된 構造의 不合理와 消耗的 慣行이 殘存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우리가 안고있는 問題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散積해 있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제의 宿醉가 덜 잤듯한 어리둥절한 狀態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時代의 흐름에 "總體的 不適應", 다시말해 "歷史的 遲滯"에 根本된 原因이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社會든 問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술한 課題들에 대한
종합적인 診斷과 對策이 없다는데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歷史는 이러한 遲滯를
克服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興亡이 左右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가 이러한 歷史의 構造的 轉換에 鈍感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過去는 분명히 우리모두의 資產이면서 反省의
거울이지만 그것이 밝은 未來의 前進을 위한 발걸음에
끝없는 足鎖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不確定的인 要因이 많은 것이
事實이지만 우리의 未來를 결코 悲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決斷과 노력에 따라 우리는 더할 수
없는 歷史의 好期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自己改革으로 새로운 挑戰에 성공적으로
應戰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에 到處에 散在한 不合理的
關係法令과 慣行의 改善은 물론, 協會發展을 가로막고
會員間의 葛藤을 深化시키는 어떠한 形態의 特典이나
否定도 단호히 排擊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誠實하고 健全한 會員들이 일한만큼 보람과
結實을 거두면서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의 矜持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先進化된 建築 風土가
定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目標을 가지고 우리 4千여 會員의
權益保障과 協會의 位相을 強化키위해 公約한
하나하나의 事案에 最善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 自身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會員 모두의 가슴 속에서 움트고 意識으로 꽃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오늘 이 時間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꼼꼼히
되새겨 봅시다.

한마디로 그것은 意識의 一代轉換이어야 합니다.
時代의 흐름을 洞察하는 能動的 姿勢 變換과 舊態依然한
小乘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大乘의 자세를 堅持하여야
하겠습니다.

全國의 事務處 職員 여러분!

協會의 오늘이 있기까지 뒷전에서 默默地 일해온
여러분들의 勞苦에 致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協會懸案에 대한 問題解決을 위한
강한 欲求와 奮發을 促求합니다.

모든 判斷基準은 合理와 公定客觀性의 바탕위에 두고
항상 小利를 버리고 大道로 가는 姿勢로 業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協會發展이 곧 여러분의 發展으로 昇華될
수 있도록 處遇改善과 福祉向上에도 各別한 關心과
誠實한 努力을 약속드립니다.

親愛하는 會員및 職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協會의 새로운 歷史의 出發線上에 굳게
섰습니다.

할 수 있다는 決意도 가득차 있습니다.

내가 앞장 서겠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涙과 苦痛도 要求하겠습니다.

未來에 대한 自信感과 勇氣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딤시다.

感謝합니다.

1992. 12. 14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李 永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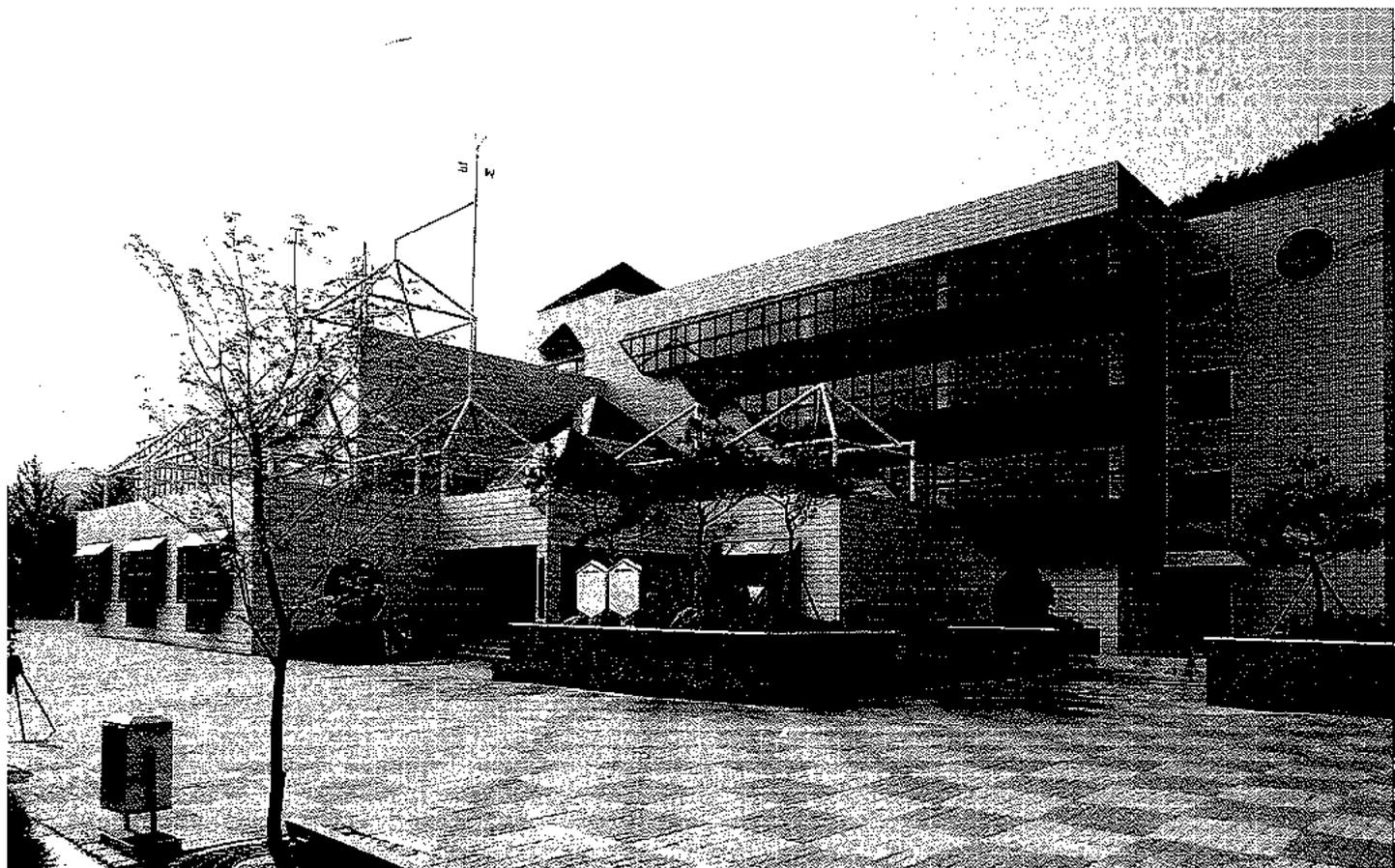
안양시립도서관

Anyang City Library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명학근린공원 내
 건축면적 / 1,135.3㎡
 연면적 / 4,190.3㎡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외장타일+유리커튼월

WORKS

趙東策 / 일건축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Dong-Young



■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완성된 모습에서 느끼는 감정 중에서도 그것이 공공문화시설인 경우에는 여타 용도의 건물보다는 좀 특별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본 건물은 지역문화 중심의 일익을 담당하는 시립도서관으로서 현재 조성중인 도시근린공원내의 한 시설물로서 건립되었다. 대지 주변환경은 울창한 숲을 가지는 높은 산을 뒤로 하고, 전면으로는 멀리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서 맑은 공기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도서관의 입지로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열람실 내의 가구배치에서 나온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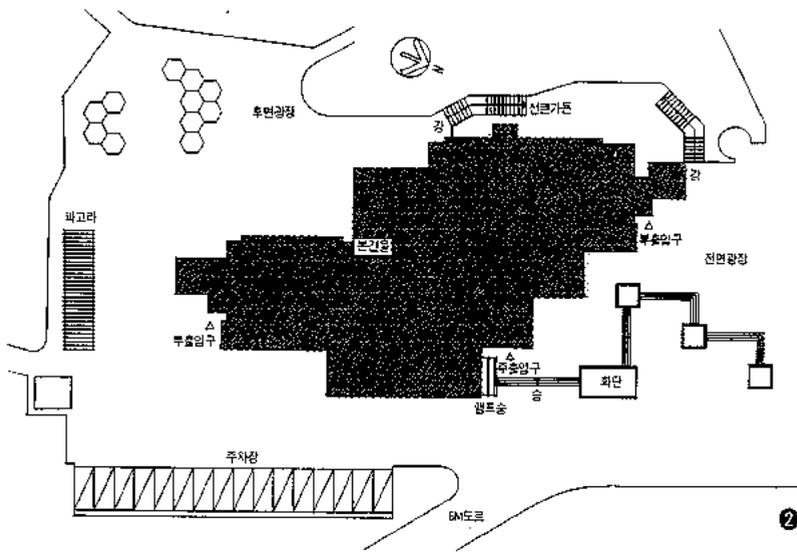
3m의 기본 모듈을 엄격히 적용한 평면계획과 뒷편의 산의 형태에서 인용된 피라미트 형태의 3개의 계단실 지붕(Solid), 7개의 옥상정원 구조물(Cavity), 2개의 채광창(Solid & Cavity),

타일외벽면과 유리 커튼월, 원형의 창문들, 같은크기와 형태가 반복되는 1층 전면외벽부분의 창문들, 저층부와 고층부 옥상정원 구조물이 만나는 곳에 보이는 풍향계 등이 어우러진 외관계획으로 질서와 변화를 동시에 가지는 형태를 시도하였으며, 외부 전면 유리 커튼월의 형태는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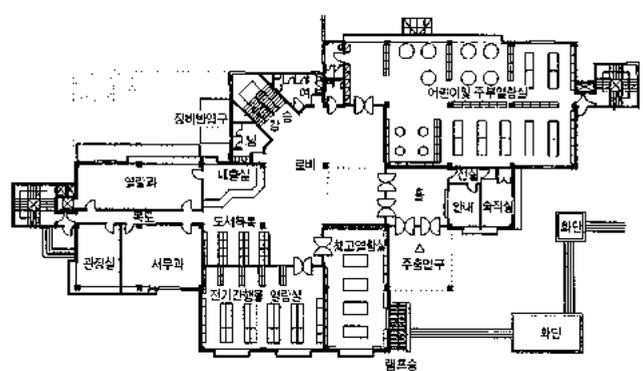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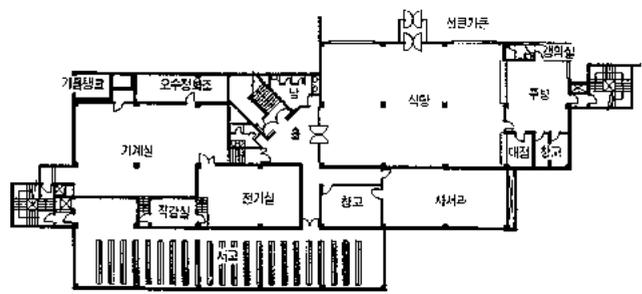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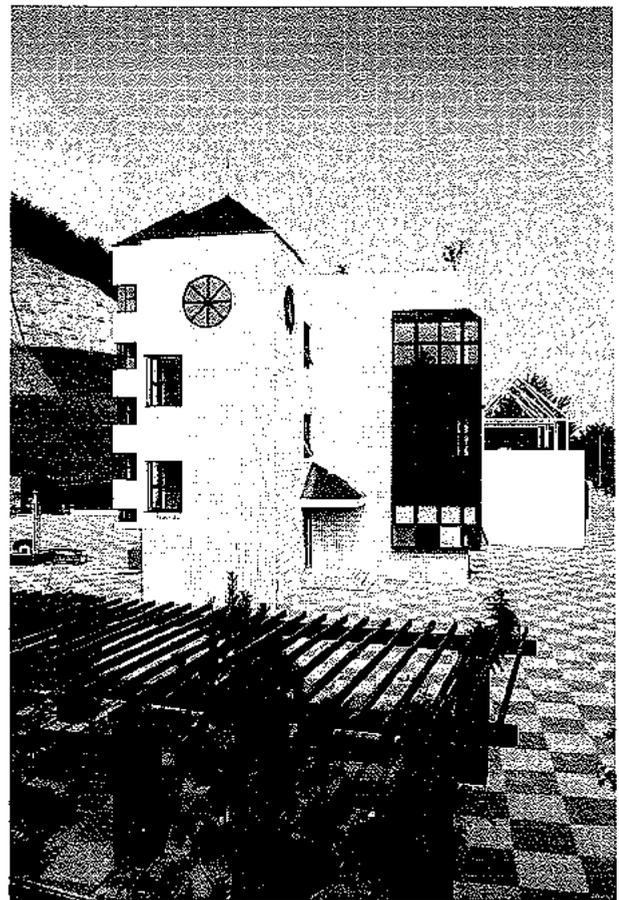
아직 개관원년이라 비어 있는 서가마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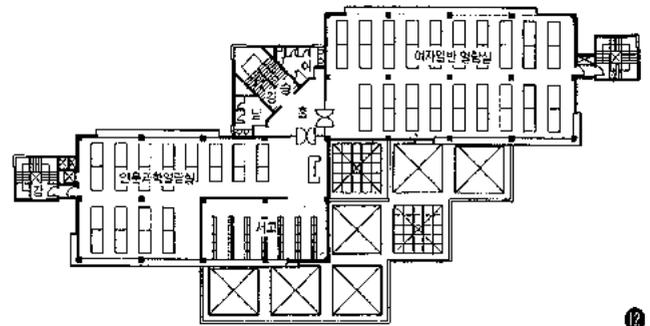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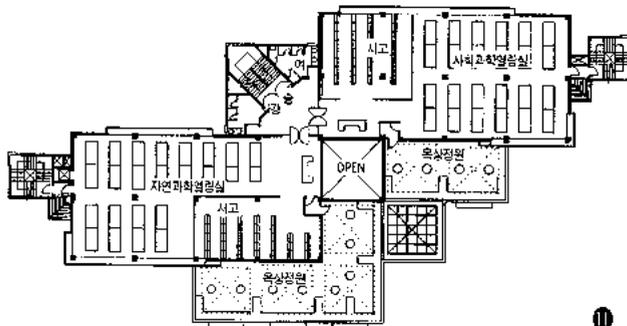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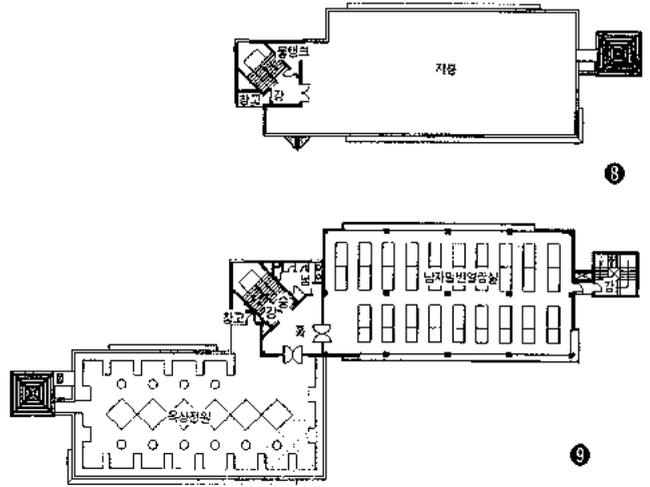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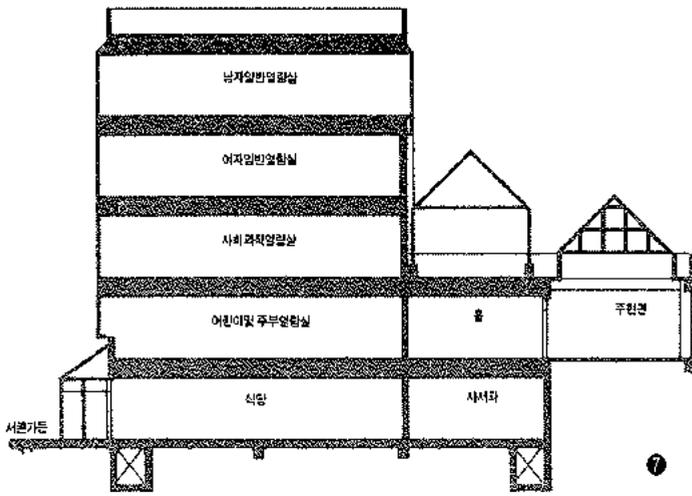
유익한 자료들이 가득하고 각각의 열람실에는 지식탐구의 열기가 충만하며, 건물뒷편 산중턱의 절개지의 콘크리트 벽면에 갖가지 덩쿨식물들이 무성하게 덮힐 후일을 마음속으로 재촉해 본다.

‘예술은 설명되어 질 수 없고 체험되어야 한다. (Art should not be explained, It must be experienced)’는 말로서 짧은 글에 대신해 보며, 훗날 현역에서 은퇴후 이곳에서 책도 읽고 줄기도 하며 옥상정원의 맑은 공기와 햇볕속에서 하루를 소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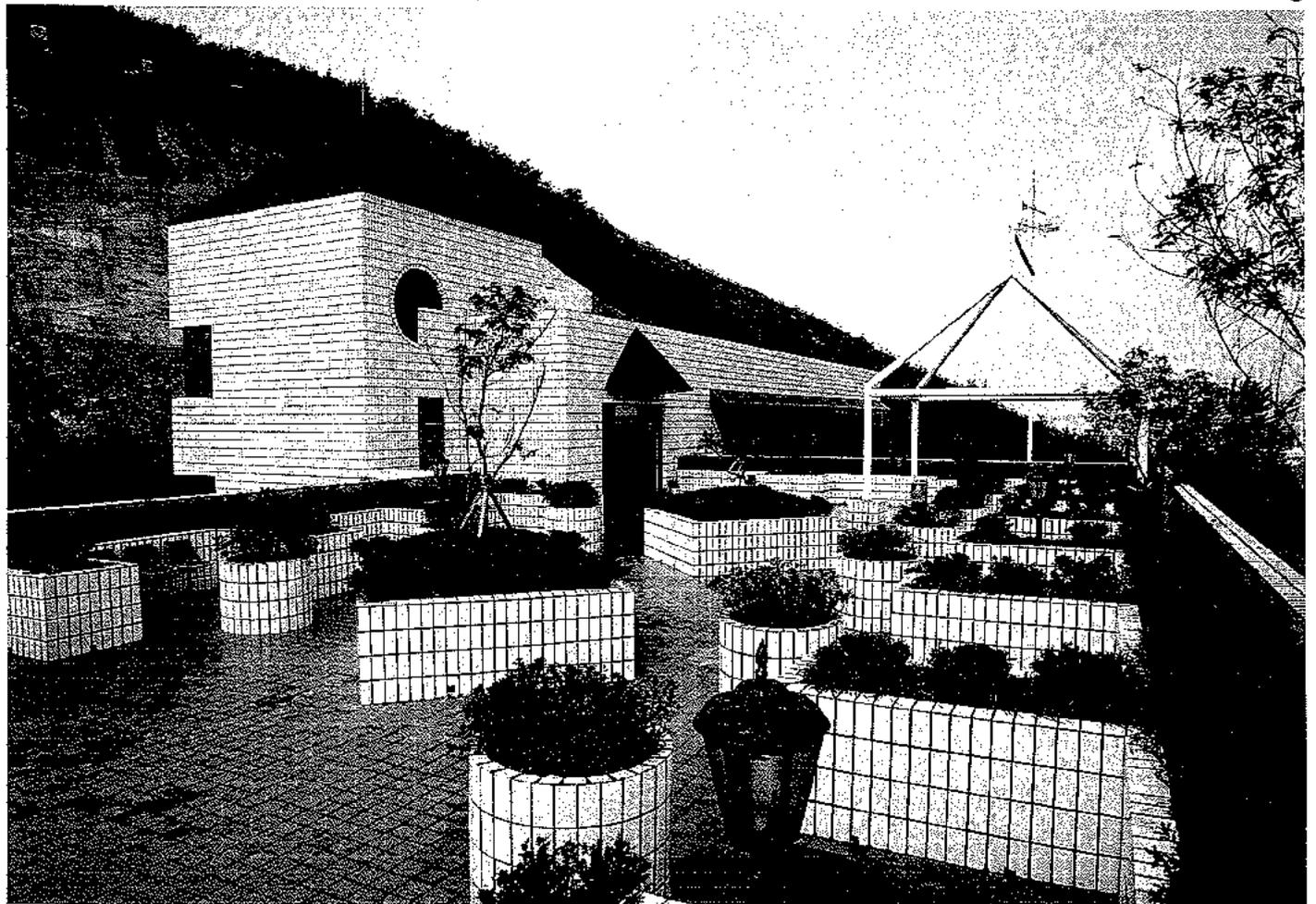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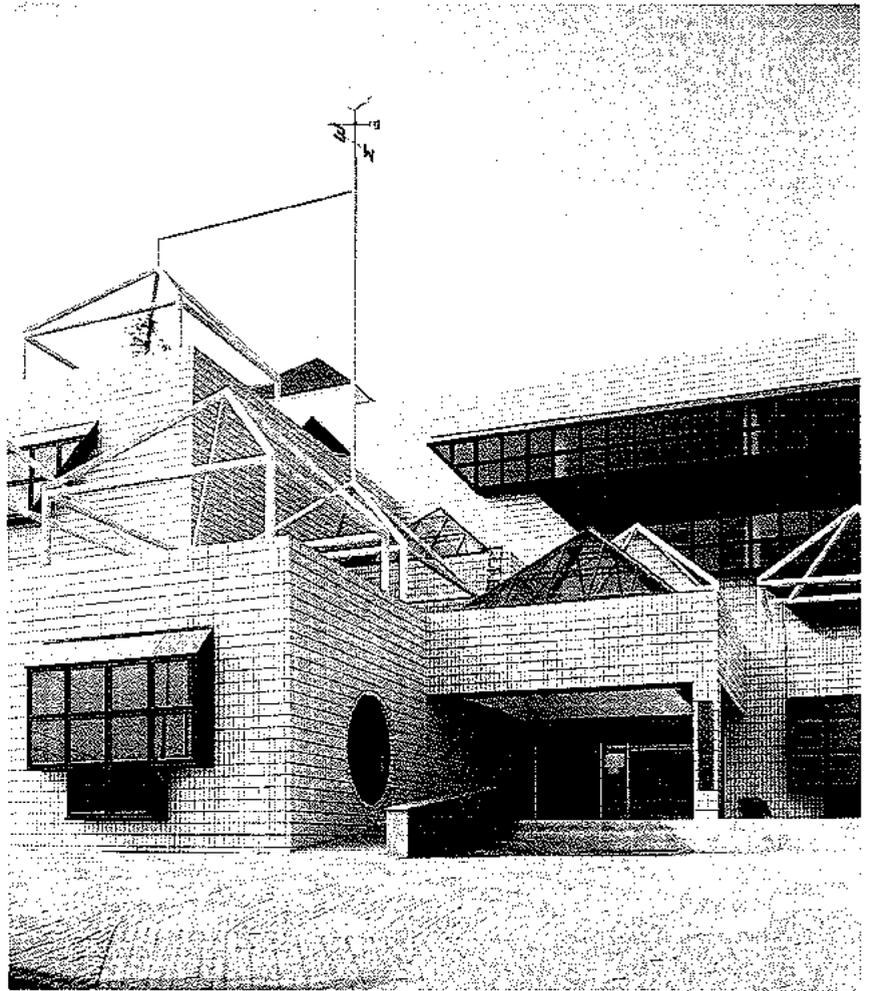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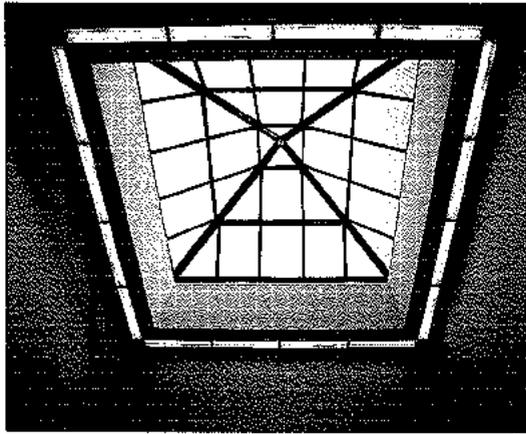


- 1. 전면에서 본 전경
- 2. 배치도
- 3. 알람실 내부
- 4. 북쪽입면
- 5. 지하 1층 평면도
- 6. 1층 평면도





- ⑦ 종단면도
- ⑧ 옥탑평면도
- ⑨ 4층평면도
- ⑩ 북측에서본 건물전경
- ⑪ 2층 평면도
- ⑫ 3층 평면도
- ⑬ 채광창 상세
- ⑭ 풍향계가 보이는 주출입구측 상세
- ⑮ 옥상정원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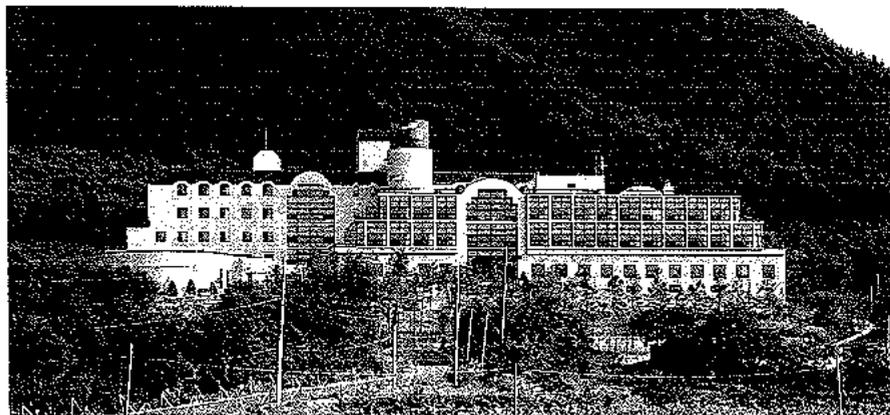
동부그룹종합연수원

Dong Bu Group Training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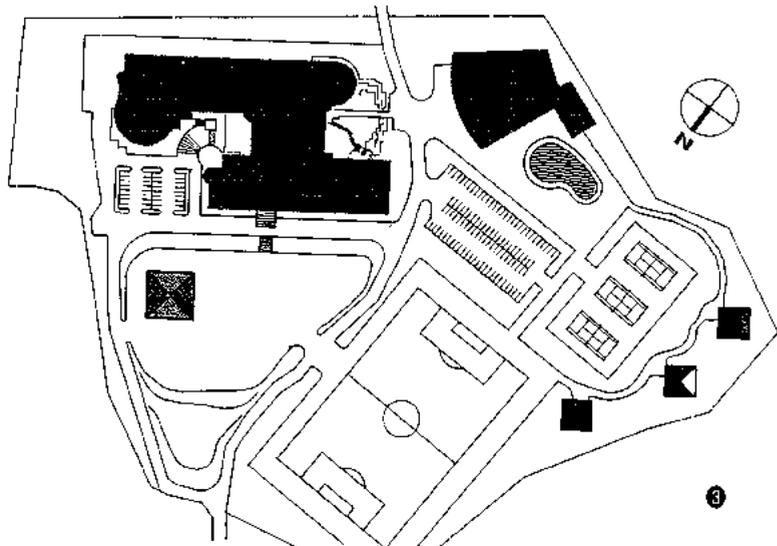
尹柱憲 / 종합건축사사무소 내외건축

Designed by Yoon, Ju - 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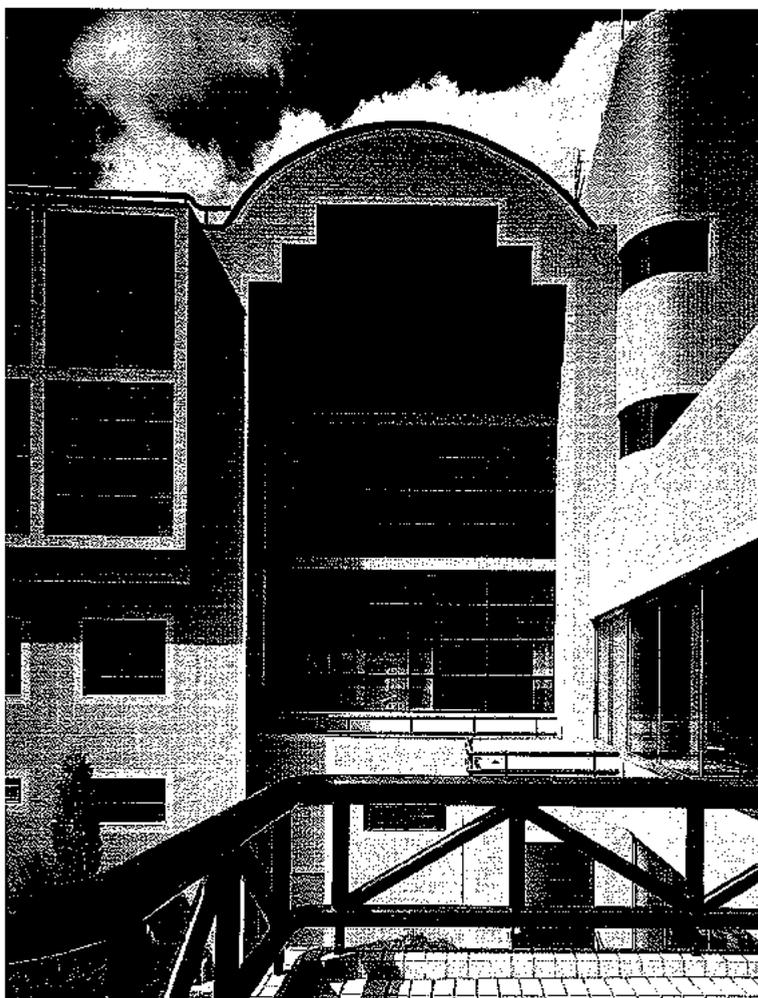
■
 위치 /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대지면적 / 9,886㎡
 건축면적 / 4,319㎡
 연면적 / 15,137㎡
 건폐율 / 43.68%
 용적율 / 120.19%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① 북쪽에서 본 중점전경
- ② 전경



- ③ 배치도
- ④ 1층 로비
- ⑤ 층별휴게실 외관부분



기업의 연수원은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재창출의 가능성을 추구함에 의의가 있다. 교육과 숙소로 구분되는 기능들을 그리 넓지 않은 1차 사업부지에 수용하되 장치 마스터플랜에 부합되는 계획이 요구되었다.

교육시설과 숙소기능의 마찰을 피해서 각각 별도로 처리하여 상호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각 건물마다 적절한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동선들을 부드럽게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유의하였으며, 서로 상충되는 두 기능이 접하는 부분을 매개공간으로 설정, 주출입구와 로비(1층) 및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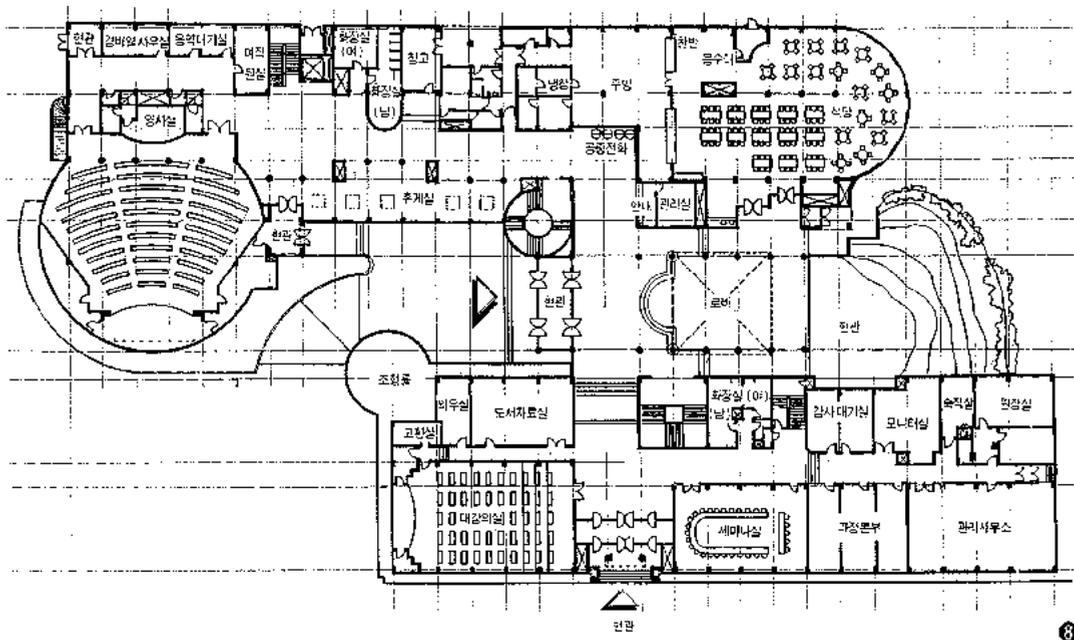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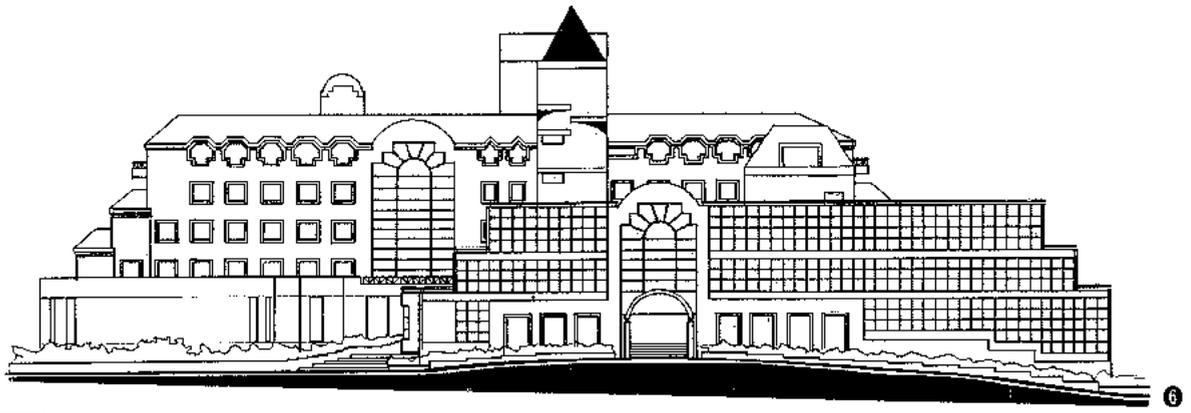
통로(2층)를 두어 각 기능으로의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였다.

교육관과 생활관 두 건물의 사이 공간에 위치한 로비는 피라밋 천창과 많은 유리벽으로 개방시켜 자연의 계곡같이 외부와 연계된 동적공간으로 좋은 조망과 공간의 확장감을 획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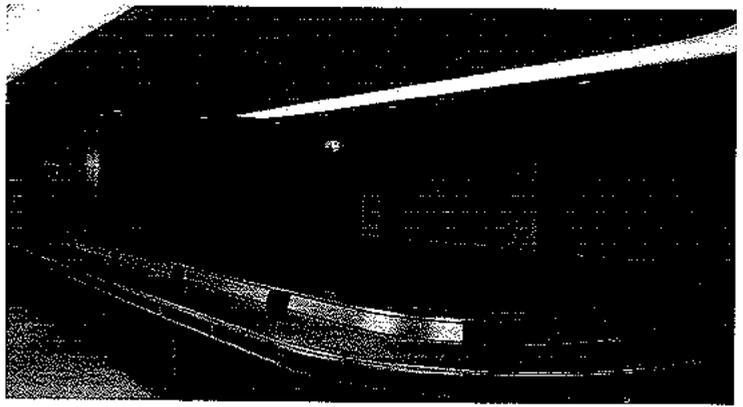
후면 중앙부에 위치한 원형 계단탑을 강한 중심의 수직요소로 삼아 수평으로 확장되어 가는 외관은 양측단에서 각 층을 Set Back시켜 높지 않은 주위 산구릉의 완만한 스카이 라인과 조화를 의도하였다.

두 건물은 유리커튼월과 대비적인 처리를 하여 신선함과 따뜻함의 복합성과 콘트라스트를 의도하였으며, 각 건물 중앙부에 위치한 커다란 커튼월 개구부는 단조로울 수 있는 외관을 분절하여 스케일의 거대화를 방지하고 외관에 다양성을 부여시키며, 내부에서는 각 층별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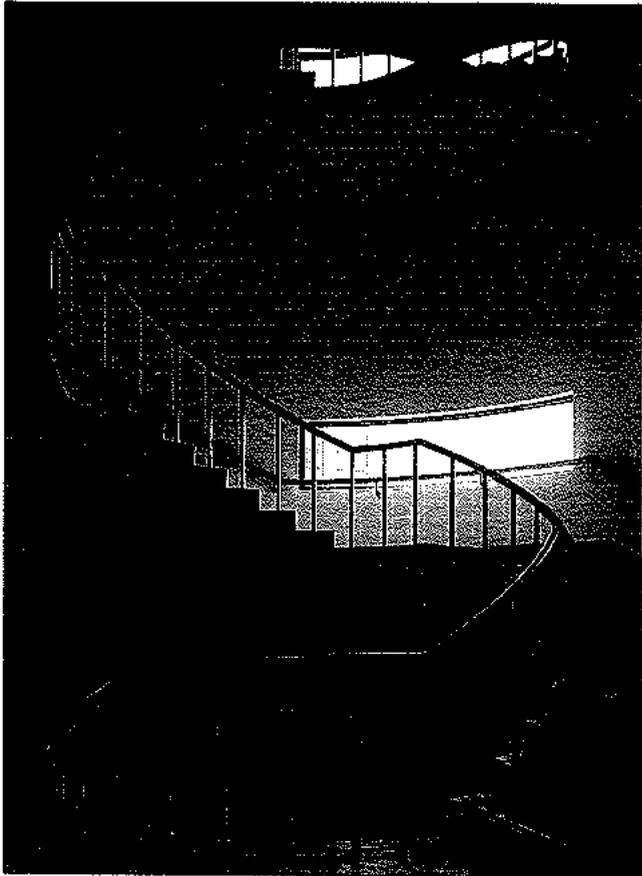
단계적으로 시행될 종합운동장, 대강당, 기업 문화관, 풀장 등의 시설과 함께 단순한 교육기능을 넘어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참여하는 휴게, 오락, 친교, 사색 등을 통한 기업문화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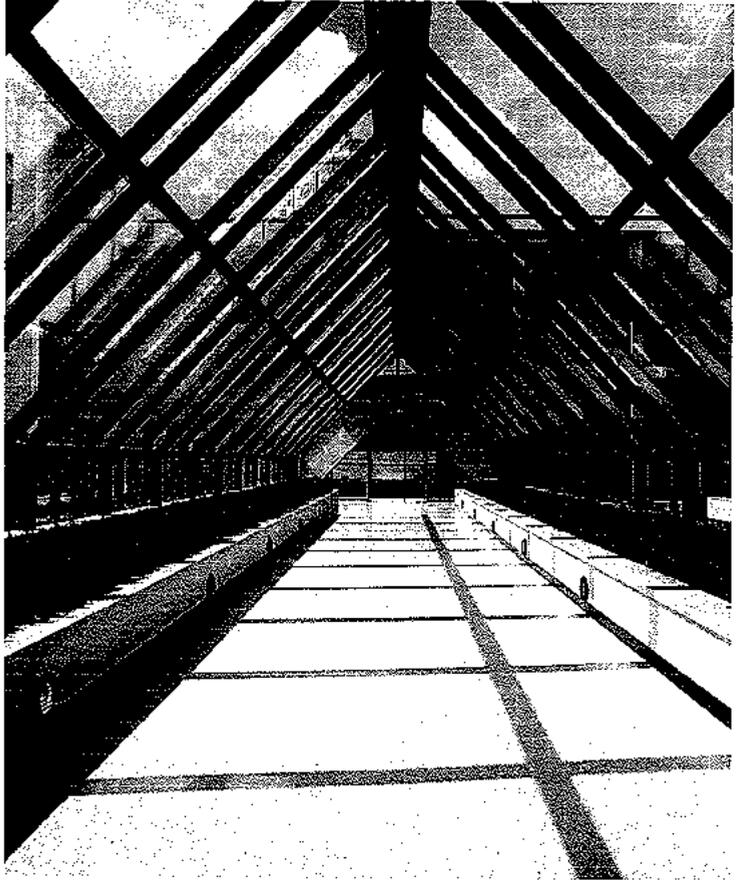
- ⑥ 정면도
- ⑦ 강당 내부
- ⑧ 1층 평면도
- ⑨ 세미나실
- ⑩ 연결 계단부
- ⑪ 내부 연결통로
- ⑫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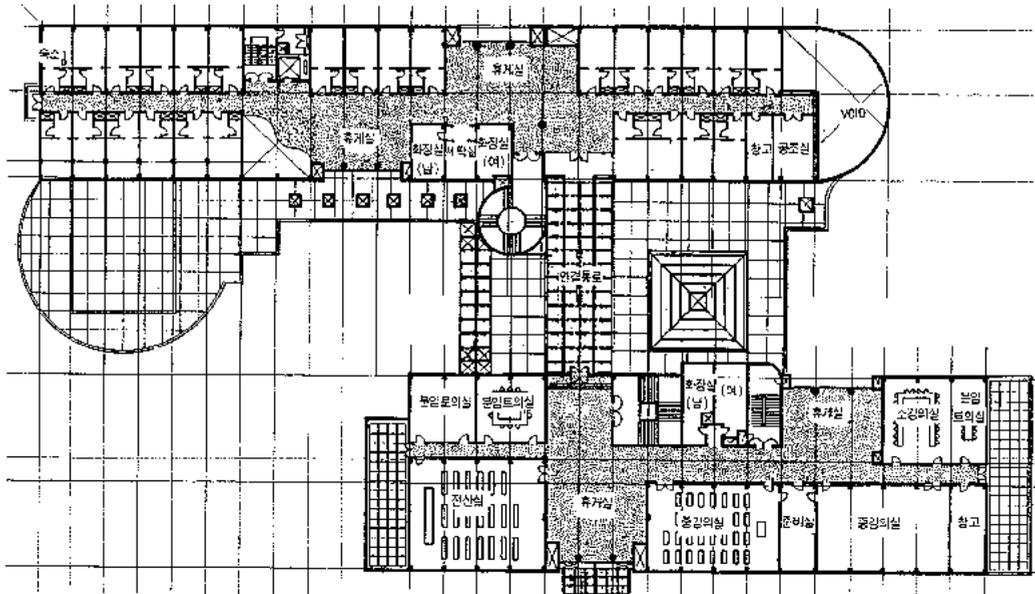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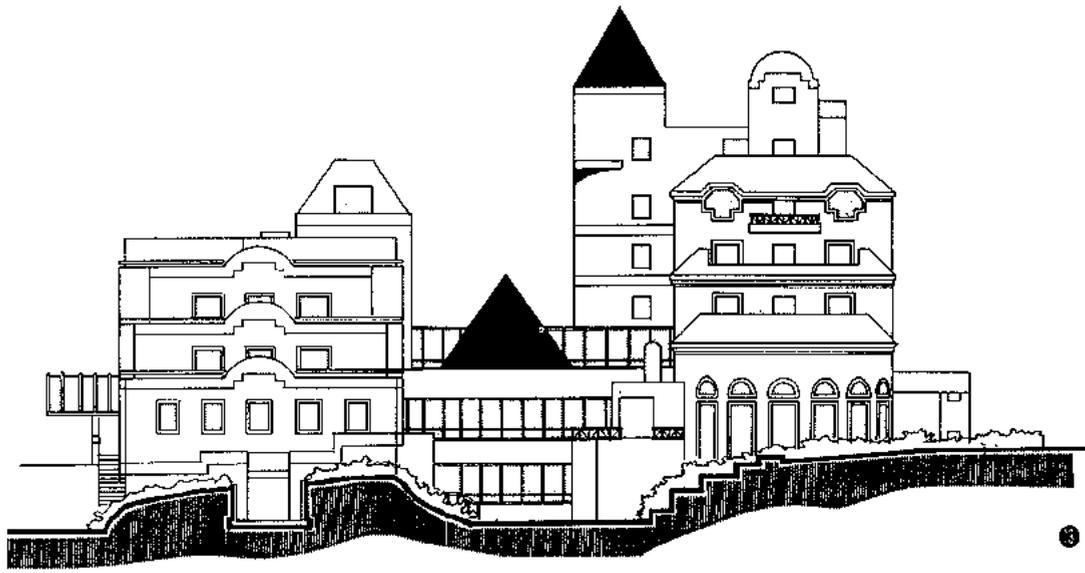
⑩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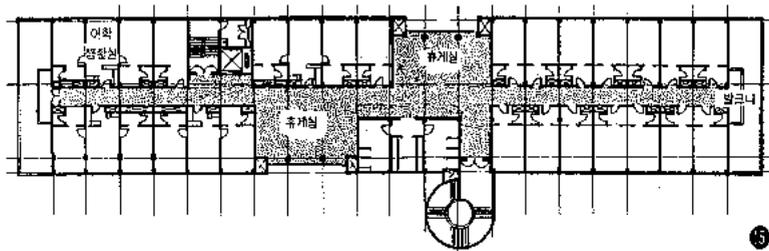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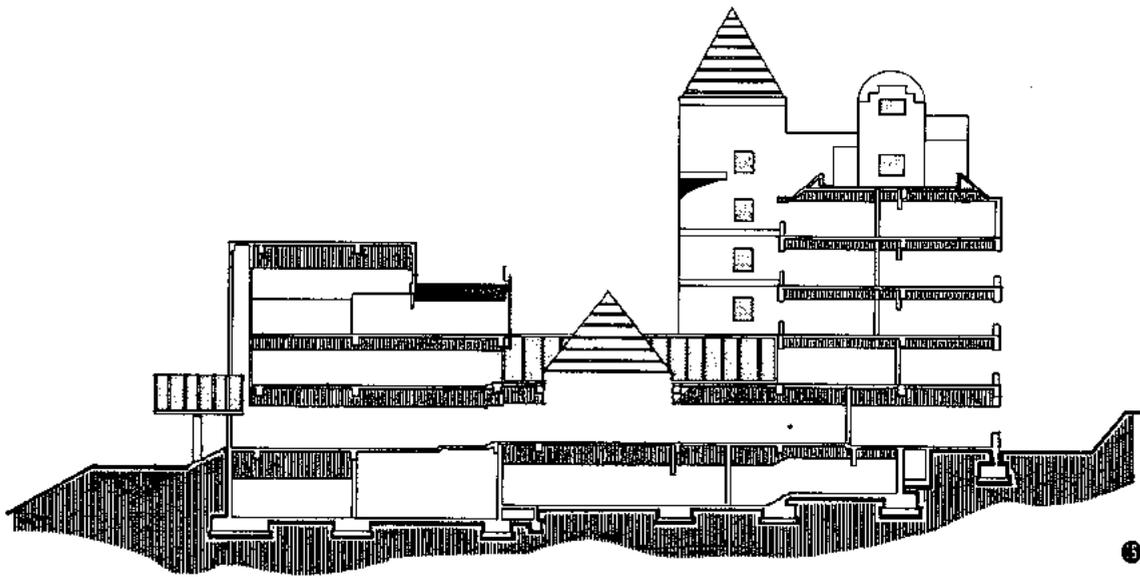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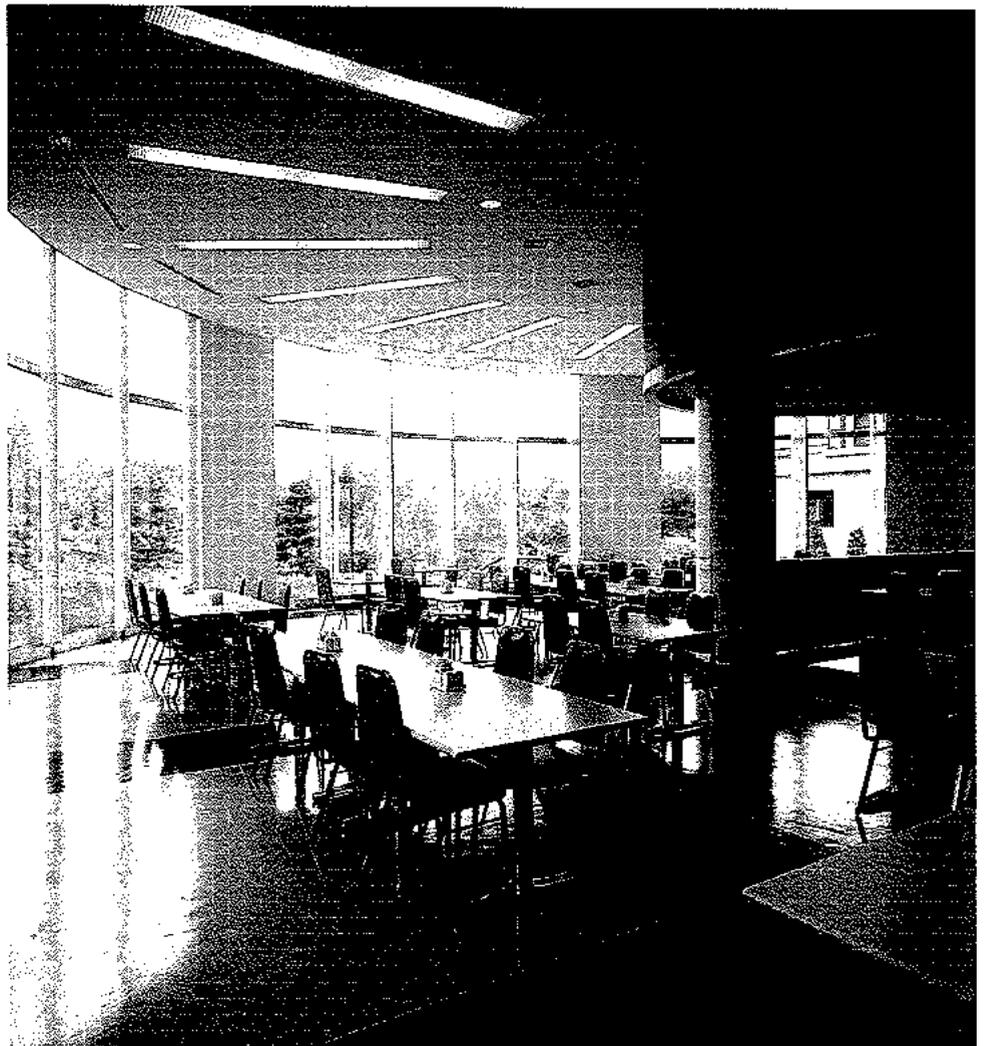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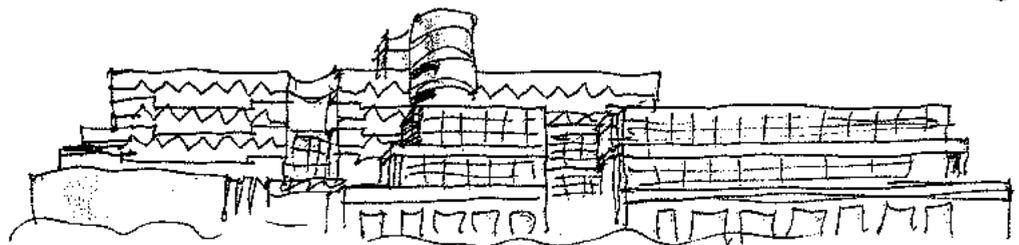


11



13

- 11 우측면도
- 12 남측에서 본 식당 및 휴게실 외관상세
- 13 5층 평면도
- 14 종단면도
- 15 교육관 3층 휴게실
- 16 1층 식당
- 17 스케치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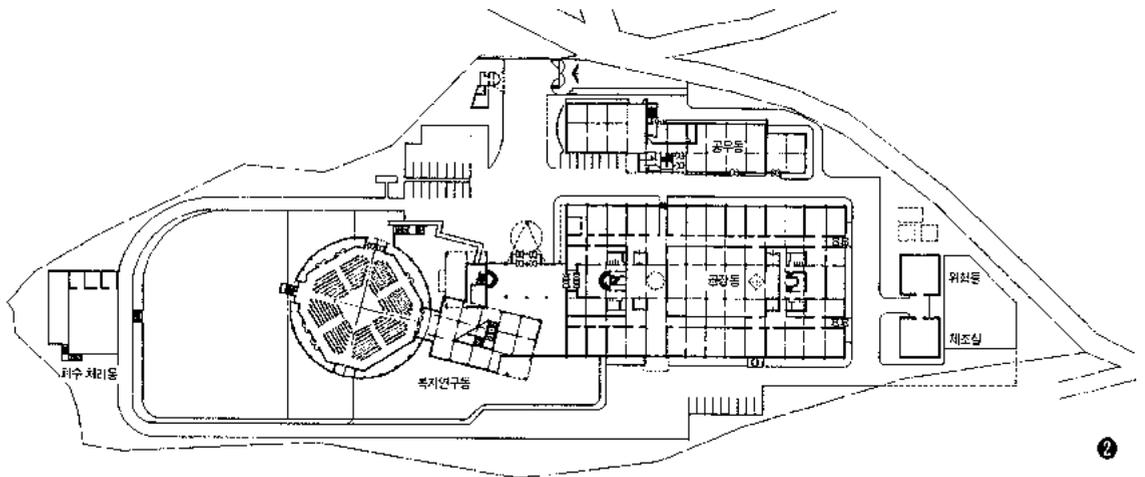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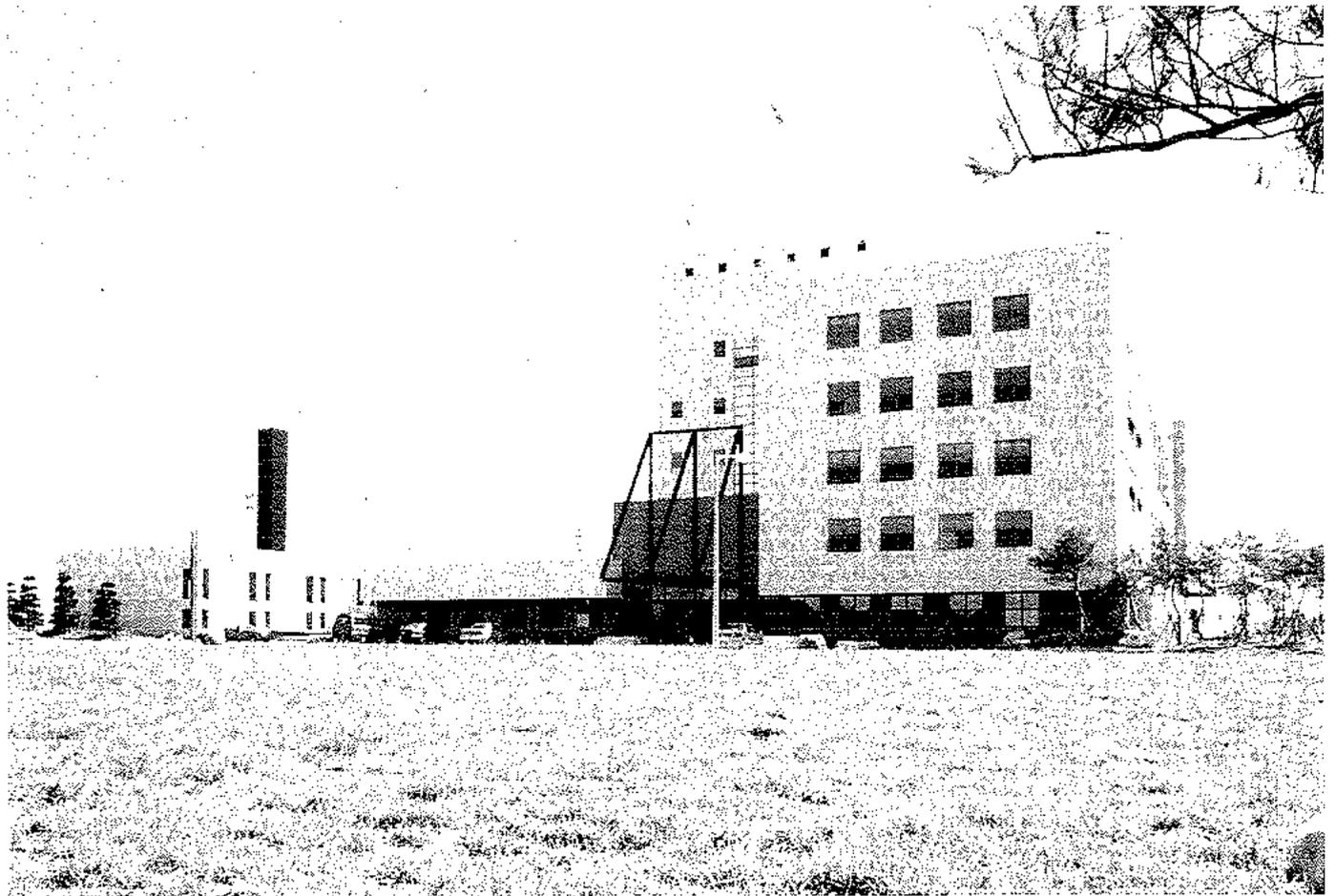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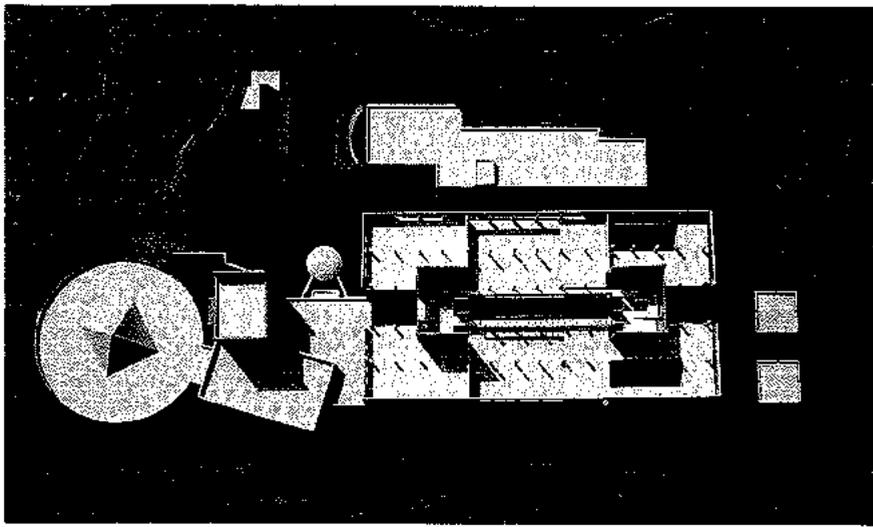
에바스 화장품 평택공장

Evas Cosmetic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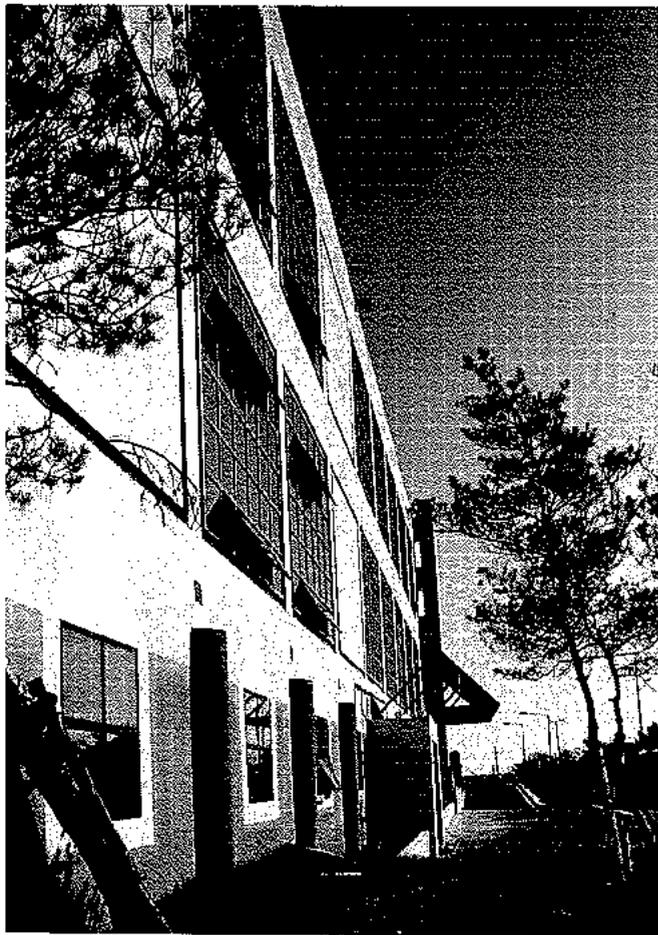
郭在煥+劉成烈 /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백
Designed by Kwak, Jae-Hwan & Yu, Seong-Yul

■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좌교리 285-1
 지역·지구 / 산림보존 및 경지지역
 대지면적 / 26,661㎡
 건축면적 / 643.34㎡
 연면적 / 13,285.74㎡
 건폐율 / 19.8%
 용적률 / 46.40%
 주차대수 / 50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내장재 / 에멜존 페인트
 주요외장재 / 드라이비트, 에멜존 페인트





- ① 전경
- ②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③ 위에서 내려다 본 모델
- ④ 외벽상세
- ⑤ 내부중장에서 본 계단실



거주의 집에는 사랑으로
 생명과 죽음이 안식하게 하라
 교육의 집에는 지혜로써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라
 작업의 집에서 정열로써
 이성과 감성이 향기롭게 하라
 축제의 집에서 순수로써
 환희와 비애를 노래하게 하라
 예배의 집에는 믿음으로
 절대와 자아가 조화롭게 하라

작업할 때 한번쯤 뇌리에 떠올리는 독백이다.
 화장품 생산공장이란 작업의 장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그곳에선 이성과 감성의 어느 쪽이 우세한 작업
 이며 그것은 건축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작용하는
 것인가.

정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디서
 비롯되게 할 수 있을까. 거주와 교육과 축제와 예배
 의 기능은 그곳에 어떻게 관련되어 삶의 터를 이
 록하는가.

이러한 사유는 개념과 이미지를 출발부터 한정시
 키고 궁질시키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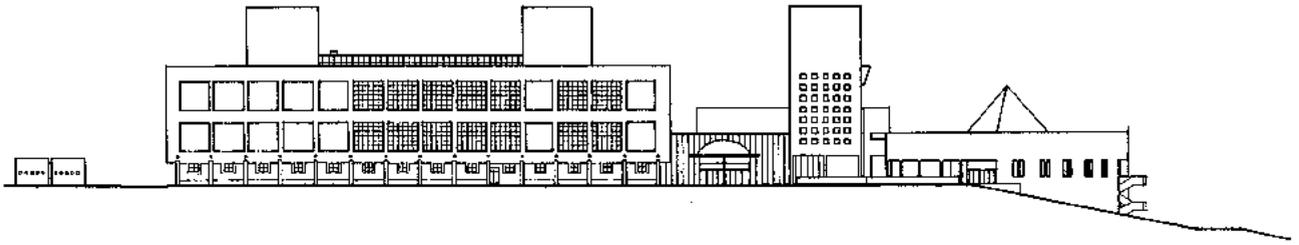
물음은 늘상 나를 지루하고 집요하게 어디론가
 이끌고 간다.

평택군 고덕면 좌교리. 낮게 구름진 언덕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의 주변의 몇몇 제조공

장과 100호 정도의 농가가 어우러져 있는 조용한
 마을이다. 주어진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시설을 확
 충해 가는 내용으로 공장장으로 있는 박용운씨의
 어려해 통한 구상해온 원료계량, 제조, 보관, 포
 장, 반출순서의 하향식 생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다
 층식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작업의 주된 골격으로 장변방향으로 종단하는
 부지의 중심 축선상에 내부공간을 순환하는
 수평동선을 설정하고 48m 간격으로 수직동선 코
 아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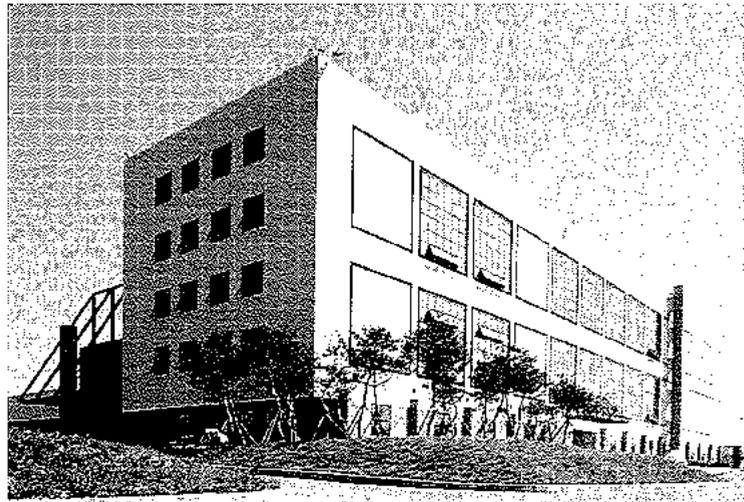
이것은 기능과 형태상의 강한 축을 형성하여 생
 산시설부지 전체의 공간체계에 분명한 질서를 부
 여하고 단계별 확장계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 한 것이며,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내부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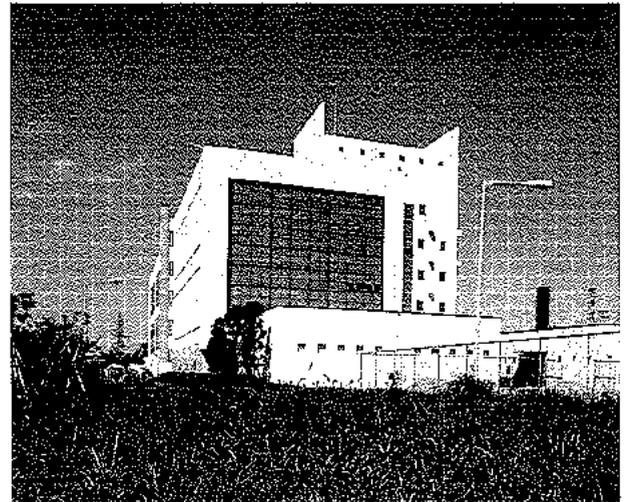
6



7



8



9

체계의 구축이다. 또한 수직동선 코어의 결절부는 각 생산 시스템의 유니트가 좌우로 결합하고, 분절되고, 변화하며, 전시와 견학, 시선의 단함과 열림, 빛과 그림자의 다이나믹한 전환 등 사용자와 방문자에게 다양한 공간체험을 제공하는 내외부 풍경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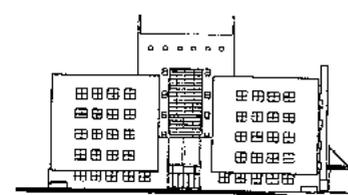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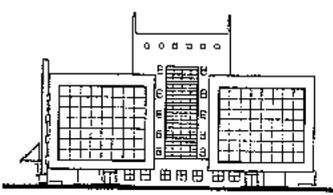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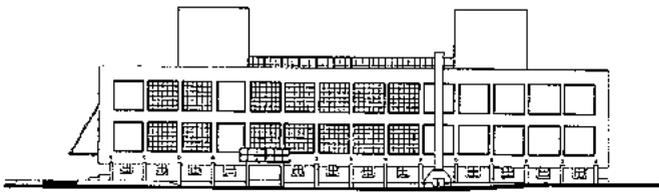
특히, 4계층의 오픈되어 있는 생산부의 아트리움 공간은 작업환경의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조성해 줄 것이며, 3단계의 연구복지시설이 완성되면 공간은 더욱 필요로워 질 것이다.

깨끗하고 화사한 회사의 제품이미지를 고려하여 외벽은 주로 백색의 페인트와 드라이비트로 마감하였으며 삼원색으로 몇개의 요소에 액센트를 주어 공간을 자극하고 긴장시켜 활력을 도모했다.

1단계 공사진행 중 당초 설계시의 주 진입로가 테니스 코트가 있는 저지대 부분에서 부출임구로 정했던 공무동 방향으로 변경 개설되어 공간 전개 의 어색함과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으나 주변의 녹음과 더불어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마을에 자리해 주길 바란다.

- 6 입면도
- 7 옆에서 본 모델
- 8 공장동 북서측 입면
- 9 공장동 측면상세
- 10 초기안 스케치
- 11 서측면도
- 12 남측면도
- 13 북측면도
- 14 운송실측 외벽상세
- 15 현관상세
- 16 5층 평면도
- 17 3층 평면도
- 18 1층 평면도
- 19 4층 평면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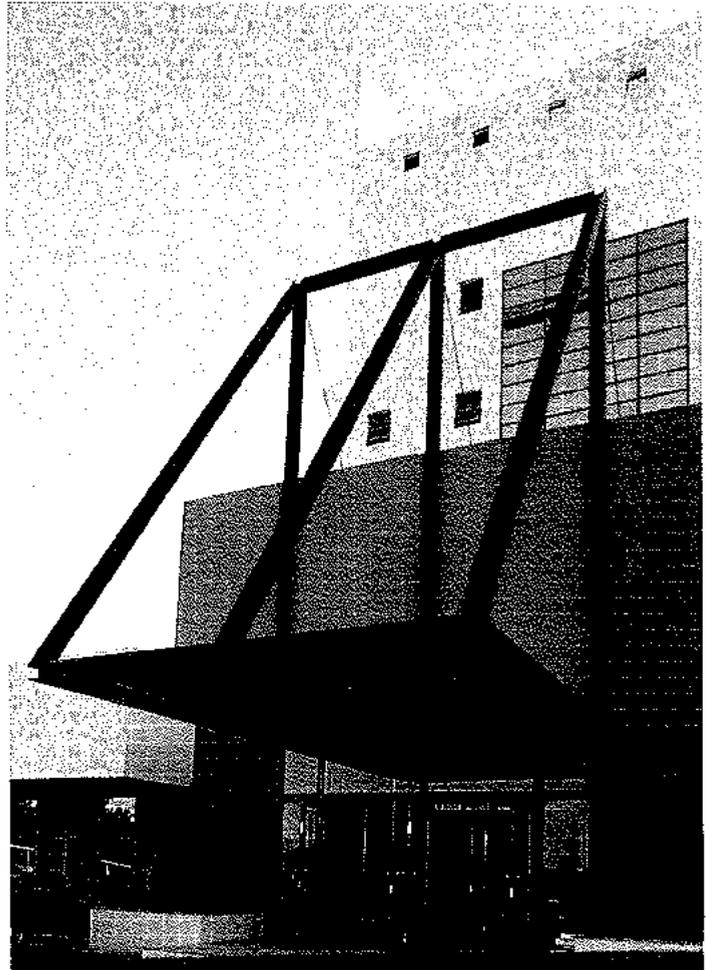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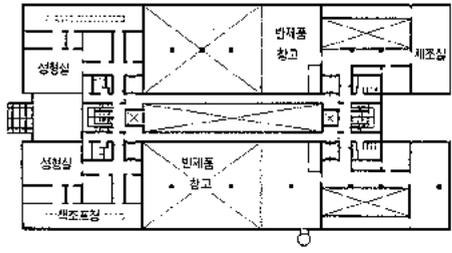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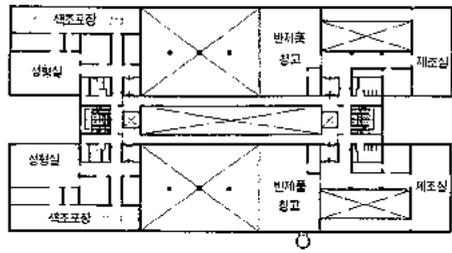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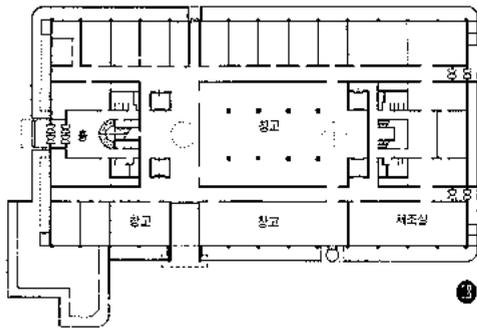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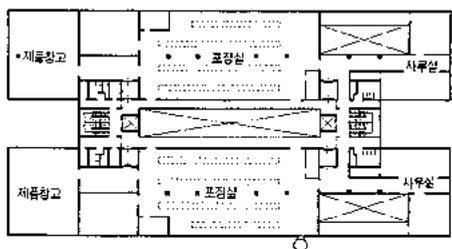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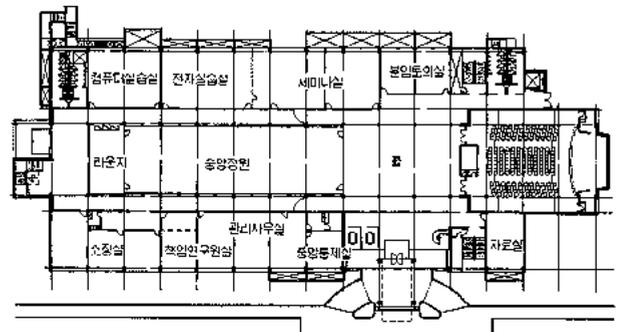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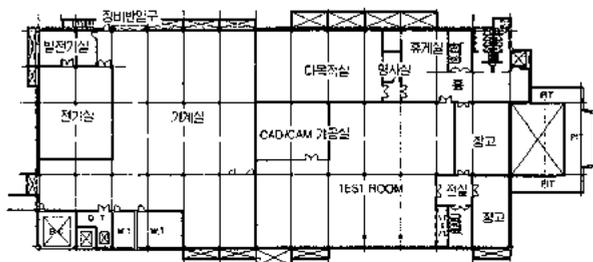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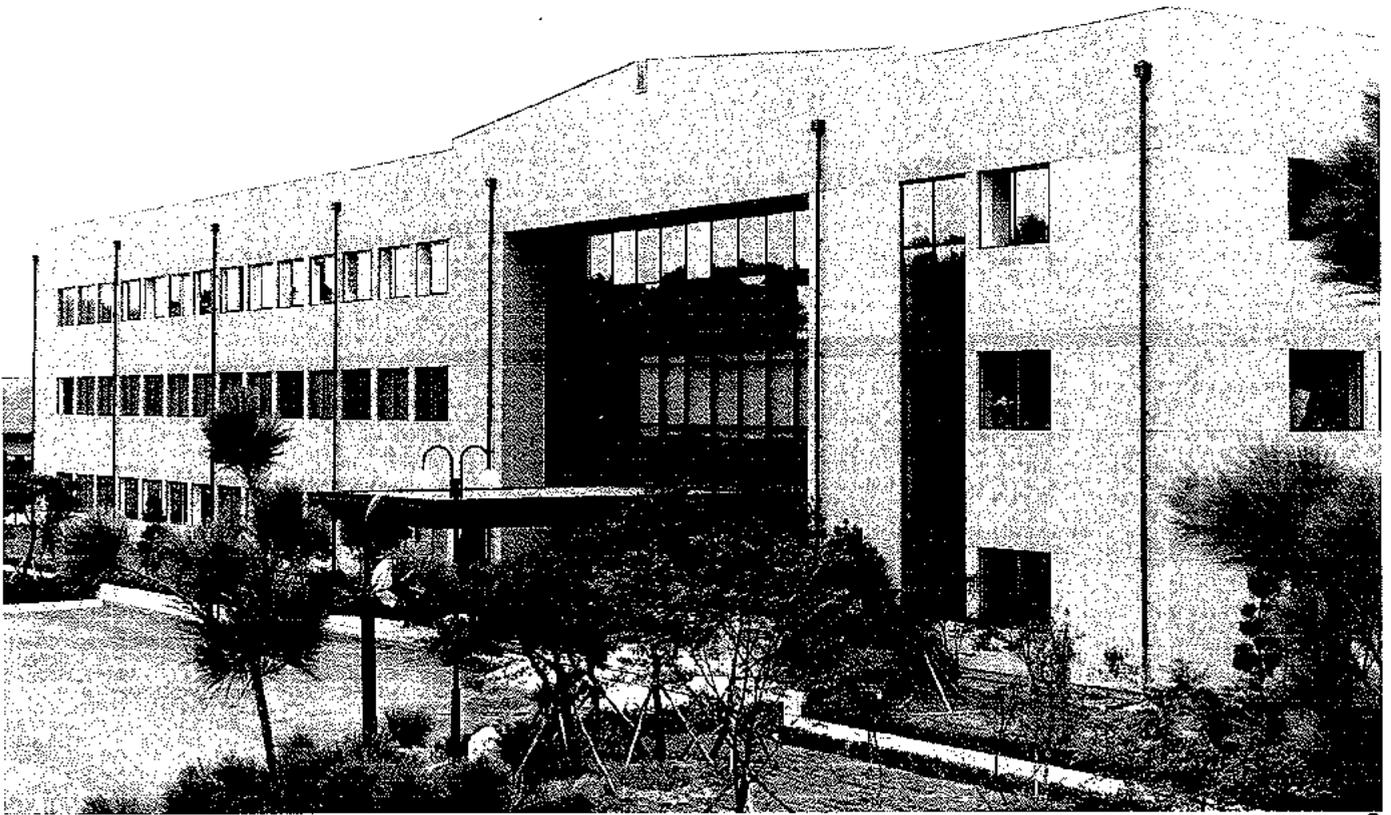
금성사(평택) 생산기술연구소

Gold Star Manufacturing Research Technology Center

李忠彦+金光燮 / (주)원일 종합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19-1
 지역·지구 / 도시계획구역 외
 대지면적 / 30,000㎡
 건축면적 / 2,687.01㎡
 연면적 / 9,415.53㎡
 건폐율 / 16.8%
 용적률 / 49.29%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 120대
 주요외장재 / 드라이 비드

WORKS



■ 금성사 평택공장 단지내에 위치한 생산 기술연구소는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연구소의 목적과 거기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교육하는 연구기능을 통합한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다. 즉 연구 단서로서의 장소성과 지적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성, 쾌적성을 만족시키면서 연구생들의 심신수련 및 단체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재창조의 산실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용한 대지를 찾아 계획되는 일반연구소와는 달리 공장 부지내에 위치함으로써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생산기술 연구를 바로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습하면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즉시 교육시켜 새로운 기술을 조급이라도 빨리 현장에 적용시키므로써 생산성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신 기술 개발 경쟁에 한걸음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연구소란 일단 자연과학과 인분에 대한 온갖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연구하여, 그 연구를 통해

그곳에 잠재되어 있는 진리를 찾아 사회적, 문화적 또는 생산에 반영하여 계속되어지는 기술의 향상, 축적 등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성을 차지하는 투자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본 project를 전개하면서 일단 연구소로서의 동선과 기능이 최대 효율성을 가져야 하며, 청결하고 소음이 없는 환경과 그에 필요한 각실의 규모 산정, 적절한 실위치, 연구능률로서의 기능 Check, Public Space 의 적절한 공간배치 등 연구소 내부 공간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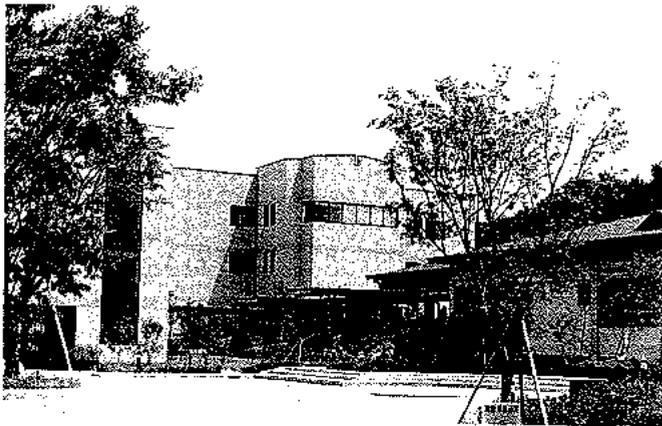
이러한 조건의 집약으로 "ㄱ" 자형의 중정형 평면이 전개되었으며, 이로써 상호기능이 수직적, 수평적 최단동선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중정형의 도입은 장래 증축성장의 고려와 함께 외부공간을 중정에 도입하므로 건물내부의 개방감과 함께 쾌적한 채광동 상당한 잇점을 가져다 주리라 보며, 외부형태 또한 연구소로서의 평면기능에서 주어진 형태를 두리없이 단순하게

수용하여,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 드라이비트 외 벽마감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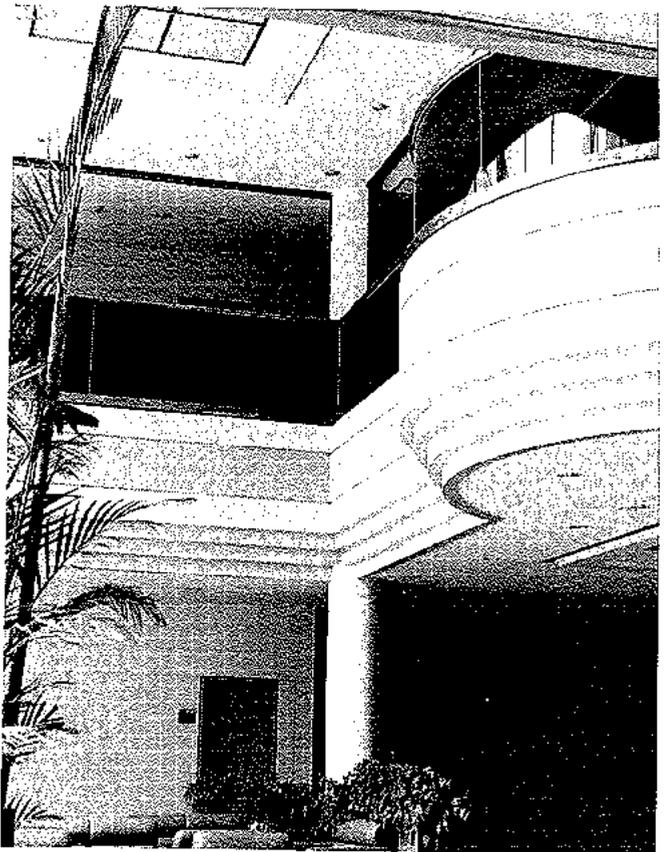
또한 석당등은 별도 처리하여 Open Corridor의 연결로 기능을 분리했으며, 숙박동까지 Open Corridor로 연결, 기능의 명확한 분리와 함께 상호 연결이 되도록 피로티, 캐노피, 중정, Open Space 등을 활용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세부적 계획까지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소의 환경이 쾌적하고 따뜻하면 경직된 연구소의 분위기가 긴장된 인간관계를 완화시켜 주게되며, 이러한 건축공간이 인간 본래의 휴머니즘과 함께 인간의 사고는 밝고 명랑하게 움직이게 되어, 모두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미래의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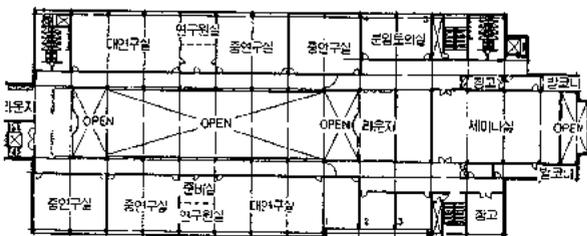
이로써 연구소로서의 활력은 물론 기업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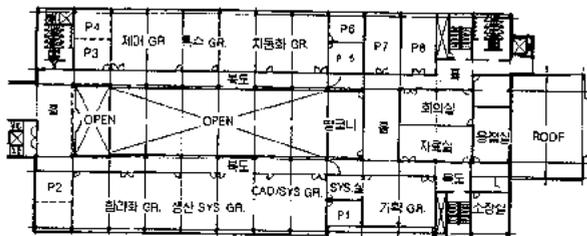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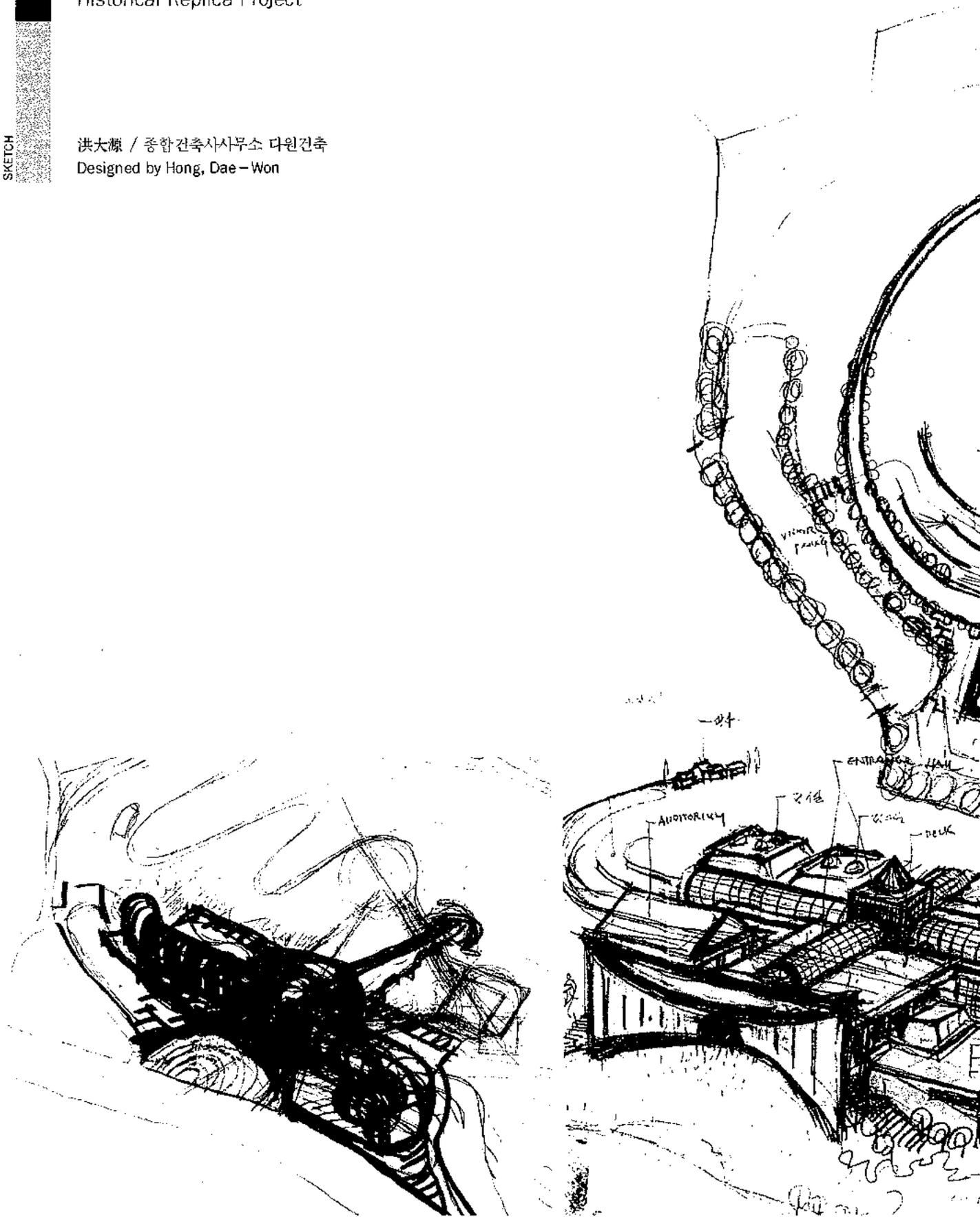
- 1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2 지하층 평면도
- 3 1층 평면도
- 4 후면측 상세
- 5 2층 세미나실
- 6 중앙정원에서는 내부상세
- 7 2층 평면도
- 8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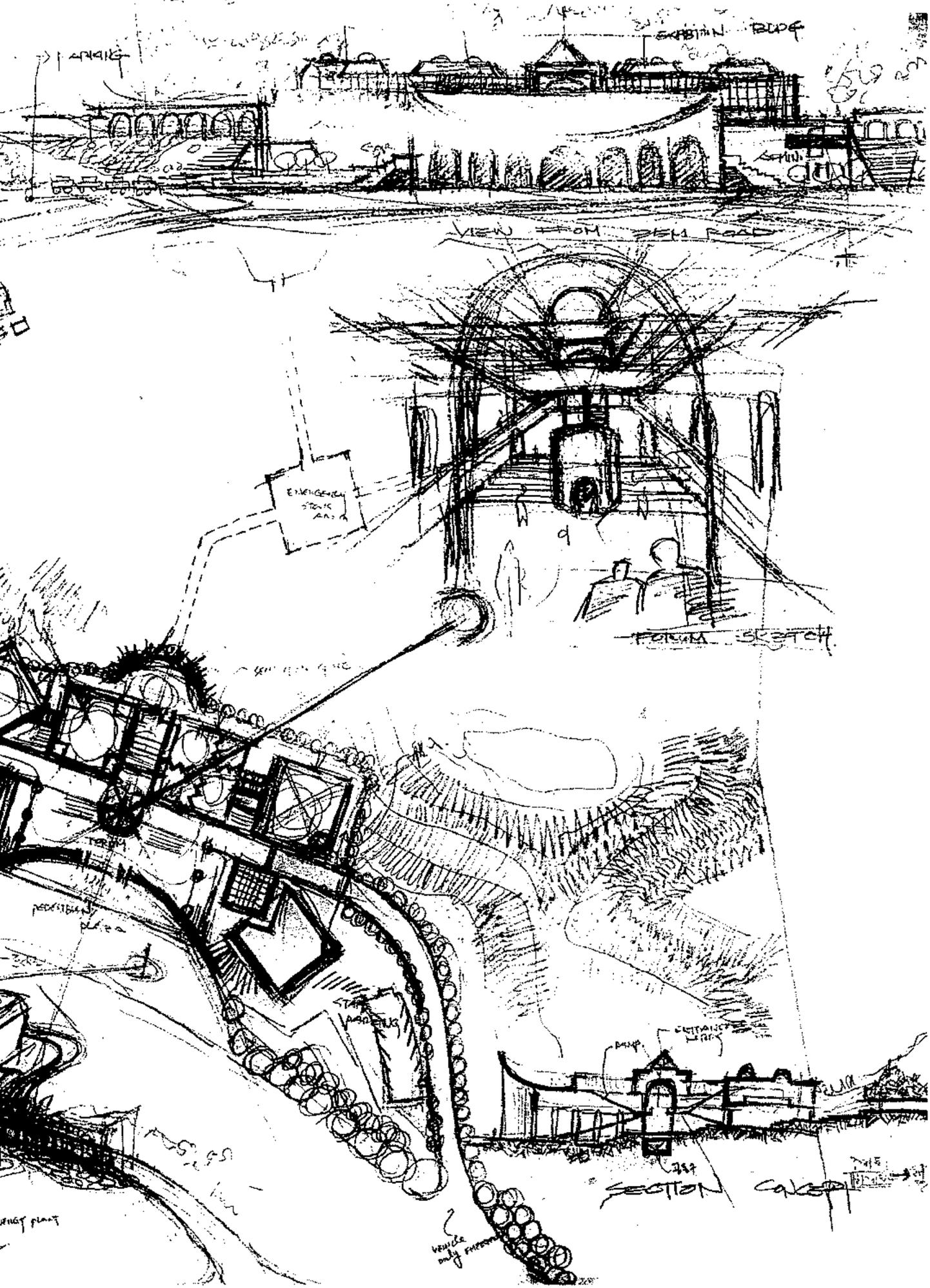
T-박물관 현상을 위한 구상도

Historical Replica Project

SKETCH

洪大淵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Designed by Hong, Dae-won





壬申年을 보내며

See the old Year Out

金永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토우

by Kim Young - Ung

1992년 壬申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1월초까지만 해도 2달쯤 남았다고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막상 12월이 되고보니 한달 남았다기 보다는 한해가 다갔다는 생각이 앞선다.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로지만 당장 연말 걱정이 앞선다.

전반기에 사무실을 유지할 정도의 프로젝트가 수주되어 이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였더니 웬걸 두 프로젝트는 허가 반려만 받고서 도통 진행할 생각을 안하고 있고, 8월말까지로 계약되었던 일은 자꾸 지연이 되어 내년 1월까지 가야 끝이 날것 같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계획안이 완료되어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내부 사정으로 4개월이 지나도 승인통보가 없다. 이러다가 큰일이다 싶어 여름부터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3개의 프로젝트에 작품을 제출하여 그중 1개 Project에 당선되어 겨우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벌써 1년이 지나다니 참 빠르기도 하다.

금년 한해는 사무실보다는 개인적으로 참 바쁜 한해였다.

서울건축사회 간사를 맡다보니 한달에 두세번씩 꼬박꼬박 회의에 참석하고 또 연구과제가 있었다.

원래는 매월 1회의 회의가 원칙이지만 임시회의, 간담회, 여기에 총회 등이 겹치다 보면 결국 두세번씩 된다. 회의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사실 그날 하루는 다가게 마련이다.

여기에 국제위원회를 맡게되어 동경 건축사회와 자매결연 조인식과 일본 청년 건축가의 간담회 등등, 준비하고 진행하다보면 그것도 바쁘게 된다. 또 결산위원회, 예산위원회까지 겹친다.

협회의 일이 곧 우리 전체의 일이고 책임을 맡았을 때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계약도 많았고 또 연구에 할애되는 시간의 역부족을 실감케 했다.

후반기 들어 현상설계한다고 밤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에 임시간사 회의가 있을 때는 정말 잠이 부족하여 일이십분 늦기도 하여 미안하기도 하였다.

10월 들어서는 협회에 지회와 본부의 2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어 본의 아니게 볼러 다니다 보니 몸도 바쁘지만 이것 저것 겹쳐서 마음이 더 조급해 질때는 결국 모든 부분이 다 소홀한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하였다.

선거란 당사자는 초조하고 합들겠지만 회원들은 이때 만큼 대접받는 경우도 드물어 기분좋은 한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좋은 공약도 많고 또 공약대로 된다면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장미빛 희망도 가져보게 되니 즐겁고, 선거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 끝나고 나서 일정시간이 흐르면 거울같이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혼자 웃게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탄생하였으니 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것을 기대해 본다.

후반기 들어 만나는 소장마다 어렵다고 한다.

대형사무실이나 개설한지가 오래된 사무실 보다는 최근 2~3년 사이에 개업한 젊은 소장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언젠가 후배 소장들과 모임이 있어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요즈음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도대체 일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영 보이질 않습니다.』

『인원이 몇명인데?』

『미안합니다만 거기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인원이 몇인가에 답변을 유보하겠다는다니.....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옆의 후배에게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글썽, 잘 모르겠지만 한 두명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이상 묻지를 못했다. 내년에 허가 유보 조치도 완전히 풀리고 건설경기 부양 조치라도 생기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버틴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볼때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객관적 징후는 오히려 없는 것 같다. 모든 산업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거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 활발해 질텐데 건축은 이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2~3년 동안 건설된 물량이 공급을 상회하였고 경기위축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니설지 의문이다.

주거부문까지 내년에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분양이 저조하여 착공을 미루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모두 어렵다보니 입찰이나 덤핑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사 모두 합심하여 건축에 대한 애정과 건전한 정신으로 단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덤핑이나 가격 입찰에 참가하여 스스로 보수액을 낮추어서는 모두가 어렵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될 때는 오히려 보수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만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데 편한 소리 한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한사람 한사람 보수액을 낮추는 경쟁을 하다보면 그끝이 어디일 것인가 묻지 않아도 짐작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모두 어렵다보니 입찰이나 덤핑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사 모두 합심하여 건축에 대한 애정과 건전한 정신으로 단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덤핑이나 가격 입찰에 참가하여 스스로 보수액을 낮추어서는 모두가 어렵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될 때는 오히려 보수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만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데 편한 소리 한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한사람 한사람 보수액을 낮추는 경쟁을 하다보면 그끝이 어디일 것인가 묻지 않아도 짐작하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여건은 건설업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은 줄어들었고 금년도 건설업 면허가 개방이 되어 내년도 건설업체수가 현재의 약 2배에 이르러 치열한 수주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덤핑으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관공사 중심으로 내역 입찰제를 채택하여 모든 수량은 주어지고 단가를 조정하여 최저가 낙찰이 시행될 것으로 보아 더더욱 가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이는 내역 입찰제를 실시하다 보니 과거에는 입찰전에 설계도면이라도 검토하여 일부는 신중하고 일부는 경험에 의한 금액이나마 맞추어 보았으나 수량이 주어지고 정산한다 하니 기술진 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도면 검토는 아예 뒷전이고 산술적인 수치만 가지고 써먹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격 경쟁과 도면 경시는 결국 기술발전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U.R에 의한 건설부분의 개방화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압력에 못이겨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며칠전 우연히 미국에서 오래도록 설계와 시공을 하였던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택을 예로 들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항과 차이가 많아 놀라게 되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고 우선 공사비에 있어서 우리의 2/3가량이고 공사기간은 우리의 1/3정도의 기간이며 설계비는 효율은 높지만 공사비가 낮아 결국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 다른 여건을 단순 비교하였고, 지명도에 따라 차이도 많고 특히 공사기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주택을 재산가치로 평가하여 습식위주 공사가 주(主)가 되어 길어지고 미국은 목구조 등에 의한 건식공법이 주(主)가 되어 차이가 많지만 어찌되었던 개방이 되었을 시는 대형이나 소형공사를 막론하고 설계나 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 그분의 지적은 우리나라 건설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동일시간에 일을 처리하는 양(量)과 질(質)에서 비교할때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말에는 우리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감리 업무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협회내에서도 소형 건축물의

설계, 감리의 분리 여부에 대하여 논란을 거듭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건설기술 관리법은 슬그머니 시공감리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감리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하였고 건축법에서는 관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조사 검사업무를 무료봉사이다 싶은 정도의 비용으로 건축사에게 이관되고 있어 내년도 부터는 고질적인 위법·불법사례의 모든 책임을 건축사들이 떠맡게 되어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많아 많은 처벌 사례들이 나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충분한 보수를 받고서도 열심히 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면 할말이 없겠으나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처벌만 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을 한해를 회고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글을 기대하였는데 생각할 수록 어려운 여건만이 대두되어 일하며 생각하기 보다는 일을 놓고 생각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한 여건을 여행이나 간다고 해결될 것인가 이러한 때에 나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우선 먼저 모두 건강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옛성현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음(過飲), 과식(過食), 과로(過勞), 과욕(過慾), 과색(過色)을 하지 말라는 5가지 교훈을 남기셨지만 나는 여기에 덧붙여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건강하여야만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고 덤핑이나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여유를 가질 것이며,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어려움이 지나 좋은 여건이 도래할 때 다시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합심(合心)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물실 내부는 내부대로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들대로 마음을 합하여야만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서로가 나에게 편리한 이익만을 주장하다보면 본질적인 것을 잃게 되고 서로 불신만 커질 뿐이니 그저 하나의 힘으로 집중하여 대처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본다.

세번째로 우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이 심해지면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도면이나 업무 내용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연구하여 혹 스스로 실수시켰던 건축사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노력하여 되찾아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획과〉

▶ **질의**

너비 6미터인 통과도로와 너비 4미터인 막다른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모퉁이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자 : '92.11.30 경기도 성남 김경식)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도로의 너비와 도로의 교차각에 따라 일정부분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미개발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계획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자 : '92.11.30 충남 홍성 배재학)

▶ **회신**

질의"가"에 대하여

질의의 미개발된 도로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인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동 도로에 접한 대지에 사실상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다면 건축법상 건축은 가능하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령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미개발된 사유지인 경우 동 통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통로가 필요한지는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단지 세대수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기준 너비이상으로 개설되어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간선시설설치의부자 또는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준공검사일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진입도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기준중 건축물높이에 대하여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2퍼센트 이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함은 당해 건축물의 총별높이를 2퍼센트 이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26 경기 안산 박민용)

▶ **회신**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높이의 허용오차 2퍼센트 이내라함은 건축물 전체높이의 2퍼센트 이내를 말하고 이 오차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만자높이가 2퍼센트 이내 이어야 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라함은? (질의자 : '92.11.23 경남 김해 박경숙)

▶ **회신**

질의의 위험물취급소는 소방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부속건축물의 옥상을 통하여 2층건축물에 출입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동 옥외계단의 지반에서 높이1미터 이하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23 경남 마산 유현택)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옥외계단부분의 수평 투영면적 전부를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일반주거지역안의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대지를 택지조성하고 준공을 마친후 당해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23 경남 울산 오병소)

▶ **회신**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는 당해 대지의 권원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에 건축을 할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공장건축물을 증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시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물의 대지위치 표시를 함에 있어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면을 기재하는지 또는 공장등이 위치한 소재지번 전체를 표시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17 경남 울산 유경중)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에 속한 모든 필지의 지면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법상의 견폐율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질의자 : '92.11.16 경기 구리 정재열)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법 제47조의 견폐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질의**

공장건축물은 농사가 완료되고 단지 내부의 기계설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양된 상태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점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14 경남 울산 김영명)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공장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건사필증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10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1~5층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임시사용 승인부분이 아닌 6층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13 경기 안산 남광현)

▶ **회신**

질의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설계도면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으로 건축시 지하층 인정기준은? (질의자 : '92.11.12 경기 안양 이광수)

▶ **회신**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으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지하층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하에 있는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의**

'92.4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92.6.1부터 시행되는 개정건축법에서 규정한 허용오차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92.11.7 경기 안산 남광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건축법시행 ('92.6.1) 이전에 건축허가받아 법령시행이후까지 계속공사중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한 허용오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차량번호제작공장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질의자 : '92.11.6 경기 광명 박갑수)

▶ **회신**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환경관계법령에 의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1제4호 나목 (7)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 **질의**

하나의 대지에 2동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에 각동별로 대지를 분할하여 각동별로 2건의 설계변경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6 경남 울산 안종훈)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대지를 분할한 경우라면 각동별로 설계변경 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이니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의료시설안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3 경기 의정부 문명자)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시설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한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시 채광등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도로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인접대지경계선은? (질의자 : '92.11.30 서울 서대문 유철수)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적용시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여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정북방향에 철도부지로서 화물보관 및 수송만을 위한 역사가 있는 경우 동 역사의 반대편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92.11.26 서울 중구 최관식)

▶ 회신

질의의 철도부지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면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적용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나의 대지안에 12년된 8세대용 1동과 6세대용 1동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자 할 때 별실신고없이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26 건설부 주백국장)

▶ 회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하나의 건축물안에 상층부 4개층은 공동주택이고 하층부 3개층은 상가인 경우와 상층부 5개층이 공동주택이고, 하층부 3개층이 상가인 경우의 공동주택의 구체적 용도는? (질의자 : '92.11.25 서울 송파 성락봉)

▶ 회신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이 4개층인 경우 그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5개층인 경우에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552-7 (주)중부의 지상에 기존건물 18개동이 있는 바, 동 대지상에 공장과 작업장을 추가로 건축한 경우 증축인지 신축인지 여부 (질의자 : '92.11.23 서울 강남 한 제익)

▶ 회신

질의의 경우 대지의 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일단의 대지에 건축된 공장에 추가하여 건축한 경우라면 이는 증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시설녹지에 일부 저축되어 있는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진폐율 및 용적률산정시 시설녹지 저축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질의자 : '92.11.19 서울 중랑 김재천)

▶ 회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설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동 부분은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일단의 대지의 일부분을 토지형질변경허가받아 건축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대지면적의 범위는? (질의자 : '92.11.19 건설부 도시계획 과장)

▶ 회신

건축법상 대지라함은 건축법 제2조제1회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후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된 부분이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적정리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필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

타워형 기계식 주차장전용건물의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질의자 : '92.11.21 부산 서구 이종수)

▶ 회신

주차용도에 쓰이는 질의와 같은 수직순환식 또는 승강기식인 기계식주차장으로서 바닥이 층별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주차장의 층수는 1층으로서 1층 바닥면적이 연면적에 해당되는 것이며, 참고로 주차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은 주차장법상의 주차면적의 산입에 기준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의 면적산정기준과는 별개의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대입제수생을 상대로 하는 종합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하는 단과학원이나 방학중 개설하는 학원이 건축법령상의 대학입시계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23 대구 중구 우대영)

▶ 회신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질의와 같은 학원의 경우 종전 건축법시행령 별표2제4항제2호의 대학입시계학원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실내골프연습장의 건축법령상 용도분류는? (질의자 : '92.11.13 서울 구로 김종문)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 (4)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질의

사진필름의 현상인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건축법령상 어느 용도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18 서울 영등포 최현재)

▶ 회신

질의의 사진필름현상소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한다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_____

가옥대장상의 용도가 '쇼핑센터'인 경우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18 부산 동래 이봉순)

▶ **회신**

질의의 쇼핑센터가 건축법상 판매시설인 경우라면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니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_____

기숙사,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은 건축할 때 방충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19 서울 영포 박세형)

▶ **회신**

질의의 경우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거실의 창으로서 수시로 여닫는 것에 있어서는 방충망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_____

질의도면과 같이 쓰레기 소각처리기계설비가 소각로 본체 및 집진기의 높이는 4.6미터이며, 집진기에 부착된 배기통의 높이가 3미터로서 전체 7.6미터인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상의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12 서울 구로 임돈호)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의 쓰레기 소각처리기계설비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_____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와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하나 영업소와 보관창고가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는 경우로서의 영업소가 건축법령상 용도분류는? (질의자 : '92.11.12 서울 종로 박상열)

▶ **회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판매를 위한 건축물에 영업소와 보관창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유독물판매소가 영업공간과 창고공간이 각각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경우의 영업공간이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인 보관 및 저장등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만을 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동 영업공간의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질의** _____

1968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현재의 판매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92.11.13 서울 강남 최미경)

▶ **회신**

질의와 같이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가 제정되기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사용한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규정에 의한 용도분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_____

종전건축법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대중음식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으로 되어 있는 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란? (질의자 : '92.11.11 서울 강남 김평국)

▶ **회신**

질의의 경우 대중음식점에 부속되는 복도나 주차장등 부속용도의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 _____

군에서 발주한 군인용 막사와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기동대의 숙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숙영시설"이 건축법령상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9 서울 중구 홍관외)

▶ **회신**

군부대내에 위치한 군인용 막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7호의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찰기동대의 숙영시설은 경찰관서와 하나의 대지에 위치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호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공업무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입지하는 경우라면 동 숙영시설의 운영목적 및 행태 등에 따라 기숙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_____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예식장 및 운동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92.5.2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해 반려받았는 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이를 금지할 경우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가능여부 (질의자 : '92.11.10 인천 남구 박승희)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합니다.

▶ **질의** _____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건축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전 건축설계자의 동의를 받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11 대전 중구 오한진)

▶ **회신**

건축법상 건축설계자를 변경할 때 전설계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는 당초설계자와의 계약내용등 민사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 **질의** _____

가.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종교집회장을 내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바, 동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또는 종교시설인지 여부 (질의자 : '92.11.6 서울 서초 김익태)

나. 상기의 시설을 준공후 증축하고자 할 때 종교시설에 해당되게 되는 바, 이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여부는?

▶ **회신**

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 나목 (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 상기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으로 인해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미리 이를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없이 공사중 적발되어 벌금납부등 처벌후 등 허가가 취소되기전이라면 새로이 착공신고후 공사가능여부 (질의자 : '92.11.4 건설부 주택국장)

▶ 회신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령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여 처벌이 되었다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한 건축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이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가 가능할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화물트럭터미널의 하치장인 건축물의 지붕의 끝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7미터가 돌출된 1층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질의자 : '92.11.2 서울 강남 이재관)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붕처마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제도가 당해 시·군의 건축조례가 개정되기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신청시 일괄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1.2 서울 서초 안병의)

▶ 회신

가. 질의의 경우 건축조례에서 그 대상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며,

나.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산정시 건축조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도로반대측경계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도로의 중심선으로 보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다세대 주택은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1.6 서울 특별시장)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령에 따른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도로의 반대측경계선으로 보는 것이며, 동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대상에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 질의

종전 건축시행령 제92조 제2항 (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6미터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중 작은 것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모서리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각방향으로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0.28 광주 북구청장)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은 직각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직각방향으로의 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

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지목이 담·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 10필지 (면적 : 1,986평)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고자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형질변경 허가신청하였으나, 서울시 (강남구청)에서는 전체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야 한다는 바, 이에 대한 견해

나. 형질변경후 변경된 면적의 20%의 토지를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질의자 : '92.8.27. 서울 시초 최병재)

▶ 회신

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허가신청서에 의거 신청인이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의 용도가 같은 용도로서 50센티미터미만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여 '92.8.21 동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 드리으며,

나. 형질변경수 변경된 토지면적의 20%를 기부채납토록하라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불임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에 통보하였으니 그리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되어 있습니다.

▶ 질의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가 종전건축법시행령에서 공장으로 분류되어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나, '92.6.1개정되어 시행중인 건축법시행령에서 이를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였는 바, 조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 동 시설이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0.27 강원도지사)

▶ 회신

자동차정비공장이 종전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건축법시행령에서 그 용도분류가 바뀌어 자동차 관련시설로 허용되는 용도가 되었다더라도 동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정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제3종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 질의

도시재개발 (도심지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자 : '92.10.19 서울 특별시장)

▶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 사업목적이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용도인 판매시설의 일부를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재개발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사업시행권자인 귀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송유관누유발생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설비인 긴급차단밸브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만 건축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0.24 대한송유관공사)

▶ 회신

송유관사업법령에 의한 송유관은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서만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닌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변전소등과 유사한 시설로 보아 근린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 질의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건축조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건축법시행령 부칙에 건축조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다 하였으므로 '89.11.20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0.8 중소기업진흥공단)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90.7.16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055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9.11.20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845호)제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규모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캠페인

이러한 건축문화부터 정착시키자

인재부터 인지 우리사회는 건축은 있되 문화는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흔히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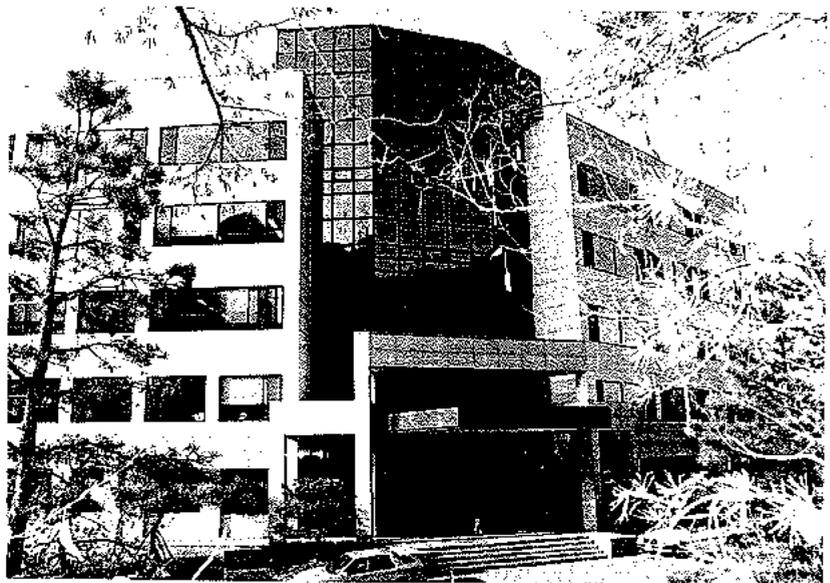
문화란 그것을 공유하는 주체집단과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문화를 공유하는 주체집단이란 건전한 가치관과 생산적인 활동규범에 대한 공동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건축문화는 이러한 공동인식이 확대되지 않아 참다운 건축문화가 꽃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첫번째 일은 이러한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고 그것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이런 조그만 부분부터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가 서로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할때 우리의 건축에도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확산을 통하여 건축관련자의 사회의식 고취는 물론, 자신의 행위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의 창조로 이어져 사회적 기여에 이바지 한다는 자긍심을 북돋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設計: 洪俊杓 同門 遺作
(1948~1991)
建築科 25 回 卒, 建築士

사진 : 서울대 삼성전산관

현상설계 2제

영종도 신국제 공항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도권 서울에서 약 52km 떨어진 영종도 일원의 간석지를 1990년 6월 신공항 후보지를 선정하고, 1991년에는 신공항의 기능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건설토록 하는 수도권 신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항공여객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항공사 및 공항관리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한국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터미널로 건설하고자 기작성된 기본구상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유능한 공항기술진과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현상설계를 공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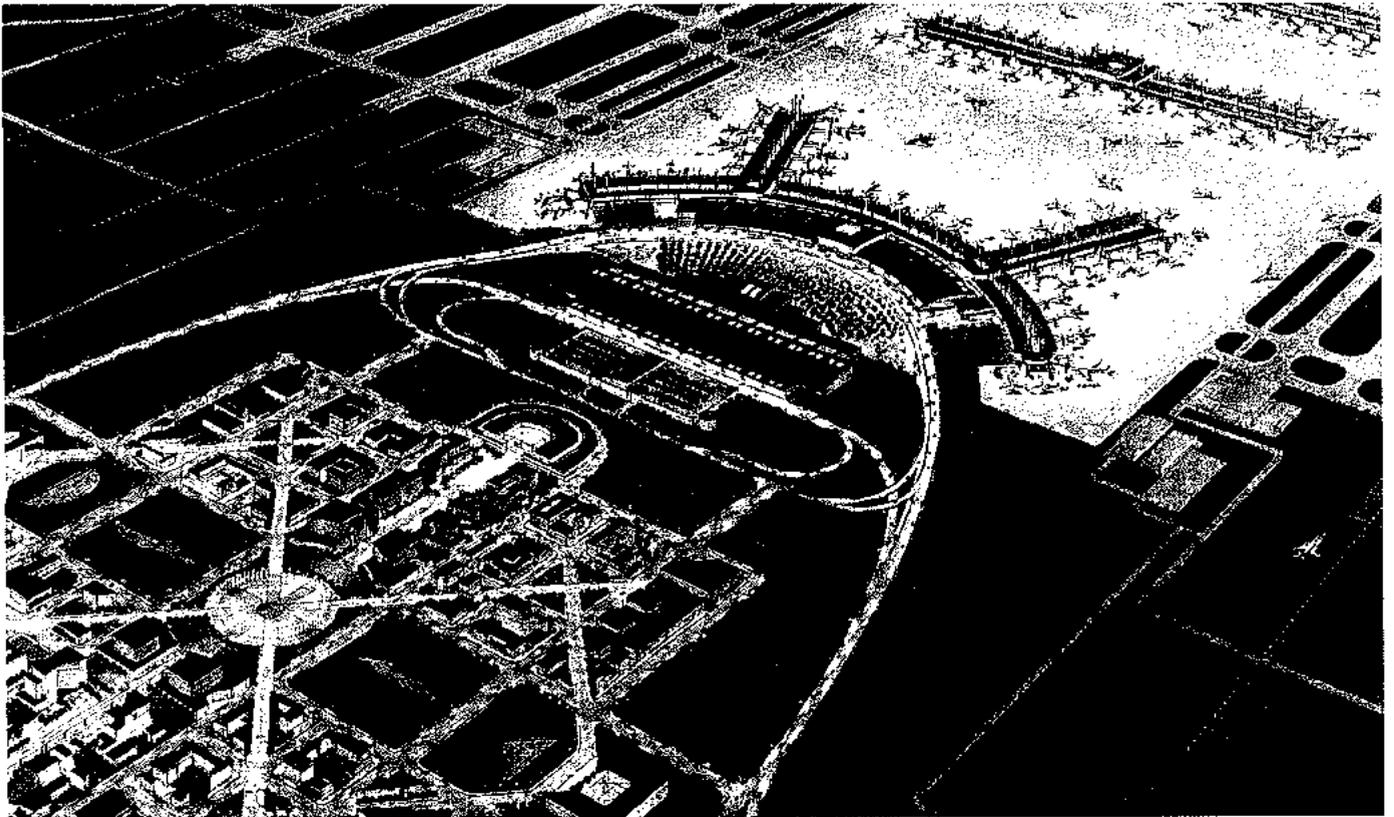
총 15개팀 (8개국 49개사)이 응모신청을 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공항여객 터미널의 설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10팀을 지명하여 현상설계를 시행하고, 이를 심사하여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1점을 선정 발표하였다.

국제연구교류센터

외무부는 세종연구소가 정부에 기부한 19만평의 토지 위에 외교, 안보, 통일연구와 국제교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7개의 정부출연기관을 수용시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고유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연구교류센터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23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대표:김병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1996년 완공예정인 이번 국제연구교류센터의 현상공모에는 총 46개사무소가 응모신청을 하고 그중 10개 사무소가 작품을 제출하여 당선작외에 서울건축종합건축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아키프랜종합건축안과 삼우종합건축안을 기작으로 선정하였다.

영·종·도·신·국·제·공·항



조감도

최우수작

정림, 원도시, 회림, 범건축,
미국 McClier, 미국 C.W.
Fentress 공동

■ 심사평

신국제공항이 세계적인 중추 공항으로써 한국의 새시대 관문이 됨을 잘 이해하고 범세계적인 설계이념과 한국미의 조화를 이루어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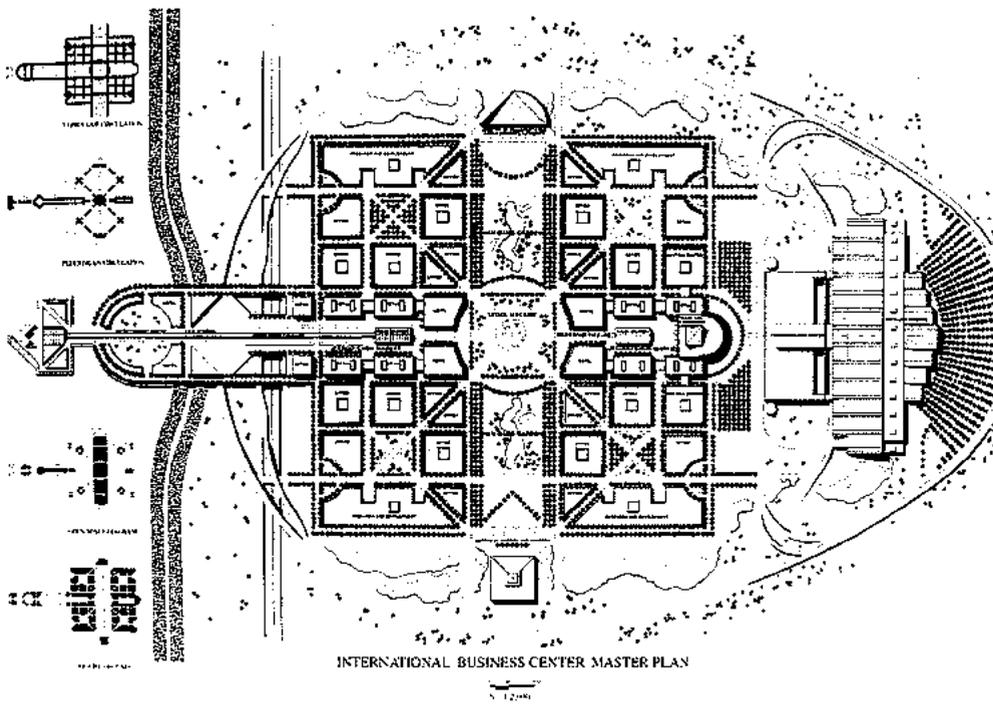
지붕구조가 독창적으로 되어 있어 실시설계시 구조미를 보

완하면 신시대 공항건축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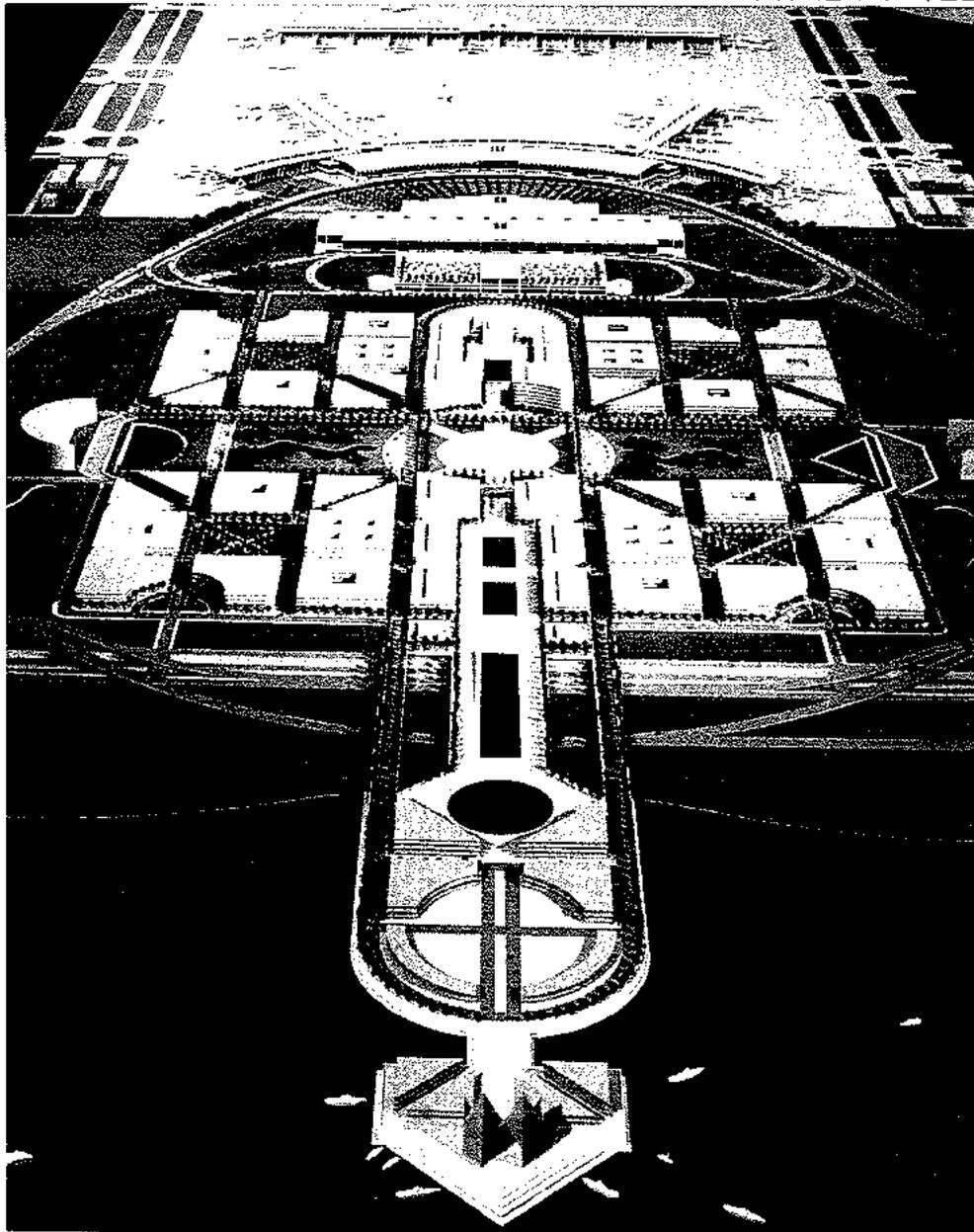
터미널 설계에 있어서는 승객위주의 동선 및 편의성을 주목표로 하여 Check-In Counter에서 탑승구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도처에 자연채광 및 실내조형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들을

마련하였다.

국제업무지역의 설계도 해변의 상징적인 조형물로부터 주 터미널까지의 축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고 시구적인 기하학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바, 한국적인 생활공간을 가미하면 좋은 도시설계안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센터 마스터 플랜



모형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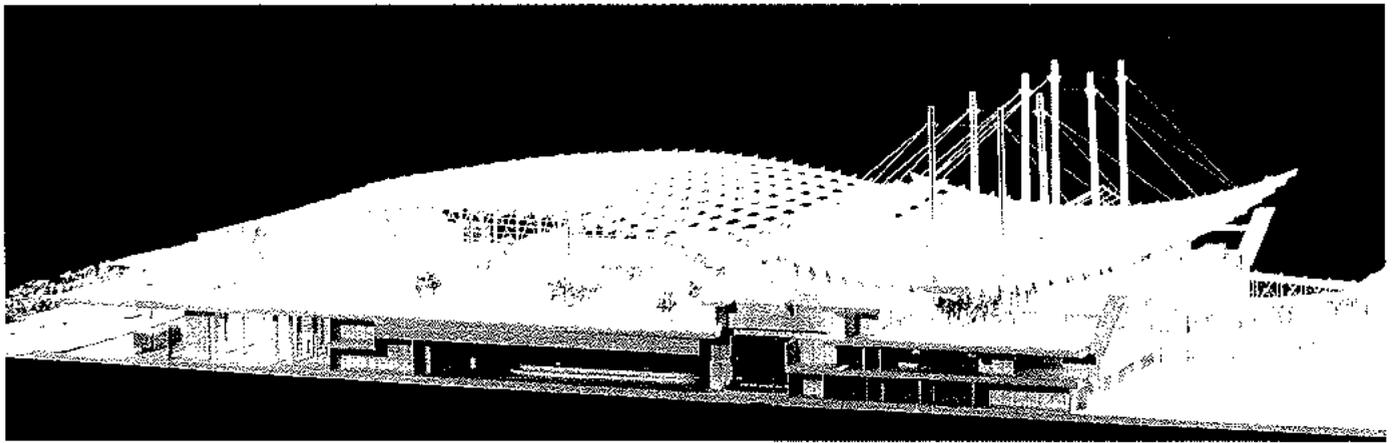
■ 계획개념

최종 2040년을 목표년도로 연간 수용승객수 1억명을 소화하는 공항을 목표로 계획하여 1단계 개항년도는 1997년을 목표로 하고, 1단계의 수용능력은 2005년까지 2,700만명을 기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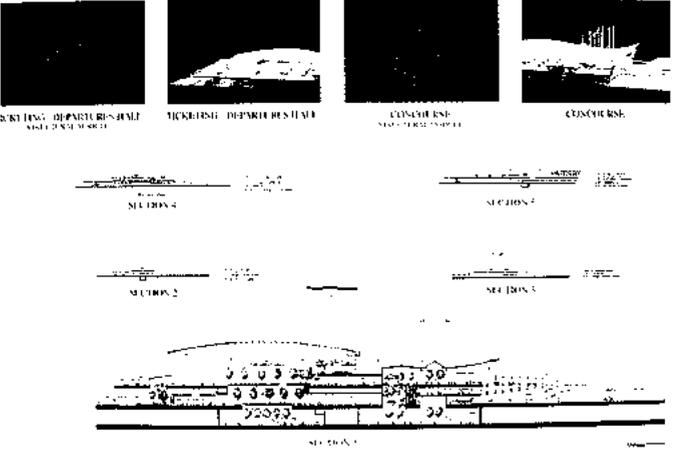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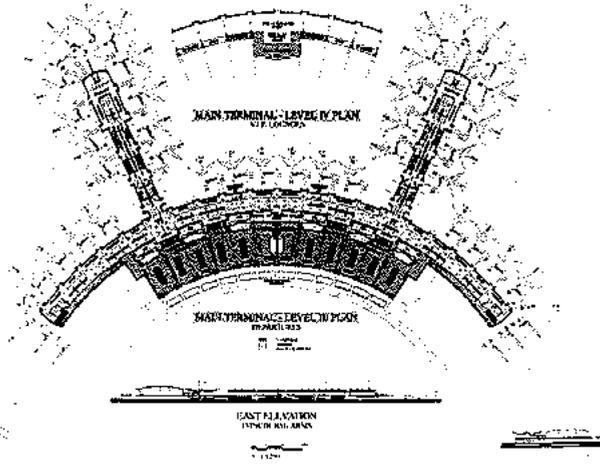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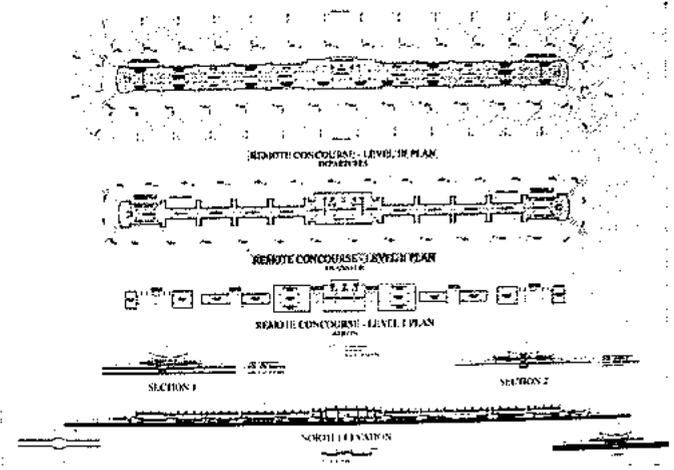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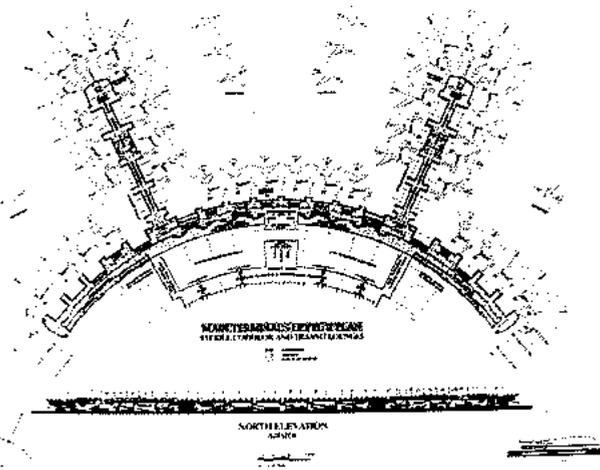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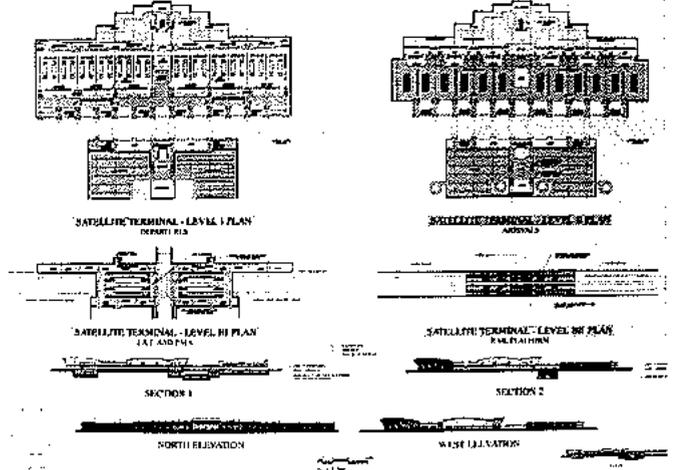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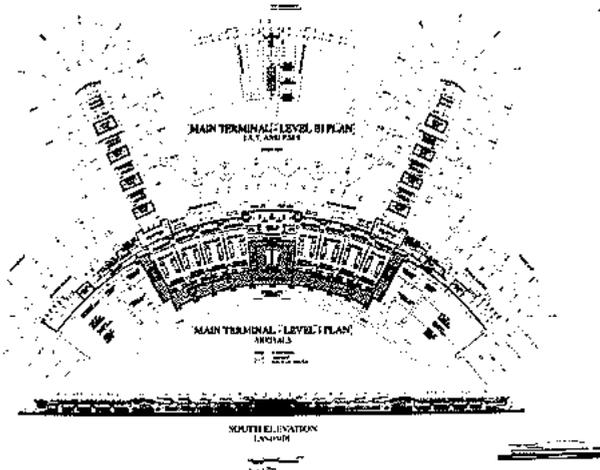
본 계획은 크게 나누어서 2개이 터미널 즉, 주터미널 및 위성터미널에 전체CIQ(Custom Immigration Quaranteen)를 나누어 수용하고, 1단계(주터미널), 2단계(탑승동 1동)까지는 주터미널의 1차중축으로 해결되며, 탑승동 3동이 완료되는 단계에는 위성터미널 및 교통센터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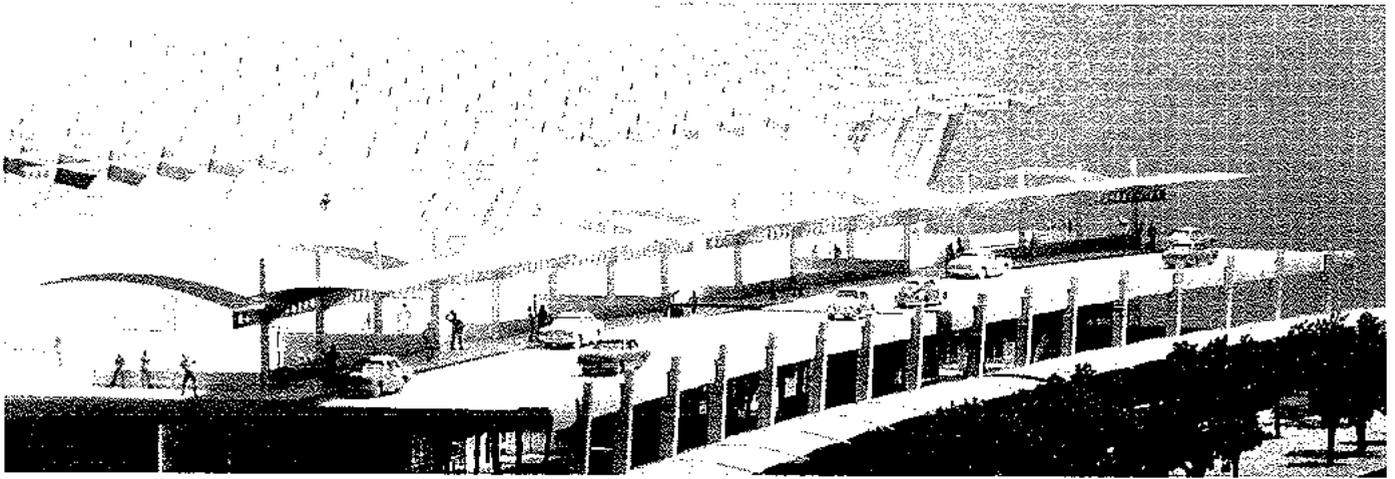
주터미널, 위성터미널, 탑승동들은 지하로 연결되는 자동교통수단인 IAT로 연결되고 주터미널로부터 국제무역센터까지는 일반 Public용 PMS(People Mover System)가 설치될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의 도심과 연결되는 지하철의 교통센터와 연결되어 대량으로 본 공항에 접근하는 교통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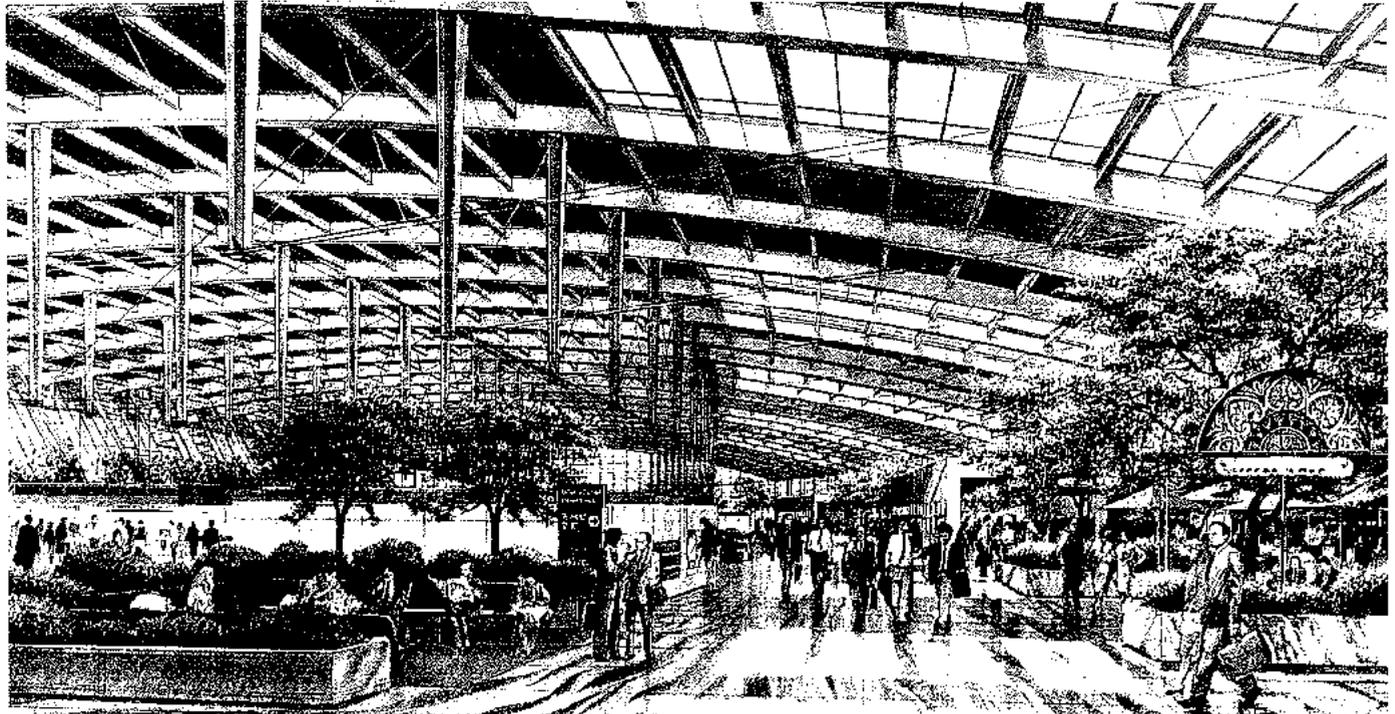


모형도 II





모형도 III



실내투시도



우수작

아키프랜건축, 신한건축, 프랑스 파리공항단 (ADP)

■ 심사평

발주자가 제시한 단계별 공사 시행 가능성 및 미래의 가변성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작품으로 건축적으로 섬세한 공간구성과 중정을 중심으로 하여 출발, 도착지역을 구분한 평면 계획동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도착지역의 진입로가 지하로 길게 돌아 들어가야 하는 결동이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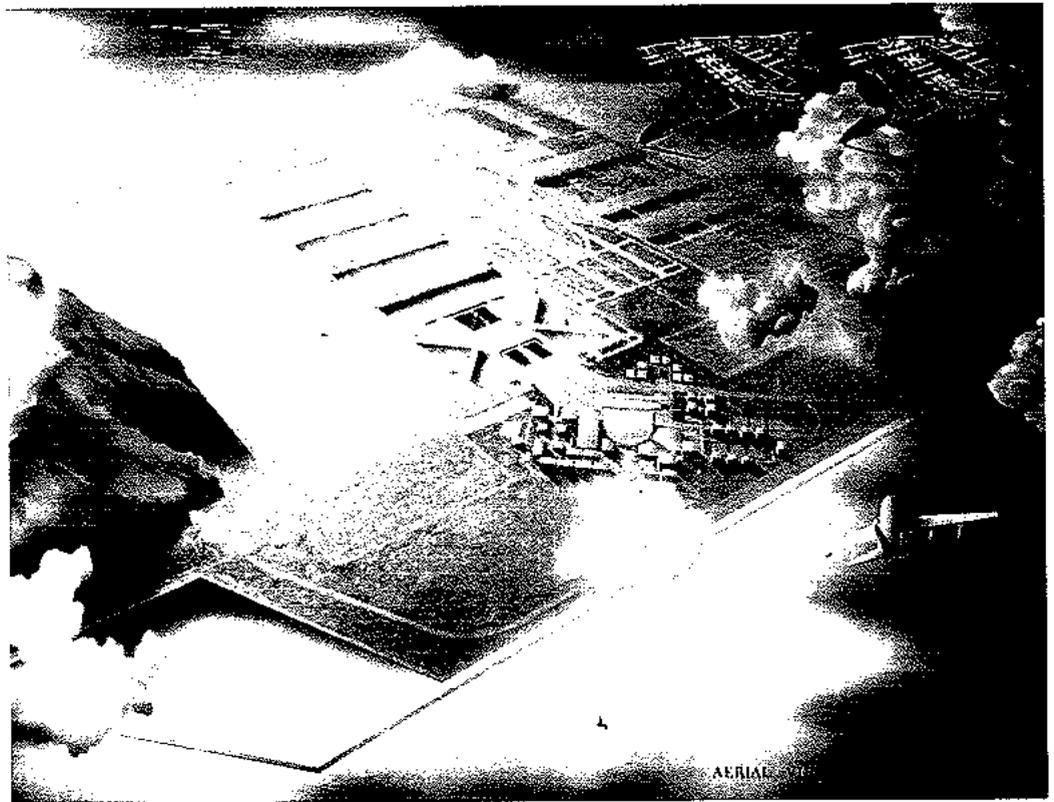
■ 배치 및 발전계획

공항은 생물체처럼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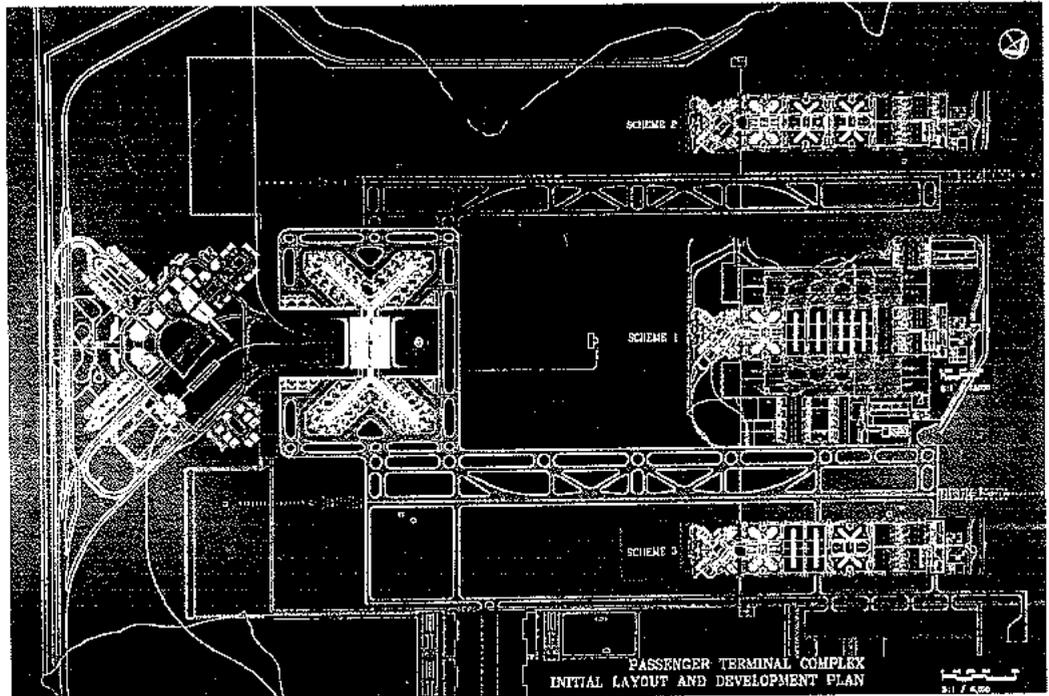
초기의 공항 배치계획은 교통량의 증가 또는 공항의 건축적,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 (Flexibility)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향후 공항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안에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시행 가능성 및 미래의 가변성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3개의 발전계획을 설정하여 미래의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SCHEME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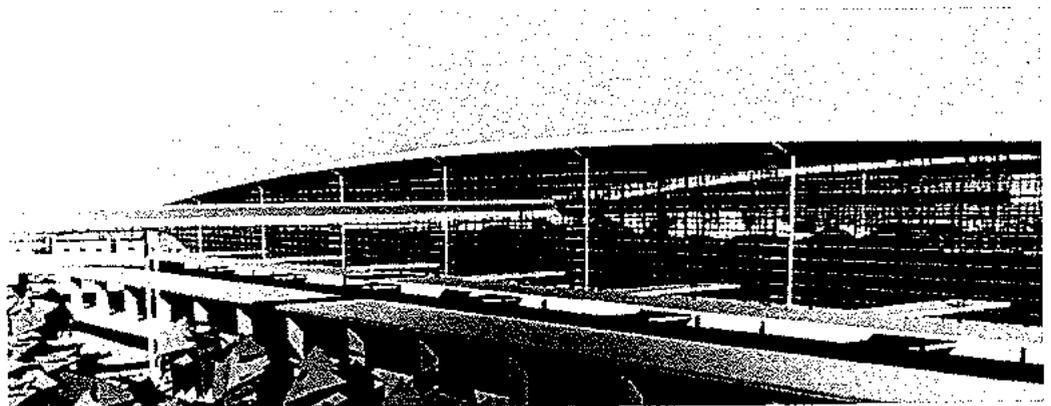
- 탑승동 분리 여객터미널 중앙 집중형
(Centralized Terminal / Remote Concourse System)
-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 1동
- 위성터미널 (Satellite Terminal) ... 2동
- 탑승동 (Remote Concourse) ... 4동
-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가장 충실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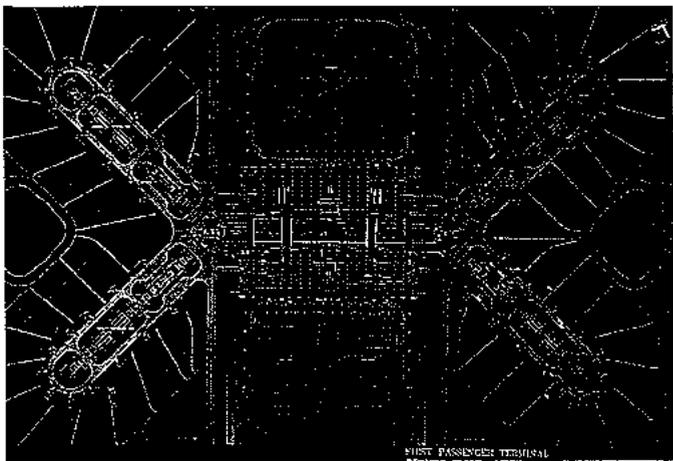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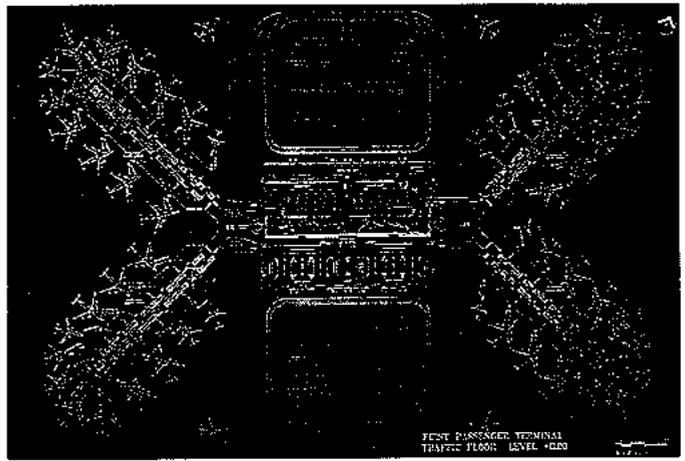
배치 및 발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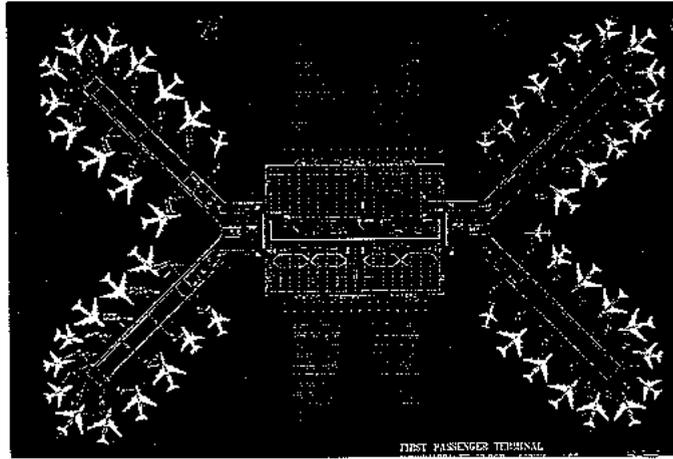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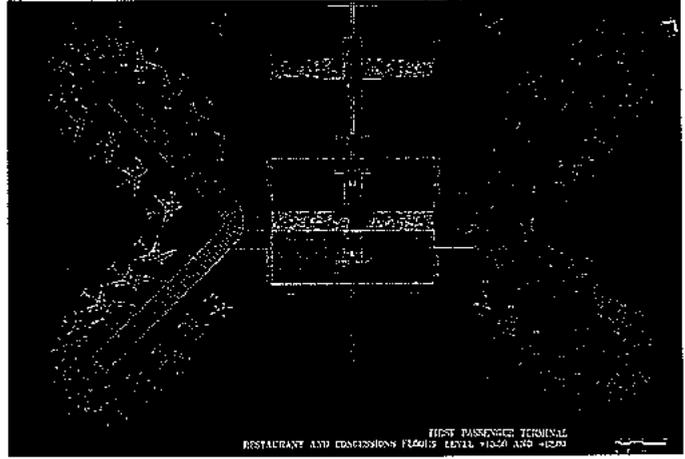
평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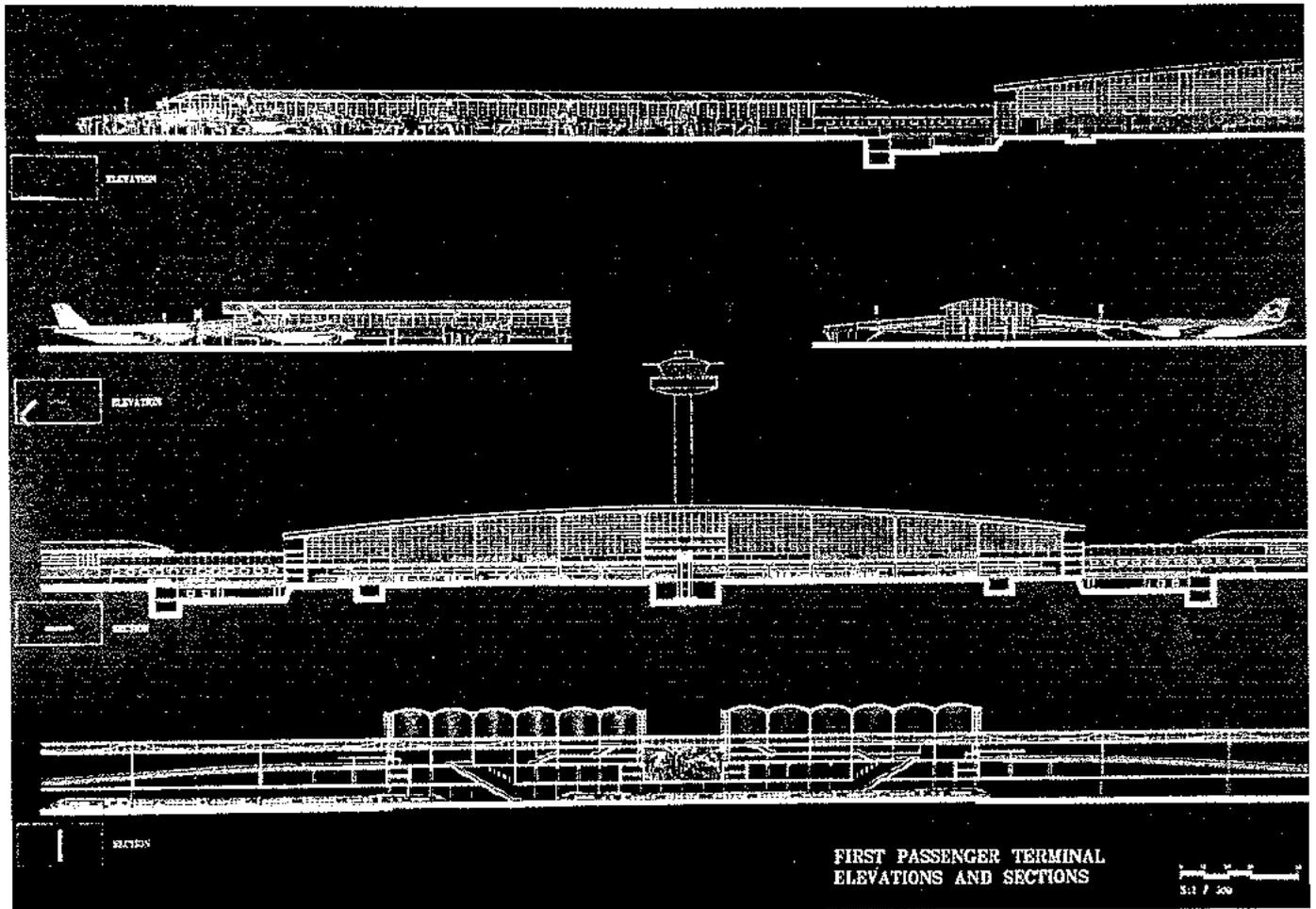
평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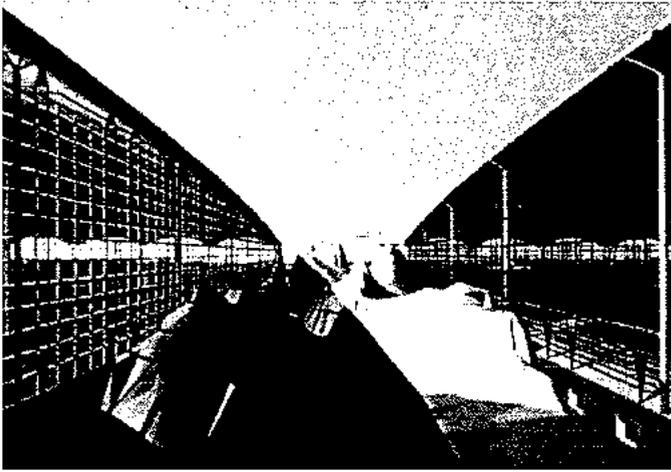
평면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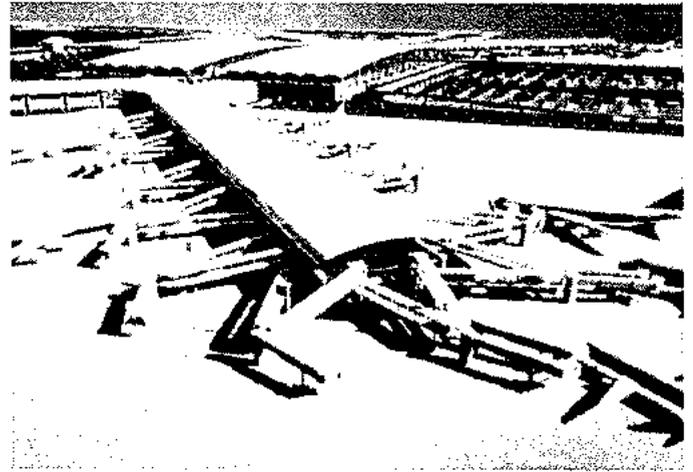
평면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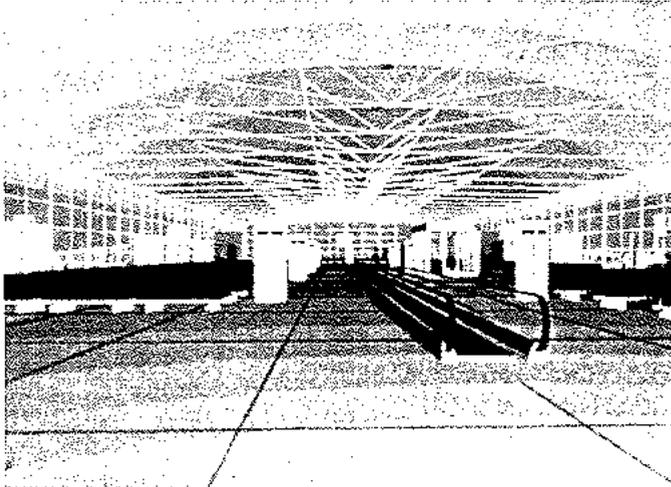
입단면도



실외투시도 I



실외투시도 II



실내투시도 I



실내투시도 II

• SCHEME #2 :

- 탑승동 통합 여객터미널 단위 독립형

(Unit Terminal System)

-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 3동

- 이용자가 버스나 기차로 각각 타고자 하는 비행기로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개념

• SCHEME #3 :

- 절충형

-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 2동

- 위성터미널 (Satellite Terminal) ... 1동

- 탑승동 (Remote Concourse) ... 4동

■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 도착, 출발지역의 병렬 배치 : 본 계획안의 특징은 도착 및 출발로비를 같은층 (Level 8.00) 에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계획한 것으로, 각 로비 모두 넓은 Curbside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각 전면성을 확보하므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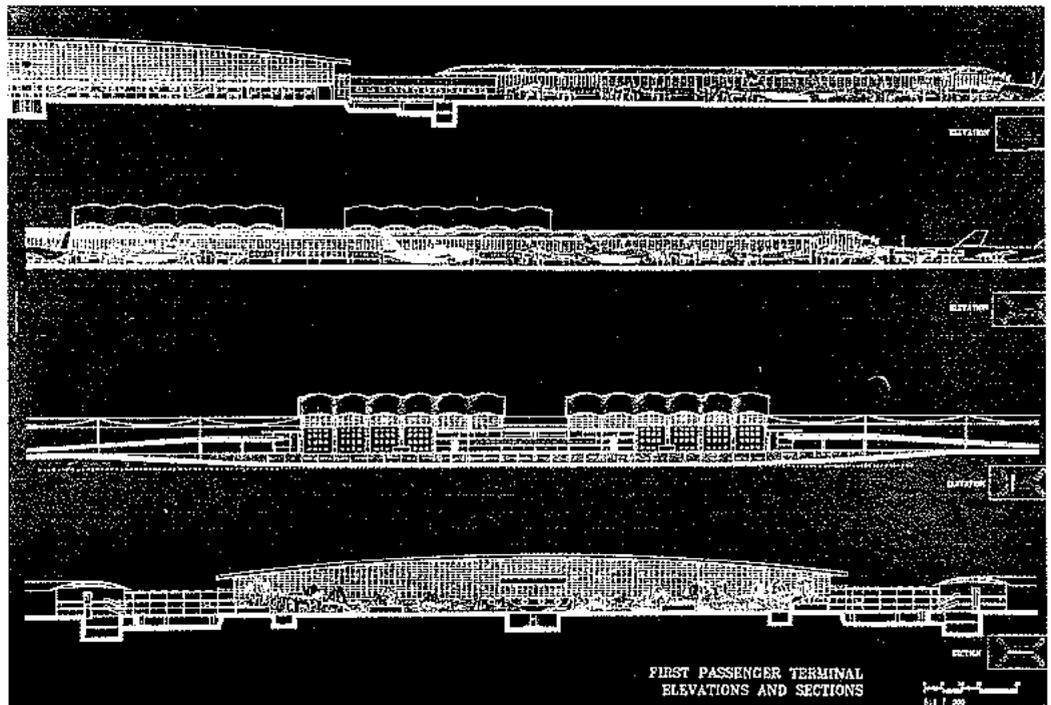
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적 상징공간의 계획 : 출발 도착로비 사이에 이용자들의 이동경로를 따라 내설악을 모티브로한, 한국적 풍경의 대규모

중정을 설치하여, 터미널의 상징적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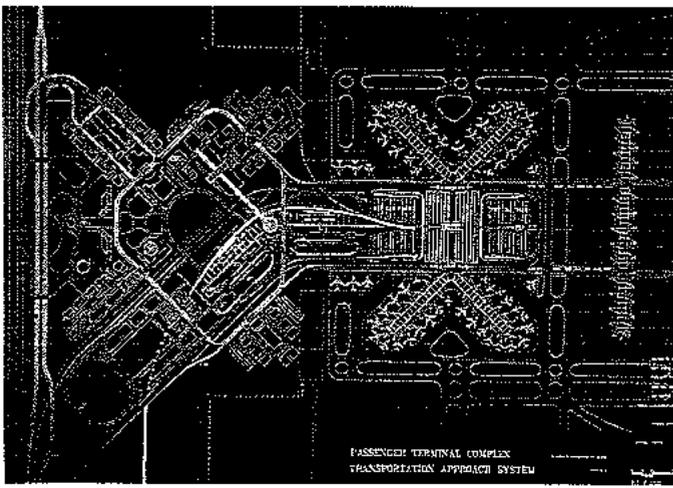
• 풍부한 자연광의 도입 : 빛 (Light)은 터미널 건축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므로, 풍부한 자연광의 유입을

통해 자연스런 공황환경을 조성하려하였다. 이용자가 체크인을 하거나 통제소를 지나거나 면세점 또는 수하물 회수지역에 있거나, 대규모 유리전면과 중정을 통해 자연광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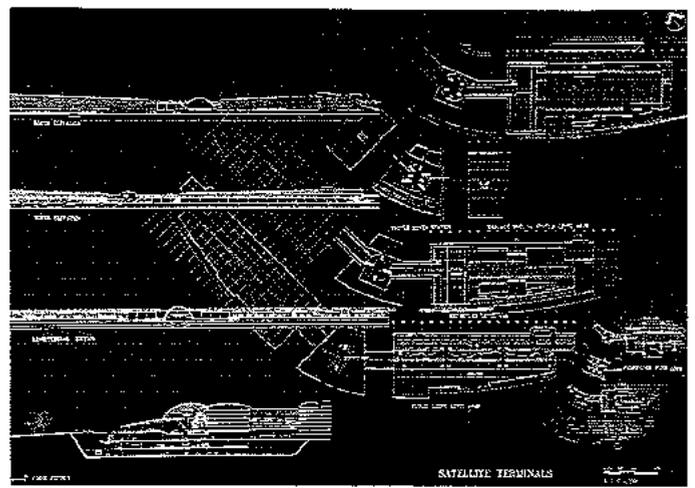


FIRST PASSENGER TERMINAL ELEVATIONS AND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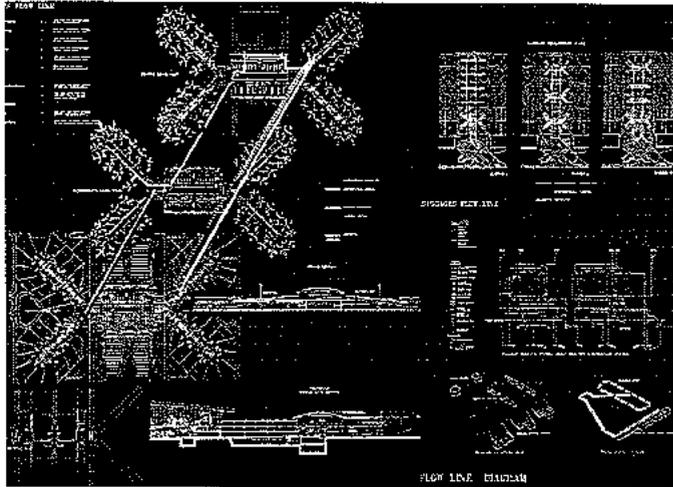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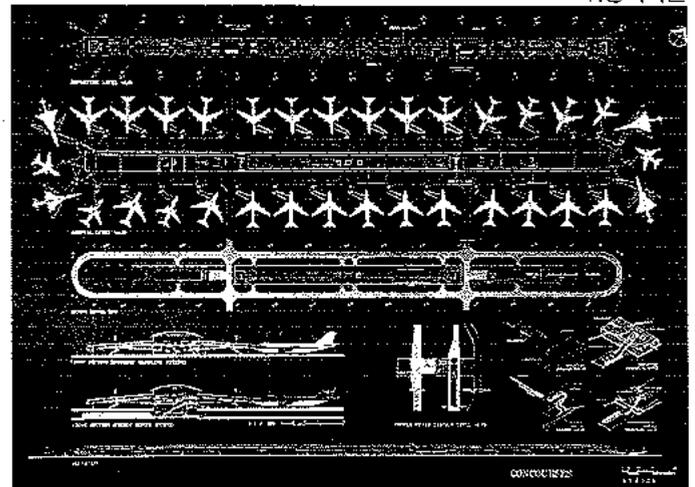
지상교통체계도



위성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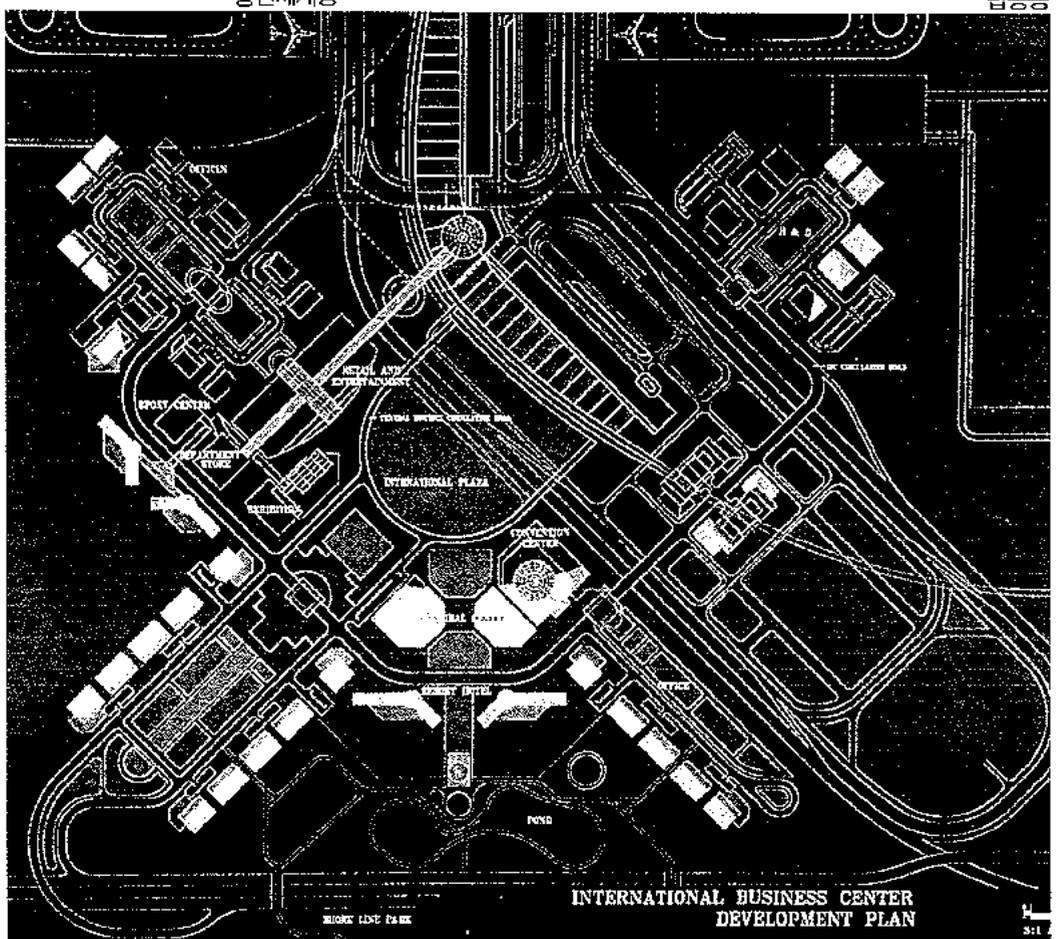
동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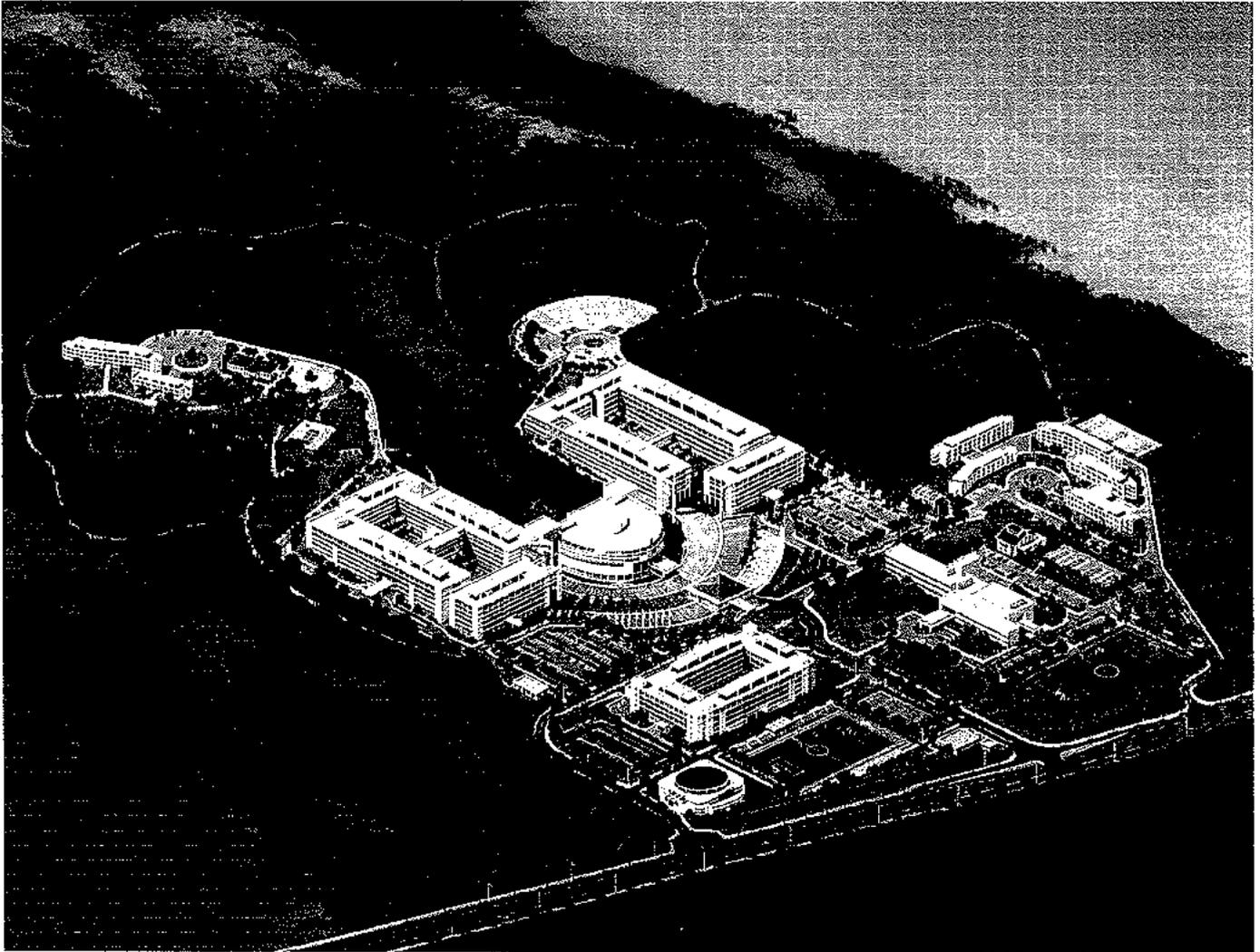
탑승동

■ 국제업무지구 도시설계

- 국제업무지구 도시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것은 여객터미널과 기능 및 형태에 있어서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여객터미널과 기능적 상관성이 긴밀한 시설을 집적시킨 중심지구 (Central District) 형성
- 여객터미널의 공간구조형태와 부합되는 도시축 설정
- 풍부한 녹지공간 및 체계적인 오픈스페이스 계획
- 방사형 녹지축상에 위계별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 진입도로변에 시설녹지대 설치하여 도시경관 제고
- 특성있는 설계구역 (Design District)을 구분하여 도시개발의 기본단위로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공간이용 및 개발의 융통성을 확보하였다.
- 중심지구, 해변지구, 순환도로변지구, 외곽지구



국제업무지구 발전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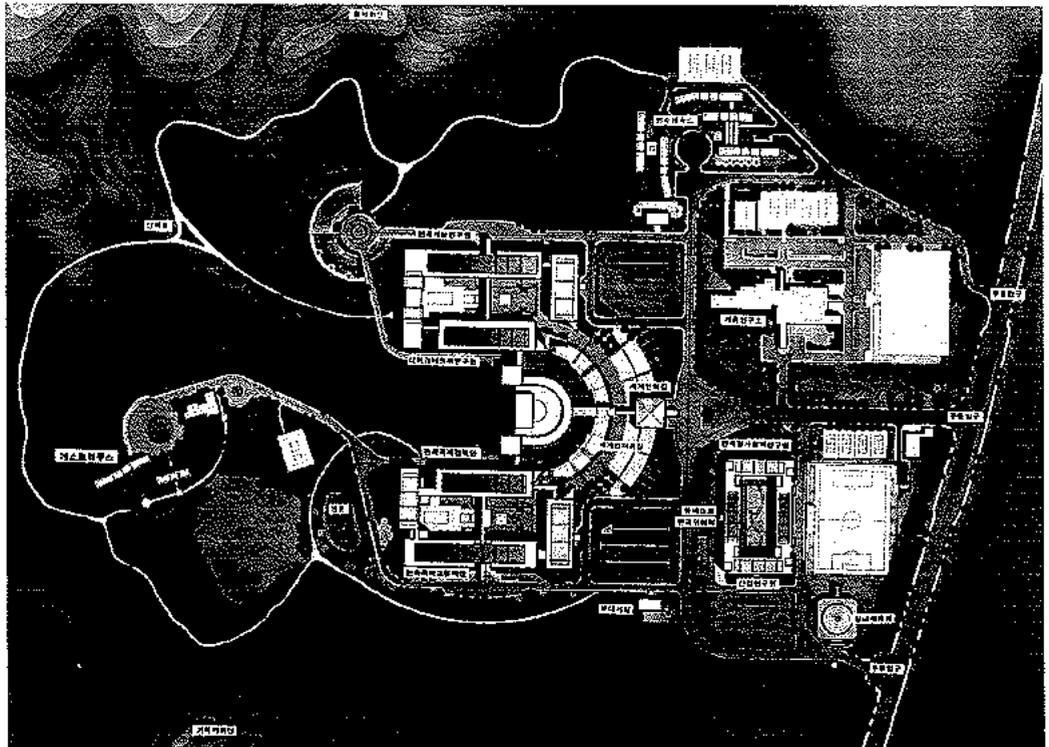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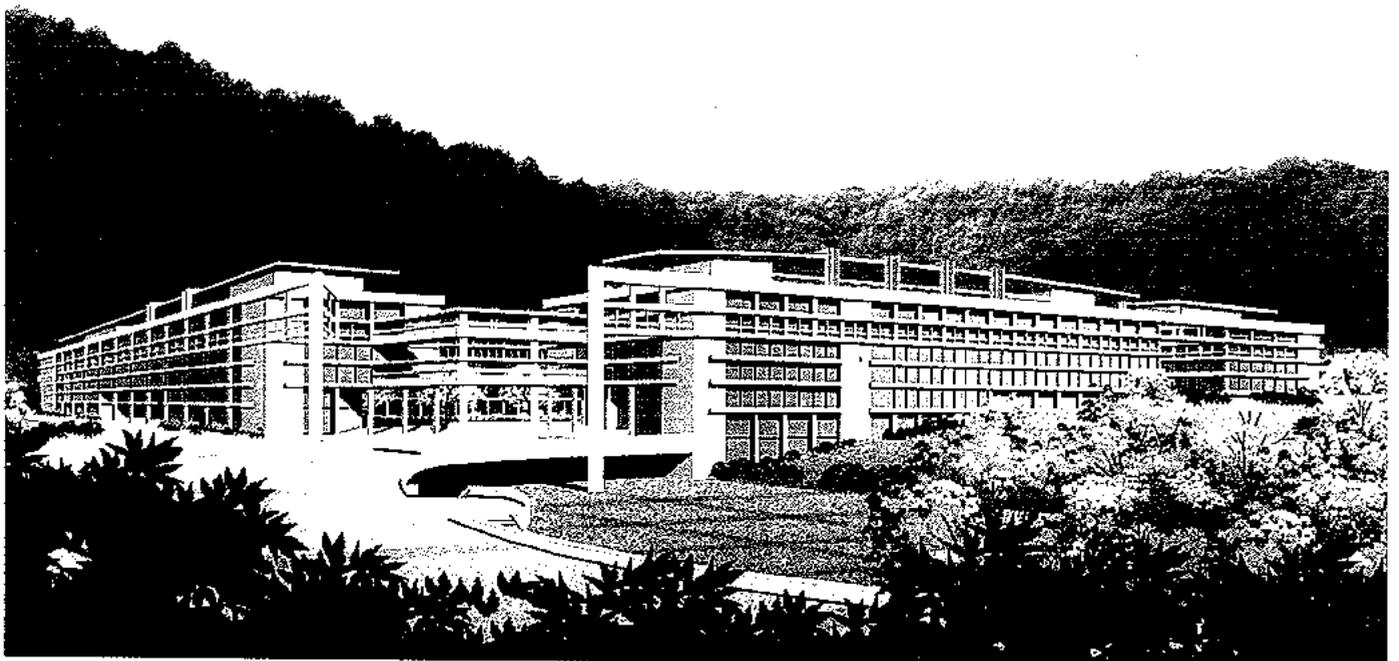
당선작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案)
(대표: 김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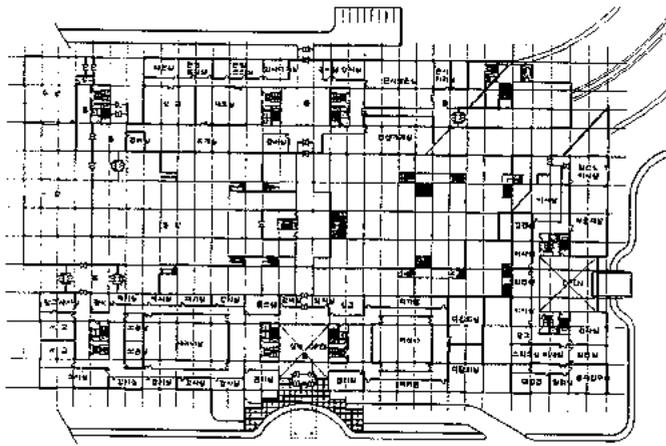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13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 / 622,526㎡
- 건축면적 / 30,401.6㎡
- 연면적 / 146,807.2㎡
- 건폐율 / 4.9%
- 용적율 / 21.8%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출수 / 외무동-지하1층, 자상6층
- 정계동-지상6층
- 상공, 법무, 교육동-지하1층, 지상5층
- 숙소동-지상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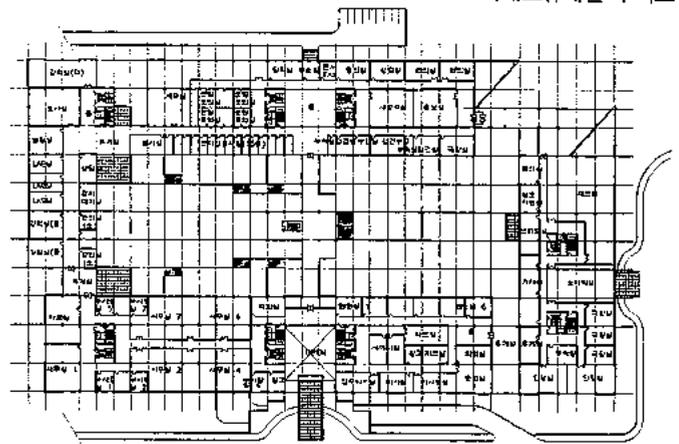
단지 종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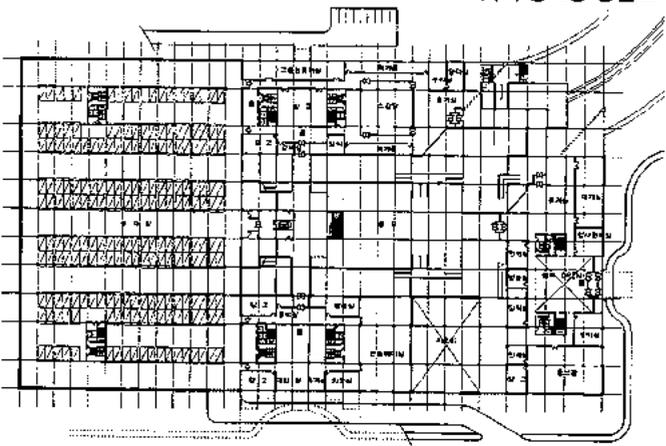
국제교류재단 투시도



외무부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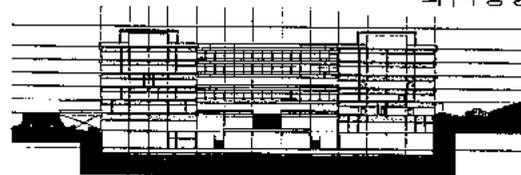
외무부동 3층 평면도



외무부동 1층 평면도



외무부동 종단면도



외무부동 횡단면도

■ 계획개념

- 진입축
 - 단지로의 강한 유입과 상징적 부각
 - 동서 지형축 보존
- 중심광장
 - 특성 공간 통합의 핵
 - 내방 인사 진입의 분기점
 - 기존질서 수용과 시설의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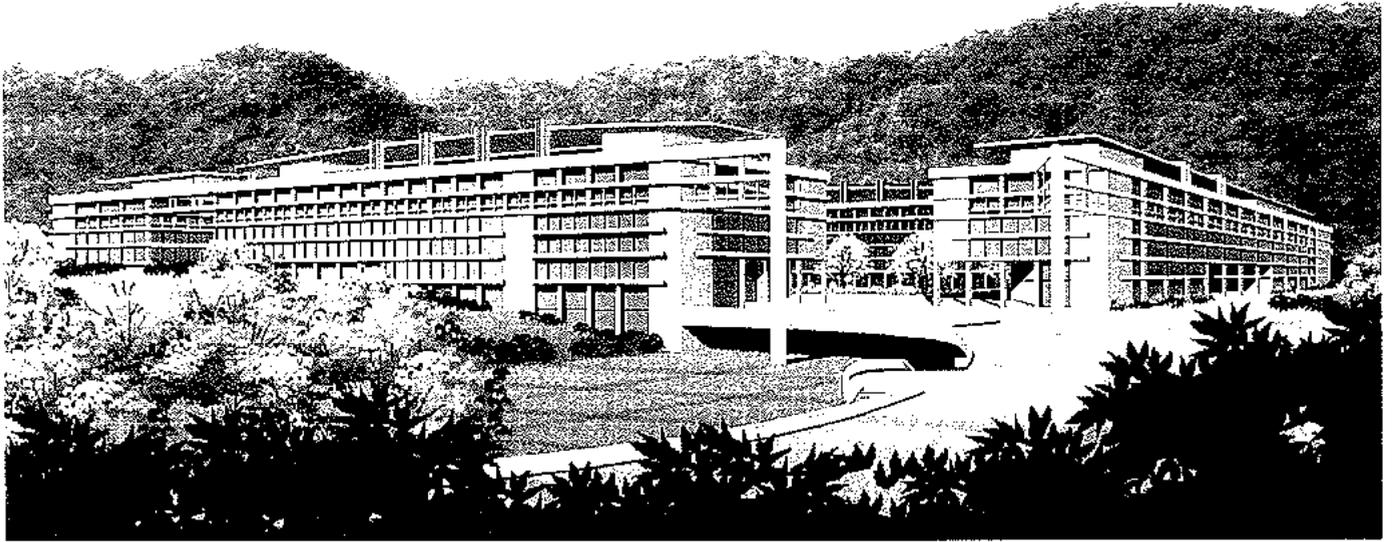
- 본관을 정점으로 한 직교축과 분할된 특성공간의 안정과 균형감
- 특성 공간 구획
 - 연계성과 규모비례 검토를 통한 통합수용
- 동선
 - 순환로와 연공동 진입로의 연결
 - 중심 광장에서 주진입 동선 분기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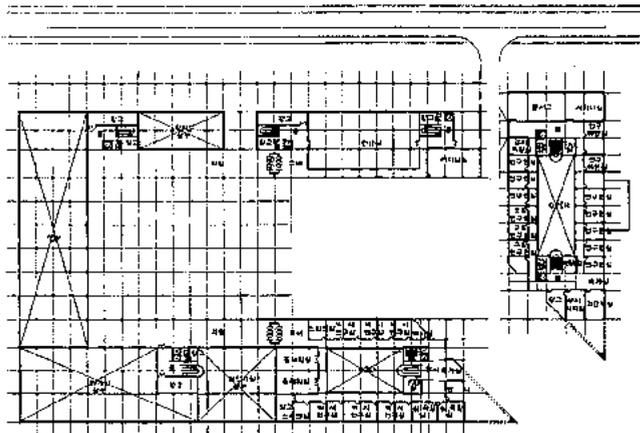
- 구조 모듈은 5.4M×9M를 기본단위로 계획되었으며 단변은 0.3M, 장변은 3M단위의 증감에 따라 소요공간의 구조가 결정된다.
- 바닥과 천장은 재료의 시공성, 운반성, 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0.3M×0.3M를 기본단위로 구

성되며 재료에 따라 장, 단변 방향으로 0.3M씩 증가되면서 경제 계획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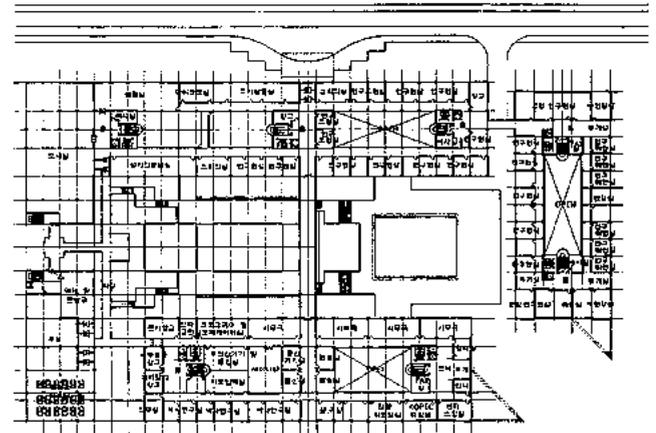
- 구조모듈과 바닥 및 천장모듈의 통합, 분할에 의해 공간 프로그램상의 소요면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융통성있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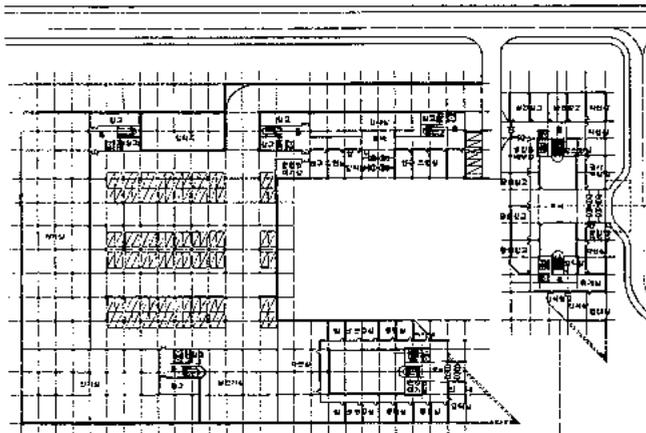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동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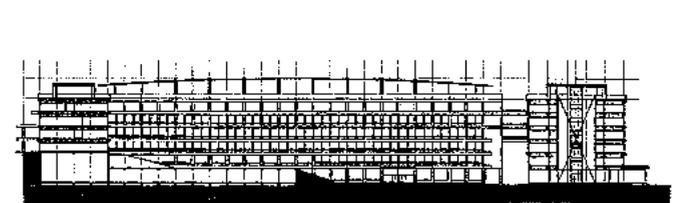
경제기획원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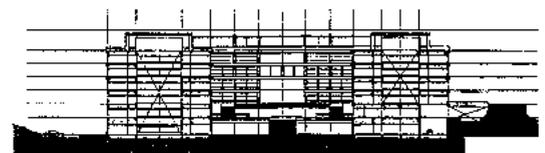
경제기획원동 3층 평면도



경제 기획원동 1층 평면도



경제기획원동 종단면도



경제 기획원동 횡단면도

■ 입면계획

- 수직 4.2M, 수평 5.4M를 기본단위로 하여 수평과 수직의 솔리드 (Solid) 면이 격자를 구성하여 개구부형성
- 기본 모듈의 통합과 분절을 통한 부분별 특징요소 구성
- 정제된 리듬감을 부여하고,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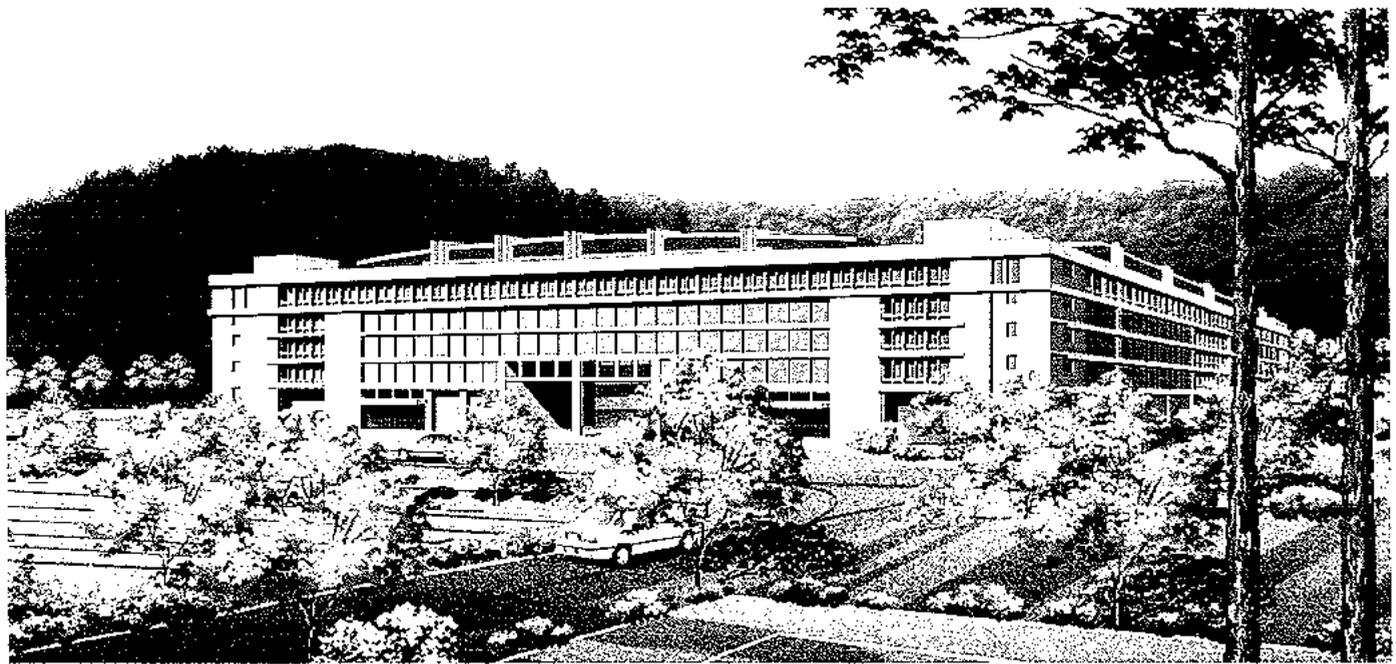
- 구소의 지적 이미지 고양
- 보이드 (Void) 면에 의한 극적 시각효과와 접근성 유발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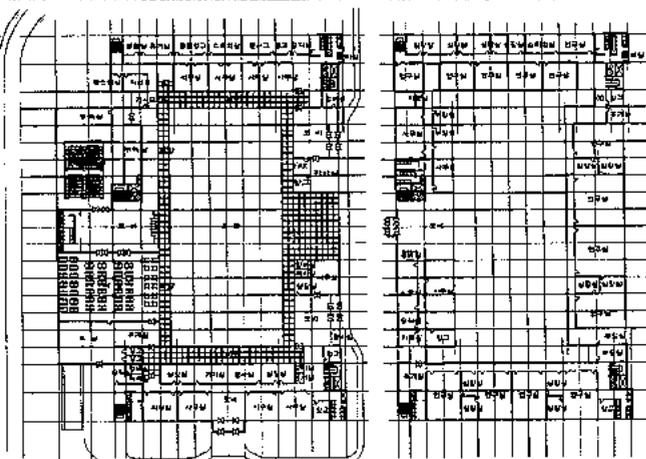
- 계획개념
- 중정을 중심으로 단면 블럭구성
- 상하층의 시각적 연속성을 통

- 한 일체감 조성
- 중정개념의 소중정으로의 분질
- 지형 순응도 향상
- 외부조망, 자연환기, 채광유입을 고려한 개구부면적 결정
- 모듈에 의한 공간활용의 융통성
- 구조, 설비라인, 인텔리전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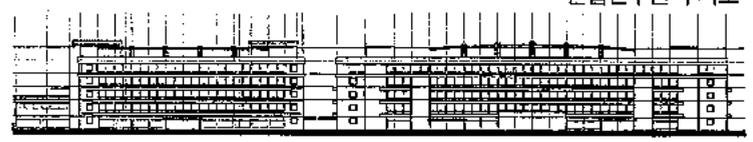
- 에 대응한 층고결정 (기준층 : H=4.2M, 지상1층 : H=5.4M)
- 상층 소중정의 융통성있는 공간분할
- 복도폭 (2.7M)을 포함한 넓은 공간 확보가능



산업연구원 투시도



상공, 법무, 교육동 1층 평면도 상공, 법무, 교육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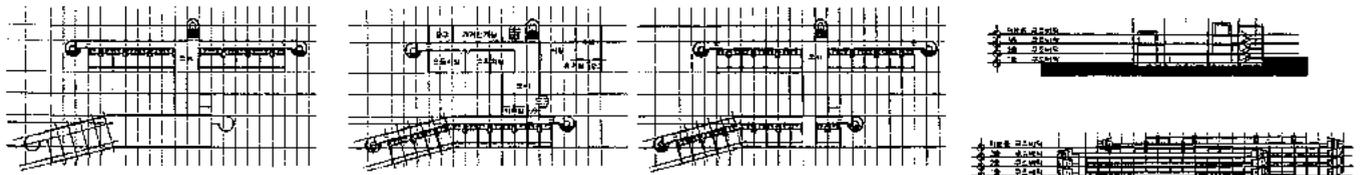
상공, 법무, 교육동 입면도



상공, 법무 교육동 단면도



연수생 숙소 투시도



연수생 숙소동 평면, 입면, 단면도

우수작

(주)서울건축 종합건축(案)
(김중성+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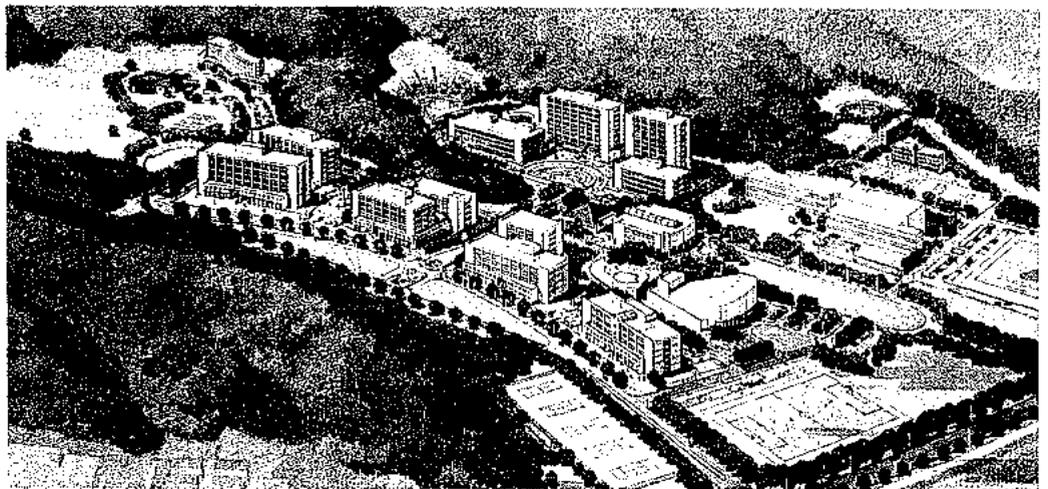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13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 / 622,526㎡
- 건축면적 / 21,826.15㎡
- 연면적 / 144,311.49㎡
- 건폐율 / 3.5%
- 용적율 / 17.4%
- 단지별 분류 / A블록 -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 B블록 - 한국국제 교류재단, 한국국제 협력단
- C블록 - 청사정책연구원, 유네스코, 산업연구원

■ 계획의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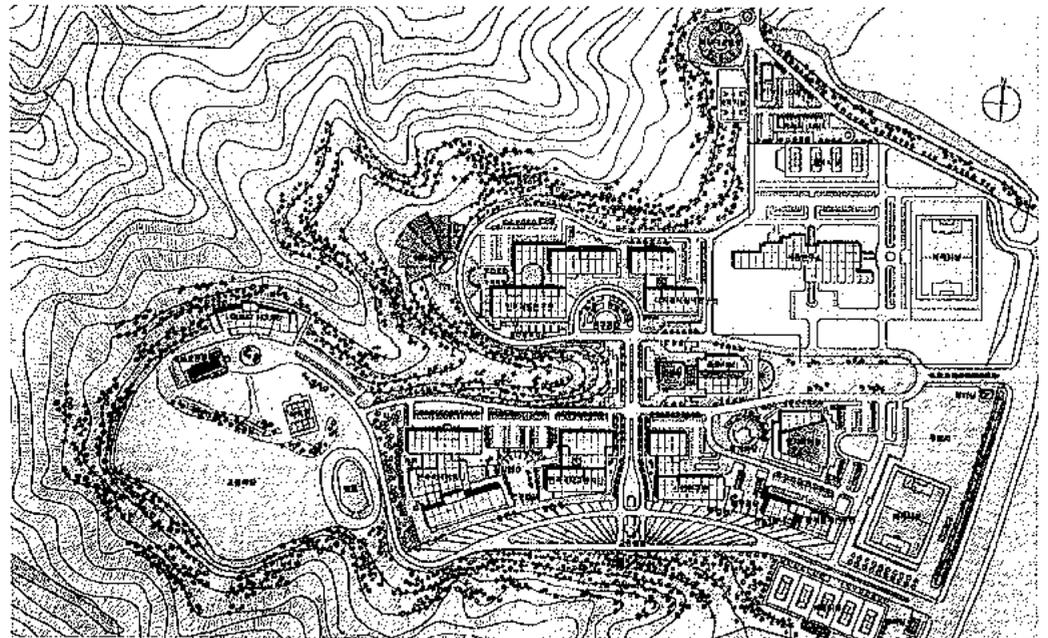
국제화시대에 대비 연구 및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용도를 갖춘 국제연구교류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한다. 주변에 잘 가꾸어진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가용지를 설정하였다. 입주기관중 성격이 유사한 기관별로 블록화 하여 블록내 연구광장을 중심으로 각 시설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각 기관의 독자적인 이미지 및 관리상의 독립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계획하였다.

■ 배치계획

- 5개 구역 (Zone) 설정
시설들의 기능, 규모, 용도 등 관련정도를 고려, 연구, 교류, 숙박 공동시설, 유보지역 등으로 구분 배치한다.
- 연구단지의 블록화
7개 입주기관중 같은 정부 부서에 소속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블록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 주변 자연경관 및 기존의 건물 활용
기존의 구릉지를 활용, 본 연구단지를 횡단하는 자연 경관축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영남관 및 분관동은 숙박 및 관리시설로 활용한다.



조감도



단지종합배치도

- 개발유보지 확보
본 연구단지와 주변 위성도시의 발전성을 감안하여 간선도로변에 면한 부지를 개발 유보지로 설정, 향후 국제회의, 호텔 레저 기능들을 담도록 하고 이에대한 개발이익이 창출되는 개발 전략을 제시한다.
- 남향의 정면 및 주진입 확보
각 시설의 정면은 되도록 남쪽을 향하도록 하고 의전 주진출입 또한 남쪽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상 진출입과 서비스 동선은 부진출입구에서 외부공간 (광장) 과 연계되도록 한다.

■ 교통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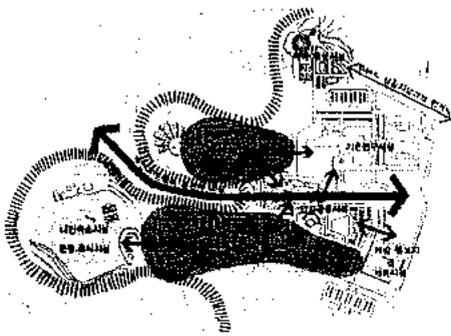
- 진출입도로
일상의 진출입도로, 의전진출입도로, 서비스 진출입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위계화 특성화하였다.

- 일상의 진출입도로
공공시설을 둘러싸는 고리형 도로 (loop road)를 설정, 공공시설 및 주차장으로의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의전 진출입도로
부지 남쪽의 교류광장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주의전도로와 T형으로 이루어진 수식도로를 중심으로 의전통행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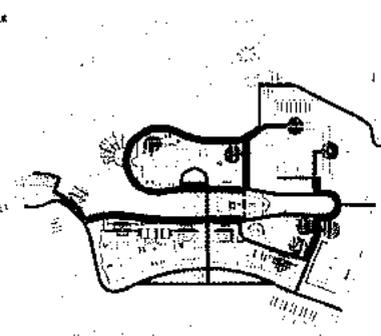
■ 건축계획

- 공간
- 3개의 원칙적인구역 (Zone)을 설정, 서로다른 용도 및 시설사이에 중정 및 아트리움을 통하여 기능적 연계 및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행정동 (청사)를 남측 전면에 배치하여 상징성, 정면성을 부여하였고, 연구동은 완충공간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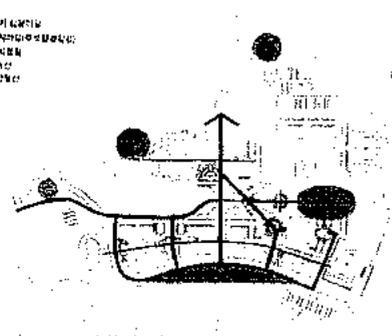
- Lobby Atrium) 등을 통해 기능적인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 평면
- 기존 중부도형에서 건물의 I.B.I.S형에 따른 새로운 Modul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7.5M×7.5M×7.5M×15M로 확장하는 Module시스템으로 구성)
- 중 규모의 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장스판 (Span)을 요구하는 시설들은 저층부에 설치하여 15M×15M의 모듈을 도입하였다.
- 입면
- 전체적인 단지의 성격이 교류의 장임을 감안, 통일성을 부여하고 연구단지의 기능에 따른 격자형의 안정된 입면을 계획하였다.
- 상징적 공간과 대지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저층부에는 Podium를 설치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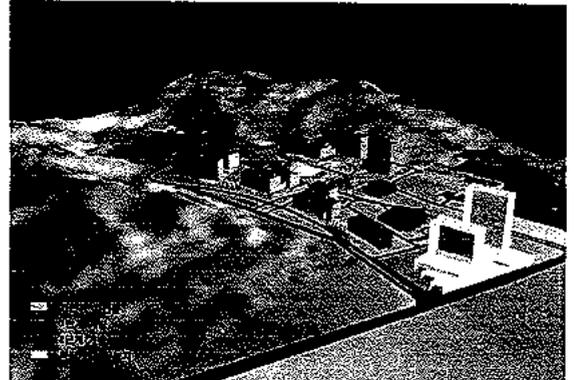
교통동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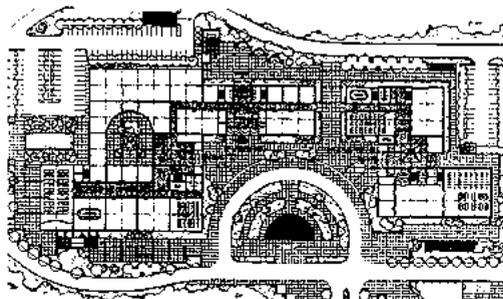
외부공간체계도



부분 투시도 1



단계별 개발 계획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한국개발 연구원 인우동)
기준층 평면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본관)
기준층 평면도 (한국개발 연구원 과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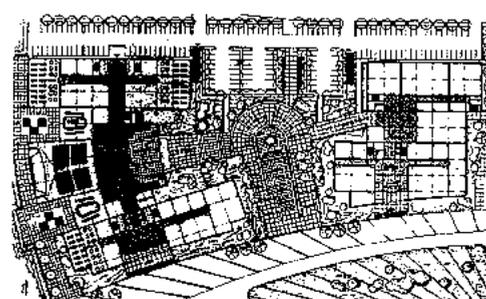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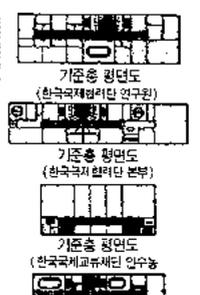


주단면도

A블럭 (한국개발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원)
기준층 평면도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기준층 평면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우동)
기준층 평면도 (한국국제교류재단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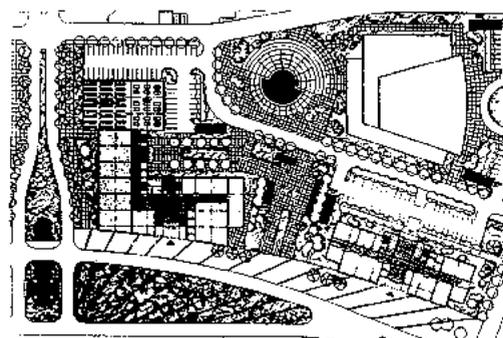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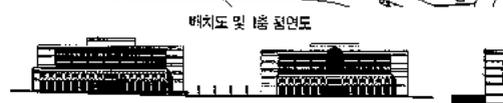
B블럭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 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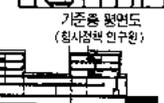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산업 연구원 본관)
기준층 평면도 (산업 연구원 영구동)
기준층 평면도 (유네스코)
기준층 평면도 (형사정책 연구원)



남측입면도



주단면도

C블럭 (형사정책연구원, 유네스코, 산업연구원)



부분 투시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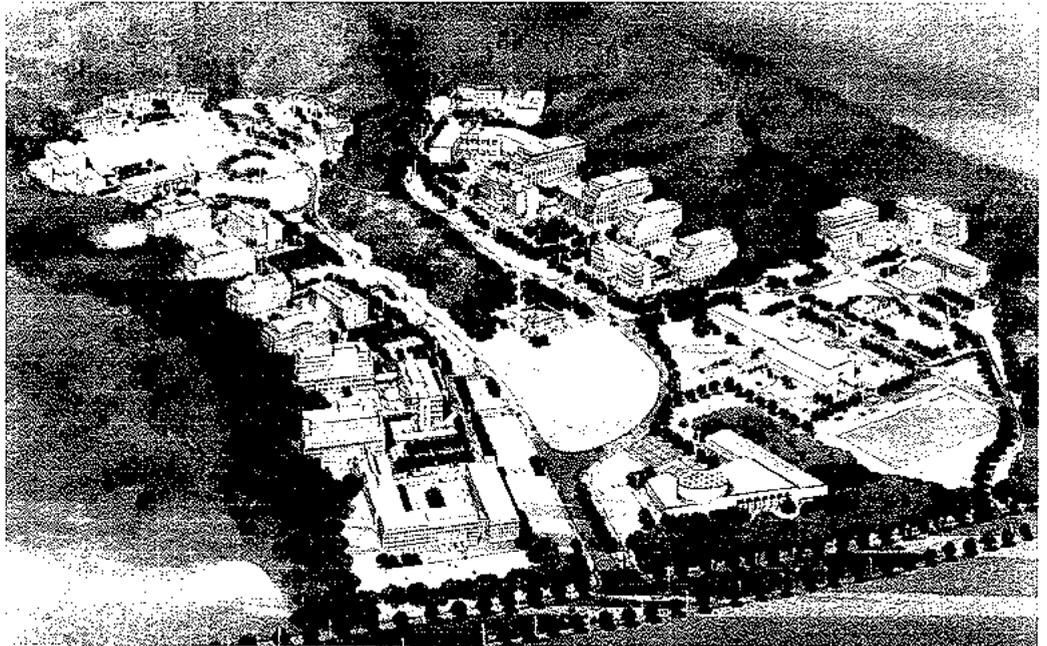
기작

(주)아키프랜 종합건축(案)
(대표 : 김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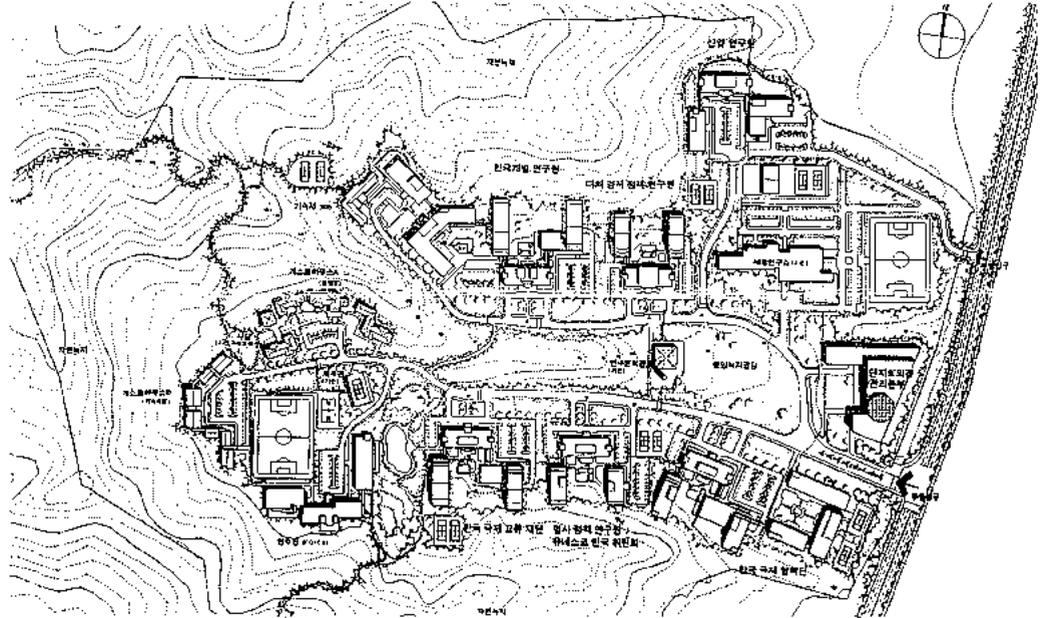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13번지 일대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622,525㎡
건축면적 / 49,127㎡
연면적 / 176,968㎡
건폐율 / 7.9%
용적율 / 25.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회의장-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 연구, 사무-지하 3층,
지상 7층
중심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부대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 계획개념

- 국제적 연구 교류시설
 - 국제적 연구 · 교류단지로서의 상징성 부여
 - 새개 연구시설의 독자적 이미지 부여
- 장소적 특성의 강화
 - 자연의 최대한 보존 및 활용
 - 전원 녹지속의 시설배치 개념
 - 중심적 녹지체계를 연구단지의 외부공간 끌림 형성
 - 자연지형 및 대지형상에 순응한 단지조성
- 토지의 효율적 활용
 - 좁은 지형을 최대한 넓게 활용
 - 경사지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
 - 확장을 고려한 여유공간의 확보
- 연구기능의 효율화를 고려한 배치계획
 - 각 연구소 상호간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시설 그룹핑
 - 연구소의 세부기능에 적합한 환경특성 부여
 - 시설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고려한 동선계획
- 시설의 집중화와 분산화를 고려한 효율적 집단화
 - 기관별 동일기능 시설의 공유화, 집중화 및 분산화 유도
 - 연구 · 사무기능, 집회 · 교육기능, 연수 · 숙박기능을 고려한



조감도



종합배치도

시설배치

- 각 시설을 묶어주는 중추적 골격으로 녹지와 동선체계를 활용
- 기존 시설물의 최대한 재활용
- 적절한 에너지 절약, 환경 및 관리계획
- 대지의 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 에너지 절약형 형태 및 입면계획
- 시설별 방문자의 통제를 위한 동선계획
- 보안, 방호를 고려한 평면계획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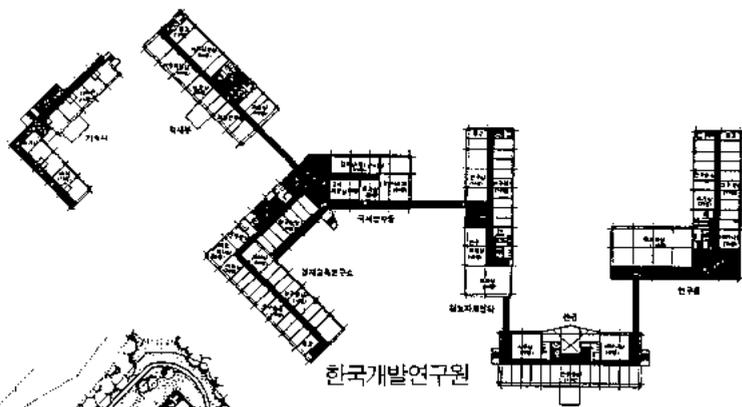
- 중심녹지 광장을 중심으로 각 시설기능의 원활한 상호연계를 도모
- 각 연구사무동은 본관(사무동)-연구동을 Cluster

Type 으로 배치하여 독자적 영역과 외부공간을 형성하도록 배치

- 환상형 도로망에 평행하게 본관(사무동)을 배치하고 이에 직교축상으로 연구동을 배치하여 직교축에 의한 건물 배치 개념, 수립
- 주변의 산세, 지형관계를 고려하여 조망이 양호한 쪽으로 시야가 트이게 건물을 배치
- 본관과 중심녹지광장을 대칭으로 좌 · 우측면에 연구 · 사무동을 배치해 단지의 주축을 형성
- 숙소 및 연수동은 지형에 맞는 부정형의 배치활용
- 각 연구시설별 독자적 녹지와 주차공간을 건물과 연계하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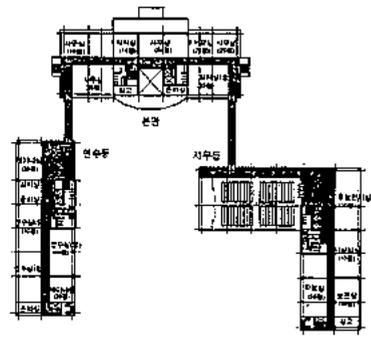
■ 동선계획

- 차량동선계획
 - 대지전체는 순환하는 환상형 도로망으로부터 각 연구시설로 진출입
 - 단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 정거장을 설치
 - 시설의 분산배치로 기능별 동선분리 및 양호한 접근성 확보
 - 각 시설별 전용 주차공간 확보로 차량의 용이한 접근
 - 방문객, 연구원의 동선 관리를 위한 주차 동선계획
 - 피크시 순환도로내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간선도로복을 계획
 - 광장하부, 경사지형을 활용한 지하 입체주차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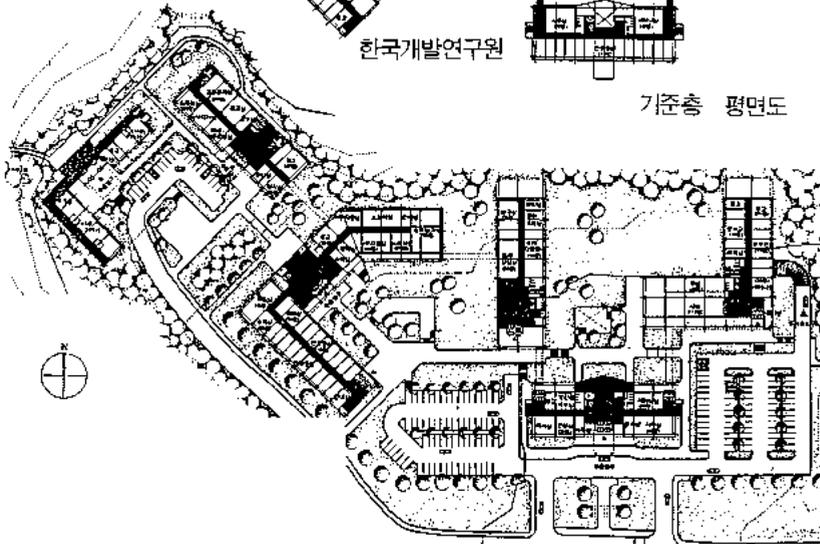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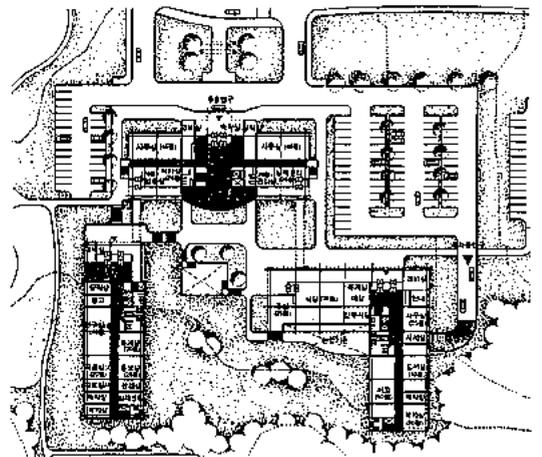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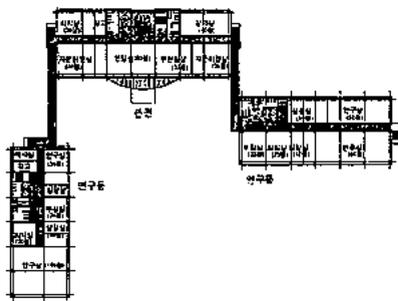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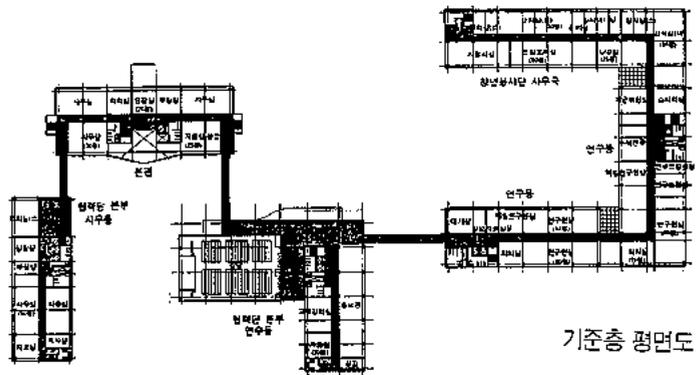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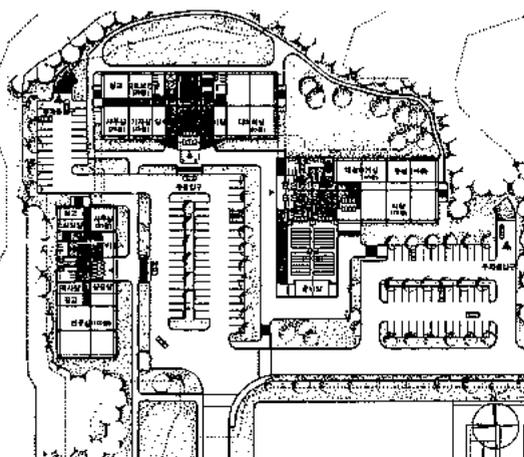
산업연구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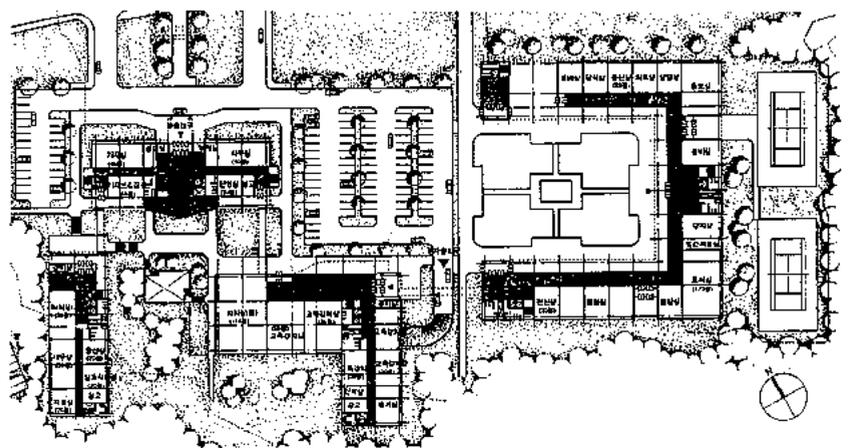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한국국제협력단 1층 평면도



국제교류재단 1층 평면도

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Ⅲ)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REPORT

張順鏞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탐
by Jang, Soon -Yong

8. 구조양식의 종류와 선택

1) 구조양식의 종류

한옥에서의 구조양식은 기둥과 보와 도리가 결구되는 상황에서 외관적인 처리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조법의 원리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시각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장식적인 양식과는 구분하는 의미로 구조양식이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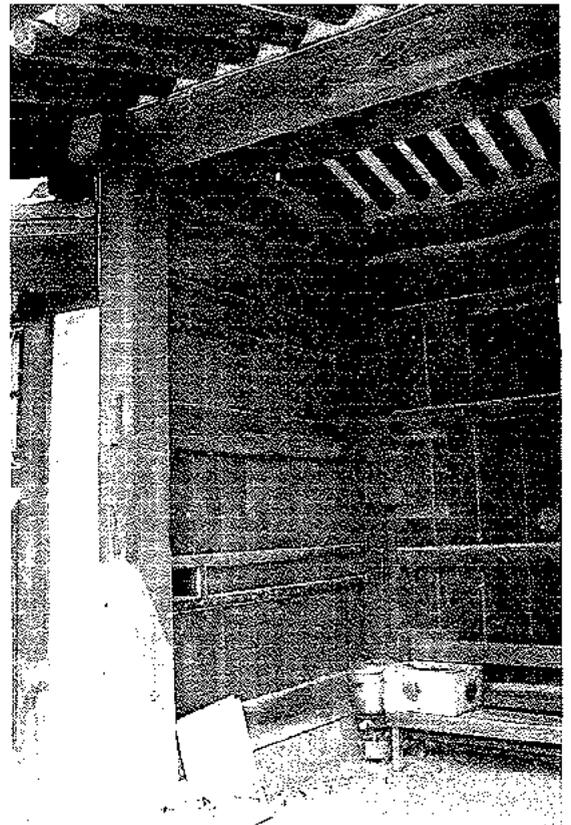
주택에 사용되는 구조양식에는 초익공양식, 소로수장 양식, 민도리 양식의 세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간결하고 소박한 양식인 민도리 양식이 서민의 주택에 사용되었다.

소로수장 양식은 민도리 양식 보다는 고급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도리 밑으로 장여와 창방사이에 소로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한 모습이다. 이 양식은 규모있는 주택에서 별당채와 몸채의 주요부에 사용하고 기타는 민도리 양식을 사용하는 등으로 소로수장과 민도리 양식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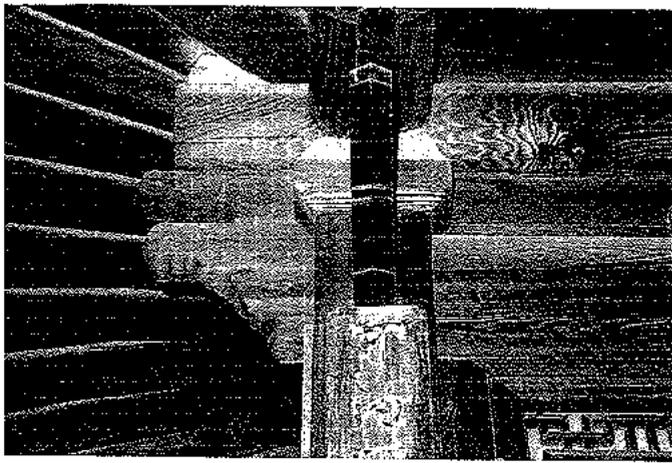
익공양식에는 초익공양식, 이익공양식이 있으나 주택에서 사용되는 한계가 초익공양식이 되고, 그나마도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으나 왕실의 가족이거나 혼인관계로 맺어진 특수한 계층에 한정적으로 허용되었으므로, 오래된 주택에서 익공양식이 사용되었다면 예사로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에 사용되는 초익공양식은 궁궐이나 관아건축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익공양식과는 달리 익공의 끝이 둥글게 굴러진 것이 많고, 이러한 형식을 물익공양식 - 때로는 무익공양식이라고도 하지만 단어의 의미전달상 혼돈을 야기하므로 여기서는 물익공으로 지칭한다 - 이라 구분하여 표현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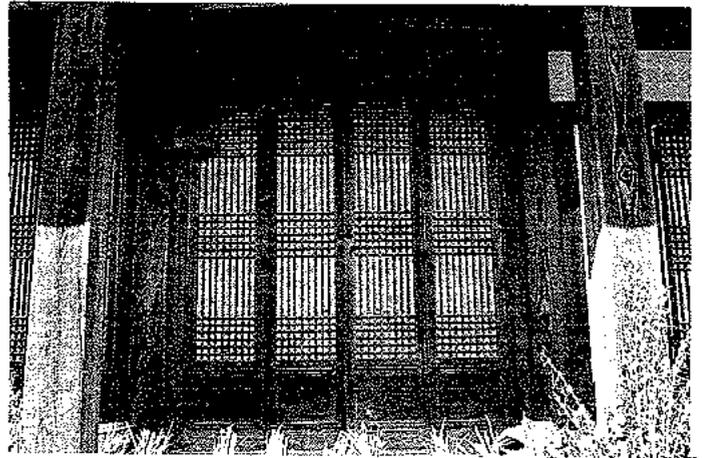
한다. 따라서 물익공양식은 초물익공과 이물익공이 있으나 주택에 사용되는 한계성 때문에 여기서는 물익공이라 하면 초물익공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물익공이 주택에 사용되는 배경에는 심미적인 면에서 날카롭고 경직되어 보이는 전형적인 익공양식보다는 온화하고 원만한 모습으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선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익공양식에서 치장을 한단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운공(雲工) 양식이라하여 소로위에 장식적인 부재를 도리와 직교되게



① 민도리 구조 : 운현궁 사랑채 문간의 모습으로 납도리와 보 및 기둥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었다.



2



3

배치하는데, 구름이 서린듯한 모양새를 닮았다하여 운공이라 칭하는 것이다.

지방의 주택에서는 초익공양식을 간략히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익공에 조각을 생략하고 양끝을 단순하게 절단하여 구성한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서는 민도리양식이 주택에 널리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해방이후에 서울의 한옥에서는 소로수장양식의 주택이 다량으로 건립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하여 주택이라면 소로수장이어야 한다는 정도로 인식되는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이 유행되는 주택건설에서는 전통적인 치목기법을 보다 단순화하여 외부에 보이는 곳에만 소로모양을 붙이는 방식이 사용되어, 이른바 "딱지소로집"이라는 별칭이 생겨났다. 주택건설의 주체가 집주인이 아닌 주택건설업자가 되어 건물의 모양은 고급스레 하면서 공사비는 적게드는 방법으로 딱지소로를 개발한 것이다. 결국 주택생산 방법이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원가절감과 분양이 잘 되도록 하려는 방법에 딱지소로양식이 개발되어 소로수장양식이 일반화 된 것이다. 외관적인 형태로는 차이가 없으므로 소로수장양식과 딱지소로집은 동일한 양식으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소로수장과는 다르다는 점은 인식되어야 한다.

2) 구조양식의 선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양식이 있는데 설계시에는 과연 어느 양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설계자가 고심하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

양식선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면과 건축주의 취향에서 분석종합한다는 점은 현대주택의 설계방법과 같다고 하겠다.

주위환경의 분석에서는 건립부지가 도회지인가, 한적한 전원주택인가 하는 건물의 밀집도와 주변의 주택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야한다. 많은 경우에 주변과의 융화를 고려한 계획은 건축주의 의견과 대립되기가 다반사이다. 큰 마음 먹고 집한채 마련하려는데 이왕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주변보다는 돋보이는 집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주변과의 조화라는 개념과는 상치되기 마련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어찌보면 이 문제는 건축주와 설계자 간에 있는 좁히기 어려운 간격의 문제를

2) 소로수장 구조: 청도 운강고택 사망제로서 대청의 분합문 인방 상부에 소로가 배열되었다. 고주열의 기둥높이 때문에 소로주변의 처리가 보통과는 다르게 구성하였다.

3) 울익공 구조: 낙산재 누마루의 모습으로 익공의 끝이 둥글게 처리되고 조각을 하였으며 장여의 헬목도 울익공과 같은 모습으로 처리하였다.

4) 초익공 구조: 성주에 있는 재실의 모습으로 원목의 형태대로 대량을 구성하고 주두 밑으로 있는 익공의 외부는 수직으로 자르고 내부는 빛으로 절단하였다. 지붕에서 간략하게 만든 초익공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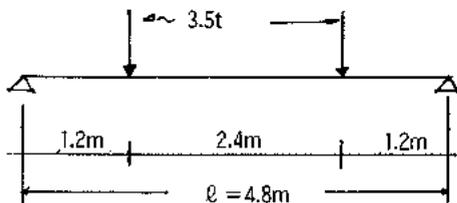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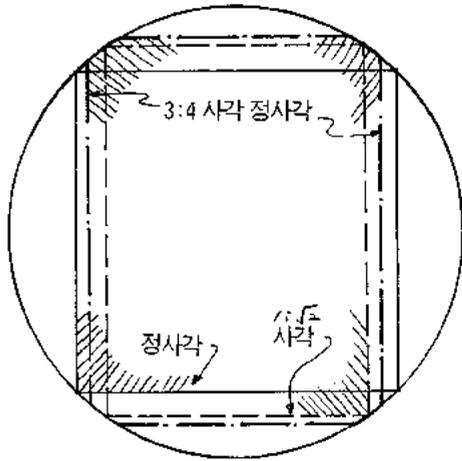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회지의 주택일 경우는 건축주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도시에서 자수성가하여 고향땅에 집을 장만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은퇴 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살겠다는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외지에서 오래동안, 고향과의 연락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 고향에 살고있는 주민들과는 가치관이 이질화 되고, 심리적인 유대관계도 거의 단절되어 있고, 금의환향은 아니더라도 성공하여 돌아왔다는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러한 심리가 건축에 반영되어 돋보이는 집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고립되고 유아독존적인 건물보다는 주위환경에 융화되면서 개성을 살려보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라고 본다면, 건축주를 설득도 하려 보고 설계자의 의도를 심분 설명하여도 여의지 않을 경우에는 피차간에 불만이 생기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여간 원리적인 면에서는 주위의 한옥과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 마을전체가 하나의 조화된 경관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비근한 예로 한적한 전원마을의 한옥 주거단지 내에 도시의 한옥을 그대로 이전한 예가 적지 않으나 그 어색한 경관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건물 자체로는 흠잡을 곳이 없지만 주위와는 유별한 모습에 저항감과 파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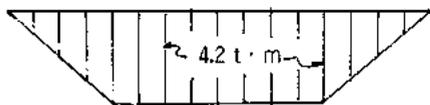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구조양식의 설정은 설계자가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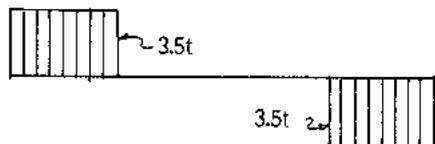
4



대량의 하중



휨응력



전단응력

⑤ 소로수장 구조: 서울의 계동에 있던 한옥으로 해방이후에 건립된 이른바 딱지소로집으로 현재는 철거되었다.

⑥ 원목에서 만드는 보의 종류

⑦ 대량의 하중과 응력

⑧ 윤용열 가옥 안채 정면부분

⑨ 윤용열 가옥안채 평면도

모습으로 구상하는가에 달려있으며, 기준을 제시한다면 민도리양식에 소로수장양식을 가미해 건물의 강약감을 살리고, 후원의 별당건물이라면 소로수장의 단아한 모습으로, 작은 누각이라면 소로수장 또는 물의공양식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강조와 대비,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 필요하며, 그러한 선택의 안목을 확립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많이 접하여 체험과 분석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9. 보의 단면 설정

평면계획에서 기둥의 위치와 지붕구조가 확정된 다음에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대들보의 단면설정이 중요사항이 된다. 주택에서는 대들보가 보편적으로 두칸 이내에서 구성되므로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도 경험에 의한 단면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큰 거실을 확보하려는 현대적 추세에서 스팬이 커질 경우에는 단면설정에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시 되는 경우가 많다. 대들보의 단면설정에서 부족하면 건물이 취약하게 되고, 넘치면 과다설계라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또한 대개의 대들보가 노출되는 상황이므로 구조적이며 동시에 시각적인 면에서의 보단면 설정이 중요시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에서 대청부분은 지붕의 구조가 확실하게 노출되므로 이곳은 목수의 솜씨와 기량이 여실하게 발휘되는 곳이다. 고품스런 한옥의 대청부를 살펴보면 질 좋은 목재를 선별하여 대들보와 기둥과 도리를 구성하여 목재의 결과 질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붕의 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성이 적은데다가,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목재를 선택하는 목수의 안목과 그것을 잘 살려서 치목하는 기술로 건물의 품격을 돌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특히 대청의 대들보를 목재의 결이 좋고 길라진 곳이 없는 목재를 음지에서 잘 건조시켜 미끈하게 치목하고 산지나 췌기 등으로 확고하게 결구하면 건물의 변형이 적어 오래되어도 흉잡을 것이 없으므로 정성스레 건립된 집으로 판단되기 마련이다.

요즈음에는 전래적인 결구법이 생략되고 못이나 철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지붕의 하중에 의한 변형에는 내구성이 떨어지며, 특히 변형후에는 변형을 흡수하는 융통성이 부족하여 흉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목수가 구조적인 개념을 간단히 그려 건축주의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는 목수가 알아서 격식대로 치목하고 조립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설계시에 중요 구조부재의 이름 맞추까지도 상세도를 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럼에도 시공시에 감리를 채용리하면 달리 치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술이 분업화되고 작업의 편리성 위주로 진행되는 현대적 건축작업이 초래한 역기능적인 상황때문에 설계도 작성시에 전보다 더욱 상세한 도면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목재의 조달이 편리한 산간지방에서는

대들보감으로 결이 좋고 적당히 흰 목재를 선택하여 치목함으로써 개성을 살린 자연스런 맛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하중에 의해 보에 약간의 처짐이 생겨도 시각적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며 동시에 곡선부재가 주는 시각적인 풍부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복합된 모습이라 하겠다.

대청에 걸리는 대들보의 길이는 평면형태에 따라 한칸반에서 세칸의 범위로 사용되며, 보통은 칸반 또는 두칸의 길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칸의 길이를 8자로 하면 두칸은 16자가 되고 여기에 보머리를 구성하는 여유를 잡으면 보감으로는 19자(약 5.7m) 정도가 되는 강대한 부재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두칸폭의 대청이면 대개는 5량 구조가 되기 마련이다.

보춤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스판의 1/8~1/14의 범위에서 사용되고, 주택에서는 1/10~1/12 범위로 사용된다. 따라서 2칸폭 16자 길이이면 보춤은 1.6~1.3자 범위가 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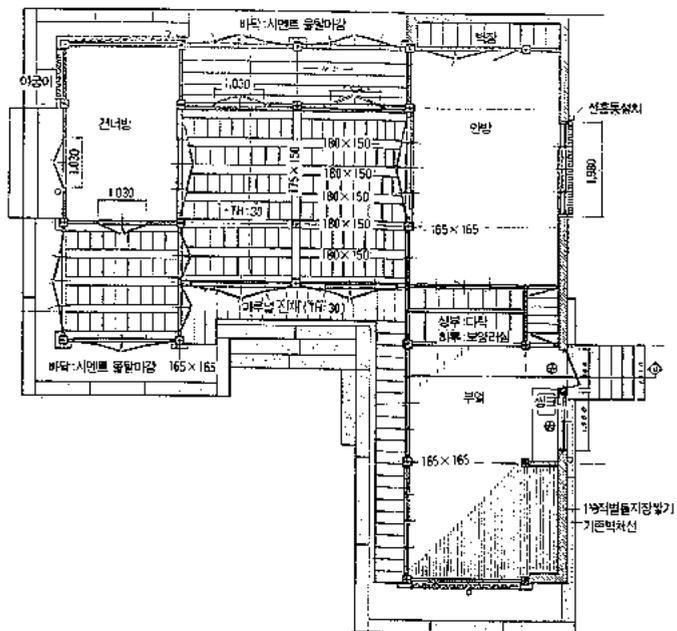
보의 단면에 대해서 실례를 검토하여 보자. 운현궁의 안채인 노략당은 16자 스판에 대량은 1.2 × 1.5자의 단면이 사용되었다. 구조역학의 기초적인 개념에서 대량의 휨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은 보춤에 크게 좌우되고, 반면에 전단력에 대한 저항은 보의 단면적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등근 단면의 원목에서 합리적인 사각형 단면의 대량을 만드는 치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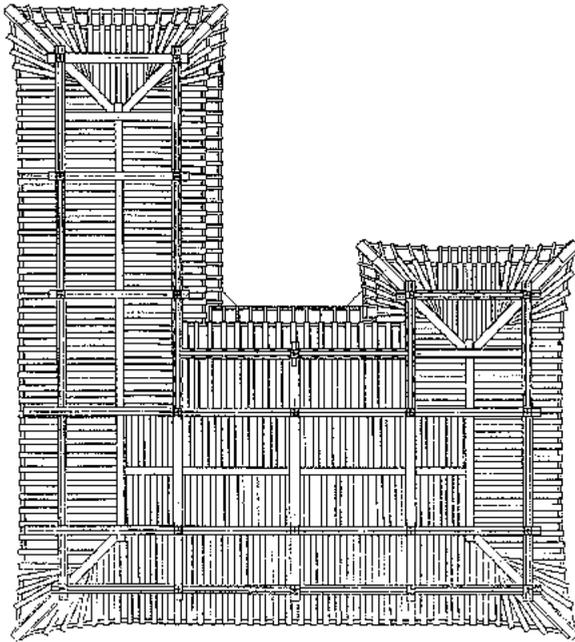
이론적으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큰 것은 정사각형으로 원의 면적에 비하면 약64%의 단면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단면계수가 최대로 되는, 즉 휨모멘트에 가장 유리한 내접사각형은 변의 비례가 1 : $\sqrt{2}$ 가 되는 사각형이며 단면적은 원의 60%정도로 정사각형에 비해서는 작지만 단면계수는 증대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원목에서 직사각형 단면의 보를 만들려면 변의 비례가 1 : (1~ $\sqrt{2}$)의 범위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보단면을 살펴보면 3 : 4 : 5가 되는 직각삼각형의 비례를 사용한 예가 많다. 노략당의 대들보의 단면은 35 : 46 ≃ 1 : 1.314로 3 : 4의 비율과 근사하다. (그림 6 참조).

또한 한옥에서 보의 단면은 완전한 직사각형이 아니고 네 모서리가 둥글게 접어진 이유도 원목에서 최대 단면적의 보를 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경우에 장변인 보춤이 느는 비율보다는 단변인 폭이 느는 비율이 클 것이 당연하므로 3 : 4의 비율이 보단면의 비례로는 합리적인 단면이라 하겠다.

노략당과 같이 2칸 길이의 대들보에서 도리의 구성을 4분변작으로 하면 동주주를 통해 보에 걸리는 집중하중은 양단부에서 1/4지점이 되고, 일반적인 주택의 지붕하중은 수평면당 0.8t / m² 정도이므로 집중하중은 2.4m × 1.8m × 0.8t / m² ≃ 3.5t 정도가 되고, 이경우에 보에 생기는 응력은 그림 7과 같다.

목재의 허용전단응력도 $f_s = 7\text{kg} / \text{cm}^2$ 로 보면 구형단면에서 최대전단응력도는 평균전단응력도의 1.5배이므로 3.5t의 전단력에 필요한 단면은 $1.5 \times 3,500\text{kg} \div 7\text{kg} / \text{cm}^2 = 750\text{cm}^2$ 가 되고, 이것은 274mm² 또는 240 × 313mm의 단면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용된 380×460mm의 단면은 2.33배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기둥과 집합되는 부위에서는 보의 단면이 급격히 축소되므로 여유가 별로 없고, 오히려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한옥에서 목구조의 허용응력 분석에는 별도의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휨모멘트 검토에서 허용휨응력도 $f_b = 90 \text{ kg/cm}^2$ 로 하고 보단면의 비례를 3 : 4라 하면 4.2t·m의 휨응력에 필요한 단면은 255×340mm가 되므로 실제 사용된 단면은 안전율이 2.87배가 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검토로서 전단력과 휨응력에 대응하는 최소단면은 26cm×34cm=884cm²가 되며 실제 사용된 단면적은 1,748cm²로 단면적상으로는 2배의 여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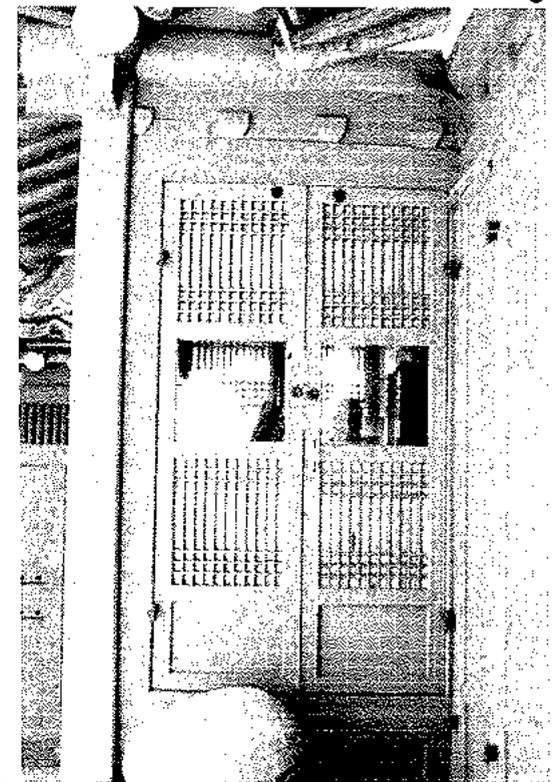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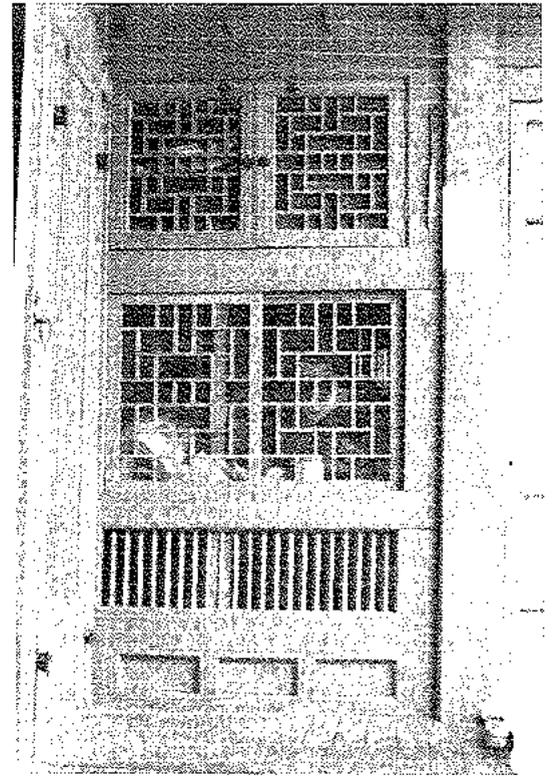
따라서 이 경우에 이론적으로 보의 춤은 스팬의 1/14이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 사용된 보춤인 1/10.7은 안전축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단면의 비례는 3 : 4로 하고 보춤은 스팬의 1/10~1/14, 평균적으로 1/12 정도로 잡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팬이 보편적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와 대비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10. 주택 : 부암동 윤응열가옥

서울시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된 이 가옥은 동편으로 경사져 내리는 지세에 따라 동향집으로 배치되고 문간채와 사랑채 안채가 각각 독립채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는 그중에 안채부분이다. 이 건물의 건립년대는 확실치 않으나 1900년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조의 끝두렵에 지어진 것이다.

주칸은 8자를 기본으로 하였고 칸수로는 11칸집 20.1평 규모이고, 정면4칸에 좌측면 두칸반,



- ⑩ 윤응열 가옥안채 양시도
- ⑪ 윤응열 가옥 안채 누마루방 분합문
- ⑫ 윤응열 가옥 안채 창호 : 안방과 부엌사이의 창호 모습으로 상부의 아자청은 다락의 채광용이고, 그 하부는 외부에서 물품을 수납하도록 구성하고 하단의 시통창은 부엌의 환기구가 된다.

우측면 4칸반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는 7자형집이라 하겠다. 우측면은 전체로 넓게 사용하기 위해 퇴부분에 벽돌벽을 쌓아 변경된 상황이다. 주택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재의 치수를 살펴보면 5치반의 각기둥을 사용하고, 처마도리는 직경 7치의 굴도이고, 종도리와 종도리는 4.5×6치각의 남도리를 사용하였다. 남도리의 단면비례가 3 : 4로 앞질의 보단면 설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비례가 사용된 점은

ARCASIA의 각종 행사들

趙仁淑 / 국제 위원회 위원
by Cho, In - Souk

1992년 ARCASIA행사는 파키스탄 펀잡(Punjab) 주의 라호르市(Lahore)에서 10월23일~28일까지 열렸으며, 주요공식행사로는 제13차 이사회(Council Meeting), 제6차 교육위원회(ACAE Meeting), 제5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가 있었다. 같은 기간에 영연방건축가협회 이사회(CAA Council Meeting)와 국제 건축가현명 제4지역회의(UIA Region IV Meeting)도 열렸다.

제1회 아시아 건축상(1st Arcasia Award) 최종심사 및 참여작품 전시회 그리고 회원국 작품 전시회를 포함하여 무려 여덟가지의 행사가 있었다.

지원행사로는 공식 스폰서 회사들의 자재전시회(EXPO-92)가 있었고 과거 찬란했던 무갈왕국의 유적들을 둘러보는 라호르 시내 중요 건축물답사도 하루 있었다.

행사 기간중 환영 만찬, 잼버리대회 문화의 밤, 개회식 만찬, 회원국 친교의 밤 그리고 폐회식 만찬들이 준비되었었고 지방장관이 초대할 오찬이 있었다. 친교의 밤에 마련된 민속춤 공연에는 파키스탄 인간문화제에 상당하는 무희가 런던에서부터와 특별공연을 했다. 일부 건축인들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라호르시, 펀잡주, 나아가 전 파키스탄이 떠들석했던 행사로 대회기간 중 특별 신문(Arcasia NEWS)이 매일 발간되었고 각종 일간지 및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건축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았다.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23일(금) 등록 및 아시아건축상 최종심사, 자재전시회 개막식, 환영만찬, CAA 이사회
- 24일(토) Arcasia 이사회, ACAE 회의, CAA 이사회
- 25일(일) Arcasia 이사회, ACAE 보고, CAA 이사회, 학생잼버리 개회식, 학생작품 전시회 개회, 잼버리대회 문화의 밤
- 26일(월) 라호르 시내 중요 건축물 답사, ACA-5 개회식 및 만찬
- 27일(화) ACA-5, 아시아 건축상 개회식, UIA 제4지역회의 친교의 밤 및 만찬
- 28일(수) ACA-5, 지방장관 저택에서 오찬, 폐회식, 시상식 및 만찬

이번 ACA-5의 주제는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Towards a New Direction in Architecture)였고 학생 잼버리의 주제는 "21세기의 토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였다.

학술대회(FORUM)와 건축사대회(ACA)는 격년제로 열리며 ACA가 있는 해에 학생잼버리가 열리고, 올해부터 아시아건축상이 수여된다.

1993년도엔 Arcasia Forum 7이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제는 "사라져 없어지는 아시아의 도시"(The Vanishing Asian City)이다.

대한건축사협회(KIRA)에서는 오운동 회장을 비롯한 국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본협회 총무과장 등이 공식대표로 참석했고 이사분들과 몇몇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석했다. 대회(ACA-5) 발표자로 성균관 대학교 이상해 교수, 학생잼버리 대표로 한양대학교 3학년인 정은성, 김태훈 학생이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아시아 건축상 1차 심사에 김우성 회원이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다녀왔다.

본 협회 공식 대표단은 23일 밤에야 라호르(Lahore)에 도착하여 불과 몇 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아침부터 회의에 들어갔고 일부 회원들은 라호르에서 곧장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가 ACA 참석을 위해 이틀 후 합류했다.

김지덕 위원장과 이정근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조인숙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참석했고 이남식 총무과장이 진행 및 기타사항을 챙겨주었다. 협회의 직원이 함께 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차후에도 이렇게 협회의 담당직원이 꼭 가야 제반업무에 연결이 잘 될 것 같다. 파키스탄은 회교국가라 달력의 휴일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부터가 그 주의 시작인 셈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김지덕위원장께서 ARCASIA 회장단 부회장(Deputy Chairman)의 한사람으로 추대되었고, 아시아 건축상 최종 후보작에 김석철회원의 작품과 류훈수회원의 작품이 올라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받지 못했다.

ARCASIA 행사 참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그리고 그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들이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 회원의 일이므로 충실한 보고서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번 보고서의 구성은

- 1) 전반적인 역사적 전망 및 주요안건, 아시아건축상 ARCASIA 선언문-김지덕 위원장,
- 2)'13차 이사회 참석기'-이정근 부위원장,
- 3)'5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참관기'-이상해 교수,
- 4)'6차 교육위원회 회의 참석'-조인숙 위원,
- 5)'제4차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를 다녀와서'-정은성, 김태훈 학생,
- 6)파키스탄 여행기로 되어 전체적인 소개를 조인숙 위원이 맡았다.

해마다 겪어야 할 일하므로 몇가지 국제기구의 회원협회로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협회내에 미래의 건축사가 될 현재의 학생들에게 관심 기울일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건축전의 주제와 시기를 ARCASIA 대회와 관련 지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회원작품전시회나 학생잼버리대회 그리고 ACA의 주제와 본협회 전시회 주제가 다르므로 작품전시회에 출품을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셋째는 공식대회 참석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회 개막전 적어도 하루정도 사전현지에 도착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있어야 준비사항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다. 모국어로 회의를 해도 긴장이 되는데 외국어로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메모하고 하는데 너무 고단하면 안된다. 게다가 사전에 외교(?)를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건축사들과 교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회 폐막후 곧 바로 귀국해야 하므로. 그리고 회의 참석용 자료를 발표자들이 영문으로 만들고 돌아와서 보고서 쓰고 하는데 대한 적당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협회 회원으로서 봉사하는 일이지만 회의 전후에 기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ARCASIA 협의회의 그 역사적 전망

金知德 / 국제 위원회 위원장

by Kim, Chi-Tok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ASIA)는 아시아지역 건축사협회 국제적 기구의 공식명칭이다. 아카시아는 1967년 인도 뉴델리에서 영연방 건축사 회의시 창설되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등 6개 국가의 건축사협회가 탄생의 주역이었다. 그들앞에 놓여진 환경과 선진기술개발의 주요과제를 다루던 중 아카시아 이사회 결정을 합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9년과 1974년 사이에 첫번째 아카시아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루어졌고, 1970년 9월에 첫번째 회동을 하였으며, CAA와 ARCASIA의 아시아지역의 국가조직인 건축사협회의 장래협의 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의결하였으며, 당시 세계조직의 협회기구 창설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 조직은 각각의 협회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중요한 현안이 있었고, 그 문제의 취답이 지역과 지역 국가들 사이에 서로 협력의 필요성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어야 함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1970년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 (IAI)가 Observer로 참석하였고, 1972년 방글라데시건축사협회 (IAB)와 타일랜드건축사협회

(ASA)가 멤버로 가입되었으며, 1974년 필리핀건축사협회 (UAP)가 Observer로 참석하다니 1977년도에 회원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회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79년 홍콩에서 정관과 아카시아 교육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첫번째 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으며, 각국의 국가협회인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협회대표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아시아지역 건축사협회의는 공식적으로 탄생되어졌고, 약어로 ARCASIA로 표기하기로 되었고, 이 새로운 이사회 (Council Meeting)는 국가협회회장이나, 그 대리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하여 명실공히 아시아건축사연합 국가협회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1980년 10개의 국가협회는 정관 인준을 하였고, 그 해 8월 방콕에서 정식 ARCASIA의 이사회의와 교육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때부터 회원국가협회의 장소와 회의를 갖도록 그 절차를 확정하였다. 1981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RCASIA 워크샵 행사가 열렸고, 이 회의 당시 ARCASIA의 공식 국제용역



13차 ARCASIA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

윤리규약이 필리핀 건축사협회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1983년 아카시아 회원국 10개국에서 이 국제 용역 윤리규약에 서명하였으며, 1981년 WARSAW에서 개최된 세계 건축가 연맹 (UIA) 총회에 제출하였고, Nairobi CAA회의 등에도 제출하였다. 이 국제윤리규약 (International Code of Ethics)은 아시아 기술용역 연합회, 국제 기술용역 연합회 등에도 제출하였다. 아시아주 택연합회 (The 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에서는 이 문서를 공식 인준하였다. UIA (세계건축가연맹)에서도 1987년 위 문서를 공식 인준했다.

제2차 아카시아 이사회 (Arcasia Council)는 1981년 8월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북경과 대만에서 온 건축사들끼리 만났었고, 초청 방청자로 참관하였다. 이 회의에서 Target Publication and Investment Ltd.에서는 건축과 학생들을 위한 여행기금을 제공할 뜻을 밝혔고, 필리핀의 유능한 건축사의 활동기금으로 기증되었다.

제2차 아카시아 워크샵이 2차 아카시아 이사회 (ARCASIA Council)와 동시에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당시 집중적으로 협의되었던 사항들은 전문용역 건축사에 관한 "용역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회사연합 설계용역 문제들", "각국내의 설계작업 조직", "건축사의 동원",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건축사 윤리규약" 등에 대한 협의를 회원국 대표단들과 했다.

아카시아 제3차 이사회는 1982년 Colombo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곳은 첫번째 ARCASIA Forum 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제4차 이사회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1983년 개최, 1979년 정관의 수정항목들이 연구되었다. 1984년 제5차 이사회와 제2차 ARCASIA Forum 이 제1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동시에 국제회의로 개최되었다. 이 개최지는 필리핀 마닐라였고 우리나라 건축사협회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이 1차 대회때 당시 대한 건축사협회의 회장이었던 김지태 회장과 현재 본협회의 국제위원회 김지덕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당시 건설부 관계부처에서 제1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공식 안내문을 김희장님이 받아 보시고, 관광당과 협회 공식 참관단을 인솔하여 참가한 것이 대한 건축사협회가 국제적인 건축사모임 단체인 ARCASIA 회의에 참석한 최초의 국제행사였다.

이 1차 건축사 대회는 ARCASIA의 장래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회의의 유일무이한 공식행사화 문화행사의 교환과 그 지역 건축사들을 위한 이례적인 조직행사를 초월하여 ARCASIA 특유의 친구와 동료와 같은 직업인으로서의 우정의 행사 등이 조직되는 계기가 된 회의였다.

1985년 제6차 이사회가 인도 봄베이 근처 Lonavale에서 개최되었다.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오웅석 회장과 송기덕 국제위원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이 국제 행사를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석한 두번째의 회동이었다. 당시 제6차 회의에서 대한 건축사협회가 정식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한 건축사협회가 최초로 국제조직에 가입했던 것이다.

1991 ARCASIA 선언문

건축설계 전문가의 위상정립확인과 용역업의 국제 윤리규약의 준수.

ARCASIA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회원국가 모두는 아시아지역의 15개 국가 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각각 자국의 발전과 건축사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목표를 갖고 전문직의 사명으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그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여기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 건축설계분야의 전문 직업인으로 각회원국가들 사이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전문설계분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둘째 : 각국 건축설계 전문가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위치에서 무역업과 전문설계용역업의 업무의 분명한 개념의 차이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 건축설계용역 전문가의 정의는 각국가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 준하여 조직했으며, 설계작품, 용역문서, 용역의 관리 등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모든 작업은 각국의 미적감각, 과학기술 그리고 고도의 기술규정과 연관된 인간 삶의 목적을 위해 우주환경의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작업임을 인식해야한다.

이상 기술한 모든 관점에서 볼때, ARCASIA 회원은 우리가 속한 각국가와 그 관련 공공부처와 연관있는 국제관련단체의 요구에 의한 작업임을 여기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이며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한다.

1. 건축설계 용역업과 일반용역업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업종임을 분명히 한다.
2. 우리 ARCASIA 15개국 회원국가협회 모두는 1981년 ARCASIA에 의하여 선언되고 1987년 세계건축가연맹 (UIA)에 의하여 승인되고 채택된 국제용역업 윤리규약에 내포된 정신과 의지를 준수할 것을 재선명한다. 국제윤리규약은 각국가 스스로의 개발로 지역국가 용역전문가의 권리와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며, 외국 용역전문가들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의 분명한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
3. 각국가 용역전문가와 외국 용역전문가들사이에 최상의 조화를 이룬 용역업 수행을 얻기위한 이 목적이 각국협회의 목표임을 분명히 한다.

상기 사항들은 1991년 9월 25일 북경에서의 제12차 ARCASIA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사항들이다.

이 국제조직의 가입은 당시 건설부에서 공식 가입승인 신청서를 공문서로 발송 건설부의 가입 허가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이 ARCASIA 국제 조직의 가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8차 이사회의 (Council)는 1987년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주최로 Bali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도 역시 11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하였고, 공식 이사회와 제4회 Forum이 함께 개최되었는데, 당시 이사회에서는 아카시아 Forum과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사협회에서는 9차 이사회에 송기덕 회장과 김지덕 위원장, 조재원 (창조건축)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다.

제9차 이사회와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1988년 서울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때 중국 건축학회가 ARCASIA 회원국가 단체로 통과되어 ASC (중국) 단체가 1989년부터 회원국이 되었던 것이다.

참고 1 : 대한건축사협회를 제외하고는 ARCASIA 회원국 전부가 UIA 회원국임을 알림.

참고 2 : ARCASIA의 국제조직의 활동과 UIA의 국제조직의 활동은 각각 그 국제적 역할이 동일하나, ARCASIA는 아시아 지역 협의회 국제기구이고, UIA는 세계적 조직체임.

제5차 ARCASIA Forum과 제10차 이사회의가 타이랜드방콕에서 1989년에 개최되었다. 이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이

대거 참석하였다. 당시 ARCASIA Bye-Laws가 각 회원국 협회에 제공되었다. 제4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와 제11차 아카시아 이사회가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는데, ARCASIA Bye-Laws(세칙)이 수정을 가한 후 통과했다. 이 이사회에서 중요하고 우수한 건축작품상을 2년에 한번씩 금상을 주자고 제안, 공식으로 공포하였다.

제12차 이사회와 제6차 ARCASIA Forum이 1991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중국 건축학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작년 북경에서 제6차 Forum에 이어 제7차 Forum과 제14차 이사회의는 내년 1993년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고, 금년 제13차 이사회와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파키스탄 라호르 회의에서 ARCASIA Award 금상이 4개부문 수여된 국제행사가 있었다.

1993년 홍콩 Forum에 이어 1994년 제6차 ARCASIA의 아시아 건축사 대회와 제15차 이사회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금년 라호르 이사회에서 UAP (필리핀건축사협회)가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주 기 1. ACA와 FORUM의 차이점

ACA는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의 약어로 주로 건축가들의 연구논문, 작품 발표의 국제학술회의장이며, FORUM은 아시아 또는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여 건축설계, 작가의 작품 및 건축가상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건축가들의 국제모임이다.

Arcasia Declaration 1991

To uphold the rightful place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Adherence to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We, members of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 an organization consistence of 15 national institutes of architects in the Asian region, and consistent with its objectives particularly i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architects to serve society through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do hereby declare that:

1. The practice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may be undesirably affected as a consequence of increasing global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entered into by our respective countries;

2. There is need to assert in very clear terms the rightful place of our respective architectural professions and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in contrast to and distinct from trade and service business activity;

3. The definition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its practice are embodi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can herein by commonly stated as the design, documentation, and management of projects aimed at the creation of spatial environments for human purposes employing relevant standards in aesthetics, science, and technology;

In view of all of the above, we formally declare that we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convey to our respective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agencies, the following:

1. Tha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that of trade and service business;

2. That we affirm our adherence to the spirit and intent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formulated by ARCASIA in 1981 and approved and adopted by the Union International des Architects (UIA) in 1987 which among others defin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foreign consultants and emphasiz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ocal professional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countries.

3. The objective of attaining a harmonious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foreign professionals is our collective aim

APPROVED UNANIMOUSLY this 25th day of September 1991 during the 12th ARCASIA Council Meeting in Beijing.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에 대하여

이번 아카시아 건축상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Category A는 주거부분의 건축물, Category B는 공공문화 건물, Category C는 산업건물, Category D는 중요 보존건축물로 나눠 심사했는데, 참여 건축설계작품은 우열을 가릴수 없는 좋은 11개 작품들이 업치락 뒤치락, 심사위원 모두는 2일간 논의를 치렀다.

수상작품은 다음과 같았다.

Category A에서는 [정원이 있는 주택] 중국 북경 Liang Young Wu씨 작품이 금상, Category B에서는 [알리합라 예술센터] 파키스탄 Mr. Nayyar Ali Dada씨 작품이, Category C에서는 [Kanagawa Science Park] 일본 건축사 작품이 금상 수상되었으며, Category D에서는 방글라데시의 [Ahsan Mansil Dhaka] 작품이 금상 수상되었다. 이상의 4개 작품에 1992년 아카시아 건축 작품 수상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류춘수씨의 삼하리주택이 A분야의 최종심사로 선정되었고, B분야는 김석철씨의 예술의 전당이 최종심사까지 갔었으나 아깝게도 입상에 머물렀다. 모든 작품의 제출 요건은 우선 각국 건축사협회의 승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제출토록 등록 요건의 규정을 준수하였고, 발송되었다.

60개의 작품이 전체 아카시아 회원국에서 도착하였고, 예정 최종심사에 오른 작품은

CATEGORY A

- 중국건축사 Liangyoun Wu의
「New Courtyard Housing Complex」
- 대한민국건축사 류춘수의
「삼하리 주택」
- 싱가폴 William Lim Siew Wai의
「Reuter's House」

CATEGORY B

- 일본 Shoji Hirakura의
「Japan Castle Research Center」
- 대한민국 김석철의
「서울 예술의 전당」
- 말레이시아 Shaharuddin의
「Kota Darul Naim Kelantan」
- 파키스탄 Nayyar Ali Dada의
「Alhamra Arts Center」

CATEGORY C

- 일본 Takekuni Ikeda의
「Kanagawa Science Park」

CATEGORY D

- 방글라데시 Shah Alam Zahiruddin의
「Alhamra Manzil」
- 일본 Atalier Ruka-Team 200-의
「Wakimachi Library」
- 싱가폴 Helen Chen의
「Raggles Hotel Restoration」
등이었다.

CHAIRMAN ARCASIA, 1991-92

Anne Kiepan

1. INSTITUTE OF ARCHITECTS, BANGLADESH (IAB)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2.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SC)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3.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HKI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4.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II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5. IKATAN ARSITEK INDONESIA (IAI)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6.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JI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7.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8. ASSOCIATION OF MACAN ARCHITECTS (AM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9. PERTUBUHAN AKITEK MALAYSIA (PAM)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10. UNION OF MONGOLIAN ARCHITECTS (UM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11. INSTITUTE OF ARCHITECTS, PAKISTAN (IAP)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12. UNITED ARCHITECTS OF PHILIPPINES (UAP)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13.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SI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14.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SLI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15.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ASA)

Represented by

[Handwritten signature]

HON. SECRETARY ARCASIA

[Handwritten signature]

ARCASIA 제 13차 이사회의 참가기

李延根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by Lee, Jeong - Keun

1. 머리말

대한 건축사협회 대표단 일행은 10월 23일 밤 라호르 공항에 도착했다. 26일부터 시작하는 아시아 건축사 학술대회에서 합류하게 될 회원들은 이슬라마바드로 항행을 계속했다. 라호르에 내린 일행은 김지덕 위원장, 조인숙 소장, 이남식 총무과장, 그리고 본인 및 학생 잼버리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 2명이었다. 뜻밖에도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회의자료와 준비물, 인쇄물들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다.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짐이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간직했던 참고본등을 복사하여 회람토록하였다. 김지덕 위원장과 본인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인숙 소장은 교육위원회 일을 맡았다. 이남식과장은 회의의 진행과 부수행사에서 뒷일을 챙겨주었다. 이 글에서는 회의의 안전별 주요 진행사항과 결정 내용을 요약해서 전하고자 한다.

2. 이사회의 안전별 진행사항

1) 개회식

15개 회원국중 몽고와 태국이 불참하였고 인도 대표는 하루 늦게 도착했다. 아시아 건축사대회 바로 직전에 영연방 건축사협회(CAA) 회의가 라호르에서 열렸기 때문에 CAA 인사 다수가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아카시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는 스리랑카의 Atitia씨의 죽음에 대해 눈물이 있을 후 빌그라미 회장이 초청인사와 각국 대표들을 소개하고 파키스탄 건축사 협회장과 일부 참관인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빌그라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아카시아 사업중 결실을 보고있는 네개의 사업을 지적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주관하여 발행을 시작한 아카시아 건축계간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중인 "아시아의 현대건축", 홍콩의 R.Poon씨가 정리하여 발간한 '아카시아 체크리스트', 및 파키스탄의 체프리 씨가 정리한 책 'ARCASIA Handbook' 등을 소개하였다.

2) 아카시아 재무보고 및 회원국별 주요업무 보고

금번 이사회의 예정 안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작년 북경에서의 제12차 이사회의록이 검토 수정보완되어서 통과되었다. 아카시아 재무위원장이 재무보고를 통해서 각 회원국의 연회비 500달러에 의존하는 수입액의 한도안에서 지출내역을 요약했으며 작년의 4,204달러의 흑자와 올해 현재까지의 흑자 1,398달러를 합치면 현재의 재정상태는 5,602달러의 흑자로 나타났다. 필리핀 측에서 재무보고 형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아카시아 본부에서 지출하지 않는 각 Work Group의 예산규모를 포함하는 지출총액을 파악함으로써 아카시아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정확히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제안은 회원들의 공감을 얻어 통과되었다. 각국 협회의 업무현황보고는 작년

12차 이사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미리 정해진 공통의 틀에 맞추어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 건축계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던 학교 건축교육과 실무분야의 상호, 연계성의 문제와 설계 및 감리를 분리실시하는 연서감리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회원국들의 보고중에서 관심을 끈 것은 싱가포르 사협회에서 자국의 문제점으로 여겨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하는 것들이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건축사의 질은 설계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질과 비례하며 우수한 학생들이 건축학과를 선택하는 비율은 건축사들의 보수율과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에서는 건축사들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계량화하는 데서 찾기때문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하는 질의 문제를 간과하는 구조적이지 제도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주택시장에서는 하나의 국립 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독점해왔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획일화가 초래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사회주택 모델의 다양화의 질적인 향상을 성취하도록 협회에서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 싱가포르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건축사들이 그들의 업무가 전 산업구조와 긴밀히 짜여져 있음을 망각함으로써 전문영역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하겠다는 전망이었다.

일본에서는 마사오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자국협회를 소개했다. 일본에는 등록건축사가 20만명이며 JIA회원은 7천명이라 한다. 건축학과 졸업생중 약 10%가 건축사를 지망하여 설계에 종사하며 일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일정한 보수수율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관공서와 일부 회사에서 설계비를 입찰하는데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홍콩대표는 이에 대해 기성건축사들이 계속 사회발전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다시 건축사들이 교육계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의 Jimmy Lim은 자국에 있어 공공부문과 (Government) 일관개업 사무실 (Private Sector)의 업무구분과 역할구조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 Work Group별 활동

이어서 각 Work group의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맨먼저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아시아의 현대건축'의 출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아직 읽어버린 짐이 도착하지 않아 보고서를 복사하여 회람토록 하였다. 편집인 Brian Taylor씨 선정경위와 추진계획을 얘기했다. 그리고 아직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않은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후주의 Image Group이 이와 유사한 책을 발간하려고 일을 시작했으므로 의제가 되었다. Image Group의 책에서는 아카시아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하며 Image Group의 것은 거의 사무실 광고에 가까운 상업적인 것이므로 아카시아 책에 실리지 않는 다른 건축

사의 이름은 모두 아카시아 가입 단체의 회원이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활동이므로 추후 다른 기회에 협회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알려려고 한다.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서 수고하여 건축계간지 ARCHASIA를 2호책 발간하였다. 각 회원국이 최소 50부씩은 소화해줄 것과 좋은 원고를 계속 공급해 주도록 부탁했다. Architect Selection Workgroup은 특기할 만한 활동사항이 없었으며 단지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이 몇가지 쟁점사항을 거론했다.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는 공개경쟁으로 건축사를 선택해야하며 작은 사무실들은 연합하여 큰 사무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하며 경비절감을 위해서 예산에서는 A1 한장의 도면과 A4 한장의 설명서만 내도록 하는게 좋다는 주장이다. 인도의 Mr. Chauhan은 인도건축사협회를 대표하여 Workgroup 프로그램을 내어 놓았다. 이제까지 여러 Workgroup(소활동그룹)들이 있어 왔지만 예산과 통신의 문제 및 제안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부족으로 대부분이 성과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통폐합하는 결과만 남아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광범위한 소단위 활동 그룹계획을 안건으로 들고나와 거의 모든 대표들이 그 실현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말레이시아의 Hisham은 UIA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지속성이 문제며 이사회가 그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도에서 제안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므로 그들이 내어놓은 여러가지 소활동 그룹들중 시범적으로 인도에서 전통과 주거(Heritage and Housing)활동그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공적이면 시행을 확대해 보도록 하였다. 아카시아 포럼에 대해 아카시아 Forum-7의 의장인 Jimmy Lim과 개최국인 홍콩의 대표가 진행사항을 소개 하였다. 연사들은 이미 초청장을 발송하여 확인중이라 한다. 주제는 '아시아의 사라지는 도시'이며 기간은 1993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다.

4) 아카시아 건축상

격년제로 시행하게되는 아카시아 건축상 제도는 파키스탄에서 주장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해가 그 첫번째이다. Ziaham Jeffrey의 용의주도한 노력에 의해 어려운 출발을 성공리에 시행하였다. 심사위원의 초청비 및 시장 금메달과 부수비용을 ICI 파키스탄지부가 지원했는데 매 시상년도마다 어느나라에서 개최되던 관계없이 ICI가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몇몇의 외부심사위원들중 우리나라에서는 아키프랜의 김우성 소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시상 범주는 4분야로서 A. Residential, B. Public Amenity, C. Industrial Bldg. D. Conservation 등인데 회원국에서 출품된 54작품중 11개가 입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9개의 작품을 출품하여 아키프랜의 김석철 소장과 이공의 류춘수 소장이 입선하였으며 아깝게도 금메달은 놓쳤다. 금메달 수상국은 범주별로 A. 중국, B. 파키스탄, C. 일본, D. 방글라데시였다. 건축상위원회 위원장은 매 2년마다 선출하기로 했다.

5) 교육위원회의 경과보고

교육위원회 의장 P.Kasi의 금번 교육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파키스탄 이외 외국학생들의 참석자는 12개국에서 34명이 왔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건축전 학생부 1등 당선자 2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작년 북경회의에서 채택된 학생잼버리 행사지침에 따라 잼버리행사가 진행되었다. 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을 앞으로 ARCHASIA 잡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활동상을 바다으로 촬영하고 보고서의 체계를 재정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아시아 각 건축교육기관의 학점인정제도와 학교명단이

좀더 체계적으로 보완되어 책자 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시아 학생작품 경연대회를 개최 하였으면 하는데 재정문제 등 여러 시행 방안을 일본협회에서 본격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아시아의 건축 교육제도에 대한 Workshop이나 학술 회의 또는 포럼을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나중에 제6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필리핀에서 이것을 주제로 하도록 빌그라미 회장이 권고 하였고 필리핀에서는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육위원회 지역별 간사국으로는 A. 파키스탄, B. 싱가포르, C. 홍콩 등이 피선되었고, 다음 임기 2년의 ACAE회장에는 P. KASI가 유임하기로 하였다.

6) 아카시아 회장선출

몽고, 일본, 마카오 등 새회원국이 가입됨으로써 Zone별 회원국 배치가 재조정 되었다.

- A.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 B.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 C. 한국, 중국, 일본, 몽고, 홍콩, 마카오

새회장에는 필리핀의 Mr. Richeto C. Alcordo가 당선되었으며, 제 15차 이사회회와 제 6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개최는 필리핀으로 정해졌다.

각 지역별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Zone C에서는 한국의 김지덕 위원장이 뽑혔다. Zone A에는 파키스탄의 Syed Zaigham Jaffery, Zone B에는 Indonesia의 Syahrul Syarif가 선출되었다.

7) 기타사항

아카시아 건축상 범주 A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부문으로 나누고 범주 B의 공공빌딩 부문에는 상업건물과 비상업건물로 나누기로 한다. ARCHASIA편집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 이사회때마다 심리하기로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UIA에서 말레이시아의 원시림 파괴를 환경파괴행위로 규정하여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선진국에서의 환경파괴 행위를 더 심각하게 다시 정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리핀에서 다음 건축사대회때 ACAE-Forum 개최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였다.

3. 맺는말

이번 라호르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지난번 인도 아그라에서의 제 4차 대회에 비해서 훨씬 짜임새 있고 수준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아카시아 건축상을 제정하여 무리없는 출발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의 또 다른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아카시아 회원국별 회원들의 작품전시회도 가내 이상의 수준이었다.

공식행사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부수행사로 파키스탄의 여건에 큰 무리없이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부여주는 기획이었다.

건축과 학생들의 공연에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의 열의를 역력히 보여주었으며, 문화의 밤 행사에서 보여준 수준높은 파키스탄 전통 무용은 값진 것이었지만 한사람이 줄곧 몇시간을 계속하는 것이었기에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단지 행사장까지 말 마차를 타고 갈수 있도록 배려한 기획은 매우 분위기를 돋우는 것이었다. 다른 행사에 비해 정작 이번 4차 대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술발표대회는 짜임새가 미흡하여 강연자

의 선택이나 강연내용에 있어 주제를 명확히 들어낼 수 있는 구성이 아니었고 진행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번 새로 시작된 아카시아 건축상과 회원작품전을 출발시키기 위해 자금과 노력을 그 쪽으로 배정하다보니 여력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주제를 걸고하는 중심행사가 미약했던 점이 매우 아쉽다. 학생재미행사는 앞으로 좀더 확고한 뿔을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천방안들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시금석을 놓았다고 평할수 있겠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후 되짚어보고 싶은 점은 회의개최국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바쁘더라도 하루정도 먼저 도착하여 다른 나라의 대표들 및 주최국의 관계자들과 회의 전 접촉을 통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현지에서 차분히 재점검하고 회의안전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듯싶다.

해마다 거듭해서 느끼는 일이지만 유독 우리 건축사협회만이 교육이나 연구부문위원회가 없고 이와 연관된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하기가 어렵다. 비단 국제활동에서의 애로만이 아니고 어느 전문가협회이건 이것이 포괄성과 발전적인 미래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기성회원들 뿐만아니라 예비전문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계 또는 관련되는 여러 타전문분야 및 산업체들과

의 협력하에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회원들의 자질과 우수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라 본다. 그래야만 앞날의 한국 건축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의 이권방어가 중요한 만큼 장애에 건축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육 연구부문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사협회의 국제활동은 찬석자 몇몇의 관심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여러모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문인데 비해 국제활동의 목적과 필요성 및 그 의의에 대한 회원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웃하는 아시아권의 국가들과 여러제도 및 건축문화의 제사항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배울 바를 많이 거두어들이 우리 회원들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위상을 함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건축전문인의 역할구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을 수 있게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우리 건축사들은 만족스럽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 건축사협회의 관련 국제행사 뿐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눈을 넓게 돌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건축인들이 활보하며 세계 건축계에 이바지하여 우리의 건축이 한국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세계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일은 몇몇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회원건축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회 ARCASIA 컨퍼런스 참관기

李相海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Sang-Hae

필자는 파키스탄건축사협회가 주관하고, 아시아건축사협회의가 후원하여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파키스탄이 자랑하는 1천년의 역사도시이며 전원도시인 라호르(Lahore)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아시아건축사대회에 대한 건축사협회와 파키스탄건축사협회의 초청으로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이사회와 함께 열린 이번 대회 컨퍼런스의 주제는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Towards a New Direction in Architecture)이었으며, 이 주제는 다시 「역사적 고찰」(Historical Update), 「현재의 경향」(Current Trends), 「미래의 방향」

(Future Directions), 그리고 「종합토론」 4부로 나뉘어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라호르 중심에 있는 AI

-Hamra Hall에서 열렸다. 발표내용은 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건축가들과 연관된 건축의 국제적인 전망(International Overview), 지역 현지의 경험(Regional Experience), 각국별 과제(Local Issues, or Country-wise Issues),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왔을 뿐아니라 주최국이 파키스탄이었던 관계로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에서 온 건축사들도 있었다. 필자는 본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와 함께 참석하며 느꼈던 몇가지를 이 기회에 이야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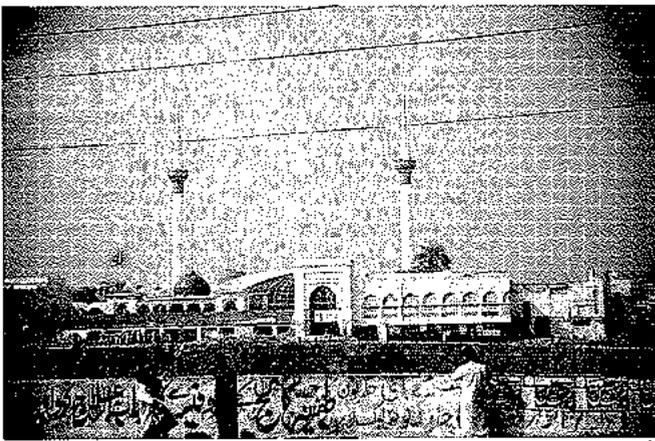
제1부 「역사적 고찰」은 진행자 2명과 패널리스트 2명, 그리고 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 오전에 있었는데, 발표 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Urban Space as an Expression of Power. An analysis of Urban Developments in Lahore during the early British Period 1846-1900 (Parvaz Vandal Pakistan)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Historical Architectural Environment for a Distinct Urban Design in Seoul, Korea (Sang Hae Lee, Korea)

-On the Problems of Scale in Architecture (Tay Kharg





2

Soon, Singapore)

- Architect Led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John Wells Thorpe, U.K)
- The Grounding of Diversity in Public Architecture (T. Shigemura, Japan)

제2부 「현재의 경향」역시 진행자 2명과 파넬리스트 2명, 그리고 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 오후에 있었다. 발표 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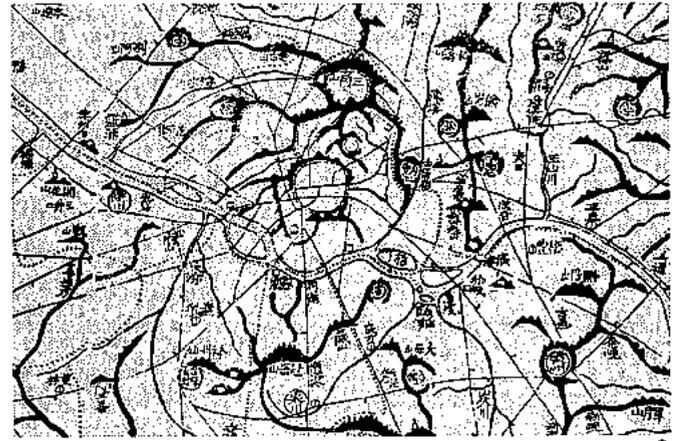
- Architectural Fashion (Jennifer C. Hanib, Pakistan)
- Current Trends in Pakistani Architecture (Sajjad Kauser, Pakistan)
- Architectural Morphology and Climatic Design (Huang Wei, China)
- Tourism Development Designing in the Natural Environment - A Delicate Balancing Act (Christine Vadasz, Australia)
- Towards a Humane Architecture in Asia (Akhtar Chauhan, India)

제3부 「미래의 방향」역시 진행자 2명과 파넬리스트 2명, 그리고 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일 오전에 있었다. 발표 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Future Direction - Regional Context (Kamil K. Mumtaz, Pakistan)
- Future Direction (Philip S. Cox, Australia)
-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Living Environment in Japan Towards a Direction in Urban Spaces (Koichi Nagahima Japan)
- Architecture Faces Challenge (Jia Sheng Bao, China)
- The Glory and the Dream and Realistic Architecture (Fawad All Butt, Pakistan)

제4부는 10월 28일 오후에 있었는데 종합 평가 및 토론이었다. 발표자들과 건축가 Akeel Bilgrami, Filipe Mendoza Ronald Poon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필자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시 서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건축역사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Historical Architectural Environment



3

for a Distinct Urban Design Seoul,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의 수도이며 오는 1994년이면 정도 600주년이 되는 유서깊은 역사도시인 서울을 과거 현재의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오늘의 한국 건축사들이 인식해야 할 명제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건축 도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서울을 가꾸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슬라이드를 보이면서 이야기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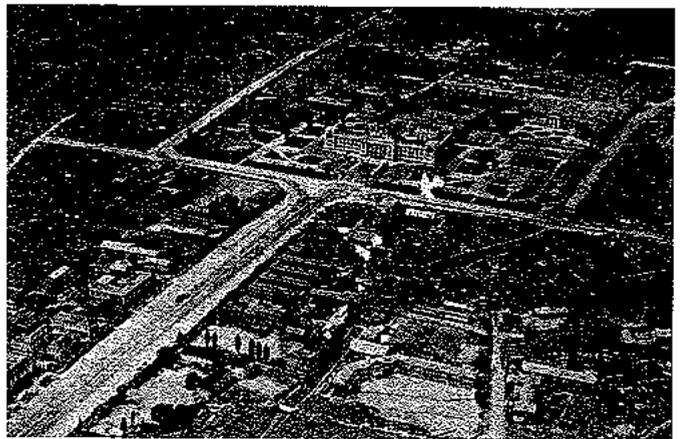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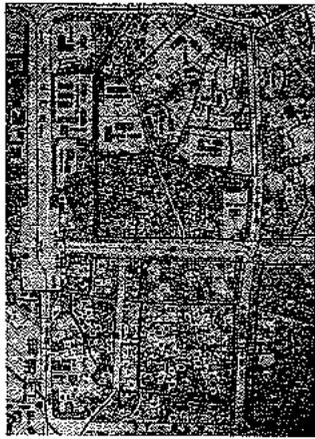
먼저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서울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하기 위하여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 역사적인 건물, 장소, 환경 등 문화적인 유산을 지닌 도시 서울, 그리고 최근 2-30년 사이에 현저하게 이루어진 기존 시가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개발 사업과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한 도시영역의 팽창으로 나타난 새로운 장소와 환경을 지닌 서울,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도시 환경의 소멸과 파괴 등의 와중에서 옛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고리를 이룬 서울의 건축·도시 환경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서울이 지닌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과 서울의 독특한 도시 맥락과는 상관성이 적은 서양 현대건축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히 최근에 이르러 몇몇 건축사들에 의하여 이러한 측면을 극복한 건축을 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현존하는 서울의 역사적·건축적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관을 재창조할 수 있는 도시설계와 연관되는 고려사항을 이야기하였다.

필자는 또한 서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적 환경을 다룬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통 건축과 도시 조직으로부터 발견 가능한 주제와 기준을 소개함으로써 옛 서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건축 및 도시계획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건축설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선례의 사용은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가분이 되는 이론과 원리로서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건축사들은 도시에 대한 이해와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도시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필요성의 이유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야기하였다.

1. 한국 건축의 특성에 대한 해석과 현대적 역할의 모색
2. 서울이 지닌 다양한 역사적·건축적 환경의 재해석
3. 서울이 지닌 역사적·건축적 환경의 보전을 위한 설계 원칙의 제안
4. 이상과 관계되는 건축 및 도시설계와 연관된 목표와 방법의 제안

이상의 토의를 위하여 필자는 현재 서울이 지닌 건축 상황을



논의하고 건축 설계와 연관된 몇가지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몇몇 실례를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 보았다. 슬라이드 내용은 주로 서울의 자연경관과 서울의 지세와 입지를 보여주는 옛 지도, 조선시대 서울을 재현한 조감도, 몇몇 역사적인 내용과 건축, 도시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들, 서울 옛지도에서 본 도시 가로망 구조, 서울의 옛 중심 경관 사진, 서울의 옛 도시구조와 건축을 보이는 사진, 그리고 서울 도시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내용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와 도로가 파괴, 변화되어 간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한 1920년대의 서울 중심부 일부 지도, 확장 변화되는 도시 가로 구조를 보이는 사진, 파괴되는 옛 경복궁과 전면 간선도로를 보이는 사진, 서울의 도시영역이 확대되어 간 것을 보이는 지도,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환경이 현대건축과 잘못 어우러지고 있는 몇몇 실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과거의 서울 중심 시가지 모습과 재개발이후 들어선 현재의 서울 중심 시가지 모습 일부를 비교하며 보이면서 지난 2-30여년간 도심이 재개발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서울의 많은 역사적인 특징과 환경은 상실되고, 변형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 문화환경은 현재의 서울 모습에 잘 정리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나마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건축적인 영감을 구하여 설계를 하는 건축사도 있음을 서울의 중심 한옥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안한 실례안 일부, 그리고 새로 개발된 지역에 들어선 건물들의 몇몇 실례를 통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는 서울을 역사적인 연속성, 고유성, 독자성을 지닌 도시 환경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 한국건축사들의 과제중의 하나임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건축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주된 관심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1. 역사적인 환경에 의해 이루어진 장소성의 유지.
2.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서울을 기억하는 역사 문화 환경의 도입.
3. 서울의 역사적 도시구조와 형태의 재해석
4. 현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축설계와 주제의 모색
5. 서울의 건축적 독자성 정립

이러한 모든 것은 서울의 건축적 유산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울의 자연 환경, 입지 조건, 서울 도성 구조의 특성, 정주 방식, 건축 구성 및 배치 방식의 특성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첫째로, 인간은 자연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그들이 살

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수도 서울의 입지는 이러한 원칙과 풍수지리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이론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서울의 입지는 풍수이론의 관점에서 도시를 둘러싼 산과 강을 갖춘 도읍지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도시 서울의 이미지중의 하나가 자연환경, 즉 산과 물에 의하여 특성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또다른 서울의 특징은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 실행된 도시구조 형식과 도시조례 구성법에 있다. 특히 주도로는 도시의 주요공간을 각 방향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골목길과 작은도로는 주도로로부터 도시의 모든 공간으로 접근하도록 마치 나무의 가지와 줄기와 같은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구조와 조직은 매우 고도로 통합된 유기적인 패턴으로 계획되어 있다.

셋째, 전통적인 한국건축의 독특한 성격과 정주방식에서 한국건축은 많은 점에서 다른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내구성이 적은 목조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수평으로 펼쳐져 나가며 공간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건축 설계와 계획의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건축의 기본개념은 건축물군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중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 개념을 통하여, 한국건축은 항상 자연 및 주위 환경에 대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왔다. 이렇듯 한국건축이 만드는 중정으로 이루어진 건축체계는 건물과 외부공간 그리고 자연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상호 융합시키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는 한국 전통건축의 형태적 성격을 나타내는 구성적 특징들이 있다. 즉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가구식구조, 이와 연관되어 모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면 구성 방법, 구조의 단순성과 솔직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구조적 요소들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평면, 입면, 단면에서 건축의 명료성과 합리성을 명백히 나타낸다.

서울의 도시·건축적 특성을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이와 함께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시조직에 무엇이 더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해야 할 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판단기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첫째, 서울의 역사적 도시경관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특징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서울이 지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고도제한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서울이 갖는 입지 조건에 적합한 건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는 할 것이다.

둘째, 건축사들은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들을 단위 건물 하나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로경관과 연관지어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건축사들은 한국의 건축과 도시에서 진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건축설계의 개념은 환경의 개념으로서 채택되어야지, 건축물 그 자체만 대상으로 하여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대상으로서의 건축 개념이 아니라, 도시적 측면에서 건축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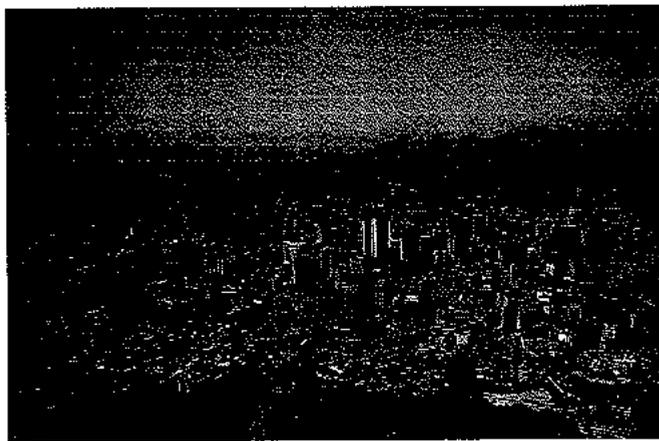
셋째, 역사적인 환경의 부분이나 요소는 문화적인 기억장치로서, 즉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이것은 옛 것과 새로운 것 사이를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양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것들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나 의미를 부활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도시와 건축에 대한 역사와 의미의 연속성이라는 두 전제 아래, 이런 요소들이 새로운 건축과 가로망 구성에 채택되고 사용되면, 옛 것과 새로운 것은 도시환경의 통합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의미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는 역사적인 건축의 선례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야 하며, 이들은 건축설계에 단서를 제공하는 형태의 변용을 통해 채택될 수 있다. 이 점을 건축사들은 절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리고 현지에서 있었던 몇가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에 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컨퍼런스의 준비작업은 파키스탄건축사협회가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컨퍼런스의 전체계획을 세우고, 아시아 각 회원국에 계획내용을 통보하고 화신을 받고, 당일진행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필자는 느꼈다. 파키스탄건축사협회 조직위원회는 준비 내용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는데 있어서 일정계획등을 사전에 일찍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것을 느낀 이유는 컨퍼런스의 확정된 내용이나 진행 일정등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이 압박하여 무엇 무엇이 지금 필요한데, 혹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니까 빨리 제출하라는 식의 통보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계와 연관된 내용을 이번엔 직접 느



- ① 컨퍼런스가 열린 Alhambra 문화센터의관
- ② 모스크가 보이는 라흐르 시내모습
- ③ 대동여지도의 서울 주변 산세와 한강
- ④ 서울을 보이는 조선시대 지도
- ⑤ 일지시대 종로1가 주변지도
- ⑥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는 경복궁 주변 모습
- ⑦ 1990년대 초 서울모습

끼 기회를 가졌다. 몇몇 뜻있는 분들이 자주 국내 건축계가 국제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한 단일 건축 창구를 만들어서 국내 건축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곤 하였는데,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보고 이문제를 더욱 실감있게 느꼈다. 사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않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행사에 그 나라 건축계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건축인들과의 교류에서도 한계를 지닐뿐아니라 국내 건축사들의 참여도 제한되게 되고, 이와 아울러 국외 건축사 단체가 우리나라 건축단체에 서신연락을 하는데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이번엔 보았다. 우리 건축계가 극복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가 국제 행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단일화된 건축단체의 구성과 활동은 건축가들의 대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상관있다고 느꼈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 파키스탄 유수의 주요 일간지들은 행사 내용을 지면에 매일 크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회에서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의 수준이 높구나 하는 인상을 주었으며, 또한 건축사들의 사회적인 위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이는 우리 건축계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매 행사 때마다 공공 단체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주는 것은(대리 참석, 대독이 아님)부러울 정도였다.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 실제로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은 참가국들 건축사 모두가 건축 교육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교육이 곧 그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 하듯이, 건축 교육 역시 곧 그 나라 다음 세대의 건축 모습을 예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가 건축사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는 다음 세대 건축사들을 위하여 건축교육을 어떻게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해하고 어떤 도움되는 이야기를 얻으려고 하였다. 부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국내 건축사들은 이 부분에 관한 절실하게 느끼는 건축사들이 적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또 부끄러워 해야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느꼈다. 더구나 현업 건축사는 대학 건축설계 교육에 대학교 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번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는 듣는 사람의 놀라움보다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언어 즉 의사 소통의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건축사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있어 큰 문제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 건축사들과 어울려서 건축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서로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가 된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데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고 싶다.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에 대한 자신의 뜻이 있고, 그리고 문제의 절실성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언어 장벽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언어 문제 자체 보다는 오히려 문제 의식이나 인식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본 대회보다 관공이 더 중요한 업무였다면 문제가 있음을 이제는 우리 건축인 모두가 인정해야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국제 대회야말로 다른 나라 건축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뿐만아니라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제6차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趙仁淑 / 국제 위원회 위원
by Cho, In-Souk

1. 처음에

아시아지역 건축사협회(AFCASIA)제6차 건축 교육위원회(ACAЕ)연례회의는 1992년 10월 24일 파키스탄 라호르市(Lahore)의 2대 호텔의 하나인 펄 콘티넨탈 호텔(Pearl Continental Hotel)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 다음날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개최식에 교육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해야 했으므로 예년에는 이틀에 나누어 했던 회의를 하루에 마무리하느라 저녁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여정이 멀어 전날 밤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 아침부터 바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교육위원회 업무를 맡고계신 전봉수위원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혼자서 수행해야 했으므로 심적부담이 되었다.

오전회의는 ACAE 의장인 말레이시아(PAM)의 피.카시(P. Kasi)의 환영 및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 및 참관인의 간단한 자기소개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방글라데시(IAB), 중국(ASC), 홍콩(HKIA), 대한민국(KIRA), 말레이시아(PAM), 싱가포르(SIA), 필리핀(UAP)(SLIA), 파키스탄(IAP), 일본(JIA), 인도네시아(IAI)의 11개 회원국에서 참석하여 15개전체회원국의 정족회원 수를 넘어 정식으로 개최가 선포되었다.

오후 회의에는 마카오(AAM)까지 합류하여 12개국이 참석하였고 인디아(IIA)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비자문제 때문에 다음날에야 도착하여 보고서만 제출했다. 올해는 건축학도 잼버리대회가 있었으므로 교육위원회 대표들이 회의뿐 아니라 잼버리대회 개최식 및 학생작품 전시회 개막식, 문화의밤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느라 멀리 떨어져있는 행사장을 단체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무척 바빴다.

2. 본 회의에서

주최국인 파키스탄(IAP)의 대표 후세인 박사(Dr. Hussain)의 아시아지역건축학도 잼버리대회에 대한 설명과 일정표 소개후



1991년 중국 베이징에서의 회의록을 약간의 오자수정 및 문구조정후 승인채택하였다.

회의록 중 작년 북경에서 승인 채택된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향후의 잼버리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을 했고 특히 대회 후에 주최국에서 만들어 보내 참가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피이드백용의 자료 및 대회보고서는 단순히 기록차원을 넘어서 격년제로 열리는 다음번 잼버리대회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었다.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ARCASIA Students Jamboree)
- 2) 회원국 교육위원회의 활동사항 (Members Report)
- 3) 3개 지역의 활동사항 (Sub-regional activities)
- 4) ACAE의 장래 활동 및 계획에 대해
 - 가) 학생 교환 프로그램
 - 나) 각 회원국 대학의 건축과의 학점인정에 대한 정보
 - 다) 회원국의 교육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기본 양식작성
 - 라) 아시아지역 대학교 건축과 현황자료
 - 마) 국제 학생작품 설계경기
 - 바) 건축교육에 관련하여 포럼이나 워크숍 개최
- 5) 1993-1994 임기 ACAE 의장 및 지역별 간사국 선정

각 의제별 토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축학도 잼버리대회에 대해 파키스탄 (IAP)은
 - 이번 건축학도 잼버리대회는 비교적 잘 준비된 편으로 12개 회원국에서 온 34명의 학생대표 및 200여명의 파키스탄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고 9개국에서 출품한 학생작품 설계 경기 전시회가 대회장의 한곳인 라호르국립예술대학(The National College of Art, Lahore)에서 전시 준비중이라는 점,
 - 이번 대회에는 특히 파키스탄 자국학생들이 대거참석하므로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대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 주최국에서는 현지학교와 긴밀히 손을 잡고 만전을 기해 준비를 했고
 - 작년 북경 회의때 채택되었던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영지침"(The guideline for the holding of Jamborees)이 이번 대회에 훌륭한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이런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좀더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했다.
- a) 말레이시아(PAM)에서 만드는 아치아시아(ARCHASIA magazine)에 잼버리에 대한 기사를 실으므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 경험담을 통해 함께 피이드백(Feedback)할 수 있게 하는 방법 (Research Publication)

b)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각 회원국에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Video Tape)

c) 행사후에 자세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어 자료로서 배포하는 방법 (Comprehensive Report)

이번대회 주최국인 파키스탄 (IAP)이 좀더 이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서 잼버라대회 행사 및 일정 안내가 있었다.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Students Jamboree)는 24일 도착 및 등록으로 시작하여 28일까지 라호르市的 양대 건축과가 있는 국립예술대학 (NCA)과 공과대학 (The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열리며, 개회식 및 다음과 같은 주요행사로 구성.

a) 세미나 (Seminar)

주제 : 21세기의 토속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 제1부. (Historical Context) - N.C.A. 강당
- 제2부. (Current Situation) - U.E.T. 세미나홀
- 제3부. (Future Direction) - U.E.T. 세미나홀

b) 전시회 (Exhibition)

- ① "21세기의 토속건축"을 주제로 한 설계경기전시회 (Competition drawings)
- ② 선정된 학생작품 전시회 (Selected Works)

c) 이틀간의 유격지 및 건축물 탐방 (Field Trip)

d) 문화의밤 (Cultural Evening)

e) 기타 ACA-S의 개회식 및 전체행사 폐회식 참석

2) 각 회원국의 활동상황 연례보고

마카오 (AAM)는 아직 건축과가 설립되지 않아서 학점인정이나 자격인정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마카오 (AAM)에 이어 대한민국 (KIRA)은 예년처럼 보고서의 요지만을 설명했다. 공교롭게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본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필자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복사해서 나누어주는 해프닝을 벌였다. 의장 카시 (P. Kasi)가 해마다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KIRA에 찬사의 말을 해주어 그간의 피로를 더는 듯 했다.

필자는 KIRA내에 '교육 및 연구 위원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재로는 이질수 없이 국제위원회내에 'ACAE를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연례보고서에는 건축 3단체 (사협회, 학회, 가협회)의 교육관련활동을 요약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례 보고서의 주요 항목들은

1. 1992년 건축사 보수교육
2. 건축계획, 설계 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학회)
3. 학생작품 전시회 (사협회, 학회, 가협회, 여성건축가협회)
4. 건축교육에 관한제언 (가협회)
5. 기타 - 세계건축도보사 '한국의 현대건축'특집에 관한 교신 등이다. 작년회의시 전봉수위원께서 본 협회의 기구에 교육위원회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어색하고 쑥스러워하셨던 상황이 다시금 생각났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구두로 연례보고를 했고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 회원국은 KIRA를 비롯해서 필리핀 (UAP), 일본 (JIA), 중국 (ASC) 및 인도 (IIA) 등이었다.

각 회원국의 활동상황 보고중 특기할만한 것은 학점인정 및 자격인정에 대한 교육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마카오 (AAM) 경우



이제 첫 대학원 (Post graduate school)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 (PAM)에서는 수천명의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방글라데시 (IAB)에는 영국의 AA school과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외국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2년후 건축사등록할 수 있고 (RAB), 특히 입학시험에는 '드로잉'과목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솜씨를 테스트하는게 아니라 창작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테스트 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IAP) 경우 라호르의 두대학중 건축과 입학시험에 NCA는 영어과목을 보고, UET는 무시시험입학이라고 했다.

일본 (JIA)에서는 일본의 70%가 전쟁으로 파괴되어 그동안 건축인이 무척 많았는데 현재 1급 건축사가 20만명 2급 건축사가 40만명정도 있고 최근에 목조건축사라는게 생겨 문화재 보수 및 보전을 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리적,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건축디자인을 결정짓는데 전문가들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다는 점을 부언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태풍등 의 장애요소가 많아 분야비율로 보면 구조전문가와 환경공학전문가를 제외하면 디자이너는 불과 40%마만이므로 학교에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계결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IAI)는 학점인정에 관해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과 학교간에 서로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한편 건축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건축가들의 역할에 당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국의 건축사들은 생태학적 문제에 더욱 고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ASC)에서는 그 동안에 크게 늘어난 학생수 및 건축사수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의 건축과는 1927년 난징 (南京)에 있는 국립중앙대학 (National Central University; 현재는 Southeast University로 개명)에 만들어졌고, 현대건축교육은 19세기에 유행했던 파리에설학교제도에 기원하고 있다. 그후 약 40년간 건축이 급성장하여 1957~1988년 사이에 지방에 세워진 주택들만 해도 8억 m²에 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1949년에 2백여명 있던 건축사가 1990년에도 3만명으로 늘어나 인구 일백만명에 약 30명꼴이 된다. (물론 개발국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그래도 여전히 지방으로 가면 '건축가 없는 건축'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건축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축교육이 발전하게 되었다. 60년대에 8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1990년대에는 54개로 늘어났고 16개 대학에 석사과정이고 7개 대학에 박사과정이 있다. 학생 수는 매년 늘어 1977년에 320명이 증가 되었었는데 1988년에는 1,870명이 늘어났다.

건축과에 입학하려면 예술에 대한 소질이나 흥미가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지 작품을 제출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건축공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다른과로 전과를 해야하는 경우

도 생긴다고 했다.

현재 60년 이상된 건축교육시스템에 2천여명이 넘는 외지인(new comer)들이 4~5년씩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SLIA)는 대학입시에 I.Q.Test가 결하여 진다고 했고 대학졸업후 건축사실에서 2년간 일하면 RIBA 회원자격이 있으며 3년 후엔 3급, 4년후에 1급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리핀(UAP)는 최신 커리큘럼을 소개했다.

홍콩(HKIA)에서는 새로 만드는 건축대학(new school of Architectur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 대해 소개를 했다.

3) 3개 지역의 활동 사항(Sub-regional activities)에 대해서는 남아시아지역(Zone A, 간사국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남동아시아 지역(Zone B, 간사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동아시아 지역(Zone C, 간사국 :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몽고)에서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괄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으나 금년에 한국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므로써 신규회원국인 일본, 마카오, 몽고가 모두 이 지역에 합류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필자가 보고했다.

4) ACAE의 장래 활동 및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 등이 있었다.

가. 학생교환프로그램(Student exchange programme) 학생들의 회원국 건축탐방 여행을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시아지역 잡지에 페이지를 할애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장인 피.카시(P. Kasi)와 아시아(ARCHASIA)편집장이 제의했다.

나. 각 회원국 대학의 건축과의 학점인정(Information on 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schools)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각나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의장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고 의장이 이 자료들을 취합하여 기본양식을 만들어 배부할 준비를 하기로 했다.

다. 교육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기본양식을 만들어 회원국에 돌릴 것을 제안하고 이것을 파키스탄(IAP)이 담당하기로 했다. (National Institutes Standard Format)

라. "아시아지역 대학교 건축과 현황자료집"(Handbook of asian schools of architecture)을 홍콩(HKIA)이 중국, 인도, 대한민국,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홍콩,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의 9개국의 자료를 취합하여 복사본을 만들어 배포했고 아직 자료를 미처 못보낸 나라에서는 지금이라도 보내면 추가하기로 했다. 출판할 수 있는 독자를 만나거나 스스로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우선 자료로써 활용하기로 했다.

마. 국제 학생작품 설계경기(International Student Competition)아시아지역에서 학생작품 설계경기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 했고, 참여작품은 국제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ARCASIA 행사와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재정지원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일단 일본(JIA)이 이문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경기 주회를 계획해 보기로 했다.

바. 건축교육과 관련된 포럼이나 워크숍(Forum/Workshop on architectural education issues)연례활동사항 보고에

협의되었듯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첫째, 아시아 특성에 맞는 건축교육제도 및 그 제도의 발전에 대해

둘째, 건축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의 문제점과 회원국의 학교들간의 상호비교점에 대해

셋째, 본국의 학위 및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에 대해

넷째, 건축과 졸업생들의 실무분야 진출에 대한 장래성에 대해

다섯째, 인구비례와 건축사의 숫자 및 학생수 그리고 장래필요성에 대해

여섯째, 각국의 전통을 보전하는 분야의 건축사들에 대한 구분, 즉 일본의 Bare-Foot Architects 나 목조건축사 또는 인도네시아의 Undangi들과 같은 건축사에 대한 구분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ACAE회의는 시간이나 참석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될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했고 말레이시아(PAM)는 ARCASIA회원국들의 건축대학의 학장내지는 총장급회의를 제안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이런 행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문제를 자금자족 또는 스폰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ACAE 의장 및 말레이시아(PAM)에서 포럼이나 워크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기로 했다.

5) 1993~1994임기의 ACAE 의장 및 지역별 간사국 선거 현재의 의장 피.카시(P. Kasi)는 차기의장을 맡기를 고사했으나 적당한 지원자가 없었고, 스리랑카(SLIA)의 제안 및 필리핀(UAP)의 제청에 의해 연임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지역별 차기 간사국으로는 Zone-A에 파키스탄(IAP), Zone-B에 싱가포르(SIA) 그리고 Zone-C에 홍콩(HKIA)이 지명되었다. KIRA는 동아시아지역 간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벗게 되었다.



① ACA-5 Al-hamia Art Center
② 잼버리 개최식후 NCA 확장과 ACAE 각국 대표들의 간담회
③ ACAE~4일 오후회의의 광경

3. 마무리에

필자는 의장인 피.카시(P.Kasi)씨가 다음날 이사회에서 밤새 작성한 ACAE보고서를 내놓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웠다. 필자는 한국에 돌아오면 도저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끔씩 현지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작성하였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쫓기고 수면도 부족한 실정이라 자료분류조차 못하고 귀국하였는데 거의 같은 일정은 보내면서 하룻밤사이에 정확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는 의장의 능력에 감탄했다.

NCA에서 열린 학생잼버리대회 개최식 및 전시회 개막식에는 라호르시가 있는 펀잡 (Punjab)의 주지사 (Governor)가 초청되었다.

ACAE의장이 잼버리 참가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두학생이 영어가 서투르고 발표문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고했다. 무엇인가가 착오가 생긴 것을 알고 개최식 때 알아보니 우리학생들의 사본 준비가 안되어 못낸 것이라 했다. 준비한 슬라이드도 도착하지 않은 짐 속에 있고 내용이 미흡해 비행기 속에서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님께 퇴고를 받은 원고를 겨우 연필로 써놓은 상태였다.

동행한 이남식 총무과장이 세미나 진행요원과 협의해서 순서에 집어넣고 NCA학장비서실에서 타자를 치게한 후 피.카씨에게도 얘기하고 해서 간신히 처리가 되었다. 학생들 행사장과 이사회나 교육위원회 행사장이 서로 장소가 달랐으므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때까지 파악이 어려웠다. 알수 있었다 해도 필자는 ACAE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어쩔수 없었을 것이었다.

KIRA의 공모전 요강은 잼버리 주제가 정해지기 전에 발표되었으므로 잼버리 주제에 맞는 작품준비도 못하고 더구나 주최측의 늦은 연락으로 말미암아 발표문을 작성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고 영어로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은 물론 협회담당자로서도 무척 벅찬 일이었다.

NCA에서 열린 학생작품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표현방법은 세련된 것 같지 않았으나 내용은 아시아 각 나라의 특성을 엿볼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고 오히려 순진무구하게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종 대전등에 출품되는 작품들, 즉 여과장치없이 쏟아지는 외래잡지의 영향을 받아 기교넘치고 정수가 없어보이는 작품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문화의 밤에는 라호르시 (Lahore)의 양대 건축과 NCA와 UET 학생들의 걸작을 보여 주었는데 역시 Art를 배경으로 한다는 자부심 갖고있는 국립예술대학 (NCA) 건축과 학생들의 판토마임은 공과대학 (UET)의 건축과 학생들이 보여준 연극과는 비

교가 안되는 작품이었다.

참가학생들과 ACAE대표들의 간담회는 27일 오후5시 아와리 호텔 (Avari Hotel) 회의실 (Khursid Mahal Hall)에서 있었다. 주최측은 차기 잼버리대회를 위해 강평회를 갖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 사실 아시아의 국가들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는 언어의 장벽때문에 전체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않은 데다가 느낀 바가 있어도 발표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주최측으로부터의 연락이 너무 늦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사항, 행사장이나 숙소의 시설이 너무 낡았었다는점, 세미나의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시작품에 대한 평 (評)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 잼버리 대회와 Study Tour를 구분했으면 하는 의견들이었다.

Study Tour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을 탐방하는 기회를 갖고싶어 했는데 1.입국비자 2.기금 3.어떤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학생교환 문제라든가 학생활동을 소개할 출판물이나 정기간행물 그리고 각종시상제도 (Awards : 설계분야, 연구분야 그리고 Arcasia 학생건축상)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미래의 건축사들이 지금의 건축학도들을 위해 ACAE의장 피.카씨 (P.Kasi)가 개인적으로 아차아시아 (ARCHASIA)의 우선 두회분의 (2-Issues) 학생들을 위한 페이지 할애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본 협회내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기구조차 없는 우리에게 비해 장래의 건축사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는 다른 나라의 ACAE 대표들을 대할 때 속으로 부끄러웠다.

필자 또한 교육계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당장은 속수무책이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육 및 연구 위원회'라도 만들어 건축학도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만 장래의 본 협회의 앞날도 보장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번 교육위원회 연례보고서에는 "국제 위원회 내의 ACAE 위한 소 위원회"나 "건축 3단계의 교육에 관련된 활동보고" 등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맺는다.

제4회 아시아 학생 건축잼버리를 다녀와서

정은성+김태훈 / 한양대 건축공학과 3년

by Jeong, Eun - Sung & Kim, Tae - Hoon

지난 4월 건축사협회가 주관한 한국건축전의 학생부문에서 우리의 작품 (Teenage Community)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학생 건축잼버리대회에 한국학생대표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시아 학생 건축 잼버리'는 아시아지역 건축사 협의회 (ARCASIA :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의 학생행사로 재능있는 아시아지역 건축과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여행할 기회를 제공하며 차세대의 건축가로서 다른나라의 동시대의 현황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며, 격년으로 개최되어 공동의

주제아래 세미나와 작품전시, 건축물답사 등을 하게 된다. 라호르에서는 25일과 26일 아침 참가한 대표들의 작품전시와 라호르 학생들의 작품전시가 있었고, 이후 순서로는 3회로 나누어진 세미나가 열렸다. 27일과 28일 우리는 라호르 포트와 월드시티, 와자르 칸의 모스크를 관광했다.

이런 잼버리가 개최된 파키스탄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이다. 과거 인더스문명의 풍요로운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라호르시는 이 나라의 남부지역의 도시이다.

이런 잼버리에는 아시아지역의 국가 가운데 일본,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개최국인 파키스탄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10월 23일 아침 우리는 협회공식대표단과 함께 방콕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가는 여로에 올랐다. 가는 동안 김지덕 선생님은 학생캠퍼리의 목적과 지난해 회의 때의 느끼신 점등을 설명해 주셨고, 언어 등 문제가 많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이상해 교수님은 부족한 영어로 문제가 많은 우리 글을 정성껏 수정해 주셨다. 방콕을 거쳐 라호르에 도착한 것은 그곳시각 1시경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문제가 생겼는지 나오질 않아 우리는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숙소인 카리타스 파키스탄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숙소에는 남학생들만 머물렀는데, 이미 일본대표를 비롯한 몇 나라 학생들이 도착해 있었다. 시간이 새벽2시를 넘었는데도 깨어있던 일본학생들은 못다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했다. 첫날인 24일은 공식일정이 없었으므로 무리로 나뉘어 시내구경과 쇼핑을 했다. 저녁때가 되자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학생대표들이 도착했다. 방글라데시 대표들은 다음날 저녁무렵에야 만나 농성명을 할 수 있었다.

라호르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어수선했었다. 거리에는 대형차량보다는 자그마한 차들이 무리를 지어 오가고 마차와 오토바이, 소형택시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관공서 주변에는 총을 맨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시위를 막기 위한 특수차량들도 보였다. 시장은 우리나라 남대문시장을 연상시켰다. 상점들은 천장도 없이 벽으로만 영역을 나누며 연이어 있어서 한쪽에서 보면 여러개의 벤트들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 길들이 만나는 곳에 트인 공간이 있어 햇빛을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점군의 입구를 나타내주어 규모가 작고 수수하기는 해도 재미있었다.

25일 오전에는 캠퍼리 참가자들의 작품과 NCA학생들의 프리젠테이션 전시가 있었다. 각국 대표들의 작품은 프리젠테이션 수법에서도 자기 다른 냄새를 느낄 수가 있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토속적인 건물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부분적인 이미지를 살리려고 애쓴것 같았다. 홍콩학생들은 실제로 지어져 가는 전통극극공연장의 공사모습과 디테일 등을 표현했는데 공연하고 있는 배우처럼 과장되고 화려한 장식이 입혀졌다. 노래와 춤을 즐기는 중국인들다운 소재라 생각했다.

일본대표인 요시노리 앤도의 작품은 기본적인 조형에서 두축이 애매하게 틀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앤도는 각각이 진북과 자북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으나, 우리는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북은 도시축에 의한 것이고 햇빛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구보타의 작품 또한 흥미로웠는데 안도 다다오를 연상케하는 작품이었다. 우리는 주제가 다른 관계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한번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었다. 주제가 달랐던 것은 한국건축전의 공모시기와 캠퍼리의 주제결정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미나는 25일 오후부터 26일 저녁까지 3회로 나누어 개최됐다.

1. SESSION 1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모두 네 나라의 대표가 발표했다.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NCA(National College of Art)의 사드자르는 토속건축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는 조건들에 관해 설명했다. "토속건축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지 않고, 어떤 외부의 간섭없이 의지와 필요에 따라 환경과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토속건축은 어떤 지방 건축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념적인 건축물이 토속일 수 있겠는가? 인도의 타지마할이 토속인가,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공식적'인 건축이다. 이곳 라호르의 월드시티는 기념적인 건물이면서도 토속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데, 무계획한 도시구조, 창이 없는 가옥들이 기념적이면서도 토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스리랑카의 세네카는 자국의 토속건축에 관해 설명했다. 스리랑카의 건축은 과거 오랫동안 인도의 강한 영향아래 발전했으며,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불교의 도래는 대단한 것이었다.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영국식민통치의 영향은 기후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낳았다. 독립 이후에는 많은 건축가들이 아이덴티티를 찾기위해 노력했다. 형태를 모방하려했던 시도들은 서양의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는 서구적인 건물 표피에 하나의 장식을 덧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노력들은 현대의 상황에서 풀어야할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전통적인 개념의 해석에서 얻으려는 시도로 이어져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신의 작품 '가무다와'에서 건축가는 사람들을 위해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안내자, 조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건축물을 꾸미었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발표에 나선 NCA의 아예샤 애자르는 많은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파키스탄의 토속적인 건물들을 소개했다. 사용된 재료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한이나 법규가 없이 오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건축의 보편적인 사상들에 관해 발표했다. 발표후의 토론에서는 "토속건축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전통건축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들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토속건축이란 형태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평범한 공간이다.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정치제도, 관습들이 변해가듯이 건축의 형태도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형태는 바뀌더라도 그시대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습관,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다름아닌 토속건축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싱가포르대표의 말에 박수로써 동의의 표시하며 결론을 내렸다.

2. SESSION 2

-현재의 상황에 관하여-

여섯나라의 대표가 발표했다.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U.E.T의 아즈마는 "현대에는 많은 교류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식민지잔재의 청산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서구화된 교육은 자연히 학생들을 서양 일변도로 이끌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는 적어도 정규과정에서는 토속의 건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대표인 앤도와 구보타는 전날 전시되었던 자신들의 작품의 개념을 설명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앤도는 "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토속건축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산업화의 모더니즘은 긍정적인 면도 또한 지녔다고 본다. 토속건축을 생각하면서 공업화된 토속건축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했다."는 자신의 개념을 설명했다. 틀어진 두축의 사이로 건물의 모든 부문에 빛을 끌어들이



핀잡 주지사 (Governor of Punjab) 잼버리 참가 학생들과 ACAC 각국 대표들

이고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물을 설계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보타는 워터게이트라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도시는 점점 더 고밀도화 되어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이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는 경우, 가까이에 있으나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인 관계, 서로 어우러져 자연어 생활 가운데있고 그 속에서 즐기며 느끼게 되는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자신의 프로젝트의 주제였다.”고 설명했다.

3. SESSION 3

-미래의 방향에 관하여-

먼저 발표에 나선 에이퍼 애자르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위해 건축의 스타일을 넘어서 도시조직에 새로운 부분들을 간섭하고 조화시켜야 하며 이런 프로그램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디자인어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더불어 경제를 의식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학원과 연구소 실무자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팔아즈다니아는 표현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에서 토속 건축의 표현주의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토속건축물들은 기능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형태자체가 기능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발표와 여러컷의 슬라이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학생 5명이 함께 강단에 올라 오픈세미나를 열었다. 5명이 공동연구 계획한 프로젝트를 역사적 배경, 공간의 이미지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진행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체측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일은 너무 권위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토속건축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자국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새로운 이론과 철학을 세워야 하며 제도상의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7일 아침 우리는 라호르 포트로 향했다. 라호르 포트는 입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은 분수에서 시작되어 알고 길게 흐르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 가면서 커다란 연못이 되어 다시 흘러갔다. 그러나, 물이 부분

적으로만 고여있고, 분수도 연못주위에만 솟아올라 분위기는 훨씬 감했다.

저녁에는 Youth Hostel로 가서 못다한 세미나를 계속하게 되었다. 싱가포르학생들과 방글라데시 학생들의 발표가 있었다. 싱가포르학생들의 주장은 이미 발언했던 내용과 별차이가 없었는데 요컨대 “토속건축을 말할 때 우리는 형태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되며 토속건축은 형태이상의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들은 슬라이드로 싱가포르의 자연과 토속적인 건물들의 분위기, 이미지들을 보여준 다음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의 형태는 극히 현대적이지만 요소 요소의 분위기와 이미지들은 토속의 맥을 잇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토속공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에는 낮은 시각으로 길지는 않았지만 장기자랑이 있었다. 필리핀의 델린이 유명한 팝송을 부를 때는 학생들 모두가 흥얼거리며 따라하기도 했고 홍콩이나 파키스탄의 여학생들이 독창할 때는 모두가 매료되었다. 언어와 내용이 모두 다른 노래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 아시아인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28일 아침 우리는 월드시티와 와자르칸의 모스크를 방문했다. 월드시티는 두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도 변화하는 공간의 구성은 개치가 있었다. 유리로 장식된 궁전은 이들의 장식에 대한 해안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안마당에는 흙처럼 파인 수로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더운열기를 식히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돌로 만들어진 그 건물들의 디테일은 기구식구조의 공포형태와 유사해서 흥미로웠다. 와자르칸의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했다. 여의도광장 반만큼의 넓이에 붉은색 돌들이 깔려진 커다란 광장이 모스크의 전단부를 위엄스레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맨발로 드나들게 하다니 하고 놀라는 동안 차량시간 관계로 되돌아와야 했는데 못내 아쉬웠다.

저녁에는 우리 학생대표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교육위원회 담당자들과의 대담이 있었다. 잼버리를 위한 제안들이 오고갔다. 잼버리 참가학생들의 협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고, 서로간의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간행물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꿈도 아무진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세미나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복사본 정도로 만들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류에 관한 문제는 서로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조인도 있었다.

모든행사들이 아침늦게 시작되어 저녁 늦게 끝났는데 그것이 이곳의 습관인것 같았다. 파키스탄은 이른바 디오니소스 문화권에 속하는 곳이다. 말은 살동하지 않았지만 힘들게 나는 몇마디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는 모습과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큰 교훈은 우리의 위치가 어느곳에 와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받고있는 교육이 다른나라들과 비교하여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건축가가 되기위한 긴 여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대한건축사협회와 준비하는 과정과 현지에서 부족한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3 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 199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93한국건축대전과 병행하여 개최
- 1993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순회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3년 1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내인자도 응모할 수 있음)

■ 출품내용

- ◆ **건축사부문** : '90년 ~ '93년 2월까지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작품

◆ 신인·학생부문

◎ 주제 /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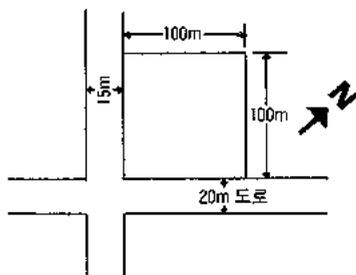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건축의 기능과 형태와 상징을 창의력있게 해석하고 표현하여 감동적으로 건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

● 신인부문

- 제목 : 이산가족 상봉센터
- 조건 : 대지규모 - 20,000m²
연 면 적 - 10,000m²
위 치 - DMZ(비무장지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 개요 : 통일을 대비한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로서 숙식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오락시설등이 복합된 내용으로 작가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현행건축법에 준하여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제목 : 국제박람회 "한국관"
- 조건 : 대지규모 - 10,000m²
연 면 적 - 3,500m²
위 치 - 박람회장내에



- 개요 : 세계속의 만남을 상징적이며 기능적으로 표현하되 세부프로그램은 작가가 설정하여 전개시킬 것

■ 작품접수

- ◆ **건축사부문** : 1993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패널제출
(작품제출시 작품집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슬라이드 또는 칼라 사진 5~6매, 잉킹도면, 설계개요첨부)
- ◆ **신인·학생부문** :
· 일자 : 1993. 3. 5(금)~3. 6(토) 09:00~18:0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강당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 × 90cm의 규격 패널 1~4매 (모형출품도 가능함)
- ◆ **신인·학생부문** : 120cm × 120cm 규격패널 1매 및 100cm × 100cm 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 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로는 2인을 초과 할 수 없음(신인·학생부문)
-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신인·학생부문)

■ 시상내용

- ◆ **건축사부문** :
* '93한국건축대상(7) : 상장 및 트로피
- ◆ **신인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해의연수비 200만원 포함)
* 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학생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우수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10)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각시·도시 건축사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 상장

※ 학생작품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잼버리 과전특전 부여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 - 55
☎ 581 - 5711 ~ 4, 587 - 8504

滿洲벌과 桂林에 가다.

Chinese Travels

ARCHITECTURE TRAVEL

金有奉 / 삼정건축사사무소
by Kim, Yu - Bong

신흥 상공업도시 천진(天津)

십여년전만해도 철의 장막이라하여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中國땅, 첫 기착지인 천진(天津)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간단히 받고, 냉방시설이 안된 공항터미널을 빠져나와 버스로 북경으로 향하였다.

천진의 역사는 비교적 짧았다.

南京에서 北京으로 천도했던 명조는 강남으로부터의 식량을 북경으로 운반하는 수도의 중계기지로 이곳을 건설했다고 한다.

천진이 상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北京條約에 의해 부득이 개방을 하고 대외 무역항의 하나가 된 후부터라고 한다. 新興 상공업도시 천진에는 中國의 다른 도시에 있는 역사적인 명소가 드물기 때문에 천진 관광코스는 예정에 없었다.

천진, 北京간은 1백 60 킬로미터 중국의 첫인상은 끝이 안보일 정도로 펼쳐지는 넓은 평야, 고속도로의 차량소통은 한산했고 가끔 보이는 주택들, 벽체는 흙벽돌, 지붕은 기와에 획일적인 모습이 전형적인 중국의 농촌 풍경이었다. 북경에 도착하여 간단히 식사하고 심양(瀋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중국 국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백두산으로 가기 위하여 심양에서 연길(延吉)행 비행기 탑승 때문이었다. 북경 공항은 증축공사 하느라 꽤 복잡하였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시설과 서비스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밤 여덟시에 출발한다는 비행기는 두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정이 가까와서야 내일아침 출발예정이라고 하였다. 여행기방은 돌려 주지않아 세면도구도 챙기지 못한채 중국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로 번두리 호텔에서 예정에 없던 하룻밤을 보냈다.

저무는 석양의 도시 심양(瀋陽)

다음날 中國 요녕성(遼寧省)의 성도 심양에 도착했다.

동북부 지방의 제일가는 공업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옛 봉천(奉天), 심양이라는 말은 "저무는 석양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

상해, 북경, 천진 다음으로 중국에서 네번째로 큰 심양은 예로부터 만주의 중심이자 청조(淸祖)의 발상지로 작은 북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심양시의 스카이라인은 리시아풍 건물에다 일본식 건축양식, 중국 淸나라의 건축양식이 섞여 마치 국제건축 양식의 집합소라는 느낌을 주었다.

시내 중심도로 중앙에는 도로의 삼분의 일 정도의 폭에 공원을 만들고 양쪽 도로의 한편은 일본, 다른편은 러시아 도로로 구분되어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도 도로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04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일본의 만주 진출근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과거의 심양이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심양에서는 각국 외교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안내원은 북경이 외교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자랑하고, 북한의 평양행 직통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김일성이 중국 고위급과의 회담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다.

오후 6시 심양 공항에서 연결행 35인승 쌍발기에 탑승하였다.

교통의 불편함과 낯은 기내에 냉방이 안되고 요란한 소리에 피곤했지만,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 불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때문에 한시간이 지루하기만 했다.

조선족 자치주 연길(延吉)

저녁 여덟시 연결공항에 도착하고서야 연결공항은 작은 비행기만이 이착륙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여름이지만 초가를 날씨같이 쌀쌀하였다. 중국은 30개 성(道), 현(市, 郡), 향(邑, 面)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 있고 한민족은 1백 90만명 정도라고 한다.

東北 3성은 만주벌에 있는 곳으로 길림성(吉林省), 요녕성(遼寧省), 흑룡강성이다. 길림성에 속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부는 연길시와 용정(龍井), 도문시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고 주장은 조선족 출신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저녁에 연변대학 교수택 초청을 받아서 개인생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부부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중류층 이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의 모든 공동 주택은 층수, 면적에 관계없이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었다. 현관입구에 가족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와 5층까지 올라 가는데 계단바닥은 콘크리트 타설 후 그대로 있고, 벽체는 몰탈 초벌 마감술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은 도장마감이나 전등시설은 안한다고 한다.

부인이 몇년전에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보고 와서 부엌과 화장실을 자신이 직접 수세식으로 개조했다고 자랑하지만, 비록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에 대한 무관심, 게으름, 소박함은 중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민족의 靈山 백두산 천지를 가다.

백두산을 등정하기 위하여 호텔에서 일찍부터 서둘렀다. 연결에서 남쪽으로 포장된 도로로 한시간 정도 가면 버스 차창밖으로 보이는 "일송정"에서 이제는 친구자가 말타고 달리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봉우리는 중계탑이 서 있는 제주 금악봉과 비슷하였다.

연길 원림차가 개설한 비포장도로에 들어서면서 다섯 시간만에 장백산(長白山) 입구에 도착하였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고 있다.

입구에서도 백두산천지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로 30분 정도 다시 가면서 주위에는 하늘로 곧게 뻗은 원시림만이 보일뿐이었다. 천지가 보이는 주차장에 도착했을때 지프차와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엔진으로 장치된 봉고차와 지프차로 포장된 가파른 산능성을 10분정도 달려서 바로 천지 앞 평지에 도착하였다.

불퉁없는 석분으로 이루어진 언덕에 몇 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니 은뿜이 풀려가는 듯한 느낌과 꿈속에서라도 가보고 싶어하던 천지의 맑은 물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였다. 몇 천 년의 역사와 극난에도 변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근원이고, 우리 민족의 限이서린 靈山 백두산, 우리에게 꿈에 그리는 환상일 수밖에 없었다. 약간의 몽게 구름만이 정상 밑으로 오락가락할 정도로 날씨가 무척 좋았고 열 번 등정하면 두 번 정도 이런 모습의 천지를 구경할 정도라고 한다.

南美의 이과수폭포가 동적이라면 천지는 정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런지 모르지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불행하게도 남쪽은 북한, 북쪽은 중국, 반으로 나누어진 천지...

누가 언제 내나라 조국땅을 두갈래로 갈라놓았는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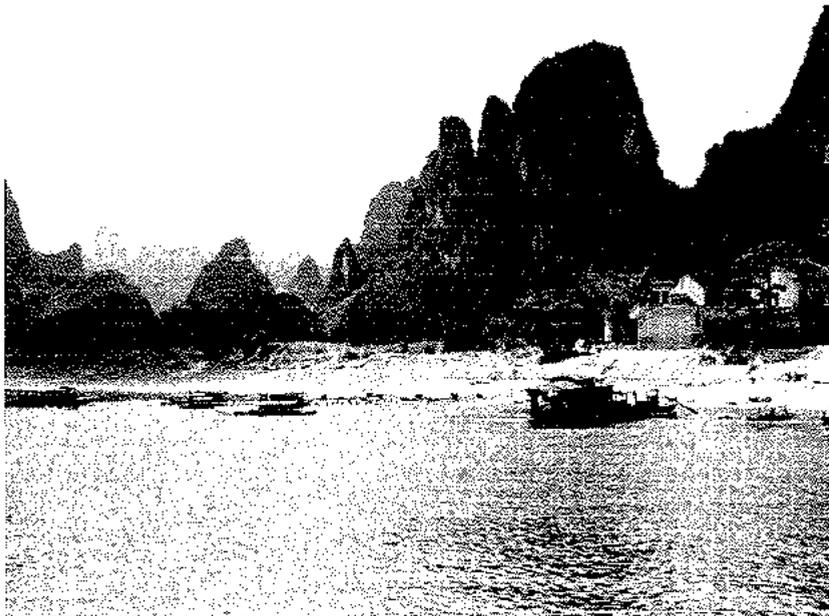
최고 높이 2천 7백 44미터, 최고수심 4백미터, 둘레 15킬로미터, 저수량 약 20억입방미터, 동서 최대길이 3.6킬로미터, 남북 최대길이 4.6킬로미터 백두산천지는 한라산 백록담의 40배 정도라면 어느정도 크기는 짐작이 갈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을 합창한 우리 일행은 위협표시와 보호망이 없는 짧은거리의 구간에서 기념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천지의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땅속에서 솟는 물로써 가뭄에도 폭우가 내려도 항상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① 연길의 노점상
② 우리민족의 靈山 백두산 천지에서

중국 정부는 86년에 백두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뒤 90년 북경(베이징)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집중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백두산 개발은 다분히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백두산 여행을 자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천지 주변의 툰드라 지대는 화산암이 붕괴한 불안정한 지반위에 키작은 관목들과 고산초본 식물이 자라는 희귀식생태로 한 번 파괴되면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모두 2천 4백 여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백두산은 중국정부가 지난 60년 “장백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80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한다.

하산하여 다시 장백폭포로 가는 길목에는 온도 80℃가 넘는 온천수가 자욱한 안개를 이루며 길가로 흘러내려오고 계란을 증석에서 온천물에 삶아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었다. 옆에는 장백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돌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어디로 흐르는지 조용하게 흐르는 온천수와 대조를 이루었다. 1킬로미터 더가면 장백폭포가 높이 68미터에서 떨어지면서 주위에 병풍을 둘러놓은 것과 같은 기암절벽과 잘 조화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남긴 채 장백산 입구에 있는 천시호텔로 돌아왔다.

독립투사의 고장 용정(龍井)

다음 날 정오 용정에 도착하여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龍井중학교에 들렀다. 여름방학 때라 조용하고 낡은 학교건물은 쓸쓸하게만 보였고 일제탄압에 저항하다 스물여덟의 젊은 나이에 유사한 윤동주시인의 비문이 보였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를 남긴 저항시인 윤동주가 바로 용정중학교 출신이다. 해방전까지 모두 5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용정중학교는 남파북 그리고 중국에서 각기 이름을 날리는 유명인사들과 순한 항일투사 독립투사를 배출했지만 尹東主 詩人 은

문학방면의 가장 독보적인 인사라고 말하고 있다. 용정중학교는 해방 이전의 대성, 은진, 광명, 동흥 등 여섯개의 남녀중학교를 연합해 다시 출발한 조선중학교인데 현재 30학급에 1천 7백여명의 중고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여러차례 경비를 들여 윤동주시인의 묘소를 복원하고 학생들이 수시로 벌초하는등 주변을 가꾸고 학생역사 전시관에는 그에 관한 사료를 소개하고 있어 최근에는 延邊에 오는 한국관광객들이 대부분 윤동주묘소를 참배한다고 한다.

역사의 悲戀地 도문(圖門)

연길에서 버스로 두시간 조금 안걸리는 거리의 도문(圖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차량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철교는 반은 중국, 반은 북한으로 중국측 철교에는 격색이 칠해져 있고, 북한측 철교는 청색으로 칠해져 철교의 반은 중국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두만강 푸른물결에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에 대한 기억은 노래가사처럼 푸른물에 정서가 깃든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다.

북한은 두만강 상류쪽에서 금강을 개발하면서부터 강물은 오염이 되었고 중국과 북한의 양 강둑에서 북한쪽으로만 강물이 흐르고 있어 도문에서의 두만강은 초라하고 실망이 컸다.

한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갈라놓는 38선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느낌과는 달랐다. 약2백미터정도 떨어진 거리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人民幣 1원을 주고 망원경을 빌려 북한의 건물을 보았다. 아파트에는 사람이 보였으며 38선에서 보이는 아파트처럼 형식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젊은 여자는 초라한 상품을 전시해 놓고 북한사투리로 “여기서는 남북한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할때는 우리의 마음은 보한 심정이 교차되었다. 그 여자 할아버지시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정착한 곳이 지금 우리동포들이 살고있는 연변이라고 한다. 이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포들은 동포의 정을 기대해보지만 오히려 서러움을 달래야 하는 현실이어서 가슴아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하제일의 山水를 자랑하는 계림(桂林)

계림의 산수는 천하의 제일이라고 한다. 3억6천년 전 바다였다가 지각의 변동으로 석회암 봉우리가 솟아난 당초 평균 높이 해발 1천미터였으나 풍화작용으로 현재는 평균높이 2백77미터에 불과하다고 한다.

십만개 이상의 봉우리는 금강산의 산맥으로 이루어진 1만2천봉보다 많아 지형의 특유한 독립된 봉우리가 솟아있는 재미있는 도시이다.

山水가 유명하고 계수나무가 울창하여 계림이라 부르게 되었고 시내 가로수 역시 계수나무와 대나무로 이루어졌다. 일년 평균기온은 19℃, 추운 겨울날씨에는 평균 3~5℃로 계수나무가 자라는데

④ 계림의 리강 풍경

차례/1992년 1월호 통권 제273호

新年辭	대한건축사협회회장 /吳基東	20
會員作品	김정구형사 /李龍欽	22
	남부클럽하우스 /姜純一	24
	덕산연수원 /李鍾元	26
	서울대 기초전력공학 및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 /姜哲求	30
	아프로 오피스 빌딩 /嚴維	32
	옥시드 /金仁赫	34
	순천오동나무길 /柳碩洙	37
	연남동 주택 /金煥榮	40
	논현동 주택 /宋光燾	44
	효성빌라 고딕지구 /禹南龍	46
스케치	대덕과학문화센터 /方顯赫	50
일하며 생각하며	新年感想 /金錫焄	52
초대詩	自傳俚 /黃寅壽	54
寄稿	구조개선이 있어 집난의 비복주택 /李昌男	56
	건축공사의 자비수행에 의한 갑주·갑리제도의 개선방향/元錫一	58
研究	노년층의 주거인식체와 공동체형성 /朴泰煥	60
	프로그래밍사와 도료의 최신 프로그래밍 /金文德	68
설계경기	부산시청사 원형공모 수상작 발표	78
資料	건축사시험장 중 개정령	88
	주최방법중 개정방안	89
	1991년 「建築士」誌 목록차	92
	1991년 11월분 도서신고 현황	94
協會消息		96

차례/1992년 2월호 통권 제274호

會員作品	임신방직사옥 / (주)인도서건축	20
	레푸르바이어 II /崔勝元	24
	관가정 호텔, 예운대 /柳光弘	28
	장원시의원회관 / (주)정림건축	32
	송도성당 /金仲燾	36
	신오계 공동연구소 /公道坤+文相龍	40
	삼성동 주택 /尹基憲	42
	성북동 K씨 주택 /李孝和	46
스케치	S년말 개관 /吳基守	48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사 원장 /李錫九	50
時論	영풍동 국제공항 원상철거장모에 바란다. /金正澈	52
	영풍동 국제공항 원상철거장모에 바란다. /金知德	54
寄稿	구조안전진단 김상 /李昌男	56
	공도지역에 따른 건축용 허용(또는 제한)을 위한 개선방안/金海鎔	59
研究	노년층의 주거인식체와 공동체형성(2) /朴泰煥	62
	구마모토(熊本)아트갤러리 /金文德	72
설계경기	상남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	80
資料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8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94
	1991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6
協會消息		98

차례/1992년 3월호 통권 제275호

會員作品	혜봉 선교회관 /金武彦+梁秋衡	18
	도남빌딩 / (주)간·삼동합건축사사무소	23
	각광영화제작소 /金基雄	26
	구룡유개소 /李廷杓	30
	계인정형이카 의원 /趙大相	34
	빅토리아 오피스 /尹泰雄	38
	전원빌딩 /金濟中	42
	K씨 복합주택 /孫明文	44
스케치	장문봉 민원주택 개관 /李章植	48
초대詩	사유인 /金琪碩	50
일하며 생각하며	이탈정형 /柳碩洙	52
초청강연	프로그래밍의 건축개개 /李榮漢 譯	54
	다시「프로그래밍」... /李相洙	62
研究	노년층의 주거인식체와 공동체형성(3) /朴泰煥	66
	방위건축개개의 원점 /정현희	78
기 고	효율적인 에너지절비비용과 건축규제 완화 /우태성	88
해외건축	21세기건축을 향하여 /이용재 譯	90
資料	1992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4
協會消息		98

차례/1992년 4월호 통권 제276호

특집 : 87한국건축전 수상작	건축사사무소	
대상	대상	
	수원곡선동 사무소 /金義成	19
	우수상	
	구룡유개소 /李廷杓	20
	남천성당 /姜錫元	21
	삼정체육관 /金昌壽+朴昇十+韓相默	22
	한국은행 광남점산센터 /李承熙	23
	포항공대 테니스장 /崔克泳	28
	MBC인력개발센터 /金基雄	28
	신인부분	32
	학생부분	37
	심사평 /李光燾, 安瑛培, 李慶會	50
논 단	전통의 문화적 동의 /李廷根	52
기획연재	캐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1) /吉成鎔	58
연 구	방위건축개론 /鄭贊和	70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Nicl M. Denari	80
계획작품	심취시 종합문화회관 /崔相龍	86
資料	1992년 2월분 도서신고현황	88
協會消息		90
新入會員		96

차례/1992년 5월호 통권 제277호

會員作品	경기은행 본점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16
	민우대 건지사 /宋光燾	21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 / (주)인도서건축	24
	장류 S씨 주택 /姜世澤	28
	산동백화점 /文政一	32
	경남교원 회관 /崔克泳	35
	삼성종합인수원 창조관 /金昌壽+朴昇十+韓相默	40
	평택 동원빌딩 /李章植	44
스케치	축산인원동조합 출철지사 /李明奎	46
計劃作品	태800 /承孝相	48
작품노트	동아성병 분사 사옥 /李堯觀	50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지난 /李錫九	52
特別寄稿	소련 건축에 대하여 /니콜라이 김	54
企劃連載	캐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2) /吉成鎔	64
研究	일부의 수변공간 개관 /金文德	72
법 령	건축법시행령 임의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반영비고 /	82
	건축법시행령 임의예고(안)문역	
설계경기	대전생명보험사옥 확장설계	92
資料	1992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6
協會消息		98

차례/1992년 6월호 통권 제278호

회원작품	서초동 주택 /宋光燾	16
	CAMPORIS /金仁赫	20
	동대문 구면체육센터 /趙顯毛	24
	서울대학교 선경 정영관 / (주)정림건축	28
	대구타워 /權泰植	32
	조인개발사옥 /文政一	36
	우니온빌딩 /崔克燾	38
	광주S빌딩 /韓碩洙	40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희망사항 /趙顯毛	43
기 고	건축설계 저작권 제고(再考) /尹存燾	44
초청강연	독일의 도시정체 /趙仁淑 譯	46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이용재 譯	62
새법령	개정 건축법시행령 [I]	68
연 구	외국시설개회 /鄭贊和	84
자 료	1992년 4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4
협회소식		97

차례/1992년 7월호 통권 제279호

회원작품	심정봉 야남빌라 / 金永淳	16
	유성 종인타인 / 姜永浩	20
	공반부알 성 프란치스코의 집 / 姜錫元	24
	여수문화방송국 / 卍森珍	27
	도고 컨트리 클럽 / 趙殿元	30
	남원강 빌딩 / 吳錫吉	32
	안원산업사옥 / 金熙一	34
	대간주막 / 河學秀+卍時春	36
스케치	이씨빌딩 / 郭仁煥	38
계획작품	조신대 불각관 / 崔亨來	40
일하며 생각하며	용기론 읽지 않는 건축사님께 / 方誌赫	42
연구	수위 초고층 건물과 그 구조적 개념 / 金昌鎰	44
초청강연	독일의 도시설계 / 趙仁淑 정리	50
기획연재	퍼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과 디자인 특성 (2) / 成成鎬	60
설계경기	현상설계 2계 - 국영제주박물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청사	70
법령	개정건축면시행령 2	82
자료	1992년 5월분 건축도서신고현황	90
신인회원		92
협회소식		94

차례/1992년 8월호 통권 제280호

회원작품	영동빌딩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유영근	18
	한병원 / 金球燮	22
	마산 시청사 / 金昌鎰+卍昇+卍相默	26
	부산기술원 / 李煥昌	30
	경남은행 본점 / 卍相宇	34
	방배동 한우리 빌라 / 朱光燮	40
	하람 그레이스 콘도미니엄 / 卍贊政	42
	새안·예·사랑 갤러리 / 安文孝	44
	YWCA 봉천동 복지관 / 趙錫鎬	46
스케치	아진빌딩 계획안 / 梁成鎬	48
계획작품	부산 해운대 빌리지 / 趙成龍	50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 卍光燮	52
간담회	기순 건축인 金永成 초청 간담회	54
건축기행	「몰레도, 세비아, 마르세르나」-① / 崔英集	64
리포	92마르세르나 올림피아의 고장을 가다	72
설계경기	현상설계 2계 - 한국토지개발공사본사사옥, 부천시청사	80
자료	1992년 6월분 건축도서신고현황	94
협회소식		96

차례/1992년 9월호 통권 제281호

회원작품	원주천사의 집 / 徐鎮宇	14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 徐鎮宇	18
	서울 國立墓地 기념관 / 李應默	20
	서울 國立墓地 호국관 / 李應默	24
	일동계약사옥 / 金壽雄	27
	우원 디자인 사옥 / 張政根	30
	신환사옥 / 尹炳陽	36
	경남은행 아유동지점 / 許正道	40
	순천S씨 주택 / 韓瑞珠	42
스케치	해운포식당 계획안 / 張亮淳	46
계획작품	한국해양 연구소 남해거기 계획안 / 卍春秀	48
시론	新 형주대교 붕괴사고를 보며 / 李應默	50
일하며 생각하며	죽은 건축의년부터 / 李應默	52
건축기행	「몰레도, 세비아, 마르세르나」-② / 崔英集	54
의료시설계획	중간시설로서의 노인보건시설계획 / 鄭贊和	60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 이응재 譯	70
일본현대건축기행	삿포로의 건축 / 金文德	78
隨想	先進國의꿈 / 金命鎬	88
세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	92
자료	1992년 7월분 건축도서신고현황	96
협회소식		98

차례/1992년 10월호 통권 제282호

회원작품	비도과 백화점 (상계점) 및 종합관송센터 / (주)안산 종합건축사사무소	18
	어울리 박물관 / 安文孝	23
	대림빌라 / 禹海能	26
	변용 천주교회 / 張宗和	30
	동산교회 / 金武鎭	32
	강릉 문화예술회관 / 郭勝榮	34
	성진빌딩 / 金泰植	38
스케치	11립조트 호텔 계획안 / 金亨俊	40
계획작품	성남K우치현 / 宋光燮	42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여행 / 金仁赫	44
誌上發言	현장조사-경사 및 확인 대행업무 확대실시 어떻게 생각한다 / 崔來奎·梁元永·金煥燮·李京鎰	46
기고	冷感房屋의 上限制 실시에 부쳐 -① / 孫炳鎬	50
전문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I) / 張順鎬	52
연구	제주도 주지건축의 향토성에 관한연구 /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건축사회	58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 이응재 譯	70
설계경기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사옥	78
세법령	주차장법 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중개정령	92
자료	1992년 8월분 건축도서신고현황	94
협회소식		96

차례/1992년 11월호 통권 제283호

회원작품	녹색갤러리 / 尹柱憲	14
	통일권광대 / 金永雄	18
	서대신동 주택 (전시실) / 金煥燮	22
	윤영빌딩 / 俞允在	25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사 / 金相伯	28
	동우빌딩 / 崔東奎	30
스케치	K-마을회관 계획안 / 卍贊政	32
일하며 생각하며	환상의 초대 / 卍英集	34
특별기고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제도 개선방안 / 姜錫燮	36
전문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II) / 張順鎬	44
기획연재	패러다임 (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4) / 成成鎬	52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 에밀리오 임바즈 / 이응재 譯	62
설계경기	대한주택공사사옥	70
법령	건축법 2월의·회신	86
자료	1992년 9월분 건축도서신고현황	92
협회소식		94

차례/1992년 12월호 통권 제284호

취일사	새出發! / 李永熙	16
회원작품	안양시립도서관 / 趙東榮	18
	동부그룹종합연수원 / 尹林忠	22
	에바스 화장품 평택공장 / 郭在煥+劉成烈	28
	금성사 (평택) 생산기술연구소 / 李忠彥+金光燮	32
스케치	T-박물원 현상을 위한 구상도 / 洪大源	34
일하며 생각하며	壬申를을 보내며 / 金永雄	36
法 令	건축법 2월의·회신 / 건설부 건축계획과	38
설계경기	영경도 신국제공항, 국제연구교류센터	44
전문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III) / 張順鎬	60
기고	ARCASIA의 각종 행사들 / 趙仁淑	66
	ARCASIA협의회와 그 역사적 전망 / 金知德	67
	ARCASIA 제13차 이사회의 참가기 / 李廷根	71
	제5회 ARCASIA 킷미런스 황편기 / 卍相海	73
	제6차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 趙仁淑	77
	제4회 아시아 학생건축캠프리플을 다녀와서 / 정은섭+김대훈	80
건축기행	滿洲里와 桂林에 가다 / 金有奉	84
資料	1992년 건축사지 총목차 1992년 10월분 건축도서신고현황	88 90
協會消息 (제27회 定期總會消息)		92
이임사	任職을 마치며 / 吳壽東	98

1992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STATISTICS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1천3만2천9백27m² 보다 6.53%(65만4천8백51m²) 증가한 1천38만7천7백78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10월누계 1억1천4백82만3천2백25m² 보다 20.89%(2천3백98만5천22m²) 감소한 9천83만8천2백3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9월분 7백77만5백23m² 보다 37.54%(2백91만7천2백55m²) 증가한 1천38만7천7백78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710,600	2,291,283	580,683	33.95%
	부산	544,146	1,161,671	617,525	113.49%
	대구	389,135	600,836	211,701	54.40%
	광주	305,434	391,183	85,749	28.07%
	대전	494,314	733,947	239,633	48.48%
	충북	289,532	407,476	117,944	40.74%
	전남	247,307	450,647	203,340	82.22%
감소지역	경북	472,302	657,803	185,501	39.28%
	인천	419,546	347,017	(72,529)	-17.29%
	경기	2,292,295	1,793,151	(499,144)	-21.77%
	강원	443,457	401,879	41,578	-9.38%
	충남	562,008	403,049	(158,959)	-28.28%
	전북	364,051	206,917	(157,134)	-43.16%
	경남	1,337,951	785,033	(552,918)	-41.33%
제주	160,849	55,886	(104,963)	-65.26%	
합계	10,032,927	10,687,778	654,851	6.53%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용도별	9월분	10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777,640	777,483	(157)	-0.02%
다세대주택	246,271	314,664	68,393	27.77%
연립주택	82,603	64,277	(18,326)	-22.19%
아파트	3,177,941	5,234,949	2,057,008	64.73%
근린생활시설	1,277,312	1,507,683	230,371	18.04%
종교시설	58,878	118,821	59,943	101.81%
의료시설	25,647	234,747	209,100	815.30%
교육연구시설	239,001	295,677	56,676	23.71%
업무시설	283,065	409,964	126,899	44.83%
숙박시설	34,723	42,671	7,948	22.89%
공장	854,626	859,803	5,177	0.61%
기타	712,816	827,039	114,223	16.02%
계	7,770,523	10,687,778	2,917,255	37.54%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0月分)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계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서울	2,791	3,013	2,036,561	110	123	254,722	0	0	0	2,901	3,136	2,291,283
부산	999	1,358	1,094,022	129	172	31,080	29	35	36,569	1,157	1,565	1,161,671
대구	495	578	561,931	406	434	29,600	22	22	9,305	923	1,034	600,836
인천	503	595	300,320	44	44	38,280	25	25	8,417	572	664	347,017
광주	281	358	365,558	75	87	20,053	10	10	5,572	366	455	391,183
대전	303	421	703,479	59	61	24,704	74	74	5,764	436	556	733,947
경기	1,221	1,562	1,619,733	174	200	137,387	51	51	36,031	1,446	1,813	1,793,151
강원	400	492	377,597	103	109	21,262	10	10	3,020	513	611	401,879
충북	512	646	279,014	106	138	33,041	27	46	95,421	645	830	407,476
충남	305	315	351,297	113	116	42,485	19	19	9,267	437	450	403,049
전북	276	296	161,219	87	88	36,081	7	7	9,617	370	391	206,917
전남	330	489	409,028	106	147	30,950	25	29	10,669	461	665	450,647
경북	448	616	525,517	162	204	124,006	21	24	8,280	631	844	657,803
경남	706	889	660,168	183	232	108,915	29	29	15,950	918	1,150	785,033
제주	110	118	49,069	53	53	6,817	0	0	0	163	171	55,886
합계	9,680	11,746	9,494,513	1,910	2,208	939,383	349	381	253,882	11,939	14,335	10,687,778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0月 合計分)

시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2,698	23,841	15,099,486	1,029	1,114	1,064,618	1	1	0	23,728	24,956	16,164,104
부산		11,210	14,453	7,893,735	1,364	1,725	423,330	427	479	289,702	13,001	16,657	8,606,767
대구		4,861	5,316	3,134,078	3,201	3,408	315,744	345	363	206,527	8,407	9,087	3,656,349
인천		3,721	4,931	3,938,476	331	336	216,523	215	218	87,259	4,267	5,485	4,242,258
광주		2,540	2,987	2,391,782	657	761	258,014	111	111	48,017	3,308	3,859	2,697,813
대전		2,843	3,417	3,889,154	502	529	259,913	703	731	242,719	4,048	4,677	4,391,786
경기		14,345	19,165	19,249,129	1,766	2,072	883,028	847	848	552,232	16,958	22,085	20,684,389
강원		4,776	5,615	3,094,391	1,055	1,212	355,874	157	160	37,008	5,988	6,987	3,487,273
충북		5,191	6,336	2,572,438	1,081	1,393	384,796	601	647	191,872	6,873	8,376	3,149,106
충남		3,709	4,021	3,148,313	1,143	1,169	395,835	222	241	128,149	5,074	5,431	3,672,297
전북		3,250	3,789	2,464,767	767	863	269,838	186	186	120,904	4,203	4,838	2,855,509
전남		4,170	5,285	2,965,837	1,100	1,434	378,827	251	277	74,988	5,521	6,996	3,419,652
경북		5,846	7,179	4,468,627	1,518	1,901	910,768	247	245	237,834	7,611	9,325	5,617,229
경남		8,701	10,691	6,260,323	1,800	2,444	896,125	351	356	196,557	10,852	13,491	7,353,005
제주		1,648	1,915	767,851	701	703	72,815	0	0	0	2,349	2,618	840,666
합계		99,509	118,941	81,338,387	18,015	21,064	7,086,048	4,664	4,863	2,413,768	122,188	144,868	90,838,203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0月分)

용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646	3,748	734,209	553	581	39,639	29	29	3,635	4,228	4,358	777,483
다세대주택		619	752	312,100	26	28	1,867	4	4	697	649	784	314,664
연립주택		50	58	63,989	1	1	288	1	1	0	52	60	64,277
아파트		154	1,181	5,162,654	9	17	49,777	4	4	22,518	167	1,202	5,234,949
근린생활시설		3,601	3,783	1,323,492	579	606	113,578	192	197	70,617	4,372	4,586	1,507,683
종교시설		96	119	95,825	44	55	22,304	2	2	692	142	176	118,821
의료시설		16	16	79,525	6	7	154,703	3	4	519	25	27	234,747
교육연구시설		61	99	200,619	62	77	92,468	9	9	2,590	132	185	295,677
업무시설		65	66	371,578	46	48	18,814	21	21	19,572	132	135	409,964
숙박시설		17	17	33,665	7	7	4,948	11	11	4,058	35	35	42,671
공장		421	705	505,173	234	364	240,103	28	52	114,527	683	1,121	859,803
기타		934	1,202	611,684	343	417	200,898	45	47	14,457	1,322	1,666	827,039
합계		9,680	11,746	9,494,513	1,910	2,208	939,383	349	381	253,882	11,939	14,335	10,687,778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0月 合計分)

용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44,015	45,923	7,724,852	5,840	6,164	435,504	446	450	39,683	50,301	52,537	8,200,039
다세대주택		4,529	6,100	2,241,874	236	242	25,646	43	47	7,590	4,808	6,389	2,275,110
연립주택		490	660	860,914	27	27	5,176	9	9	956	526	696	867,046
아파트		1,481	8,797	39,688,567	107	170	160,571	36	47	126,059	1,624	9,014	39,975,197
근린생활시설		32,273	33,841	11,780,340	4,937	5,210	950,446	2,381	2,424	862,865	39,591	41,475	13,593,651
종교시설		730	893	530,338	449	523	186,449	54	55	18,617	1,233	1,471	753,404
의료시설		68	71	247,685	83	102	294,373	22	23	17,715	173	196	559,773
교육연구시설		596	812	1,835,485	607	735	1,082,490	217	235	193,511	1,420	1,782	3,111,486
업무시설		974	1,097	3,719,491	447	485	318,467	211	217	213,161	1,632	1,799	4,251,119
숙박시설		186	195	374,622	97	104	68,056	85	87	120,810	368	386	563,488
공장시설		4,200	7,205	6,019,211	2,111	3,389	2,086,556	468	546	463,857	6,779	11,140	8,569,624
기타		9,967	13,347	6,315,008	3,074	3,913	1,472,314	692	723	348,944	13,733	17,983	8,136,266
합계		99,509	118,941	81,338,387	18,015	21,064	7,086,048	4,664	4,863	2,413,768	122,188	144,868	90,838,203



第 27 回 定期總會 開催



■ 정기총회전경

본 협회 제 27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418명중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운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전개에 따른 국내업계의 보호와 대외경

쟁력 확보라는 크나큰 과제뿐 아니라, 조사 검사 대행업무 확대 실시 및 감리업무 강화와 이에 따른 수가의 현실화 문제, 건설 기술관리법 문제, 건축사법 개정 추진 등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

고 말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기술선진화를 이룩하여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상열 차관보가 대독한 장관치사에서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활동범위인 건축기술과 예술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건축사 여러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 및 다카도시 이시카와 일본건축사협회 부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92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유인물로 대체하여 승인하고, 추대위원의 추대보고,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들은 후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 안에서 제7호의 안까지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일괄상정하여 부의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 안 : 93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 안 : 93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향후 1년간 연구소의 활동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 정기총회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적 구성이나 운영방법을 개편하는 조건부로 원안 승인
- 제4호의 안 : 93년도 전국건축사대회 특별회계 수지예산

제 27회 定期總會

開 會 辭

尊敬하는 유상열 차관보님과 徐廷華 國會建設委員長님!
그리고 公社多忙 하신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參席해 주신 來賓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각 市道 建築士會에서 새롭게 建築士會 任員과 代議員으로 선출되셔서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會員 여러분께 祝賀와 함께 歡迎의 뜻을 표하며, 協會發展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役割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親愛하는 全國 代議員 여러분!
本人이 2년전 遠大한 抱負와 꿈을 가지고 大韓建築士協會 會長이라는 重責을 맡으면서 急變하는 環境變化의 時代的 흐름에 副應하고 協會發展과 會員의 權益伸張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成果가 會員 여러분께 만족하리만큼 期待值에 副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아켜 볼 때 建築許可 規制 및 住宅建設 割當制로 인한 어려운 建築環境 속에서도 이의 撤回와 緩和를 위해 最善의 努力을 했음은 勿論, 建築法 및 同 施行令 全面改定, 單獨事務所 業務範圍 大폭 上向調整의 實現을 비롯한 年金 制度改善, 報酬料率現實化, 所得標準率引下 등 主要 懸案을 強力하게 推進하여 많은 基盤을 造成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보람과 어려움이 交叉되었던 時間이었습니다.

이 機會를 빌어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堪耐하면서 協會發展을 위해 聲援과 協調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會員들께 뜨거운 同志愛를 느끼며 眞心어린 感謝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代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對內外的으로 거센 挑戰에 直面해 있습니다.
開放化, 國際化時代 展開에 따른 國內業界의 保護와 對外競爭力 確保라는 크나큰 課題뿐 아니라 調査檢査代行業務 擴大實施 및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5호의 안 :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 안 : 93년도 건축사

연금 특별회계 수지에산안 승인

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 안 : 임원개선의 건

-임기를 마치게 되는 오운동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이 집행부를 이끌어갈 19대회장 선거에 들어가 강석준, 김규태, 이영희 회원이 입후보하여 정경발표에 이은 투표에 들어가 이영희 ((주)희림종합건축대표)회원이 1차투표에서 총투표자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여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이사 및 참여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신임회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키로 함에 따라 이영희 신임회장의 추천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성훈섭, 서정민, 박창호, 김기완회원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참여이사에는 안영준, 이경호, 정정치, 김독수, 최관영회원을 선임한 후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다.



■ 개회사를 하는 吳雲東會長



■ 건축사 회장을 낭독하는 한종인(갑사)



■ 신임임원 소개 광경



■ 공로패수여식 광경

監理業務強化와 이에따른 酬價의 現實化問題, 建設技術管理法 問題, 政府로부터 移管될 建築士 試驗 受任 問題, 建築士法 改正 推進 등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課題가 散積해 있는 實情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의 智慧와 結集된 力量이 要求되는 時期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時代的 요구에 우리는 能動的인 姿勢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思考를 바탕으로 制度改善과 技術先進化를 이룩해 나간다면 이 時期는 분명 跳躍을 위한 다시없는 絶好의 機會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舊態依然한 固定觀念에 이끌려 現實安住에 汲汲한다면 우리는 永遠히 衰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始作한다는 結緣한 覺悟로 이 어려운 時期를 극복함은 勿論, 未來指向的이고 健全한 建築士界 風土造成에 우리 모두의 슬기와 底力을 모아 우리의 힘을 다시한번 힘차게 분출합시다.

尊敬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總會는 우리 자신의 일을 協議하는 자리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築文化 發展의 方向을 摸索하는 귀중한 자리임을 銘心하시고 眞摯한 論議와 發展的인 意見開陳으로 有益한 成果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始終 會員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愛情어린 聲援을 時期해 마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來賓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感謝를 드리며,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하심과 家庭에 행운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갈음합니다.

大韓 建築士協會
會長 吳雲東

19대 회장에 李永熙 회원 就任



■ 신·구 회장 이·취임식 광경

본 협회 19대 회장에 李永熙 회원 ((주)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취임했다. 12월 14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기행된 신·구 회장 이·취임식에서 임기를 마치는 吳雲東 전임 회장은 「격변기에 회원 여러분

의 이해와 협조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에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는 이임인사가 있었다.

이어 있는 취임인사에서 李회

장은 「새 시대 새 협회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능동적인 자기 개혁으로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자」 전제하고, 「우리의 앞길에 산개한 불합리한 관 계법령과 관행의 개선은 물론, 협회발전을 가로막고 회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이나 부정도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성실하고 건전한

회원들이 일한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건축인으로서의 긍지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선진화된 건축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하고, 선거시 공약한 하나하나의 사안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신임 李회장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학력 및 약력

- 1938년 경북 경산생
- 1957년 경북 고등학교 졸업
- 196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1970년 회림건축설계사무소 개설 ~ 현재 (주)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1983년 대한건축사협회이사
- 1986년 한국건축가협회이사
- 1987년 서울시 건축사회 부회장
- 1988년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
- 1990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제 27회 定期總會

致 辭

오늘 大韓建築上協會의 제27회 定期總會에서, 吳雲東 會長님을 비롯한 전국의 建築士代議員 여러분과, 國會 建設委員會 徐廷華委員長님, 宋鍾奭 大韓建築學會 會長·張錫雄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그리고 日本 建築士聯合會 다카도시 이시카와 (石川勝敏) 副會長 등 內外貴賓을 모신 가운데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創立된지 4半世紀를 지나는 동안, 3千9百餘 會員을 包容하고, 그동안 어려운 業務 環境속에서도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暢達에 中樞의 役割을 훌륭히 遂行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衷心으로 임직원의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은 國民 모두의 生活과 生産活動의 터전일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文化的 尺度로서 後孫에게 물려줄 文化財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遂行하고 있는 建築設計와 監理業務 등 建築活動은 國民生活에 필요한 活動의 터전을 創造하고, 한편으로는 國民의 日常生活과 關聯되는 各種 法規와 制度의 運用과도 連結되며 또 한편으로는 그 時代와 그 나라의 文化水準을 기는 하는 建築文化 創造에 참여하는 藝術의 活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建築士 여러분의 活動範圍인 建築技術과 藝術의인 部門에 대하여는 建築士 여러분의 創意性이 최대한 發揮될 수 있도록 그 環境을 造成하고 自律性을 尊重하는 施策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政府는 그 동안, 國民과 建築士 여러분의 便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建築關聯法令 등 關聯制度를 不斷히 改善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建築法令을 全國적으로 改編하였고, 앞으로 建築士法令도 現實에 맞게 整備作業을 推進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全國에서 모신 建築士 代議員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땅에 建築文化를 暢達하기 위해 평소애 本人이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政治·經濟·社會 등 각 分野에서 先進化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大變革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의 成熟된 意識과 團合된 努力이 要求되는 時期입니다. 建築分野도 建築士協會를 中心으로 이와 같은 變化에 副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一部에서는 違法建築이 根絶되지 않고 行政秩序를 紊亂케하는 일이 종종 發生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新任任員

監事



金梧培
30년 11월 5일생
66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9년 서울건축사 신용조합 이사장 역임
신용협동조합 서울 연합회 감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성미·무림 대표



朴昌浩
37년 11월 25일생
62년 홍익대 건축과 졸업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스페이스5 대표

理事



徐廷琨
37년 2월 14일생
63년 전남대 건축과 졸업
90.10~92.10 광주건축사회 회장 역임
건축사사무소 동양 대표



成勳堂
38년 4월 18일생
63년 부산대 건축과 졸업
90.11~92.10 부산건축사회 회장 역임
(주)태평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여러분은 國家로부터 建築物의 設計·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受任받고 계시는 公人의 立場에서 建築行政 遂行의 同業者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위와 같은 建築不條理와 不法建築物의 根絶에 앞장섬으로써 建築行政秩序를 바로 잡는데 서로 힘을 모아 先導的인 役割을 다하여 주실 것을 當否드립니다.

둘째, 昨今の 世界 政治·經濟는 그 變化와 發展의 速度를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經濟統合과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에 의한 世界經濟構造의 變革은 우리에게 많은 挑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市場開放에 따른 建築設計分野의 自生力 確保와 國際競爭力 向上을 위한 技術開發은 急先務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政府次元에서도 國內業界의 保護와 育成을 위해 多元的인 努力을 講究하고 있습니다만, 政府의 役割만으로는 이에 效率的으로 對處하는데 限界가 있으므로, 協會를 求心點으로 한 建築士 여러분의 不斷한 努力이 優先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建築士여러분의 高度의 專門教育을 履修하고 長期間 實務經歷을 쌓아 國家가 認定하는 榮譽스런 資格을 取得한 분들 이므로, 國民이나 政府는 여러분에 대하여 期待가 큰것도 事實입니다.

또한, 앞으로 建築物은 國民의 높은 所得向上과 더불어 生活에 더욱 便利하고 快適하며 審美的인 美觀을 重要시하는 趣向으로 轉換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國民의 期待와 時代의 흐름에 副應하여, 여러분께서는 謙虛한 省察과 自己發展을 통하여 高度의 專門職業人으로서의 品位와 位相을 높이고 이나라 建築文化 發展을 先導하는 새로운 建築士像의 定立에 倍前의 努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大韓建築士協會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 選出되는 會長을 비롯한 任員陣을 求心點으로 새時代에 副應하는 建築專門職能團體로서 莫重한 使命感을 가지고 우리나라 建築文化 發展에 先導的인 役割을 다하여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임기간동안 政府施策에 積極協助하여 주시고 많은 業績을 쌓으신 吳雲東 會長님의 獻身的인 勞苦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大韓建築士協會의 無窮한 發展과 建築士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하면서 致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11. 27

建設部長官 徐 榮 澤



金基完
41년 12월 12일생
64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4년 연세대 산업대학원 졸업
김기완 건축사사무소 대표



李京鎬
38년 3월 15일생
68년 한양대 건축과 졸업
본 협회 복지위원회 위원
서울건축사회 성동분회 회장
(주)제일건축사사무소 대표

參與理事



安永瀟 (유임)
37년 7월 5일생
62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본 협회 전산위원회 위원장
삼대건축사사무소 대표



金得洙
41년 2월 11일생
65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이사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제 27회 定期總會

祝 辭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제27회 定期總會에 본인이 이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韓國建築家協會 전여 회원의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건축계는 제도적 모순과 개방의 압력등으로 말할 수 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본회 吳雲東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高度 産業 社會를 거쳐 尖端 情報化 社會로 진입하는 國際化時代에도 우리 建築人들이 추구하는 참다운 건축과 아름다운 환경의 의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文化的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建築人의 本分이라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각오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겠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우리 建築界 3단체가 相互 協力과 補完關係로 더욱 힘을 모아 오늘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겠고 이에 建築人이 社會에 보답하고 책임을 지는 풍토를 가지므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建築은 그 時代의 遺物”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인사말을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7일
한국 건축가 협회
會長 張 錫 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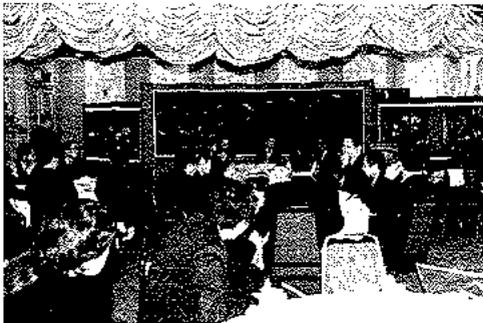


崔寬泳
41년 12월 29일생
62년 서울대 건축과 졸업
79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본 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鄭正治
43년 6월 3일생
68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본 협회 홍보·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
건축사사무소 합정대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광경

본 협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초동소재 진로유통 13층 서경에서 서정화 국회건설위원회장을 초청,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 협회 회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 및 서울건축사회 회장과 임원, 서울지역 분회 회장, 경기, 인천 건축사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서울 건축사 복지회 임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해제, 주택물량 할당제에 따른 해제 등 현안 건축관련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는 등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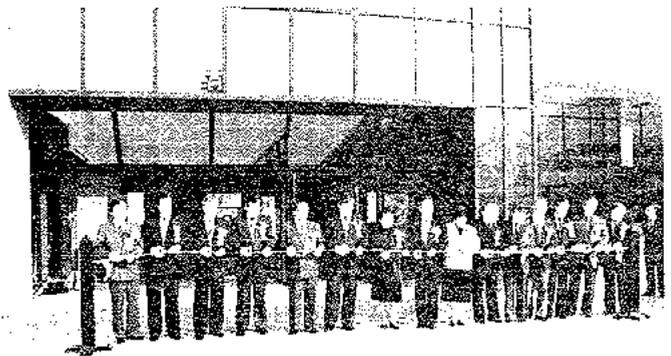
제27회 정기총회 후원업체

지난 달 27일에 있었던 본 협회 제 27회 정기총회에 기념품(계산기)을 협찬하여 주신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주)

금강, (주)벽산, (주)이건창호시스템, 주택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建築界 消息

제1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개최



■ 개막식 테이프 절단식 광경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장석웅)가 주최하고 본협회와 대한건축학회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후원한 제11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이 12월 4일 (금)부터 20일 (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전은 '한국의 주거문화'라는 주제의 특별기획 전시회와 건축비디오쇼, 건설업체 및 자재업체 전시 등 '92건축가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협회상 및 일반 공모부문 수상작이 전시되었다.

◆ '92건축가 협회상

- (고)김수근 / 벽산 125빌딩
- 김 원 / 통일연수원
- 김종성 / 경주힐튼호텔 및 선

재미술관

- 승효상 / 성북동 주택
- 오기수 /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 윤승중 + 변 용 + 민현식 / 일산 방직사옥
- 이종호 + 양남철 / 을지로교회

◆ 일반공모부

- 대상
- '반도시'라는 도시 / 김혜경
- 우수상
-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중간영역 / 안경두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그룹, 자유, 그리고... / 윤영열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등 (청주시 중앙로 거리계획) / 손영호

4·3그룹 건축 전시회 개최

4·3그룹에서는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12월 12일 (토)부터 24일 (목)까지 동송동 인공갤러리 전시장에서 심포지움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했다.

참가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박재환 - 歸航, 김병운 - 건축적 탐구, 김인철 - 超空間의 의미,

도각 - 파동의 각, 동정근 - 상징 체계를 찾아서, 민현식 - 비움, 방철권 - 同字異意, 백문기 - 미로, 승효상 - 貧者의 건축, 우경국 - 關係項, 이일훈 - 聖, 俗, 道, 이성관 - 지상43미터의 家像, 이종상 - 말죽거리, 조성룡 - 도시의 풍경

任기를 마치며

親愛하는 全國의 會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大韓建築士協會 27年 歷史의 한 章을 마무리하고 새 章을 여는 歷史的 位置에 서 있습니다.

스물일곱 해의 歷史속에 오늘과 같은 안팎의 도전은 그 類例를 찾기 힘든 狀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모두가 키운 「希望의 나무」는 굳건한 뿌리를 大地속에 댄어 이제는 어떠한 바람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年의 任期동안 公人의 位置에서 微力하나마 協會發展과 會員의 權益伸張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저의 生涯중 가장 보람된 時期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럴때마다 會員 여러분의 理解와 協調로 大過없이 이렇게 任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많은 고비들이 바로 우리가 目標한 問題解決을 위해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努力의 한 課程이었음을 깨닫게 되며, 이 제는 感謝함으로 가득합니다.

任期동안 제가 建築界에서 切實히 느꼈던 事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會員여러분께서는 現 상황을 危機狀況으로 認識하고 새로운 自己改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사셨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建築士業務領域에 대한 外部의 挑戰은 물론, 業域의 縮小 現象이 加重되고 있습니다. 또한 社會的으로도 建築士에 대한 不信과 不滿이 高潮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하나 마음 편히 安住할 곳이 없습니다. 남을 不平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模襲을 自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狀況을 自招하지는 않았나 反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現實의 克服은 이러한 自己省察에서부터 비롯되어 果敢한 改革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現實安住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領域은 점점 縮小되고 社會的으로도 우리의 位相은 그 存在價値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이런 現實의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우리는 現實로 다가오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市場開放 問題도 疏忽히 할 수 없는 實情입니다.

現 時點에서 建設部門의 市場開放에 따라 國內業界에 미치는 影響을 不安하고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國際經濟力 培養과 海外建築에 相對的으로 疏忽히 해왔다는 것을 反證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經濟는 世界經濟를 構成하는 하나의 작은 經濟로서 世界 속에서 外國과 별다른 摩擦없이 살아가려면 많은 좋은 간에 "競爭과 效率" 이라는 두 基準에 따라 運轉되는 世界經濟秩序에 適應해야 합니다.

너욕이 우리처럼 對外依存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世界經濟에서 孤立되지 않으려면 國際化時代에 걸맞는 對應策을 摸索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政策的으로 建設部門 投資擴大와 育成, 發展을 위한 特別法 制定은 勿論이거니와 우리 建築界 次元에서도 長期的 眼目에서 可能한 資源의 많은 部門을 持續的인 技術開發에 集中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國際化, 開放化 時代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唯一한 原動力이라 할 수 있습니다.

會員 여러분!

그동안의 많은 일들이 協會發展과 會員의 權益伸張 次元에서 推進되어 큰 進展을 보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미 終決되어 有終의 美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次期會長의 所管으로 옮기게 될 것들은 業務성격상 終決되지 못한 것들이며, 그렇다고 그 어느하나 疏忽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처럼 큰 보람을 안고 名譽롭게 退任하게 되기까지 歷代 會長任을 비롯한 任員, 市·道建築士會의 協調는 勿論, 뒷전에서 默默히 일해준 事務處 職員여러분의 勞苦가 至大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協會 일이라면 事務所 일을 뒤로하고 率先하여 앞에 나서 주셨던 任員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끝으로, 제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聲援에 다시금 感謝드리며 새로 就任하시는 李永熙 會長任을 비롯한 새로운 執行部에도 변함없는 聲援으로 協會가 持續的으로 發展해 나가기를 期待합니다.

여러분 모두 健康하시고 기쁨과 보람이 充滿한 生活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離任人事에 代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12. 14
吳 雲 東

밖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티없이 맑고 투명함

막유리
판유리

맛진 색상과 아름다운 영상을 연출하는

색유리 선세이드 파스텔유리

슬라가드 곡유리 스파드러유리

에너지 절약과 소음 차단에 탁월한

로이유리 보츠유리
복유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맑고 깨끗하여 더욱 감동 유리대리석

마블라이트

목충유리 제스용 접착제

PRC-428H SM-4000H

유리보완 신소재 풀리카보네이트

렉산

안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아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무늬유리 새뮤르유리

빛과 인전이 함께 요구되는 곳에

파이로가드 켈망유리

조명, 의학, 전자, 아화학용 원자재

글라스메이트 | **소다칼유리** **벌브유리**
글 | **복규산유리** **연유리**

보온 보냉 단열 흡음용 유리섬유

하니스 매트 매트 파이포카마
보드 이글루 박멜라매트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유리섬유 천정재

하니스톤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다층구조의 유리필터

스톱파

보이는 곳에도 "한글라스"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한글라스"

저희 회사나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본사 / 02-785-0311(경인영업팀)

대전영업소 / 042-621-4538, 광주영업소 / 062-525-9711, 대구영업소 / 053-425-1241

부산영업소 / 051-462-0311, 영동출장소(강릉) / 0391-647-1851

"유리"하면 "한글라스"
만큼

HANG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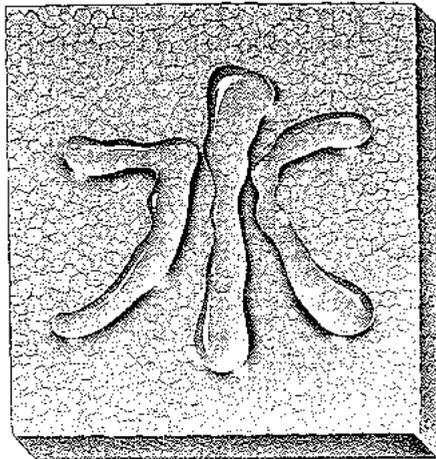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건축용 단열재—

청색스치로폴이 좋은 3가지 이유!

단열재의 생명인 내수성이 가장 뛰어난 스킨로폴—
건축용 단열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청색을 확인하십시오!



물에 강하다!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면 단열효과가 없어집니다. 좋은 단열재는 물을 흡수하지 않고 오래두어도 벽체나 시공부위가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건물을 열고 재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킨로폴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내수성이 뛰어난 반영구적 단열재입니다.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습기나 물의 차단성이 특히 우수한 건축용 단열재입니다.

2 압축강도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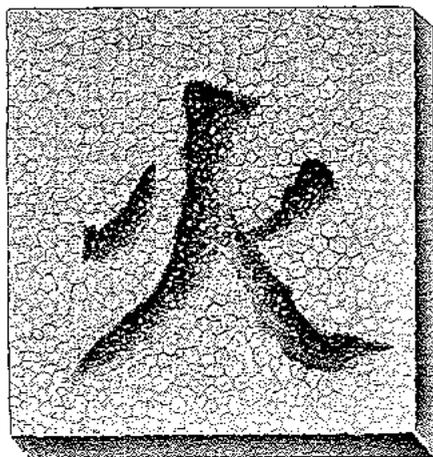
한남화학의 청색스치로폴은 만져보면 단단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우수하며 압축강도는 설계 적재하중보다 60배 정도 높은 단열재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바닥이나 옥상 등 높은 적재하중이 요구되는 부분의 단열시공에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절단도 용이하여 가공 및 시공도 아주 편리합니다.



3 불이 스스로 꺼진다!

국내 최초로 UL 난연시험에 합격하여 UL94HF-1 등급으로 그 성능을 인증받은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 불이 붙었다가도 화원만 제거해 주면 3초 이내에 자기 스스로 불이 꺼지는 자기소화성 단열재입니다. (KS M3808 규격)

'89 품질관리대상 수상



청색 스킨로폴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676-114